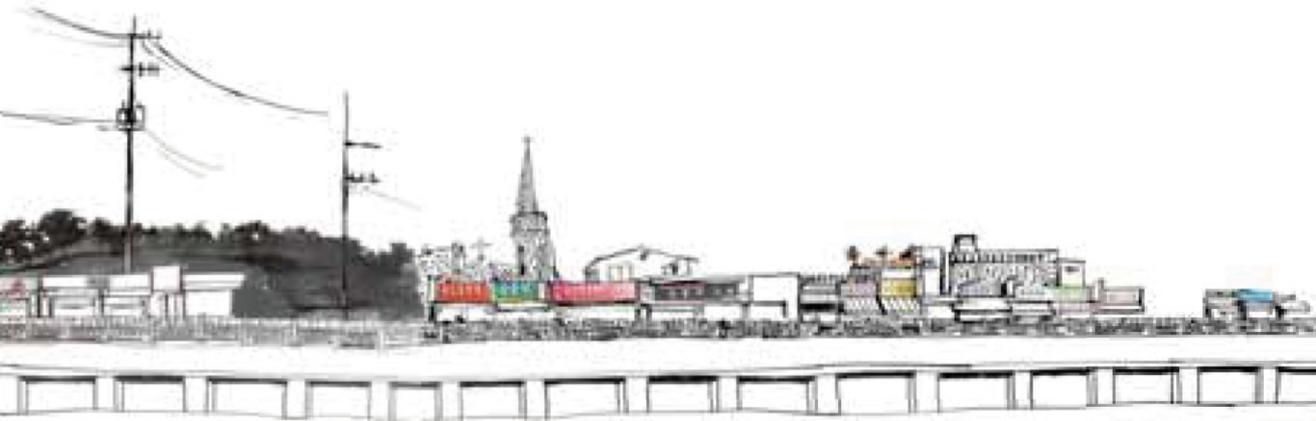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수원시사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수원시사편찬위원회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수원시사 11

##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 일 | 리 | 두 | 기

###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Contents

일러두기

## 1 '수원 인물', '수원 토박이' 그리고 '수원 사람'

### 01 '수원 인물' 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김정인



1.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수원 인물' / 11
  - 1) 읍지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 11
  - 2)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가 선정한 '수원 인물' / 17
2. 일제시기 일본인이 뽑은 '수원 인물' / 21
  - 1) '수원'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 21
  - 2) '수원'이 선정한 조선인 인물 / 23
3. 1960년대 '수원 인물' / 27
  - 1) '수원의 역정'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 27
  - 2) '수원의 역정'에 실린 주요 '수원 인물' / 46
4. 1990년대 향토지 속 '수원 인물' / 61
  - 1) '수원시사'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 61
  - 2) '수원시사'가 선정한 주요 '수원 인물' / 71

### 02 '수원 토박이' 가 말하는 '수원 사람' 의 경계 윤택림

1. '수원 토박이' 와 '수원 사람' 의 경계 / 80
  - 1) "수원군부터 조상이 살아온 사람들은 다 수원 토박이" / 80
  - 2) "부모님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토박이" / 83
  - 3) "수원에서 삼십 년 이상은 살아야 토박이" / 85



- 4) "수원에서 태어났으면 수원 토박이" / 88
- 5) "수원에 들어왔으면 그게 다 수원 사람" / 89
- 2. 토박이 경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 92

### 03 수원의 지역성과 '수원 사람'의 정체성

윤택림

- 1. 수원 토박이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의 기질 / 99
- 2. 이주민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 되기 / 108
- 3. '수원 사람'은 누구인가? / 117
- 4. '수원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 120

## 2

### 사회 변동과 토박이의 생활

#### 01 수원 토박이들의 삶과 재래적 사회질서

안승택

- 1. 모순인 듯 공존하는 양면적 정체성 / 131
- 2. 토박이사회가 가졌던 공동체적인 모습 / 140
- 3. 재래적 공동체의 기반에 놓인 불평등 구조 / 154
- 4.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도 공동체일 수 있었던 이유 / 163

#### 02 가속화하는 근대화와 수원 토박이들의 대응

안승택

- 1. 위기이자 기회였던 근대화시기 수원의 변화 / 173



- 2. 근대화시기 재래문화논리를 활용한 토박이들의 대응 / 189
- 3. 토박이들의 문화적 실천 \_ 전근대에서 근대로, 다시 탈근대로 / 203



### 03 오늘날의 삶과 변화상에 대한 수원 토박이들의 인식 안승택

- 1. 개발의 결과 생채기로 남은 삶의 단층들 / 215
- 2. 수원다운 색깔은 어디에 ..... / 225
- 3. “발가벗고 팔십 리를 뛰는 수원 깎쟁이”를 넘어서 / 233

# 3

##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 01 '성안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김현미

- 1. 수원의 중심, 성안 / 243
- 2. '가진 자'들의 공간, 성안 / 247
- 3. '호호부실(戶戶富實) 인인화락(人人和樂)'에서 '복수리 아리랑'으로 / 252
- 4. 복수동 113번지 주영식 일가 / 256
- 5. 복수동 사람 주덕수 / 261

### 02 수원 지역 종친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윤택림

- 1. 수원의 동족마을의 형성과 특징 / 271

2. 수원 지역 종친회 상황 / 276
3. 종친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 282
4. 종친회 토박이들의 정체성 / 287
5. 종친회 토박이들의 토박이 의식 / 293

### 03 수원 지역 청년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윤택림

1. 수원청년회의소의 역사 / 306
2. 지역경제와 수원청년회의소의 결합 / 319
3. 수원청년회의소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 325
4. 수원청년회의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 332

### 04 수원 지역 동문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윤택림

1. 수원 지역 학교들의 지형도 / 342
2. 지연과 학연의 결합 / 352
3. 동문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 364



참고자료 / 370  
집필위원





# 1 '수원 인물', '수원 토박이' 그리고 '수원 사람'

수원은 전통적으로 당색(黨色)이 열린 개방성을 지닌 지역이다. 그림에도 토착성은 강한 다소 모순적인 얼굴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원이 낳은 '큰' 인물은 많지 않지만, 수원이라는 토착적 풍토 안에 다양한 개성을 녹여 낸 '수원 인물'은 넘친다. 조선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작된 향토지가 '수원 인물'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훑다 보면, 거기에도 개방성과 토착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



1.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수원 인물
2. 일제시기 일본인이 뽑은 '수원 인물'
3. 1960년대 '수원 인물'
4. 1990년대 향토지 속 '수원 인물'

김 정 인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 01 | '수원 인물' 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수원은 전통적으로 당색(黨色)이 얽은 개방성을 지닌 지역이다. 그럼에도 토착성은 강한 다소 모순적인 얼굴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원이 낳은 '큰' 인물은 많지 않지만, 수원이라는 토착적 풍토 안에 다양한 개성을 녹여 낸 '수원 인물' 은 넘친다. 조선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작된 향토지가 '수원 인물' 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좇다 보면, 거기에도 개방성과 토착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간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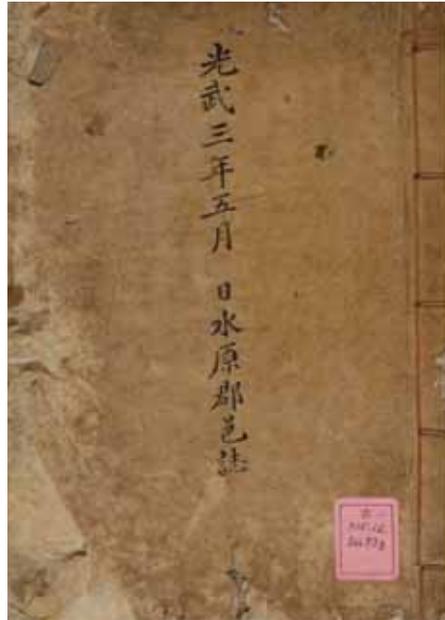
## 1.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수원 인물'

### 1) 읍지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수원부읍지』는 1791년(정조 15)에 제작된 지리지이고, 『수원군읍지』는 1899년(광무 3)에 제작된 지리지이다. 『수원군읍지』는 『수원부읍지』를 근거로 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원 인물' 선정 방식과 분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수원부읍지』에서는 '수원 인물' 을 인물·효자·충신·효부(孝婦)·열부(烈婦)·충노(忠奴) 순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효자 → 충신 → 효부 → 열부 → 충노 순의 배치는 충보다는 효를 더 강조하고, 남녀 간 차별 의식과 신분 간 차별의식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 표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첫째, 인물편에는 주로 과거 등을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인물을 선정하여 실었다. 고려 인물로는 과거급제자인 최자성과 수원 최씨의 비조인 최영규 단 두 사람만이 선정되었고, 조선의 인물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 조선의 인물(56명)

공서린, 이광식, 최희, 최천건, 유계, 임지제, 손탁, 장세걸, 유몽룡, 유찬선, 이지언, 최덕인, 김우추, 김대건, 김채건, 김성, 김하중, 전봉, 이대근, 원승선, 권정길, 최응일, 최종두, 최동로, 형협, 오대남, 정탁, 정척, 박응신, 최만득, 류세웅, 이우현, 최정현, 정한기, 이탁남, 오도홍, 김양서, 최천인, 이계관, 김대홍, 이득남, 김계남, 김축남, 김기축, 이응춘, 정추, 조현경, 조복경, 이동현, 이동암, 이동욱, 기만현, 최승제, 최항제, 김준용, 김우상

『수원부읍지』에 실린 조선의 인물 56명은 과거 급제를 통해 중앙 관직에 등용된 관리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최초로 문과 급제를 한 사람은 손탁이었다. 수원의 경우 문반이 더 많기는 했으나, 무반으로서 관직에 진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반으로 명기된 인물만 26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앙 정계에 진출한 문반과 무반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은 수원인들이 문(文)만을 강조하고 숭상하는 문화 풍토가 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평생 지조 있는 처사로서 살아간 인물들도 선정되었다. 행적으로는 전공(戰功)도 중시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2명과 병자호란에서 공을 세운 9명이 인물편에 선정되었다. 이괄의 난에 공을 세운 인물도 뽑혔다.



『수원부읍지』 인물조

둘째, 효자로는 고려의 최루백과 함께 조선의 인물 12명이 선정되었다. 전형적인 효행이라 할 수 있는 단지(斷指)를 통한 부모의 병 치유 사례가 7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 효자(13명)

최루백, 최세호, 한몽송, 박시형, 이봉현, 홍여석, 이시구, 배홍중, 윤필명, 박재만, 고경천, 한슬매, 김취징

셋째, 충신에는 한명윤과 윤정준 두 사람이 선정되었다. 한명윤은 임진왜란 당시 상주목사에 임명되어 의병을 거느리고 왜적을 토벌하였고, 윤정준은 이괄의 난 당시 지조를 지킨 인물이었다.





열녀(10명)

밀양 박씨, 함안 이씨, 나주 박씨, 용인 이씨,  
용인 이씨, 안산 이씨, 충주 김씨, 순흥 안씨,  
연안 이씨, 수원 최씨

여섯째, 충노에는 주인을 위해 3년상을 치른 이만만이 선정되었다.

한편, 『수원부읍지』에는 「부사선생안」이 있어 1576년(선조 9)부터 1793년(정조 17)까지 수원부사를 지낸 인물 194명의 명단이 문·무·남반 여부 및 부임과 체직 일자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수원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편에는 문반과 무반의 비율이 비슷했던 것에 비해 중앙에서 임명하는 부사의 경우는 46명만이 무반 출신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반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수원군읍지』가 선정한 인물은 『수원부읍지』와 대동소이하지만, 100여 년간 세월을 반영하여 변화된 부분도 있다. 먼저, 선정된 인물의 배치가 인물, 충신, 효자, 효부, 열녀 순으로 바뀌었다. 근대국가 수립에 나서 국민 창출에 노력하던 대한제국기 충군애국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충신이 효자에 앞서 배치되어 있다.

첫째, 인물에서는 『수원부읍지』와 마찬가지로 최자성과 최영규를 고려의 인물로 선정했으나, 조선의 인물 선정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다. 『수원부읍지』에 등장한 56명 중 반 이상이 제외되고, 유찬광과 김천용이 추가되어 총 25명이 선정되었다. 이 중 18명이 무과에 합격하거나 병자호란 등에서 공을 세우는 등 무풍(武風)이 강한 인물들이다. 즉 『수원부읍지』의 문반적 성향의 인물들이 『수원군읍지』 단계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이는 화성 건설 이후 수원이 갖고 있는 군사 전략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원군읍지』에 실린 충신과 충노, 효자



#### 조선의 인물(25명)

공서린, 최희, 최천건, 유계, 임지제, 장세걸, 유몽룡, 유찬광, 이지언, 최덕인, 이대근, 원승선, 권정길, 최응일, 정탁, 유세웅, 최정현, 정한기, 이계관, 이득남, 김채건, 김계남, 김축남, 김천용, 김우상

둘째, 충신으로는 『수원부읍지』가 선정한 충신 한명윤, 윤정준과 충노 이만만을 아울러 선정하였다. 신분 해체의 대세를 반영하듯 충노가 충신의 반열에 오른 점이 주목된다.

셋째, 효자로는 고려의 최루백, 그리고 조선의 효자 19명이 선정되었다. 『수원부읍지』에 실린 효자 외에 새로이 10명이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인물 모두는 주로 단지(斷指) 혹은 변을 맞보는 극진한 병간호를 한 사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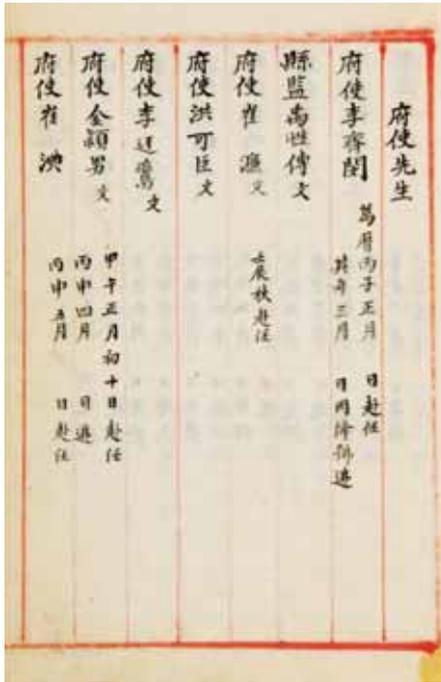
#### 효자(20명)

최루백, 최세호, 한몽송, 이봉현, 홍여석, 이명귀, 배홍중, 윤필명, 박재만, 고정천, 한슬매, 윤형로, 최도문, 최수복, 김성열, 송인상, 최종술, 신사하, 최정린, 장용현

넷째, 효부에는 『수원부읍지』가 선정한 수성 차씨, 함양 박씨, 안동 김씨 외에 변을 맞보고 단지를 하며 병간호를 한 윤씨가 추가 선정되었다.

다섯째, 열녀에는 『수원부읍지』가 선정한 10명 외에 홍씨, 밀양 박씨, 기계 유씨 등 3명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모두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사례로, 수절의 경우는 역시 선정되지 않았다.

한편 『수원군읍지』의 「부사선생」조는 『수원부읍지』의 「부사선생안」조와 동일하다. 또한 『수원군읍지』에는 『수원부읍지』에는 없는 「유수선생」, 「관찰」, 「관관선생」, 「군수선생」조들이 실려 있다. 「유수선생」조에는 1873년 수원에 유수부가 설치된 이후, 초대 유수인 채제공부터 시작되는 유수 83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마지막 유수인 조병직은 1894년에 부임하였다. 「관찰」조에는 군이 설치된 이후 1896년에 관찰사로 부임한 오익영부터 1901년 윤태홍에 이르기까지 모두 6명의 관찰사 명단이 실려 있다. 「관관선생」조에는 1793년 관관이 설치된 이후 1895년까지 관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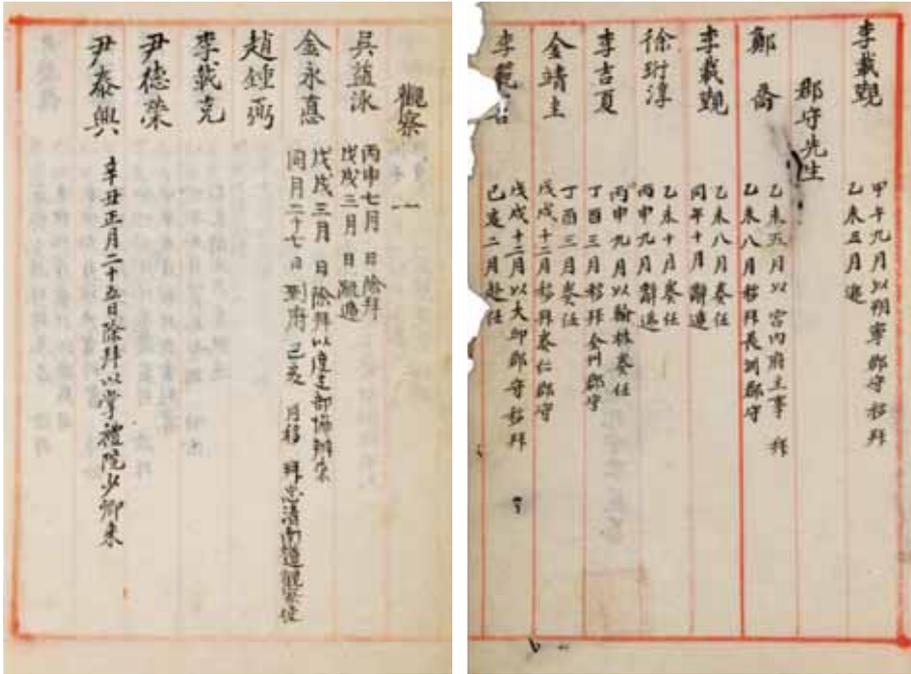
『수원군읍지』에 실린 '부사선생'과 '유수선생'

재직한 64명의 명단과 함께 부임과 체직 일자가 적혀 있다. 「군수선생」조에는 1895년부터 1899년까지 수원에 부임한 군수 6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비록 수원 태생은 아니지만 수원과 인연을 맺은 중앙 정계의 인물을 널리 알리는 것은 화성 건설 이후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수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시 흐름과 맞닿아 있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가 선정한 '수원 인물'

여기서는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인물조, 충신조, 효자조, 효부조, 열녀조별로 각각 대표 인물을 선정하여 『수원군읍지』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단, 인물조에서는 문반과 무반에서 각각 대표 인





『수원군읍지』에 실린 「관찰」과 「군수선생」

물을 선정하였다. 서술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다.

(1) 수성 차씨(隋城 車氏)

정로위 김복량의 처이다. 선조 임진왜란 때 남편이 의병으로 출전하려 하자 차씨는 그 남편에게 청하여 등을 물들여 검게 만들었다. 남편이 전사하자 많은 시신 가운데서 물들인 흔적으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내 장례지내고 죽으로 3년을 지냈다. 시부모를 모시고 섬으로 피난 가서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정려가 내려졌다.

(2) 이만만(李晚萬)

충장공 남연년의 종이다. 1728년(영조 4) 청주의 난 때 충장공이 적을 꾸짖으며

순절하니, 이만만이 주검을 안고 통곡하며 적장에게 애걸하여 시체를 옆해 북쪽 성곽 밖에 거두었다. 난이 평정된 후 음성에 장사를 지내고 3년 동안 곡읍하며 상을 마친 뒤 돌아갔다. 1784년 정조가 정문을 내렸다.

### (3) 정한기(鄭漢驥)

1637년에 용력(勇力)으로 선발되어 8장사의 한 명으로 소현세자를 배종하여 심양에 갔다가 돌아왔다. 관직이 충청수사에 이르렀다. 소년 시절에 일용면 송죽리에서 활쏘기를 했다. 이곳 활쏘는 곳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높이가 3~4장이 되었다. 정한기가 언덕머리에서 몸을 날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곳이라 하여, 그 언덕을 정수시등신안(정한기 충청수사가 몸을 날리던 언덕)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박형, 최정현과 함께 놀면서 손을 돌절구 속에 넣어 주먹으로 들어올렸는데, 최정현은 따라 했으나 박형은 이를 하지 못하여 부끄럽다면서 주먹으로 돌절구 바닥을 깨손으로 꿰어 들어올렸다고 한다. 세 사람이 일찍이 힘을 겨룰 때에 사방으로 한 길 되는 돌을 모두 손바닥 위에서 능란하게 움직였다.

### (4) 최루백(崔樓伯)

고려 때 사람으로 수원의 향리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최상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는데, 이때 최루백의 나이 15세였다. 그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를 말렸다. 최루백은 “아버지의 원수를 아니 갚을 수가 없다.”고 하며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쫓아갔다. 이때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어 버린 뒤 누워 있었다. 최루백이 앞으로 나아가며 “네가 나의 아버지를 먹었으니 나는 마땅히 너를 먹으리라.”고 하자,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렸다. 급히 도끼를 찍어 호랑이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뼈를 찾아 흥법산에 장사하고 3년을 시묘살이를 했다. 이 일이 『오륜행실도』에 실렸고, 정려가 내려졌다.



『오륜행실도』에 실린 최루백의 효행

(5) 최희(崔禧)와 최천건(崔天健)

최희는 개국공신 평도공 최유경의 6세손으로 명종조에 진사로 급제하였다. 1594년(선조 26) 성영격이 광주부를 임시로 맡고 있을 때 선정릉이 도적을 맞는 변을 당하였다. 최희가 지알(祗謁)하여 통곡하고, 봉안 수직하며 곧 달려가 보고하니 임금께서 칭찬했으며 후에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그의 아들 최천건은 21세 때 진사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시 본부윤(本府尹)으로 차출되었는데 공무를 처리하는데 막힘이 없어 “최희는 아들을 잘 두었다.”고 모두 부러워하였다. 진주변무사로 두 차례 명나라에 왕래하였다. 인조는 조신 중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칭찬하였다. 관직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6) 함안 이씨(咸安 李氏)

침정 이지수의 처이다. 병자호란 때 머느리나주 박씨, 용인 이씨, 손녀 용인 이씨

를 데리고 섬으로 피난했다가 적병의 욕을 피하여 네 여인이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모두에게 정려가 내려졌다.

## 2. 일제시기 일본인이 뽑은 ‘수원 인물’

### 1) 『수원』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일제시기 수원의 인물을 다룬 대표적인 향토지는 『수원』이다. 당시 수원군은 오늘날 수원, 화성, 오산 등지를 포함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수원』은 일제시기 수원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저자는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란 일본인이다.

사카이 마사노스케는 1885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출생하여, 1918년 주오(中央)대학을 졸업하였다. 1910년 조선으로 건너와 소송대리업, 조선신문사 수원지국장, 수원학교조합회 의원, 수원실업협회 법률고문,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 신도현인 회장, 수원독서회 주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미 1914년 『발전하는 수원』, 1915년에 『화성지영(華城之影)』을 발행한 바 있었다. 이 두 책을 바탕으로 1923년에 저술한 것이 『수원』이다. 『수원』의 저술 목적은 일본의 수원 통치, 나아가 조선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

『수원』에서는 부록으로 ‘수원과 사람’이란 항목을 두어 수원의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수원』 서문에 따르면 이 항목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은 “저자의 마음과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현재 수원의 중심인물 가운데 차별 없이, 나의 관견(管見)에 따라” 선정된 것이었다. 이 항목의 주인공들은 재조 일본인 유지들과 조선인 유지들이다. 무엇보다 이 항목은 당시 수원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선정된 인물 61명의 경력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료로는 수원군의 군수·서무과장·축산과장·재무과장·권업과장, 수원면의 면장 및 상담역, 정총대(町總代), 수원신사씨자(神社氏子)총대, 수원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상석





『수원』 표지

판사, 경부선 수원역장, 이왕직수원목장 주임, 소방조의 조두(組頭), 권업모범장의 장(長)·기사·기수, 잡업시험소 소장 및 기사, 여자잡업강습소 소장, 수원국유보안림보호조합장, 수원역전우편소장, 그리고 경기도 평의원 등이 선정되어 실려 있다. 교육계 인물로는 다섯 명에 달하는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 외에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장·학무위원,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교장, 수원학교조합회 관리자 및 의원 등이 선정되었다. 금융계에서는 수원도시금융조합 상무이사 및 평의원, 주식회사 식산은행 수원지점장, 수원금융조합의 조합장 및 평의원,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이 선정되었다.

이 중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가장 많은데, 기업인으로는 동산농사주식회사 취체역, 수원인쇄주식회사 전무취체역, 주식회사 부국원(富國園) 취체역 및 영업과장, 수원상사주식회사 취체역, 수원양조합자회사 대표사원,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 등이 선정되었다. 자영업자로는 수원정미소 소두(所頭), 미곡상, 창고업자, 치과의사, 과수원 및 양계사업자, 여관업자, 토목건축청부업자, 양복업자, 잡화상, 소송대리업자, 용달상, 운송업자 등이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이들 상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수원실업협회의 경우에는 회두·부회두·상당역·평의원·법률고문 등이 망라되어 소개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수원요리점조합 조합장도 선정되었다. 언론인으로는 경성일보사 수원지국장, 조선신문사 수원지국장이 선정되었고, 이 외에도 경기도립 자혜의원 원장, 수원독서회 주사, 수원동본원사(東本元寺) 주임, 제국재향군인회 수원분회장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은 1923년 당시 수원의 일본인 유지를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을 볼 때, 1910년 국망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수원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은 일본인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민족으

로서의 일본인과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조선인의 구분이 확연한 지역사회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향토지가 내세우는 ‘수원 인물’은 조선이나 대한제국기의 지리지에서 등장하는 ‘과거’의 ‘수원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수원 인물’이라는 점이다.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수원의 권력자, 즉 유지를 중심으로 ‘수원 인물’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한 시기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자 일본인의 입장에서 과거는 곧 국망 이전의 조선을 의미하므로 과거로부터 ‘수원 인물’을 추출할 수는 없다. 지배자로서의 일본인의 확고한 지배력과 응집력을 보여 주기 위해 일본인을 중심으로 오늘의 ‘수원 인물’을 선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 2) 『수원』이 선정한 조선인 인물

『수원』에 실린 61명 중 조선인은 3명이다.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인 교육계의 윤태중(尹泰重), 수원전기회사 취체역으로 있는 실업계의 양성관(梁聖寬),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인 금융계의 한상봉(韓相鳳) 등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수원의 주요 행정관료 중에 조선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무렵 지방행정관료를 일본인이 독점함으로써 조선인이 배제되고 있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들 세 사람의 경력을 『수원』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윤태중

윤태중은 당시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였다. 『수원』에는 무려 6명에 달하는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 명단이 실려 있어, 당시 수원 사회에서 수원고등농림학교가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1923년도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 따르면 수원고등농림학교에는 3명의 위원, 7명의 교수, 8명의 조교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조선인으로는 윤태중이 교수로, 이윤재(李允載)와 이종오(李鍾旸)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원농림전문학교 조교수였던 윤태중(수원농림전문학교 교우회, 『교우회보』 12호, 1919) 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윤태중으로, 혼다 코스케의 송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다.

윤태중은 수원 출신은 아니었다. 『수원』에 따르면 1885년 10월 경성부 북부 삼청동에서 출생했으며, 1912년 7월 도쿄제국대학 농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9월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한다. 『황성신문』 1906년 9월 7일자와 1909년 4월 17일자, 그리고 『대한제국직원록』에 따르면, 그는 도쿄로 유학 가기 전에 관리로서 농상공부 농림학교의 교수보를 역임하다가 1909년에 사임하였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 따르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조교유(助教諭)로 근무했으며, 1919년부터는 수원농림전문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22년 교수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7년판에는 도쿄에 본점을 둔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의 수원출장소 주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수원 출신은 아니지만 수원에서 1912년부터 농림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농업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양성관

『수원』에 따르면 양성관은 1867년 8월 4일 수원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4월 수원명륜학교를 졸업하였고, 같은 해 8월 수원상업회의소 부회수에 당선된 이래 1910년 상업강습소를 설립하는 등 여러 사업에 뛰어들어 활약하였다. 1923년에는 수원전기회사 취체역으로서 수원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과 수원금융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적십자사의 유효사원에 추대되었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1년 판, 1923년판, 1925년판, 1927년판에는 수원전기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929년판, 1931년판, 1933년판, 1935년판, 1937년판, 1939년판, 1942년판에는 농업자금을 대부하는 용수흥농주식회사(龍水興農株式會社) 이사로 기록되어 있다. 1937년도판에 나타난 주식 소유 상황을 보면 양성관이 용수흥농주식회사의 대주주였다. 이 회사는 1928년에 설립되었으며 용인군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양성관은 용수흥농주식회사를 설립한 1929년에 수원군에 주소지를 둔 화성흥산주식회사(華城興産株式會社)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회사 역시 농업자금 대부업을 주로 했는데, 1933년도판까지만 등장하므로 곧 사업을 접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판, 1935년판, 1937년판, 1939년판에 따르면 금융업, 창고업, 일반 상업 관련 일체 사업을 벌이는 제일사(第一社)주식회사의 감사역도 맡고 있었다. 1937년도판, 1939년도판에는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927년판, 1929년판에 따르면 양성관은 수원금융조합 이사장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성관은 수원을 대표하는 부호로서, 『동아일보』 1926년 9월 9일자에 따르면 상하이 의용부원으로부터 독립자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



수원중학기성회에 3만 원을 기부한 양성관(『동아일보』, 1935년 3월 15일)



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5년 2월 28일자와 3월 15일자에 따르면 양성관은 경기도 남부 8개 군 대표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학기성회를 조직할 때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3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기성회는 고등보통학교 설립에 나서게 된다.

### (3) 한상봉

『수원』에 따르면 한상봉은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으로, 1876년 3월 23일 수원에서 출생하였다. 1900년 1월 무관학교 졸업 후 육군 참위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부위, 정위로 진급하였다. 이후 무관학교 교관, 군법회의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1906년 9월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이 된 이래 1923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수원면 상담역과 수업실업협회 부회두 등으로 활약했으며, 경기도평의회 의원에 선출된 바 있다. 『수원』에 실린 그에 대한 평에 따르면 수원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수원 금융 경제계의 중진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한상봉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1년판, 1923년판, 1925년판, 1927년판에 수원전기주식회사의 대주주 8명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대주



한상봉의 이력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기도 수원군 북부 장안동 8통 3호에 사는 한상봉(본관은 청주, 출생지는 경성)의 1876년 생년 부터 1911년까지의 이력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주 중 조선인은 한상봉과 홍건섭(洪建燮) 둘뿐이었다. 1921년판, 1923년판, 1925년판, 1927년판에는 수원인쇄주식회사 감사로도 이름이 올라 있다. 1927년판에는 1925년에 설립한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대표로, 1931년판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1929년판, 1931년판, 1933년판에는 용수홍농주식회사 감사, 1931년판에는 화성홍산주식회사 감사 등으로 활약한 것으로 보아 양성관과 함께 사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상봉은 1920년 선거에 의해 경기도평의회 수원군 대표로 선출되었다. 1921년 경기도지사는 조선총독부에 중추원 의원으로 6명을 추천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한상봉이었으며, 1924년 주임관 대우의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 3. 1960년대 ‘수원 인물’

#### 1) 『수원의 역정』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수원의 역정』은 4·19혁명이 끝난 직후인 1960년 5월 시사통신 수원지사에서 편찬 발간한 인명록이다. ‘내 고장 인사 특집’ 이 부제다. 행정과 인물(수원시청편), 의회와 인물, 행정과 인물(각공관위편), 교육과 인물, 사업과 인물, 보건·사회·문화와 인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1960년 현재 수원 유지를 총망라하여 싣고 있다. 각 인물별로 본적, 주소, 직위, 생년월일 등의 간단한 약력 소개와 함께 주제적 접근을 하여, 인물의 행적과 품행 등을 포핍(褒貶)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가령, 김한복 당시 수원시장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서민시장’, 이석한 수원 부시장에 대해서는 ‘청렴 지순의 대기(大器)’라는 상징성 있는 제목을 달아 행정 및 품성과 업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수원의 권력자인 유지를 중심으로 ‘수원 인물’을 선정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일제시기 『수원』과 같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의 고위 관리, 교육자, 자본가를 비롯한 상공인, 언론인 등을 기준으로 선정·분류하는 방식 역시 대동소이하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물을 중심으로 ‘수원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일제의





『수원의역정』 표지



『수원의역정』 목차

침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1960년 4월 혁명 직후지만 일제가 심어 놓은 삶의 방식과 의식으로부터 아직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1945년은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단절의 숫자이지만,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를 살아가는 연속적 존재이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라는 정치적 구호와 무관하게 관리는 관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으로부터 15년밖에 흐르지 않는 1960년에 발간된 『수원의역정』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수원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일제시기 경력을 문제삼지 않은 『수원의역정』이지만, 4월 혁명 직후 발간되었으므로 민주적인 행위는 칭송하고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매섭게 휘두르거나 적극적으로 변명하며 감싸고 있다. 미완의 친일 청산 풍토

속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수원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수원인이 갖고 있는 편벽되지 않은 개방성에 기반하여 과거(친일/반일)보다는 현재(민주/반민주)를 더 중시하는 인물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의 역정』에서는 『수원부읍지』나 『수원군읍지』에서 수원 출신이 아닌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들을 수원 출신 인물들과 분리하여 지리지의 후미에 배치한 것과는 달리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수원 출신이든 아니든 수원시장부터 권력의 서열에 따라 ‘수원 인물’을 선정 배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배치 구도는 『수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토착인과 타지인을 구분하지 않고 권력의 서열에 따라 배치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일본 지배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제국주의적인 시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수원의 역정』이 수원 출신과 비수원 출신을 구별하여 토착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애정을 갖고 수원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구성은 비토착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토착인과 타지인을 분명히 구분하는 경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각 편별로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방식 및 내용을 살펴보자.

#### (1) 행정과 인물(수원시청편)

「행정과 인물(수원시청편)」에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하여, 시청의 총무·재무·산업·사회·건설·병무 등을 담당하는 6명의 과장과 그 산하의 계장급 26명, 그리고 전·현직 동장 24명 등 총 58명의 프로필이 본적·주소·직위·생년월일과 함께 실려 있다.

『수원의 역정』은 4월 혁명 직후 발간되었으므로,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에 부합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된 까닭에 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를 반전시켜 시장부터 계장까지 수원시 고위직 공무원들은 모두 제2공화국의 공무원으로서 손색이 없다





1960년 수원시청(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지방자치 실시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받는 공무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시장은 4월 혁명 와중에 민중의 지탄을 받지 않았으며, 부시장은 자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근면과 서민성, 부시장의 청렴함을 내세우고 있다.

『수원의 역정』은 무엇보다 수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군림하지 않는 공복이며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차대(正且大)한 공복의 귀감’, ‘흠이 그림다는 서민형 공복’, ‘수신제가한 일꾼’, ‘무언실천의 일꾼’, ‘반골정신의 공복’, ‘진지한 일꾼’, ‘성실일번도의 일꾼’, ‘온유근엄한 공복’, ‘늘상 유쾌한 공복’, ‘행지(行止)단정한 젊은 공복’, ‘생각하고 일하는 공복’ 등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서 고위 공무원들을 묘사하고 있다. 때로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높은 외원에의 의존도에 있다. 농경방법의 전(前)세기적인 후진성에 있다. 십여 년에 걸친 이 정권의 노략질과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농업정책의 전패(顛敗)에 있다.”는 농림계장의 이승만 정부 정책 비판을 그대로 실어 이승만 정권과의 단절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중등교육을 받거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시장은 경성법률전문학교, 부시장은 함흥공립농업학교, 총무과장은 춘천공립농업학교, 건설과장은 도쿄 시바우라공업전문학교 출신이다. 부시장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벽제면 기수로, 사회과장은 황해도 산림주사보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과장은 물론 계장급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적지 않다.

동장들의 경우에는 수원에서 동장이 되기까지의 초등 혹은 중등의 다양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사업가에서 대동청년단 출신까지 다양한 이력을 서술하면서 해당 인물의 이력 혹은 인품의 특징을 잡아 표제를 붙이고 있다. 공직자와는 달리 동장의 경우, 친일 경력에 대한 해명을 신는 경우도 있다. 매산로1·2가 동장의 경우 1935년 무진장의 지하자원을 간직한 채 “가난한 대로 있는 조국이 안타까워” 혜산진 대해금기술양성소를 마치고 금광의 기술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이므로 금을 캐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냥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은 자기 방기라서 기술원으로 일을 했으나 결국 1944년에 귀향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수원시 동연합회 동장 일동(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경』, 1960)

1942년부터 20여 년 동안 동장을 한 세류동장의 경우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4월 혁명과 관련해서는 매교동장의 경우는 3·15부정선거 등과 무관하지 않은 듯 “지난날엔 필경 과오도 많았으리라. 그러나 바르게 살자는 신념만은 한결같다.”는 말로 옹호하고 있다. 지금은 자신의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안동장의 경우는 자유당 당원이라는 과거를 천추에 씻지 못할 한으로 생각하며, 부정선거 당시에는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 자유당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았다고 비호하고 있다. 그에게는 제2공화국의 성공이 절실한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2공화국 출범에 즈음한 분위기에 따라 복수동장의 경우처럼, “머리를 군대식으로 깎아 올리고 아주 활동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는 씨의 스타일은 새 공화국의 일꾼임을 말해 주고 있다.”며 동장 역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

하기도 한다.

4월 혁명의 여파 속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평동장이다. 그는 수원시 동장 중에선 학벌이나 실력이나 됴됨이 모두 뛰어난 백미라는 평을 받았다. 그런 그는 민중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사회가 이 꼴이라고 투덜대면서 현실을 망각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장 중에는 수원 토박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경우 세류동장처럼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초등학교 시절엔 수재로 이름을 날렸고 세류동 골목대장으로 꼬마들을 거느리고 신출귀몰했다는 에피소드를 적고 있다. 토박이로서의, 수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매교동장처럼 화성에서 해방 직후 이주한 경우에도 “정들

〈표 1〉 「행정과 인물(수원시청편)」에 수록된 인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1	김헌복(수원시장)	부지런한 서민 시장
2	이석한(수원부시장)	청렴지순(淸廉至純)의 대기(大器)
3	정태화(수원시 총무과장)	우유불박의 인격자
4	이종득(수원시 재무과장)	애국애족의 열혈한
5	박해문(수원시 산업과장)	중선봉행(衆善奉行)의 포부
6	이희창(수원시 사회과장)	정차대(正且大)한 공복의 귀감
7	안계환(수원시 건설과장)	수원시 발전의 원동력
8	박동천(수원시 호적병무과장)	흠이 그림다는 서민형 공복
9	민병렬(수원시 총무과 시정계장)	가난 극복한 승리의 역사
10	박원서(수원시 총무과 서무계장)	술 잘 먹는 우울의 성주(城主)
11	윤은영(수원시 총무과 용도계장)	무언실천의 일꾼
12	이민규(수원시 총무과 저축계장)	견실한 대지의 아들
13	신재사(수원시 총무과 경리계장)	수원 시정의 제일 기수
14	신수철(전 대한군경원회수원시지회 주임)	군경원호사업의 역군
15	한태수(수원시 재무과 제1계장)	수신제가한 일꾼
16	이필정(수원시 재무과 제2계장)	위성모인(爲誠謀人)의 단정한 선비
17	정창구(수원시 재무과 제3계장)	반굴정신의 공복
18	최학규(수원시 재무과 제4계장)	진지한 공복이며 신앙인
19	박병태(수원시 산업과 농지계장)	성실일변도의 일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20	김중문(수원시 산업과 상공계장)	운유근엄한 공복
21	한석희(수원시 산업과 축정계장)	가축병의 백과사전
22	오태근(수원시 산업과 양정계장)	늘상 웃는 유쾌한 공복
23	이동전(수원시 사회과 원호계장)	행지단정한 젊은 공복
24	허용진(수원시립직업소개소 소장)	신뢰받을 우리의 이웃
25	안익승(수원시 건설과 서무계장)	자유분방한 선비
26	윤홍중(수원시 건설과 수도계장)	역량 있는 건설 역군
27	홍종윤(수원시 호적계장)	청심과옥(淸心寡慾)한 공복
28	오덕현(수원시 호적병무과 병사계장)	병무행정의 일인자
29	문이영(수원시 건설과 토목계장)	활화산의 정열을 내장
30	조한복(수원시 사회과 보건계장)	수원시의 보건 담당자
31	김진두(수원시 건설과 도시계장)	선이 굵은 도시계획가
32	유원준(수원시 사회과 사회계장)	자강불식의 일꾼
33	민병국(수원시 산업과 농림계장)	조국부흥의 첨병
34	김철수(수원시 총무과 의회계장)	생각하고 일하는 공복
35	백남선(수원시 매탄동 동장)	부요한 선민의 사람
36	정순희(수원시 남수동 동장)	자기 운명에의 개척자
37	김태병(수원시 팔달로3가 영동 동장)	인정 많고 소박한 이웃
38	김영수(수원시 지동 동장)	둥글둥글 모가 없는 인격
39	김지윤(수원시 동장)	사무사(思無邪)의 달관지사
40	신응호(수원시 사둔동 동장)	겸허 강직한 노옹(老翁)
41	김종승(수원시 고등동 동장)	의에 사는 성실한 이웃
42	박태동(수원시 인계동 동장)	달필에 강기(強記)의 선비
43	양성환(수원시 중구천동 동장)	형극을 헤친 개척자
44	최남규(수원시 교동 동장)	참되고 선량한 이웃
45	이강희(수원시 화서동 동장)	외유내강한 의지의 사람
46	홍기운(수원시 매산로1·2가 동장)	인화(人和)의 창조자
47	장석천(수원시 매류동 동장)	수원 부흥의 초석
48	신형균(전 수원시 인계동 동장)	이웃을 사랑하는 정열의 사람
49	심상복(수원시 매교동 동장)	구김살 없는 삶의 영위자
50	유재옥(수원시 팔달로1·2가 동장)	위인모충(爲人謀忠)의 호상(豪商)
51	박제상(수원시 우만동 동장)	어진 만년 동장
52	한정근(수원시 매산로3가 동장)	농업개량에 실천인
53	김세준(수원시 북수동 동장)	50대의 활동인
54	방극선(수원시 신평동 동장)	모던한 청년운동가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55	신종억(수원시 정안동 동장)	권세를 타기하는 신의인(信義人)
56	안학승(수원시 연무동 동장)	휴식을 모르는 정진(精進)의 사람
57	임태해(수원시 평동 동장)	청년 실력파 동장
58	김화준(수원시 남창동 동장)	동정(洞政) 쇄신의 첨병

대로 정든 수원을 사랑한다.”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이주자의 정착 과정에서 수원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 (2) 의회와 인물

「의회와 인물」에는 수원시의회 의장, 부의장과 의원 12명의 프로필이 본적·주소·직위·생년월일과 함께 실려 있다. 시의회 의원은 곧 정치가라는 입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의원의 정치적 신념, 정치 스타일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4월 혁명 직후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물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 서술한 경우가 적지 않다. 수원에 확고한 기반을 두어야 의원 당선이 수월한 탓인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4명 중 10명이 수원 출신이다. 수원의 어느 유지집단보다 수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부터 서울 상대 졸업자, 일본 유학파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해방 이전부터 공무원 활동을 한 경우도 있지만 문제삼지 않았다. 해방 직후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청년운동을 한 경우도 주요 이력으로 소개하고 있다. 시의원 이전에 농업보다는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수원의 특색을 드러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으로 출발하여 동장연합회 회장(김정진)을 거쳐 시의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언론인 출신은 한국일보사 수원지사 기사를 역임한 의원(강성진)이 유일하다.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 출신 의원(김찬)도 있다.

정치적 신념을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웃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이종철)라는 주장을 곧 현대 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는 사고방식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남북통일과 국민생활의 향상, 빈곤 퇴치 문제에 대한 의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보다 많은 민중의 보다 나은 생활 향상”을





수원시 초대 시의원 일동(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시의원은 수원사람의 정체성이 비교적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신조를 삼는 의원(양규수)은 모든 반민주주의세력과 맞서는 데 물러섬이 없었다는 평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링컨을 꿈꾸는 의원(김희동)도 있었다. 4월 혁명 직후인 탓에 민주당 출신 시의원에 대해서는 그간 야당 정치가로서의 고난과 애환을 강조하였고, 자유당원과 민주당원 모두에게 신망을 얻는 경우(홍순학)를 소개하는 등 시의회 의원들은 대중의 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당 수원시당 조사부장이었던 경우(김기룡)도 늘 공정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 자유당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적이면서도 공정한 관점에서 시정 집행부를 감시하는 시의원(김용두)도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자유당원이라도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권력의 장악당에 대하여 그 비위를 통렬히 깨고 드는 직언의 지사가 있었다는 것이다(허희).

〈표 2〉 「의회와 인물」에 수록된 인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1	이용성(수원시의회 의장)	불퇴전의 결륜지사
2	송원섭(수원시의회 부의장)	칠면팔비의 활약가
3	이종철(수원시의회 의원)	소박지순의 정객
4	홍순학(수원시의회 의원)	건실한 야당의 지도자
5	양규수(수원시의회 의원)	역강부약형의 지방 정객
6	김희동(수원시의회 의원)	한국의 링컨을 지향
7	이하영(수원시의회 의원)	지방 정단(政壇)의 호프
8	김기룡(수원시의회 의원)	견리사익의 지조인
9	김정진(수원시의회 의원)	정한(精悍)한 수원의 일꾼
10	강성진(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의 패왕(覇王)
11	윤응렬(수원시의회 의원)	패기찬 지성의 정치가
12	김 찬(수원시의회 의원)	견위수명의 경골(硬骨) 정객
13	김용두(수원시의회 의원)	초극한 경골 정객
14	허 희(수원시의회 의원)	의정 단상의 사자

### (3) 행정과 인물(각공관위편)

「행정과 인물(각공관위편)」편은 수원시청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의원, 기업인 등 52명을 싣고 있다. 농사원, 농업시험장, 잠업시험장 등 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1명은 파견직으로, 모두 수원에는 연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의 두뇌 1,192명을 거느린 농사원이 수원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농사원이 곧 한국 농업 개량의 펜타곤이라는 것이다. 농사원장이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으로 일본 교토제국대학 농림경제학과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농업경제학과를 거친 농학박사로서 농림부 농정국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도 그와 같은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검찰, 행정 관련 공무원 5명은 파견직으로 수원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수원지방법원장의 경우, 대부분의 당시 법관이 그러했듯이 일제강점기인 1923년부터 법원 서기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일제치하에서의 관리 경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원세무서 관리 4명, 수원전매청 관리 7명 역시 파견직으로 타지 출신들이다.





농사원 소개(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농사원, 법조계, 세무서, 전매청 공무원 27명을 제외한 25명은 수원 출신이다. 수원우체국장, 수원역장 등의 공무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교육위원 중 다수가 수원 출신이다. 수원 출신으로 현재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도의원, 수원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전직 도청 관리였던 이들도 여기에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들 수원 출신 중에 항일투쟁 가문(김승환, 박찬인)에 대해서는 그 활약을 자세히 적고 있으며, 일제치하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한 사람이 다수인 상황에서 아예 관리의 길을 거부한 경우(이중순)도 칭송하고 있다.

동시에 수원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중심부라는 강한 자부심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이승만의 농정을 신랄히 비판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강한 비판론도 제기하고 있어 '수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표 3〉 「행정과 인물(각공관위편)」에 수록된 인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1	정남규(농사원 원장)	한국 농업의 주치의
2	명재역(농사원 교도국장)	초탈한 인생의 관조자
3	이종린(농사원 시험국장)	행지근엄한 기감(技監)
4	김흥기(농사원 총무과장)	회계학의 권위자
5	채관식(농사원 교도과장)	농민복지의 숨은 창조자
6	김용빈(농사원 총무관리계장)	준수한 양심의 사무관
7	장영철(농업시험장 장장)	한국 농학계의 태두
8	최현욱(농업시험장 작물제1과장)	헌신하는 육종학자
9	박병희(농사원 잠업시험장 장장)	우유(優遊)불박의 선비
10	김관국(농업시험장 잠업과장)	잠업 진흥의 대들보
11	최정현(농업시험장 잠사과장)	누에에 효통(孝通)한 백과사전
12	황각로(서울지법 수원지원장)	폭넓고 준수한 법관
13	최오문(서울지법 수원지원 서기과장)	첨예한 양심의 선비
14	계만기(서울지법 수원지청 검사)	열성(烈聲)의 정의파 검사
15	윤창로(서울지법 수원지청 서기과장)	유(柔), 강(剛)을 겸전한 인정의 법조인
16	김재은(수원형무소장)	의와 사랑에 사는 전옥(典獄)
17	이종성(수원세무서 총무과장)	총무공의 피밭은 선비
18	고범룡(수원세무서 직세과장)	휴머니티한 사세관(司稅官)
19	박병여(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실질강건의 공복
20	허 창(수원세무서 계장)	안빈낙도하는 공복
21	홍광석(수원전매서장)	강인불발의 노력가
22	엄재성(수원전매지청장)	전매행정의 엑스파트
23	오병승(수원전매지청 서무과장)	내유외강의 선비
24	오정석(수원전매지청 판매과장)	뇌락(磊落), 호인형 공복
25	심문구(수원전매지청 염무과장)	이상에 살고 현실에 철저한 일꾼
26	홍수동(수원전매지청 수납과장)	이 나라의 산 연초전매사
27	김원범(수원전매지청 감시과장)	온유청렴한 공복
28	김승환(수원역전우체국장)	강건실질의 공복
29	박응서(수원역장)	철마를 다스리는 동맥의 파수군
30	한효진(서울철도국 수원운전사무소장)	즐거운 철도인
31	구창희(경기도 수원토목관리사무소장)	토목행정의 엑스파트
32	엄익문(수원토목관리사무소 서무계장)	패기와 의魄의 선비
33	이종순(경기도관재국 수원출장소장)	근엄 온후한 선비
34	김인태(농산물검사소 수원출장소장)	청렴 소박한 관리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35	손병철(농산물검사소 수원출장소 주임)	새로운 농업의 헌신자
36	주귀환(경기도 수원시 농사지도소장)	농사 교도의 엑스파트
37	조희문(화성군 농사지도소장)	준수고매한 일꾼
38	차인순(중앙교육위원회 위원)	허세의 상송장군
39	윤공렬(민주당 수원시당 위원장)	불퇴전의 정객
40	정일환(수원시 농업협동조합장)	능소능대한 농업개척자
41	김성환(경기도의회 의원)	신의에 사는 노동운동가
42	강신태(경기도의회 의원)	지역사회 개발의 선수
43	김희배(수원주조주식회사 사장)	사업 일변도 정력가
44	차재현(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입지 출신의 상공인
45	이종원(경기도의회 의원)	인생의 승리자
46	이종창(경기도 교육위원)	동량지재를 기른 원정(園丁)
47	안용현(수원시 상공회의소 의원)	수원시 산업의 계량기
48	이경형(경기도의약품판매협회장)	휴식 없는 노력가
49	박정환(수인양조장 사장)	성실불후의 사업가
50	박대림(경기건설사 사장)	건설업계의 효장(孝將)
51	박찬인(복창공사 사장)	조국 부흥의 역군
52	송경호(대한상이용사회 경기도지부장)	다음 세대의 담당자

#### (4) 교육과 인물

「교육과 인물」에는 24명의 교육계 인사를 싣고 있다. 이 중 13명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도교육청 임명직인 까닭에 수원 출신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전부 타지인이고, 일제치하부터 30여 년 이상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 중에는 특히 항일투쟁가문(황기익), 3·1운동 당시 투옥자(이필원) 등의 활약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한편, 당시 중·고등학교 교장에게는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전거인 듯,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추구한다든가(김옥성), 4월 혁명 이후 학원민주화 운동을 “폭력을 승인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보는 보수적 견해(김제동)를 함께 싣고 있다.

수원교육위원회 의장단과 교육위원 6명의 이력도 싣고 있다. 이들은 선출직임에도 타지 출신이 수원 출신을 상회한다. 교육감에게도 민주교육적 덕목에 대한 신념



수원 관내 학교 소개(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교육위원은 자본가, 자영업자, 치과의사, 전직 중앙관리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교육과 인물」에 수록된 인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1	김옥성(수원농림고등학교 교장)	농업 혁신의 선봉자
2	홍사운(수원중고등학교 교장)	사학 진흥의 선구자
3	문명진(수원수성중고등학교 교장)	민족 교육의 역군
4	최계남(수원여자중고등학교 교장)	한국 부덕(婦德)의 육성자
5	김제동(수원북중학교 교장)	민족교육의 실천자
6	김마리새(수원매향여자중학교 교장)	한국 부덕의 육성자
7	오유봉(수원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매향 풍기는 교육가
8	김안제(수원시 교육청 서무과장)	대륙적 풍모의 착실한 일꾼
9	오병선(수원시 교육위원회 학무과장)	무실행력하는 교육가
10	방구현(수원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부요한 실업가
11	김승제(수원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복지사회 건설의 역군
12	이창용(수원시 교육위원)	도규계(刀圭界)의 희보(稀寶)
13	유석렬(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수원지사장)	장년의 푸른 상리는 교육
14	김인회(수원시 교육위원)	이기주의 아닌 이기주의자
15	박승업(수원시 교육위원)	운명을 개척한 노력가
16	박호병(수원시 교육위원)	파사현정의 정의감
17	정형모(화성군 교육구 교육감)	정진하는 교육행정가
18	황기익(수원매산국민학교장)	2세를 가꾸는 성실한 원정
19	정항시(수원신흥국민학교장)	무언실천의 영육가
20	이필원(수원서둔국민학교장)	참대 같은 육육가
21	이강현(수원남창국민학교장)	자강불식의 교육가
22	이기호(수원지동국민학교장)	살아 있는 한국교육사
23	한경택(수원세류국민학교장)	신념이 굳은 교육자
24	이영빈(수원영화국민학교장)	아동 교육의 책임 의사

#### (5) 사업과 인물

「사업과 인물」에는 수원 산업·금융계 인물 35명을 실고 있다. 6명의 은행 임원과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회사의 지점장을 비롯한 임원, 수리조합과 축산협동조합 임원 그리고 수원의 대표적인 자본가들의 이력이 실려 있다. 파견직에 해당되는 은행과 회사 지점의 임원 중에 수원 출신은 없고, 주로 경기 출신인 점이 눈에 띈다. 조합장들의 경우, 이승만 정부의 실패한 농정에 대한 질타와 공업화의 기초인 농업



代表 孫 秉 世



工場長 鄭 尚 洙



水原工場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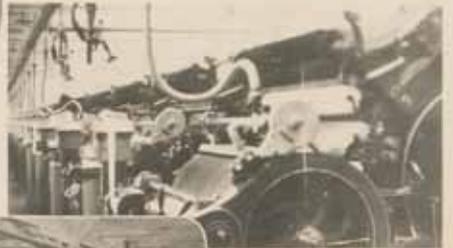
大韓紡織株式會社  
水原工場

1. 設 置 —— 水原市南門外口郊區
2. 設 立 —— 韓戰(1950年)前所設立 韓戰(1952年)3月北軍工兵襲擊工廠停工 同年10月 復工竣工北移現址
3. 經營者 —— 1. 大韓紡織株式會社  
2. 大韓電機株式會社  
3. 大同製鐵株式會社
4. 工場之總面積內容 —— 1. 工場總面積—20,000坪  
2. 作業面積—4,000坪  
3. 機械裝置—約計價值3萬圓
5. 基本設備 —— 1. 動力—總計 2,800馬力  
2. 電力—年產15,000瓩
6. 營業建築 —— 概計30棟 6,400畝 2,500名
7. 職員數 —— 40名
8. 機器設備計劃 —— 1. 最新機設備(增加)  
2. 增加機設備(★)
9. 對外輸出地區 —— 美國亞細亞

紡績機作業光景



機務課長 鄭 尚 洙



紡車機出機光景



種回作業光景



種回作業光景



152

대한방직주식회사 소개(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 자본가들은 대부분 수원 출신으로(최재봉, 정주교, 최종건, 신정옥, 김용배, 김명배, 이필량, 홍사극, 이보영), 부유층과 중산층 출신부터 지수성가형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성향적으로는 골수 야당파와 반공주의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 5〉 「사업과 인물」에 수록된 인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1	오정환(조흥은행 수원지점장)	폭넓고 유능한 은행인
2	손수복(조흥은행 수원지점 차장)	겸양의 인, 사교의 인
3	박한인(농업은행 수원지점장)	농민을 위한 은행인
4	손한식(농업은행 수원지점장 대리)	관록과 실력 갖춘 은행인
5	정한수(농업은행 수원지점장 대리)	청백한 बैं크맨
6	이원범(농업은행 수원지점장 대리)	인위고(忍爲高)의 은행인
7	김응배(한국무진주식회사 수원지점장)	자립경제 확립은 그 소원
8	최창희(한국무진주식회사 수원지점장 대리)	전원에서 사세(肆世)로 출분(出奔)
9	윤영서(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수원지점장)	민족의식에 투철한 일꾼
10	조대현(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수원지점장 대리)	만신투지의 금융인
11	김정규(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장)	호방기예한 역꾼
12	신태익(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서무계장)	원활자재의 인격자
13	고백운(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영업계장)	교육에 미련 둔 전업인
14	이기철(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공무계장)	정력적인 기술자
15	최형재(한국운수주식회사 수원지점장)	강직절조의 의인
16	홍양후(울도염전대표자)	정진불후의 노력가
17	한광호(수원수리조합장)	원만무비의 품성과 가정
18	설경동(대한산업주식회사 사장)	한국 경제의 동량
19	최재봉(대한방직주식회사 수원공장장)	방직왕국의 참모
20	정상남(대한방직주식회사 수원공장 총무부장)	부지런한 섬유업계의 일꾼
21	정주교(천일염료합명회사 사장)	의욕과 실천의 사업인
22	최중건(수원시의회 의원, 선경직물주식회사 사장)	한국 직물업계의 수문장
23	김영두(문화직물공장 사장)	천자불유의 생산인
24	신정욱(공영토건 사장)	불퇴전의 사업가
25	김용배(제일산업주식회사 사장)	수원경제의 바로미터
26	김명배(제일산업주식회사 사장)	준수명석한 산업인
27	이필량(한국파나마기업사 사장)	획기적인 제모계의 거부
28	송영균(삼영천일제염 사장)	호방한 인격의 실업가
29	장세걸(수원시축산협동조합장)	농촌 부흥의 지도자
30	김준호(수원시축산협동조합 상무이사)	협동사회 건설의 역군
31	신천우(화성군축산협동조합장)	스케일이 큰 농민의 지도자
32	유원형(화성군축산협동조합 상무이사)	농민복지 향상의 초석
33	홍사극(수원양조주식회사 사장)	신의에 사는 경골 실업가
34	이보영(수원제염공사 사장)	천자호방한 사업가
35	김응덕(금덕물산주식회사 사장)	수원경제의 중추



부분이나, 일제치하에서 관리의 길을 걷지 않고 교육에 투신한 경우(김병호)를 높이 사고 있다.

〈표 6〉 「사회·보건·문화와 인물」에 수록된 인물

번호	성명 및 직위	특징
1	신현익(경기도립수원병원 원장)	칠면팔비의 노인술가
2	권용옥(경기도립수원병원 서무과장)	의료행정 막후의 일꾼
3	김재석(수원중앙보육원 원장)	미더운 고아의 아버지
4	권오진(중앙방송국 수원송신소장)	선이 굵은 인고의 일꾼
5	신현수(경기정양원장)	천자강직한 사랑의 원정
6	신용우(경기정양원 서무과장)	사회사업의 숨은 역군
7	강학권(경기정양원 교도과장)	깊고 큰 사랑의 구원자
8	김병호(재단법인 삼일애육원장)	살아 있는 한국교육사
9	한금주(주간경기사 사장)	자강불식하는 언론인
10	이원복(조선일보사 경기지사장)	성실근면한 저널리스트
11	이동성(경인일보사 수원분실장)	경세하는 언론의 참병
12	심의중(세계일보사 기자)	표달한 언론계의 참병
13	이예영(대한상이용사회 경기지부 수원분회장)	조국을 지키던 불사조의 용사
14	이현규(신문공론사 수원지사장)	포럼시공의 언론인

## 2) 『수원의 역정』에 실린 주요 ‘수원 인물’

『수원의 역정』의 인물 서술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인물마다 행적 혹은 성격 등에서 특징을 잡아내어 그것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주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수원의 역정』의 기술 내용을 되도록 그대로 옮겨 그 인간미 넘치는 인물 비평의 맛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한다. 수록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 (1) 살아 있는 한국 교육사, 김병호(金炳浩, 1896년생)

애애(皃皃)한 백설에 뒤덮인 산봉 창공을 맞보고 수발(秀拔)히 솟은 설봉(雪峰) 울창한 숲으로 하여 푸른 청산보다 그 모습이 한결 외롭지만 때 묻지 않는 품격엔

숭고한 무엇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눈에 덮인 키리만자로의 산봉우리는 영원한 신비를 간직한다. 재단법인 삼일애육원장이면서 수원종로유치원장이요, 수원종로교회 장로와 소년보호사 촉탁을 겸하고 있는 설봉 김병호 옹은 아호 그대로 설봉 같은 분이다. 올해 64세인 씨가 한국 교육계에 이바지한 일뫼은 크다. 더욱이 수원 굴지의 교육기관인 삼일중학교(삼일애육원)의 육성을 위하여 36년간 애쓰 각고의 기록은 한국 교육사상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다.



김병호

소월의 애절한 시 속에 아름다운 고장으로 등장하는 평북의 영변은 씨의 태생지다. 구한국시대에 체신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엄친은 개화된 문명인이었기에 혈족의 교화에 남다른 관심과 힘을 경주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영변소학교를 마친 씨는 곧 서울 유학의 장도에 올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 특히 항일의 전통에서 이름 있는 배재학당을 수발한 성적으로 졸업하자 이어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상과를 택하였다. 1921년 전기 교를 마친 씨는 바로 그해에 수원삼일학교 교원으로 부임하였다. 1921년이라고 하면 1919년의 거족적인 항일의 아우성이 채 가시기 전인 무렵이다. 당시의 삼일학교는 실로 보잘것 없는 규모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컸던 청원의 뜻을 삼일학교에 묻은 씨의 이상은 타산으로 짐작할 수 없는 민족문화의 향상과 불굴의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첩경은 민족교육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을 마친 인테리가 모조리 영화의 꿈에 이성을 잃고 환로(宦路)로 뛰어들던 그 마당에서 차라리 고일(高逸)했던 씨의 모습은 글자 그대로 설봉이 아니었던가?

삼일학교에서 부임한 지 3년 뒤에 씨는 교장으로 비약하였다. 그러나 총학생수 140명, 교원수는 6명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147명의 스승과 학생들이 아뢰는 민족의 교향악은 소리 높지 않았으되 끈기 있고 힘차고 조화된 것이었다. 그 뒤로 모진 박해의 비바람 속에 견디기를 이십 수개 성상(星霜),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았다. 한결같이 애쓰 보람 있어 현재 삼일학교 12개 학급, 고등학교 6학급은 민족의 동량 자재를 길러 내는 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삼일학교에 부임한 지도 삼십여



육개 성장, 씨의 길은 바로 민족의 길이다.

단기 4290년 삼일학교를 물러나와 재단법인 삼일애육원장으로 총람케 되었다. 5척 8촌의 신장에 15관 남짓한 몸집이지만 기개활달하여 천마가 하늘을 나는 격이다. 올해 64세이다. 노당익장(老當益壯)하여 기골이 아직 청년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여행이 취미, 가권(家眷)으로 삼일애육원 총무인 장남을 위시로 4남 3녀가 믿음기 짝이 없다. 씨의 당면과제는 원생의 직업보도를 위한 시설 확장, 한결같은 사랑의 태도이며 마음가짐이다.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란 한구(漢句)는 씨를 두고 하는 말이겠다.



김승제

(2) 복지사회 건설의 역군, 김승제(金承濟, 1921년생)

올해 불혹, 인생 3단계로 나눈다면 소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로 획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삼십이립(三十而立)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장년기는 불혹으로 스타트될 것이고, 노년기는 지천명(知天命)으로 첫 고비에 들어설 것인즉 씨는 지금 장년기의 시초에 있다. 그러나만큼 씨는 인격과 수완이 한 개의 정점을 겨누고 익어 가는 중이다. 5척 7촌의 알맞은 키에 16관의 체중으로 균형 잡힌 몸매는 그리 크잖은 편이어서 그 인상이 무척 상냥스럽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 번 결단을 내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과감성과 용맹성을 지니고 있다.

아량(雅量)을 말하는 천정(天庭)은 시원스레 티어 있다. 형형(炯炯)한 안정(眼精)에 스린 혜지(慧智), 미우(眉宇)에 깃들인 결단성 있는 코와 입모습이 말하는 신뢰성은 관상가나 복술가가 아닐지라도 씨가 비범한 사람임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

아닌 게 아니라 씨는 일거수일투족에 범속을 초탈한 의연함이 엿보이게 한다. 그 행지(行止)가 근엄할 뿐 아니라 마음가짐이 여간 근실하고 믿어운 게 아니다. 씨가 무리에서 뛰어난 원인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실과 부지런함 그것은 씨의 힘이며 특성이며 또한 인간적인 매력이다. 인성은 본시 착하며 고금지우의 구별 없

거들 성인은 어찌하여 혼자 성인이 되며 나는 어찌하여 홀로 평인이 되는가? 진실로 뜻이 서지 못하여 행함이 독실치 못하며 알음이 밝지 못한 까닭이다. 이것은 이조시대의 거유(巨儒)인 이율곡 선생이 인간성의 진퇴를 갈파(喝破)한 금언이겠거니와 이는 수원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인 김승제 씨의 좌우명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 사십 김승제 씨의 지나간 인생여로는 애쓸이란 한 마디로 끝난다. 거함(巨艦)에 편승하여 대양을 건너온 행운아가 아니라 자수로 편주(片舟)를 저어 노도(怒濤)를 넘어온 삶에의 불굴한 투사인 것이다. 씨는 자수성가한 분이다. 씨에게 거래(去來)나 현재의 포부를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튀어나오는 한 마디가 있다. 자나 깨나 잊지 않는 경제자립이다.

씨는 이미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경제자립이란 말은 씨에겐 뼈에 금이 실려 이룩된 글귀와 같다. 얼마나 목메어 불러 왔던 스로-강이었드냐? 그래서 씨의 성함(姓啣)이 승제(承濟)인가도 모를 노릇이다. 사실 경제자립이란 비단 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성취하여야 할 그 선무이며 얼마나 크나큰 희원이었던가를 미루어 생각할 때 씨의 포부가 어떠한 견지에 입각하고 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음직한 것이다.

씨의 40 평생을 관철한 신념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늘의 결실 또한 거기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농업실수학교를 마치고 조선운송주식회사를 거쳐 삼일주유소를 이룩하는 오늘은 씨의 노력과 신념에 근원하고 있는 것이다. 취미는 독서, 현부인 홍 여사와 사이엔 귀여운 두 딸이 있다. 봉정만리(鵬程萬里), 이것은 씨의 앞길이다.

### (3) 부지런한 서민 시장, 김한복(金漢福, 1909년생)

해방 이후 10여 성상을 한결같이 난공불락의 금성당지인 양 버티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던 날, 1960년 4월의 하늘은 꽃봉오리 같은 학생들의 피보라에 넘을 잃었다. 오호! 통재라. 시천망망(視天茫茫)이요, 부지축축(俯地蹙蹙)의 비분이 강산을 뒤덮었다. 뒤이어 붕괴하는 황포한 권력기구는 수많은 감투를 낳자한 낙화인 양 땅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일세를 휩쓸던 사나운 권력의 말로는 참(慘)을 극하였다.





김한복

‘천인소지면 무병이사’란 옛말이 어김없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열상(烈霜)의 민족법정에서 살아남은 벼슬아치는 말단을 제외한다면 드물게 볼 뿐이다. 그러나 살아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청렴공정한 공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민중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는 하나만으로도 이 사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여백을 남겨 둔 일이라 하겠다. 수원시장 김한복은 민중의 지탄을 받지 않았다. 비난의 소리가 물 끓는 듯하던 3·15 부정선거의 와중에서도 수원만은 잠잠했었다. 그것만으

로는 시장인 씨를 짐작케 한다. 쾌활하면서 원만하고, 따라서 모나지 않는 씨다. 그러면서 궁행수범하는 근면은 제2공화국의 조그마한 담당자로서 손색을 보이지 않는다.

“도시계획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수도공사도 마쳐야죠. 시의 공관 건립도 서둘러야죠. 아무튼 시간이 흐르는 게 초조합니다.”라고 소신을 말하는 씨의 모습은 펍 일꾼답고 믿음직스럽다.

씨는 광주(廣州) 산. 처음 법조 진출을 뜻하여 경기법전을 마쳤으나 첫발을 디딘 곳은 경기도금융조합연합회였다. 견습의 청년이사는 패기에 넘쳐 있었다. 부지런하기가 꿀벌 같아 단숨에 12년이 흘렀다. 뜻을 옮겨 행정계에 데뷔한 씨는 평택농회 촉탁을 거쳐 장단군 산업과장, 시흥군 내무과장을 역임한 다음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자 부시장으로 발탁되었고 불과 2년 뒤에 수원시장으로 승진, 수원시의 살림살이를 도맡았다. 그때가 1952년이었으니까 수원시장이 된 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한국전쟁 뒤 잿더미의 터전에 현재의 수원을 재건하느라고 무진 애썼다. 재건에 따르는 에너지의 집중도란 개인이나 국가를 피로케 함은 물론이거니와 노심초사하는 인고의 세월은 씨의 이마에 몇 개의 굵직한 주름살을 흘려 놓았다. 시장 8년, 수월한 역사가 아니다. 시장에 취임하자 곧 이루어 놓은 도시계획이 동란으로 오유화(烏有化)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수복 후 수도 확장에 도로 보수, 학교 재건에 고적 중수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운 일을 이루어 놓았고, 미국무성 초빙으로

도미 시찰도 했고, 시청사 신축이며, 대한방직회사 유치, 영동시장 등은 특기할 만한 일들이다.

(4) 한국 경제의 동량(棟樑), 설경동(薛卿東, 1901년생)

한국 유수의 재벌인 설경동 씨는 말한다. “나는 사업가다.” 대한산업주식회사, 대한방직주식회사, 대한전선주식회사, 대동증권주식회사, 대동제당주식회사, 원동흥업주식회사,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 등 7대 회사의 사장이면서, 대한방직협회 이사장직과 동양식량공업주식회사 취체역을 겸무하는 씨의 방대한 발판은 한국에서도 굴지의 것이다. 사업의 화신이라고도 불리는 씨는 사업을 떠나서 운위될 수 없을 것이다.



설경동

씨는 씨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자평한다. “나는 사업가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일 또는 간수한 사업에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다.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육십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온갖 정열을 사업에 바쳐 왔다. 더욱이 해방 후로는 국가 부흥을 위한 사업 발전에 일념진력해 왔다. 그러므로 사업 이외에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이 평은 어디까지나 겸허를 관점으로 한 씨의 자화상 같은 것이라 하겠다.

패배를 모르는 사업의 왕성은 씨의 장단에서 인유(因由)되는 것이 아니라 씨의 불퇴전한 정열과 모진 끈기와 빈틈없는 계획성에서 결과되는 것이요, 국가 부흥을 위한 사업 확장에 전념한 것이 장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단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기에 말이다.

씨는 극기의 사람이며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씨의 조국인 한국이 입지적 조건이 미국과 겨룰 수 있다면 씨를 미국의 대재벌인 록펠러나 몰간과 비견(比肩)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씨는 네 살 때 엄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씨는 그때를 회상하여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한다. 아버지 없는 고독이 때로



설 소년을 우울하게 했었지만 한량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그러나 가냘픈 몸을 돌보지 않고 씨의 훈육에만 혼신의 정열을 쏟던 어머니는 실로 여장부였다. 석고로 위인의 어머니는 위인이었던 것이다. 씨에게 오늘의 대성을 결과한 불굴의 정신력도 어머니의 위대한 애정과 추상 같은 엄훈에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겠다. 이렇듯 대기의 바탕을 지니게끔 한 환경 속에 자신을 키어 온 씨는 흡사 눈 위를 굴러오는 눈사람처럼 초인적인 몸집으로 커 왔다. 나이 불과 22세 때 왜인들의 잦은 압박하에서도 함경북도 유류판매주식회사 전무취체역으로 약진, 해방 후로는 대한산업을 비롯하여 수원성냥, 한국원양어업 등 모든 기업을 망라하듯이 하였고, 89년엔 정계에까지 두각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5척 5촌의 키에 24관 거대한 몸집만 보아도 가위 인걸이다. 온후강직하며 워낙 사업에만 몰입하니까 취미라고 하여 별로 열거할 게 없고, 다만 여가가 있으면 명상을 한다. 소위 위과 같은 사색의 삼매경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것이다. 기호품은 산채(山菜)나 야채다.

가권(家眷)으로 현부인 이태하(58) 여사와 대한방직회사 상무로 있는 장남 원식(36) 씨와 도미 유학 중인 차남 원철(26) 군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남아 있는 여생을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부흥에 승화시키겠다는 불길 같은 열정이 아직 청년을 방불케 한다. 씨는 바로 대한경제 성장의 바로메타이다.



신현익

(5) 칠면팔비(七面八臂)의 노인술가(老人術家), 신현익(申鉉益, 1898년생)

62세의 육군예비역(군역) 소령인 활천 신현익 씨는 천마가 하늘을 나는 듯하여 도시 일각을 포착할 수 없는 분이다. 뇌락 호방함이 하늘을 순례하는 구름처럼 표표한데 어디를 잡을 것인가.

경기도립수원병원장이면서 교통부 촉탁이요, 천애의 고아 60명을 보살피는 혜광원 창설자로 원장이시다. 아호 그대로 활천의 샘인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뭇은 한 가

지로 표현하기 어렵다. 기사회생하는 오묘한 의술도 놀랍거니와 한학에의 깊은 조예와 병자도 과안일소시키는 유모러스는 일품이다. 의술은 인술이라 하지만 써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도 드물다. 그러기에 가난한 환자예겐 실비조차 안 받을 때가 더러 있다. 그뿐인가, 깊은 신앙심을 간직한 기독교인인 씨는 노방을 헤매는 고아들을 모아 사랑의 보금자리인 혜광원을 창설하였으며, 현재 원생 중 40명은 초등학교에, 7명은 중학교에 보내고 있다. 친아들·딸들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씨의 휴머니티한 인간상은 궁극병기의 위기에서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통한다. 방사능에도 오염되지 않는 한 줄기 인간의 양심이야말로 인간 스스로의 구제책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오성이나 휴머니티는 편작의 의술에도 없다. 신묘하던 화사의 청낭비결(靑囊秘訣)에도 없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산. 열두 살 때 서울로 이사,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으로 월반하여 4년제 소학교를 마친 다음 경성고보에 진학, 2학년 때 경성의전 검정시험에 합격한 발군의 수재였다. 소년시절부터 기상이 심히 활달할뿐더러 담론풍발(談論風發)했으며 재기환발(才氣換發)한 게 중인을 정도케 했다. 의전을 수업한 다음 한때 도립자혜원에 근무하였으나 66년 약관 35세로 경기도의원으로 피체, 또 한 번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일제 시 도의원이었다면 친일파 같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다. 당시의 조선총독이었던 남차량이 참석한 자리에서 씨는 대서한 기염을 토해 버린 것이다. 당시로서는 위험천만의 발언이었던 것이다. 뉘고 하니 일인들의 동화정책을 비난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개화시키려는 지탄의 일이지만 일본인을 한국인으로 귀화시키기는 쉬운 일이다.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졸렬(拙劣)한 교화정책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장이 발각 뒤집히는 흰소매도(暄騷罵倒)를 모른 체하고 유유불박(悠悠不迫)한 태도로 하단하는 씨의 모습은 흡사 노기 띤 사자의 위용과 순교자의 숭엄 그것이었다.

그 뒤로 철도국 축탁 화성금융조합장, 수원 의사회장, 서울특별시 보건위생부장, 경기도립병원장을 역임한 다음 6·25동란이 한고비에 있던 84년에는 육군(군의) 소령으로 입대, 마산의 수도육군병원에서 노구를 무릅쓰고 활약한 적도 있다. 이듬해 제대했으며, 인사조정위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지사장을 거쳐 88년 현



직인 도립수원병원장으로 영전해 왔다.

5척 3촌의 키에 15관을 약간 넘는 체중의 몸매는 자그마하지만 후박한 인품은 바다 같고 태산 같다. 한시를 애송하며 골동품 모집과 감정에 일가견을 갖고 있다. 신자인 환자를 치료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씨의 신앙심은 독실한 게 있다. 공자와 기도를 숭배하며, 기독교적 정신은 씨의 유일한 신조요, 마음의 지주이다. 미정인 채로 있는 병원청사와 시설의 완비와 함께 혈액원을 설치해야겠다는 씨의 당면한 과제이다. 내조의 공이 크다는 현부인은 대한부인회 수원지부장으로 부녀계몽의 일선에 서 있다. 씨의 평생을 건 희망은 자선 보건사업에의 봉사 및 도립병원 내에 고등간호학교를 세웠으면 하는 것, 일 뭇도 많고 일에 대한 욕심도 무던한 조국의 역군인가 보다.



윤경렬

(6) 불퇴전의 정객, 윤경렬(尹兢烈, 1910년생)

민주당 수원시당위원장인 윤경렬 씨의 50 평생을 천수 백자의 글 속에 담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씨의 뒹뒹 까지를 아울러 담기란 더욱 어려운 노릇이다. 광고의 문장 이라면 또 몰라도 글솜씨가 서툰고 보면 씨의 프로필이 영 어긋날 혐(嫌)이 있는 것이고 설사 행문이 유려하다 할지라도 핵심을 잡지 못하면 공소한 미사어구에 지나칠 것이니, 이 글로 씨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면 처외의 일인 상시다. 그러기에 소상하지 못한 자료로 씨를 사실(寫實)하려 드는 의도부터가 잠월(潛越)된 일임을 모두에 적어야겠다.

씨는 수원시 구천동이 본적으로 되어 있다. 거북이 개천에서 문룡이 태어난 셈이다. 가산이 만만치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기에 청운의 뜻을 중도에서 꺾는 다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었다.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향학의 의욕, 그것만 해도 행운아였는지 모른다.

일찍 독일한 씨는 와세다대학 법학부에 적을 두었다. 부유한 가정의 한국 유학생들이 유치량으로 자처하던 퇴폐를 타기했고, 슬플 땐 울고 억울할 땐 분노하는 다

혈질인 데가 있었다. 희로애락에 너무 민감하면 경망하다고 하여 무조건 굴욕하러는 자중이 지나쳐서 자고로 동양 민족은 무감동한 그리고 무기력한 통패를 면치 못하였다. 씨의 생애는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리에 어긋난 일인의 처사를 통박하여 거리낌 없던 열혈의 기질은 오늘 천군만마를 질타하듯 집권당이나 행정부의 악덕을 폭로하고 꾸짖는 레지스탕스로 자라났다고 할 수 있다.

와세다에서 수학한 다음 귀국한 씨는 수원군청을 시발점으로, 경기도청 토목과를 거쳐 연천군청에서 관계를 하직하고 말았다. 관료란 버스를 타고 종착점까지 갈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47년 조선민족청년단 수원군단장에 피선됨을 계기로 청년운동에 투신, 소장정책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49년 호국군 111연대 부연대장을 역임한 다음 이듬해에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다. 그러나 모든 여건의 불리는 사자후의 씨에게 참패의 고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1952년 제1대 수원시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되어 의장으로 뽑혔다. 잠룡이 때를 얻은 셈이다. 이어 송천지세로 수원 축산협동조합장, 수원시물자운영조합 상임이사를 역임, 1959년에 민주당 수원시당 상무위원회 의장으로 뽑혔고, 현재 민주당 수원시당위원장이면서 민주당 중앙위원이다.

불려(不慮)의 전패(顛敗)로 알력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파쟁을 심통하고 있는 씨이긴 하지만 민중의 복지를 위하여 집권층에 누감하고 매서운 공박의 창끝을 돌려본 적이 없다.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여 공격하라! 쉬지 말고 파헤치면 금성탕지를 자랑하는 악덕의 아성도 무너질 것이다.” 노효하는 씨는 아직 청년이다.

등산, 원예, 음악 감상이 취미다. 성격은 남성적이다. 고집(주관의 확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 세고 박력이 있으나 온유한 면도 아울러 갖고 있다. 슬하에는 4남 5녀가 있어 단란한 왕국을 이루고 있다.

#### (7) 불퇴전의 결륜지사, 이용성(李容成, 1906년생)

인구 수만을 헤아리는 소도시 수원의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파격으로 거물이다. 나이는 이제 55. 장년의 고비에 있으나 백발이 성성한 풍모는 펍 노숙해 보인다. 그



이용성

러나 쇠퇴를 모르는 무쇠의 거구는 조그마한 산 같다. 5척 7촌의 늘씬한 키를 뒷받침하는 23관의 체중은 씨가 왕년에 이름을 떨친 운동선수였음을 웅변하고 있다. 불퇴전의 생리와 호방한 사고방식, 창공과 마주보고 천 년을 만 년을 살아온 청산처럼 신산의 인생을 달관한 씨의 생김새도 산이다. 만정(萬情)을 안으로 지닌 채 넘치는 법이 없는 종용(從容)한 행지(行止)는 씨의 인간성의 볼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기분이 나면 경음(鯨飲)하여 몸가짐에 흔들림이 없다는 씨는 맥주왕이란 아호 아닌 별명을 훈장처럼 전승하고 있다. 일일천잔(一日千盞)의 주선 이태백은 청련거사라 스스로 일컬어 고아한 선비임을 자궁 삼았으나 물에 뜬 달을 건지려다 썩 낭만적인 명부 길을 떠났다던가? 그러나 씨는 호음(豪飲) 두주를 불사하는 사계(斯界)의 맹장이지만 도무지 주사가 없다. 명심보감에 취중불언은 진군자라던가 어찌던가, 쾌쾌 묵은 말이지만 등장 아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수원시의회 의장 이용성 씨는 수원 산이다. 자람에 개성 유학의 길을 떠났다. 고려 5백 년의 도읍지 송도에 있는 고적보다 유명한 송도고등보통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재기도 뛰어났지만 용용히 샘물 솟는 듯한 체력은 무서운 것이었다. 야구에 축구에, 전교의 히로인이었다. 미기(美技)에다 지칠 줄 모르는 주력을 구사하여 경기장의 시선을 한 몸에 못 박았던 당시를 회고할 때마다 6척 거구가 지금도 들먹거린다는 다혈질, 그러기에 언제나 의에 편드는 청년의 객기를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독차지하던 투기는 그대로 인생을 개척하는 불굴의 에너지로 전환, 지금 씨는 칠면팔비의 일꾼이다. 수원시의회 의장이자 수원시농민회 회장이요, 거기다가 경기도농민회 부회장, 수원시야구협회 회장, 수원시축구협회 회장을 겸하면서 수원여자중고등학교 사친회 회장까지 맡고 있다. 그중에 야구와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씨를 제쳐 놓고 적격자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감투를 여러 개 쓰고 있으나 씨는 권력에 야심이 없는 사람이다. 까짓것 감투쯤 언제든 지 미련 없이 버리고 향토문화의 발전과 유축농장의 경영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포

부를 여러 번 토로한 적이 있는 씨다.

“생활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의 의리를 생명으로 한다.” 친구의 의리를 생명으로 안다는 그 신념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로 통하고, 이웃을 아낀다는 그 믿음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연역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친구의 의리를 신발짝 버리듯 버리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노라고 나서 보았자 속이 내다보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송도고보를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온 씨는 운송업도 자영한 적이 있다. 구천동장을 시발점으로 누진하여 1953년 초대 시의원에 당선, 이어 2대에도 압도적으로 당선된 여세를 몰아 시의장까지 차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에너지 넘치는 50대의 청년 씨의 취미는 운동이다.

(8) 한국 직물계의 수문장, 최종건(崔鍾健, 1926년생)

올해 서른다섯 살 5척 8촌의 키에 22관을 헤아리는 몸매를 가진 불 같은 의욕의 사나이, 그는 수원시의원이면서 선경직물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인 최종건 씨이다. 경기공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지 불과 16년 만에 지방정책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굴지의 직물업자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씨는 거구(巨軀)의 몸집 그대로 자이안트로 성장할 십이분의 소지(素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소시에 『프르다그 영웅전』을 읽고 피의 역류를 느낄 만큼 감명을 받았다는 씨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어떠한 난관도 타개하리라는 불굴의 결의가 씨를 오늘로 끌고 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어릴 적엔 총명이 과인하여 족히 재동이란 칭찬도 받았지만 그와 아울러 민첩한 행동력이 있었다. 어린 벗들과 어울려 산이란 산과 들을 질층처럼 날아다녔고 남의 밤숲(울림)직이 영감의 신경도 날카롭게 해 주었다. 추석 같은 명절 땀 어른들을 따라 종산에 갔고 으레 풋밤이나 알밤을 한주머니씩 부산물로 얻어 오는 것이었다. 그렇듯 매인 데 없이 초원을 내딛는 분마처럼 자라난 씨에게 패기가 없



최종건



을 리 없다.

수원신흥국민학교에 다닐 땐 축구선수였다. 건강 100%의 명랑한 표정이 한 번씩 긴장(緊張)할 때마다 적진은 공포에 떨었다니 쉽사리 씨의 소년시절을 짐작할 수가 있다. 전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였을 때도 씨의 비호(약간 과장이지만) 같은 몸집이 공을 악착같이 추격함으로써 인기를 한 몸에 끌었다는 것이다. 공을 한 번이라도 뺏기는 날엔 그야말로 동섬서홀(東閃西忽)로 악착같이 쫓아다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굴의 투혼은 오늘날의 씨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경기공업학교를 마친 이듬해, 약관 20세로 선경직물주식회사 공무과장 자리를 차지한 일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재질이나 역량이 범인을 넘어서는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로부터 8년, 씨는 드디어 선경직물주식회사 사장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니 놀라운 발전이다.

현재 수원시 평동 4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선경직물은 견직물(주로 양복내지) 생산에서 전국 굴지의 것이다. 공장 총건평 연 1,501평에 견직기 100대를 갖추고 연간 3만 2,000필의 생산고를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20여 명에 달하는 직공을 옹(擁)하여 일사분란한 협조와 자율정신을 십이분 발휘하게 하는 통솔역량도 웬만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최신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원료생산-제조-가공의 일관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업체를 만들고 싶다는 씨의 의욕은 막을 수 없는 물살처럼 시간과 더불어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재벌인 카네기를 숭배한다는 씨다. 한국적 후진성이 극복될 때 씨의 앞날은 불가측의 것이 된다. 한국의 카네기가 못되란 법은 없다. 조용히 씨의 앞날을 주시하는 한국의 산업사가 후세에 가서 증명할 따름이다. 실업가이면서 89년엔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된 씨, 재력을 뺏본을 삼지 않았다는 데서 씨의 덕망도 어떠한가 알 수 있다.

#### (9) 원만무비의 품성과 가정, 한광호(韓光鎬, 1896년생)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에 그는 먼저 웃음을 보인다. 그다음 웃음과는 좀 동떨어진 무뚝뚝한 말씨의 대답이 떨어진다.

“그저 바둑이랄까요?” 그러나 그는 다시 웃는다. 좋은 가정을 가진 때문인지도 모른다.

환갑을 몇 해 전에 지낸 예순네 살의 노인으로는 좀 정중한 품이 흐른다.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 수리사업에 있어서 남긴 공적은 이루 헤일 수가 없다. 그에게 내려진 술한 표창장과 공로장이 그것을 웅변, 증명해 주고도 남는다.

호호 영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상한 능력, 이걸 세상에서는 금삼침화란 말로 표현해 왔다. 그는 1937년부터 오늘날까지 수원수리조합장을 지내어 오고 있다. 20여 성상, 그것은 다만 그의 능력을 받드는 술한 민의의 발원에 불과하다. 1941년의 개편에서 재임한 이래 1949년에도, 1953년에도 그리고 1957년에도. 광활한 수원의 평야 농업의 상아탑을 웅(擁)한 사원은 20여 성상에 걸쳐 그의 수완과 역량을 받들어 수리사업의 왕으로 모셔 온 것이다.

공무에 지쳐 집에 돌아가면 홀연히 선인인 양 바둑판을 대할 수가 있다. “통~”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으면서 인생 60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에 그는 희열을 만끽할 수가 있다. 원만한 그에게 있어서 바둑은 승부의 도박이라기보다는 천상에서 유연히 하계를 조감하는 선계의 유희일 뿐이다. 거기 호연지기의 함양이 있을 뿐이다.

만아들은 심계원의 모 과장이요, 또 둘째 아들은 공보실의 선전과장이다. 그토록 다복한 노옹에게 있어 매사는 그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을 이어 유교를 받들고 있다. 원만한 호호 옹도 적어도 가정교육에 있어서만은 엄한 면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제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저 고종황제의 헤이그밀사사건으로 유명한 밀사의 한 분으로서 한규설 씨를 당숙으로 하고 있는 그는 항일의 가정에서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려 일관한 항일정신에서 그의 생애를 기울여 왔다. 비록 일제 시 경기도의원으로 2차나 선발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세 부득한 하나의 놈들에 대한 눈가림수에 불과하였다. 동맥 속에 고동치는 백의의 얼을 간직한 채 항일의 조상을 가진 자로서의 마지막 생의 수단이



한광호



있을 뿐이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술루에 홀로 앉아 ……” 흥얼거리 보는 시조가락 속에 그는 성웅 이순신 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다. 충무공의 구국에 바쳐진 단심과 함께 원만했던 인격이 필경 그로 하여금 존경케 한 동기로 되었으리라.

“농민의 자립 경제를 지향하고 수리시설의 확장과 수세경감 및 생산 증강과 농촌 재건에 힘쓰겠다.”고 말하는 그는 노후시설의 보수와 청북지구(평택군·화성군) 저수지 공사의 추진계획을 실현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 수원시 신평동 태생, 2남 2녀 손자손녀 2명의 가정.



홍사운

(10) 사학 진흥의 선구자, 홍사운(洪思運, 1905년생)

수원중고등학교장 홍사운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감탄성을 발하게 되는데, 우선 바위 같은 체구에서다. 5척 4촌의 키, 동양인의 평균적인 신장으로서도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3관이란 목직한 체중이 뒷받침하는 몸매는 압도적이다. 교육사업에 투신하여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즐거운 일, 고된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30년의 보람이 수원이란 소도시의 중고등학교장이란 자리에 그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계에 바친 씨의 업적은 묵과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씨의 문하생으로서 거처간 수많은 인재들이 이룩한 일들에 생각이 미치면 그러한 업적은 배가되는 것이라 하겠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보리알이 싹틀 때 무성한 잎을 뺏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거늘 더구나 씨의 한결같은 애씀이 있었을 때야 오늘의 결실은 당연 이상의 당연이 아니겠는가? 학생들의 고귀한 피흘림으로 하여 독재의 성벽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히기엔 요원한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는 우리들의 2세를 가꾸어 가고 있는 가르침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과연 몇 %의 분들이 참된 교육자인지 의아스럽다. 민족의 기대가 교육이란 개량방법에 걸려 있지만 그 기대에 완벽이란 확답을 줄 수 있는 교육자는 더욱 드물다. 씨를 들어 완벽의 경지에 이른 교육자라고 이름 하기엔 독단의 힘의

가 안 따를 수 없고, 더구나 약전에 있어 포퓰이 극단의 표현을 빌릴 때 과장이란 지탄을 받기 일쑤이기로 성실한 교육자로 지칭할 따름이다.

수원시 태생인 씨는 교육생활 30년을 온통 수원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향토의 교육 진흥에 반생을 바쳐 온 셈이다. 1931년 동양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씨는 이듬해인 1932년 귀국하여 수원중학강습소를 열었다. 요즘이야 좋으나 곳으나 국민의 교육열이 굉장해서 웬만하면 판잣집 따위의 학교를 세워서는 이른바 사교육의 기업화를 꾀하는 무리가 많지만 당시로선 그런 건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엄두도 못낼 일이고, 더구나 씨의 의욕은 겨레에 대한 사랑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숭고한 결의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민족의 비애가 얼마나 컸던가? 그것은 이민족의 압제로써 나타났었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민족의 계몽에 의한 정기의 진작에 있었다. 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교육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씨의 결의는 더욱 굳은 것이었다. 그 뒤 수원에서 화성학원을 세웠고 이어 수원상업학교 교장직에 취임함으로써 오랜 희망은 이루어졌다.

해방 후 1946년 수원중학교장에 취임, 다시 1951년에 수원고등학교 교장직까지 맡게 되었다. 이처럼 씨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교육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이룩하듯 오늘날 수원중고교를 전국 유수의 것으로 만들어 낸 씨의 업적은 동교가 존재하는 이상, 아니 한국의 역사가 남아 있는 이상 길이 있어 빛낼 것임에 틀림없다.

#### 4. 1990년대 향토지 속 '수원 인물'

##### 1) 『수원시사』의 인물 선정 기준과 분류

1997년에 수원시가 발간한 『수원시사』 중편 제2장이 '인물 열전'이다. 인물 열전은 크게 선현전(先賢傳), 충·효·열전, 과거급제자, 학자·예술인, 역대 목민관 등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시기 『수원』과 1960년의 『수원의 역정』의 '수원 인물' 선정이 당대 인물 위주였던 것에 비해, 다시 과거로부터 '수원 인물'을 선정



하던 『수원부읍지』·『수원군읍지』의 형식과 내용으로 회귀한 것이다. 선정 기준 역시 ‘학자·예술인’ 편만이 근현대 수원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학자를 선정하여 그 약력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역대 목민관에는 1945년 이후 시장의 명단도 들어 있다. 과거의 ‘수원 인물’을 선정하는 방식과 현재의 ‘수원 인물’을 선정하는 방식의 절충이므로 인물 선정 방식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수원의 역정』 단계에서 보였던 식민성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수원 인물’만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인물을 나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수원 인물’을 선정하면서 새로운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조선시대 전통적 선정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 (1) 선현전

선현전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수원 출신으로 중앙 정계에서 활약하거나 이름이 알려진 46명의 인물이 선정되어 있다.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의 인물 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만 빌어 왔을 뿐, 내용적으로는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가 선정한 인물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인물 분류의 형식은 따랐지만, 인물 선정의 기준은 달랐기 때문이다.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가 ‘유교 왕조’의 시각에서 조선의 인물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면, 『수원시사』는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 속에 등장하는 수원의 인물을 가감 없이 선정하고자 하였다. 일단, 고려의 ‘수원 인물’이 11명으로 늘었다. 우선, 고려의 숭불 풍조를 반영하듯 수원 출신으로 국사의 칭호를 받은 혜거와 여말선초에 활약한 신조 등 2명의 승려가 선정되었다. 나말여초의 지방호족의 존재를 입증하는 김칠과 원간섭기 외척인 홍규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문신인데, 이자송과 같이 고려 후기에 활약한 이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조선시대 인물 역시 문신이 대다수이다. 조선 전 시기를 걸쳐 25명의 문신이 올라 있는데, 무엇보다 정치적 격변에 부상한 문신들이 적지 않다. 세조의 왕위 찬탈,

중종반정과 사화 등에서 수원 출신 문신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파나 당색을 형성하지 않아 서로 적이 되어 죽고 죽이는 경우도 생겨났다. 가령, 홍경주는 훈구파의 일원으로 기묘사화를 일으킨 주역 중 하나이고, 신영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당한 스승 김식을 변호하다 탄핵당하였다. 박세훈과 박세희 형제도 기묘사화에서 화를 당하였다. 정조 대 화성이 건축되면서 수원이 주목받았듯이 정조의 관심 속에 활약했던 수원 출신의 문신, 무신, 실학자, 승려 등이 실려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수원부읍지』와 『수원군읍지』에서 무반 출신 인물이 적극적으로 선정된 것에 비해 『수원시사』에서는 문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선정하면서 무반의 경우 4명에 불과하였다. 다만,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을 일으킨 수원 출신 의병장은 매우 강조되어 3명이 선정되었다. 적어도 『수원시사』만을 보면 수원은 문풍(文風)이 강한 지역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1899년에 나온 『수원군읍지』를 살펴보면, 수원은 무반의 도시이다.

선현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남양 홍씨가 17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양 홍씨는 명문 가문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조선시대에는 10대 문벌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조선시대에만 무려 329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남양 홍씨는 조선시대에는 남양부를 세거지로 하였기 때문에 수원 지역 읍지류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1914년 남양군이 수원군에 통합됨에 따라 남양 지역에서 세거하던 남양 홍씨나 남양 방씨 등도 수원인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1990년대 『수원시사』에 반영되었다.

#### 고려시대(11명)

혜거국사(惠居國師 : 나말여초 승려), 김칠(金七 : 호족), 최자성(崔滋盛 : 인종 대 문신), 홍관(洪灌 : 인종 대 문신), 공천원(貢天源 : 고종 대 문신), 홍자번(洪子蕃 : 충렬왕 대 문신), 홍규(洪奎 : 충숙왕의 장인), 홍빈(洪彬 : 충숙왕 대 문신), 이지송(李子松 : 공민왕 대 문신), 방사량(房士良 : 우왕 · 공양왕 대 문신), 신조(神照 : 공민왕 대 승려)

#### 조선시대(35명)

홍달손(洪達孫 : 세조 대 무신), 홍일동(洪逸童 : 세조 대 문신), 홍응(洪應 : 성종 대 문신),



홍유손(洪裕孫 : 성리학자), 홍동(洪洞 : 연산군 대 문신), 홍흥(洪興 : 성종 · 연산군 대 문신), 전림(田霖 : 연산군 대 문신), 홍경주(洪景舟 : 중종 대 문신), 장정(張珽 : 연산군 대 문신), 신영(申瑛 : 중종 대 문신), 강욱(姜昱 : 명종 대 문신), 심우신(沈友信 : 선조 대 문신), 홍이남(洪李男 : 선조 대 의병장 · 무신), 김은휘(金殷輝 : 선조 대 의병장 · 무신), 심민겸(沈敏謙 : 선조 대 의병장), 류희분(柳希奮 : 선조 · 광해군 대 문신), 홍언필(洪彦弼 : 중종 대 문신), 박세훈(朴世薰 : 중종 대 문신), 박세희(朴世熹 : 중종 대 문신), 홍섬(洪暹 : 명종 · 선조 대 문신), 홍담(洪曇 : 명종 · 선조 대 문신), 홍가신(洪可臣 : 선조 대 문신), 남울(南慄 : 중종 대 문신), 정경륜(鄭景倫 : 인조 대 문신), 정재윤(鄭載崙 : 효종의 부마), 이유민(李裕民 : 숙종 대 문신), 우하영(禹夏永 : 정조 대 실학자), 홍원섭(洪元燮 : 정조 대 문신), 조심태(趙心泰 : 정조 대 무신), 의소(義沼 : 정조 대 승려), 이만수(李晩秀 : 순조 대 문신), 서영보(徐榮輔 : 정조 대 문신), 정생(鄭生 : 정조 대 서화가), 조학년(趙鶴年 : 순종 · 현종 · 철종 대 문신), 정윤영(鄭胤永 : 고종 대 문신)

## (2) 충 · 효 · 열전

충 · 효 · 열전에서는 충신 8명, 효자 31명, 효부 4명, 열녀 12명을 선정하였다. 충신은 조선시대 인물에 국한되어 있다. 충신은 전쟁과 반란 진압 등에서 목숨을 바친 인물을 일컫는데, 『수원군읍지』에 등장하는 한명윤, 윤정준, 이만만 외에 병자호란 때 활약한 김준룡, 홍신, 홍언인, 김택, 송후경이 새로 추가되었다.

### 충신(8명)

한명윤(韓明胤), 윤정준(尹挺俊), 김준룡(金俊龍), 홍신(洪信), 홍언인(洪彦仁), 김택(金澤), 송후경(宋後景), 이만만(李晩萬)

효자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효자인 최루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시대 인물들이다. 『수원군읍지』에 등장하는 20명에 새로이 11명이 선정되었다. 효행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한 것이 대다수를 이루어 31명 중 18명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3년간 시묘살이를 한 아들에게도 나라에서 정문(旌門)을 내린 경우가 많다.

#### 효자(31명)

최루백(崔婁伯), 최세호(崔世湖), 한몽송(韓夢松), 박시형(朴時亨), 이봉헌(李奉賢), 홍여석(洪汝奭),李明구(李明龜), 배홍중(裨弘重), 윤필명(尹必鳴), 김대흥(金大興), 박재만(朴再蔓), 고경천(高擎天), 박장철(朴長哲), 이곤(李琨), 배천해(裨天海), 윤지은(尹贄殷), 신용남(申龍南), 이용수(李龍守), 한슬매(韓瑟每), 김취징(金就徵), 윤형로(尹衡老), 최도문(崔道文), 최수복(崔受復), 김성열(金性烈), 송인상(宋麟祥), 최종술(崔宗述), 신사하(辛師夏), 최정린(崔廷麟), 장용현(張龍現), 조현(趙蠟), 유춘명(柳春明)

효부로는 전쟁의 와중에 남편과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한 인물, 시부모를 모시고 피난 가다 적군을 만나 순절한 경우와 함께 평소 효성이 남다른 인물에 효자와 마찬가지로 단지(斷指)를 통해 시부모 병구완을 한 경우 등 『수원군읍지』의 인물과 내용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

#### 효부(4명)

수성 차씨, 함양 박씨, 안동 김씨, 윤씨

열녀로는 남편이 죽자 자결한 경우가 가장 많아 8명이 이에 해당된다. 『수원군읍지』에 등장하는 열녀에 두 사람이 더 선정되었는데, 이들 역시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사례들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은 4명이다. 열녀의 상징 이미지인 수절의 경우는 여기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 열녀(12명)

밀양 박씨, 함안 이씨, 안산 이씨, 충주 김씨, 순흥 안씨, 연안 이씨, 수원 최씨, 홍씨, 밀양 박씨, 기계 유씨, 전주 이씨, 초계 정씨

### (3) 과거급제자

입신출세의 상징인 과거에 급제한 ‘수원 인물’을 따로 분류한 것이 『수원시사』의 인물 선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이다. 과거급제자에는 수원을 본관으로 하거나 문과 응시 당시 수원에 거주한 것으로 입증된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 157명의 생몰



연대, 본관, 부·조·증조의 이름과 외조의 성(性), 급제연도, 시험종류, 역임한 최고관직 등을 나열하고 있다. 과거급제자를 급제 당시 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조선 전기에는 과거급제자가 거의 없었지만 선조 대 이후, 특히 영·정조 시대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면서 과거급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이후 과거급제자수의 가파른 증가는 기호(畿湖)를 중심으로 경화사족이 성장하고 화성이 건설되는 과정 등을 통해 수원의 지역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던 현실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7> 『수원시사』에 수록된 수원 출신 과거급제자

왕명	명수	성명
세종	2	백호삼, 김복해
단종	1	백사수
성종	1	이희락
중종	2	최보한, 백인걸
명종	1	최우경
선조	6	백유양, 백유함, 최희설, 최충원, 백대형, 최승
광해군	2	최정원, 최진운
인조	2	최육, 최효견
현종	1	최반
숙종	6	최신, 최태후, 최진하, 백홍규, 최도문, 백시광
경종	3	이경백, 최치중, 최위
영조	15	백홍거, 김상린, 백대성, 백상우, 최창국, 백익환, 백인환, 백종혁, 백사은, 백광택, 백봉주, 최치백, 김응린, 이수대, 백사곤
정조	27	백사근, 이득휴, 최규한, 김형린, 백경해, 백홍삼, 이덕승, 이서조, 이운행, 조수민, 임후상, 이운항, 권의, 이석조, 민영조, 조만원, 임희준, 윤지승, 최지성, 유성의, 이계, 백문경, 심후진, 이홍겸, 신익학, 김기은, 유진
순조	30	김노문, 김상휴, 윤규백, 김도원, 이현동, 이노신, 임정상, 이석주, 백사곤, 김철원, 백광유, 심동윤, 백시원, 김우명, 백시형, 김당, 백동규, 김약수, 백만형, 김명주, 김재명, 엄석리, 조하년, 김기만, 한복리, 김정운, 백문봉, 김재전, 백종걸, 백윤학
현종	9	백종전, 백문진, 김름, 심후선, 조희철, 이용좌, 백종규, 백사은, 최복래
철종	13	채과영, 엄도영, 성하경, 백규수, 백봉삼, 조희일, 백오진, 백인행, 한용교, 민재진, 채동술, 백익행, 이학년
고종	36	백시범, 백성수, 안중원, 정학준, 유망원, 백규연, 백락홍, 백영제, 백선행, 백규섭, 김명기, 백시현, 백취규, 백주범, 백시순, 백진섭, 백면행, 백남도, 백영기, 백문행, 백호섭, 백극행, 심익학, 조중순, 백낙순, 유재두, 백학구, 정순교, 이병수, 김각현, 윤기, 백헌태, 서태환, 최한응, 이수용, 백현진

#### (4) 학자 · 예술인

학자 · 예술인에는 소설가이자 시인 김광주(金光洲), 시인 김수환(金秀煥), 화가 나혜석(羅蕙錫), 소설가 박팔양(朴八陽), 화가 이영일(李英一), 농학자 조백현(趙百顯), 아동문학가 최영주(崔泳柱), 음악가 홍난파(洪蘭坡), 시인 홍사용(洪思容) 등 9명의 근현대 예술인과 학자의 행적이 나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부분이 예술가이고, 학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발전에 기여한 농학자 조백현 1명뿐이다. 예술가로는 월북한 박팔양과 친일 행적으로 비판받는 홍난파 등을 가감 없이 선정하였다. 좌/우와 민족/반민족이라는 이념성보다는 수원이 낳은 인물이라는 토착성이 강하게 작용한 선정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당적 성향이 적은 수원인의 기질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 (5) 역대 목민관

전근대의 목민관과 함께 근현대 지방관인 군수, 시장을 역임한 인물에 대해서도 실고 있다. 일제치하의 수원군수 역시 수원에서 행정을 실시한 인물이므로 제외하지 않고 실고 있다. 전근대 수원 지역 목민관의 명단은 1413년 수원에 도호부를 설치한 이후부터 확인된다. 그래서 도호부 시기의 부사, 유수부 시기의 유수, 군 시기의 군수 명단이 실려 있다.

부사는 1899년 발간된 『수원군읍지』를 기초로 작성한 명단이다. 그런데, 관련 자료들과 『수원군읍지』를 비교하여 가감한 결과 1576년(선조 9)부터 1792년(정조 16)까지 부임한 부사는 194명이 아니라 188명이었다. 220여 년의 시간 동안 188명이 부임했다는 것은 부사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을 갓 넘기는 데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반이 대부분이나 무반의 수도 적지 않은데,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는 무반이 연이어 부사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이들 부사 중에 수원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한 우성전(禹性傳)과 김천일(金千鑑)에 대해서는 그 행적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우성전의 경우 수원에 부임하여 얻은 신망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사후에도 후손을 통해 수원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경우인데, 정조 대에 화성 발전책을 마





길가에 서있는 군수 송덕비(1907년, 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비석거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 송덕비(조선총독부, 『생활상대조사수원군』, 1929)



화성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수원의 선정비들



수원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수원의 선정비들

련한 바 있는 실학자 우하영이 그의 7대 직계 후손이다. 김천일은 나주 출신인데 임진왜란 직전 부임한 바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복상했는데, 신망을 얻었던 수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였다. 우성전과 김천일 모두 수원에서 신망을 얻어 의병을 일으킨 충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수원이 유수부가 된 것은 1793년(정조 17)으로, 유수부에는 유수가 파견되었다. 여기에는 1793년부터 1895년(고종 32)까지의 유수 85명의 이름과 부임·교체 시기가 실려 있다. 『수원군읍지』에는 83명이 등장한다. 수원이 화성 축조와 함께 지역적 위상이 크게 부상한 것을 반영하듯 유수 중에는 체제공, 조심태, 서유구, 박규수, 김홍집 등 중앙 정계에서 이름이 있는 정치가와 실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이들의 약력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체제공과 조심태는 물론 서유구와 박규수 같은 실학자는 화성 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체제공은 초대 화성유수였다. 그는 5개월의 재임기간 이후에도 화성 건설의 총책임자로서 수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조심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양주 배봉산에서 옮겨 오는 일, 수원의 읍치를 현 위치인 팔달산 아래로 옮기는 일 등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화성 축조가 시작될 무렵 3년 반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유수로 재임하였다. 화성 축조에는 군사적 고려가 매우 컸는데, 조심태가 화성유수 겸 건설 책임자로 임명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학자이자 대표적인 농학자인 서유구는 최신 농업이 행해지던 수원 지역에서 유수로 재임하였고, 그 경력이 이후 구황삼척을 올리거나 새로운 벼품종을 시험하는 과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제도 변화에 따라 수원은 군이 되었는데, 1895년부터 1899년까지 부임한 6명의 군수 명단이 부임·교체 시기와 함께 실려 있다. 일제시기 수원군수 12명의 명단도 실려 있다. 이 중 김관현(金寬鉉 : 1910년 부임), 고원식(高原植 : 1918년 부임), 송문화(宋文華 : 1937년, 1939년 부임), 허섭(許燮 : 1938년, 1941년 부임) 등 4명이 한국인이었다.

해방 이후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총 22명의 시장과 23명의 부시장의 재임기간이 실려 있다. 1988년 이후의 구청장 명단을 재임기간과 함께 신고 있다. 시장의 경우 경기도 출신이 많은데, 이는 애향심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는 임명직 관리이고 임기가 짧아 적극적인 시정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 중에 강해승(姜海昇), 김한복(金漢福), 이백일(李白日), 남영우(南永祐), 백세현(白世鉉), 심재덕(沈載德) 등의 약력에 대해 자세히 심고 있다.

## 2) 『수원시사』가 선정한 주요 '수원 인물'

『수원시사』가 선정한 인물 중 충·효·열전에 해당하는 인물은 『수원부읍지』, 『수원군읍지』와 대부분 일치한다. 과거급제자와 역대 목민관의 경우는 부임과 체임 일자만 나와 있어 '수원 인물'로 선정하기는 부적절하다. 여기서는 제한적이거나 선현전과 학자·예술인에 실린 인물을 중심으로 수록하고자 한다.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박세희(朴世熹)

조선 중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이회, 호는 도원재·이소재이며 박세훈(朴世薰)의



박세희의 위패를 봉안한 안곡서원(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아우이다. 1514년 별시문과에 장원한 뒤 이듬해 사가독서했고, 기묘사화 때 죄송지였으나 조광조 일파로 몰려 강계에 안치되었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강이다. 1666년(현종 7) 남양현감으로 부임한 민기중이 기묘명현인 그의 유품을 숭모하여 현 서신면 상안리에 안곡서원을 건립하여 위패를 봉안·제향하였다.

## (2) 박팔양(朴八陽)

시인, 소설가, 평론가로 수원 곡반정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여수·김여수이며, 1916년 제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배재고보에 진학하였다. 당시 배재고보에는 후일 카프의 중심을 이루는 박영희, 김기진, 김복진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초기 카프 활동을 하였다. 1920년 배재고보 졸업 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정지용·박제찬 등과 함께 『요람』의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시어와 문학적 감수성에 대한 수업을 했고, 후일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짙은 서정성은 이 시기의 체험에서 기인한다. 1923년 동아일보사 신춘문예에 시 「신의 주」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으며, 경성법전을 졸업한 후 조선일보사 기자가 되었다. 1928년 중앙일보사 사회부장을 지냈으며, 1929년 5월 11일에는 고향인 수원에서 「근대 문예 사조에 대하여」란 제목의 문예강연을 하였다. 1932년 중앙일보사를 물러나 구인회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만선일보사 기자가 되었다.

해방 후 월북하였고, 당 기관지 『정로』의 편집부장을 맡았다. 1951년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을 역임했고, 1958년에는 예술대표단장으로 소련, 폴란드, 동독을 순방하였다.

시인으로서 활발한 시작 활동을 하였고, 등단한 지 17년 만에 그동안 발표한 시 중 47편을 선정하여 수록한 시집 『여수시초』(박문서관, 1940)를 발간하였다. 월북 후에는 『박팔양시집』(문화전선사)을 펴냈고, 1962년에는 집제작 「인민은 노래한다」를 발표하였다. 소설로는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정열의 도시」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은 교조적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창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문학비평이론 관점에 입각한 다수의 평론문을 남겼다. 그는 식

민지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비판, 그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회주의 적 문학이론에 입각하여 작품활동을 펼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 (3) 우하영(禹夏永)

조선 후기 화성이 낳은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자는 대요, 호는 취석실·성석당이 며, 본관은 단양으로 우정서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나 승계손이 없어 우정태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남인계의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나 12번이나 과시에 거듭 낙방했으나 실망하지 않고, 청렴강직하고 지사적 삶을 계속하면서 경세치용·이용후생의 실학을 탐구하는 데 전념, 『천일록』을 비롯하여 『농가총람』·『관수만록』 등 많은 역사적 저술을 남겼다. 그는 초야에 문헌 재야의 실학자로서 1796년(정조 20) 국왕의 구언교에 대하여 경세치용의 원대한 포부가 담긴 「병진사월응지소」를 올렸는데, 이때 정조는 그의 상소와 시무책에 보인 경륜이 “가상하다.”는 뜻과 함께 왕의 수조비담 500여 언을 대서한 팔폭시지를 내린 바 있었다. 또한 1804년(순조 4)에도 왕의 하교구언에 대하여 「갑자이월응지소」를 올렸는데, 『순조실록』에도 “민국의 사를 조목 조목 진술하였다.”고 그의 시무책에 담긴 학문과 경륜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그의 저술 중 『농가총람』은 18세기 말의 대표적인 농서로서 집약적인 정농 사상을 고취하며, 그 시대가 당면한 농업과 전제의 문제점을 개혁적·실용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관수만록』은 정조가 국가적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인 수원 화성의 축성을 전후한 시기에 화성이 당면한 농업·행정·사회·군사·지리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개혁의 방안을 향촌인으로서 깊이 있고 생생하게 제시한 명저로서, 18세기 말 이 고장의 향토사는 물론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저술로 크게 주목된다.

### (4) 조백현(趙百顯)

농학자로, 호는 화농이다. 1920년 3월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3월 일본 규슈제국대학 농학부 농예화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4월 수원고등농림학



교 강사로 채용되었고, 같은 해 10월 조교수가 되었다. 토양학을 강의했으며,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의 재료인 메주의 개량제법을 개발하였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같은 해 9월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해방 당시 수원농전 교수 중 조선인은 3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교장으로서는 당면한 문제는 교수진의 확보였다. 이때 각 분야의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교수진을 보강하였다. 1946년 수원농전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학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서울 농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휴전 후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원조를 얻어 전화로 파괴된 대학 건물과 시설을 복구하고 본관 및 도서관을 증축했으며, 기숙사인 상록사와 대강당을 건축하였다. 이 밖에도 자연과학계 대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험시설을 구비하는 등 1961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확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 농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년퇴직 후에도 서울 농대 명예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1987년 화농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후진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1993년에는 이를 화농연합재단으로 개편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여 농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서울 농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의 문화유산에도 큰 관심을 보여 1965년 수원문화재보존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화성성역의궤』를 영인하여 보급하였다.

저서로는 『토양과 비료』(수도문화사, 1952) 등이 있다. 1954년 서울 농대 교수로 재직 시 학술원 회원에 피선되어 활동했으며, 한국농학회장, 한국토양비료학회장, 한국농림수산학협회장 등을 지냈다. 오늘날 서울 농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5) 조심태(趙心泰)

조선 정조 대의 무신으로, 자는 집중이고 본관은 평양으로, 통제사 조정의 아들이다. 무예가 뛰어났으며 음식로 출사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1768년(영조 4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여러 벼슬을 거쳐 충청도병마절도사·삼도수군통제사·좌포

도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1789년(정조 13)에 수원부사로서 현릉원 천봉에 공이 많았다. 또한 수원의 민호를 늘리고 병력을 강화하여 우수부로 승격하게 하였다. 그 후에 어영대장·지의금부사·한성판윤·형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장용대장으로서 오위의 개편을 주도하여 군제도식을 정하였다. 지식이 해박하여 군제·지리·농정 등에 통달하였다. 사후에 우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무의이다.



조심태 초상화(수원화성박물관 소장)

#### (6) 홍경주(洪景舟)

조선 중종 때 문신으로 자는 제옹, 본관은 남양이며, 홍임의 아들이고 희빈 홍씨(중종의 후궁)의 아버지이다.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였다. 그 공으로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어 남양군에 봉해졌으며, 동부승지에 이어 도승지로 특진되었다. 그 뒤 병조판서·좌찬성·호조판서·대사헌을 거쳐 좌참찬이 되었으나 사림과 언관들의 탄핵을 받아 한때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였다.

1519년 훈구파의 한 사람으로 심정·남곤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신진세력을 몰아냈으며, 그 뒤 좌찬성·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도열이다.

#### (7) 홍난파(洪蘭坡)

한국 음악을 근대화한 대표적 음악가로, 본명은 홍영후이다. 1912년 황성기독교



청년회 중학부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정악전습소 양악부를 졸업했으며, 재능을 인정받아 조선정악전습소 교사가 되었다. 1918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도쿄음악학교에서 공부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음악 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에 경성악우회 주관이 되었고, 1922년 전문적인 음악연구기관인 연악회를 창설했으며, 1925년 바이올린독주회를 가졌고, 음악잡지 『음악계』를 발간하였다. 문학에도 관심을 보여 소설 「처녀혼」, 「향일초」, 「폭풍우가 지난 뒤」 등을 발표하였다. 1926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교동음악학원에 편입했고, 1927년 도쿄교향악단 제1연주자가 되었다. 1929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중앙보육학교 교수를 거쳐 1931년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를 지냈다. 같은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의 서우드음악학교에서 2년간 수학하였다. 1933년 귀국하여 이화여전 음악강사가 되었다가 경성보육학교 교수에 취임했으며, 같은 해에 난파 트리오를 조직하고 지휘하였다. 1936년에는 경성방송국 양악부 책임자가 되어 경성방송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다.

1937년 6월 안창호 등 수양동우회 동지 150여 명과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피검되어 한동안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친일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5일 '시국가요발표회'에서 「정의의 개가」에 곡을 붙여 발표하였다. 같은 달 30일 '황군위문조성·총후반도의 애국가요발표회 겸 시국가요 피로의 밤'에서 최남선이 작사한 「장성의 파수」에 곡을 붙인 친일가요를 발표하였다. 이어 1938년 수양동우회 동지 18명과 함께 친일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하였으며, 이해에 경성음악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1941년에는 총독부 학무국장이 회장인 조선음악회의 평의원으로 피선되었다.



홍난파

대표작으로는 「봉선화」, 「성불사의 밤」, 「옛동

산에 올라», 「봄처녀」 등 민족적 정서가 담긴 노래와 「낮에 나온 반달」 등의 곡이 있다. 작품집으로는 『조선동요 100곡집』, 『바이올린 독주곡』 등이 있다. 전공은 바이올린이나 작곡가, 지휘자, 음악교육가, 음악평론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 양악사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수원 팔달산에는 난파 노래비가 세워져 있으나 말년의 친일행위로 후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1. '수원 토박이' 와 '수원 사람' 의 경계
2. 토박이 경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윤택림 |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 02 | ‘수원 토박이’가 말하는 ‘수원 사람’의 경계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개발을 겪은 한국사회에서 지역성(locality)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발전된 교통수단은 전 국토를 거의 일일(一日)생활권으로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전국적으로 이동하고 이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주위에 새로운 위성도시들이 속속 들어서고, 신도시들은 토박이보다는 이주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는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역성이 약화되고 신도시로서의 새로운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원시는 독보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도시화와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화성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수원이라는 지역성이 남아 있는 도시이다.

2012년 현재 수원시 인구는 11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원 시민이다. 그러나 수원 시민들의 조상들이 모두 수원 출신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모두 수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또한 수원 시민들이 자신들을 ‘수원 사람’으로 인식하는지도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모가 타지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타지에서 태어나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본인에 대해 타지 출신인데 지금은 수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한 부모가 타지



에서 태어나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자신이 수원에서 태어났으면 자신은 ‘수원 사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주가 빈번해지면서 사람들의 지역적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신 지역(태어난 곳)과 현재 거주지역이 다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출신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 출신지역은 대개 ‘고향’ 으로 지칭되며, ‘고향’ 은 단순히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의미들을 동반한다. 특히 한국 현대정치에서 지역이라는 변수가 계속 중요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출신지역은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거주지역, 즉 자신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가 있다고 느끼는 지역은 다를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우회가 이러한 현상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원에 사는 주민 내지 시민들은 수원에 전입하는 순간부터 수원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수원 시민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 정체성을 ‘수원 사람’ 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신들을 ‘수원 토박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원 사람’ 의 경계(boundary)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수원 토박이’ 와 ‘수원 사람’ 의 경계

### 1) “수원군부터 조상이 살아온 사람들은 다 수원 토박이”

수원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수원 지역에서 몇백 년 동안 동족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일 것이다. 광교동 여주 이씨 종친회 회장을 지낸 이기형(1928년생)도 조상 대대로 수원에서 살아왔는데, 그가 생각하는 수원 토박이에 대해서 들어보자.

면담자 : (중략) 거의 우리가 “수원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언제 태어난 사람이 [웃으며] 우리 “수원 토박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이기형 : 음. 그

래요.] 만났을 때 “수원 토박이다.” 우리 간주할 수 있는 사람.

이기형 : (중략) 수원 토박이 그러면은 요새 근대 사람은 모르는 얘기죠. 근대 사람은 뭐 저희 아버지가 수원서 살았으면 그냥 수원 토박이 소리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원 토박이다 그러면 옛날, 옛날 수원군 옛날 수원군에서부터 조상이 살아 내려온 사람들은 다

수원 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응. 그래 여기 그 수원도 오산이 지금 오산시 아니요. 오산이 시인데 저게 오산, 오산시가 되기 전에 오산읍이거든. 오산읍이 되기 전에 오산면, 오산면 되기 전에 성호면(城湖面)이요. 수원군 성호면인데, (중략) 아까 물은 얘기에 대한 답은 지금 그 수원에 그래도 수원 토착민이다, 수원 토백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그러면 옛날 수원군 땅이다 그래. 네. 옛날 수원군 땅. [면담자 : 거기서 인제 조상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수원군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옛날은 아니죠. 그것도, 아주 옛날로 가면은 인제 그 남양, 남양면하고 수원군하고 갈라졌을 때 수원군이었던 그,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 수원 사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나 수원이에요.” 그러더라고.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2차 구술조사>



면담 중인 이기형 전 수원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이기형 전 이사장은 예전에 수원군 시절부터 수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수원 토박이라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소급해 보면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 개편으로 수원군이 생긴 시점부터 수원군 내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2012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0년 전부터 혹은 80년 전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고, 세대로 계산하면 약 3세대가, 즉 조부 때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14년 당시 수원군은 현재의 수원시와 오산시·화성시를 포함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행정구역 내로 편입된 지역은 수원군 수원면·일형면·태장면·안룡면·매송면·반월면과 용인군 수지면과 기흥면 일부이다. 수원군의 나머지 면 중 동탄면·봉담면·정남면·양감면·향남면·음덕면 등





1914년 당시 수원군 영역

은 현 화성시가 되었고, 성호면은 현 오산시가 되었으며, 의왕면은 현 의왕시가, 반월면은 현 안산시·군포시·수원시의 일부가 되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구술에서 오산시가 예전에 수원군 성호면이었고, ‘남수원’으로 불렸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화성시도 수원군 내 생활권 속에 있었는데 독립된 시로 된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원군에 속했던 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통합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 전 이사장은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는 수원군 시절에 하나의 생활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원군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수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원군 시절부터 수원군이었던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수원 사람’ 이고 ‘수원 토박이’ 인 것이다.

## 2) “부모님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토박이”

차희상 전 경기도의원은 연안 차씨 집안 출신인데, 차 전 의원의 조상은 정조가 화성 읍성을 축조한 후 전국의 상인들을 읍성으로 이주시킬 때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차 전 의원의 조부는 일제 시기에 방직공장을 운영하였고, 해방 이후 이 방직공장은 선화직물로 발전하였다. 1954년 북수동에서 태어난 차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차희상 전 경기도의원

면담자 : 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여쭙 보고 싶은 거는요, 이제 제가 이제 수원 토박이라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근데 토박이로서 볼 때 수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원 토박이는 누구-

차희상 : 어, 그러니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원 토박이는 최소한도 아버지 때부터 같이 살아야 된다. [면담자 : 수원에] 네, 그러니깐 말하기 좋은 사람들, 정치인들 얘기는 표를 얻을라고 그러는 거지. “하루만 살아도 수원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선거 때 되면 자기 고향 찾아가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뿌리를 박고 살다가 내 자식이 다니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됐어야 이게 토박이라고 그러지. 물론 부모가 여기 안 살았어도 내가 어렸을 때 와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은 뭐 토박이라 소리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오리지날(original : 원래의) 순수 토박이가 안 된다. 그러니깐 부모님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토박이다.

면담자 : 그러면은 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일제시대부터?

차희상 :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면담자 : 음, 해방 이후?

차희상 :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인제 내가 초등학교를 여기 다녔다 그러면은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면담자 :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수원서





가 수원 사람이라고 할 정도면은 그런 분은 감사한 거죠. 근데 토박이와 수원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해 주셨으면 …….(2012년 4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정회사무실)

차희상 전 의원은 부모 때부터 수원에서 살아와서 50년 정도는 되어야 수원 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2년 현재로 따지면 1960년대부터는 수원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수원에서 출생했어야 하는 것이다. 1960년대는 1949년 시로 승격한 수원이 다시 한 번 그 영역을 확장하던 시기이다.

또한 차희상 전 의원은 ‘수원 사람’ 과 ‘수원 토박이’ 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가 아니라도 수원 시민이 ‘수원 사람’ 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수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 전 의원에 따르면 ‘수원 토박이’ 는 2세대에 걸쳐서 수원에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수원 사람’ 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심정적인 유대감이 필요한 것이다.

### 3) “수원에서 삼십 년 이상은 살아야 토박이”

김성근 회장은 김해 김씨 집안 출신으로, 1938년 팔달로3가(당시 본정 2정목)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1928년에 본정철공소를 개업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삼광공업사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성근 회장은 수원 토박이의 경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면담자 : 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수원 사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10년만 살아도 수원 사람이다.” 하셨지만, “수원 토박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수원 토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김성근 : 네, 뭐 이제 지금은 저 고향 개념이 없고 토박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다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수원에서 30년 이상은 살아야 이제 앞으로 토박이 소리 듣지 않겠느냐, 저는 미안스럽게 저희가 100년 이상 살았으니까 미안스러운 얘긴데 하여튼 저가, 제가 살





김성근 회장

은 것만도 이제, 75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면은 “30년은 살아 줘야 그래도 토박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에, 제이씨(JC) 지금 현역 멤버(member)들은 한 20~30년은 다 살은 멤버들 같아요. 지금 보면은,

면담자 : 아, 현역 멤버들은요. 그만큼 많이.

김성근 : [동시에 말하며] 아니, 지금 특우회 멤버들. 네. 현역 멤버들은 조금 인자 [인제] 아직 더 젊어지고 그랬으니까 거기

는 10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그럴진 몰라도 인제 이 제이씨(JC)를 거, 거쳐 가지고 특우회에 넘어왔다 하면은 거기서 적어도 현역에서 10년 했지 않습니까? 대개 10년을 해서 사십(40)이 넘어서 넘어와서 여기 와서 오십(50), 육십(60) 됐으면 벌써 30년은 살은 거 아니에요? [면담자 :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40년은 저, 특우회원이라면은 다 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30년은 그만큼 캐리어(커리어 : career)를 가져야 토박이 소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더 나가서 더 오래 살아주면 좋죠. 그러나 지금은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집니다만은 학교도 인제 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학연, 지연을 따지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나 그래도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이거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재론합니다만 30년만 살았다면 토박이 소리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원 사무실>

김성근 회장은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부친이 작고하셔서 삼광공업사를 이어받아 운영하였고, 1962년에 수원청년회의소(수원JC)에 입회하여 1972년에는 수원JC 회장을 역임하였다. 김 회장은 수원JC가 만 20세에서 40세 사이 사업자들만 회원이 되는 규정에 따라, 1978년에 수원JC를 나와서 수원JC 은퇴 멤버들의 모임인 특우회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또한 1967년부터 수원상공회의소 의원으로 42년간 활동하였다. 이러한 경력으로 김 회장은 수원JC 회원들과 특우회 회원들을 예시로 수원 토박이의 경계를 설명한 것이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초기 수원JC 회원들



1987년 수원시 영역 노란색은 1949년 수원시 영역이고, 보라색은 1963년 확장된 영역이고, 하늘색은 1987년 확장된 영역이다.

은 서울 농대 교수들과 수원 토박이 청년들이었다. 수원JC가 성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1980년대까지는 소위 2대에 걸쳐서 수원에서 살아온 수원 토박이들이 JC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수원JC 내에 수원 토박이의 비중이 적어졌고, 김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는 수원에 10년 정도만 살아도 JC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 회장은 특우회 회원들은 모두 30년 이상 수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원



토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2012년 현재에서 볼 때 1980년경부터 수원에서 살았다면 수원 토박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은 현재 권선구 당수동과 입북동, 영통구 영통1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미 수원시로 편입된 시기다.

#### 4) “수원에서 태어났으면 수원 토박이”



김태형 대표

김태형 대표는 부모가 한국전쟁 이후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1953년에 매산로2가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영동시장에서 과자도 매상을 하였고, 1969년부터는 집안에서 금성TV 수원판매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는 삼일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1980년에 수원72연합동우회를

만든 창립 멤버이고, 현재 소나무병원 대표다.

면담자 : 수원 토박이다 하면 어떤 사람을 수원 토박이라고 보시나요?

김태형 : 수원 토박이는 인제 아무래도, 글썄 나는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수원 토박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십 대를 살았다 이것보다도 수원서 오랫동안 정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토박이라고 보이고.

면담자 : 부모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김태형 : 그럼요. <2012년 9월 11일, 수원박물관>

김태형 대표는 비록 조상 대대로 수원에서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수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원 토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서’를 수원 토박이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면서 본인이 수원 토박이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가 태어난 해인 1953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는 60년의 세월이고, 2세대가 산 세월이다. 비록 김 대표의 부모가 용인 출신이라도 김 대표는 지난 60년, 즉 한국전쟁이



1994년 수원시 영역

후 급격하게 개발되어 온 수원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그런데 김 대표의 말대로 수원  
에서 태어난 사람을 수원 토박이라고 한다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즉 1980년대  
나 1990년대에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모두 수원 토박이라고 해야 한다.

##### 5) “수원에 들어왔으면 그게 다 수원 사람”

앞의 수원 토박이들이 거주기간, 거주공간 그리고 정서를 근거로 수원 토박이의  
경계를 논하고 있다면, 또 한 명의 수원 토박이는 토박이의 개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용호(1936년생) 현 수원바둑협회 회장은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장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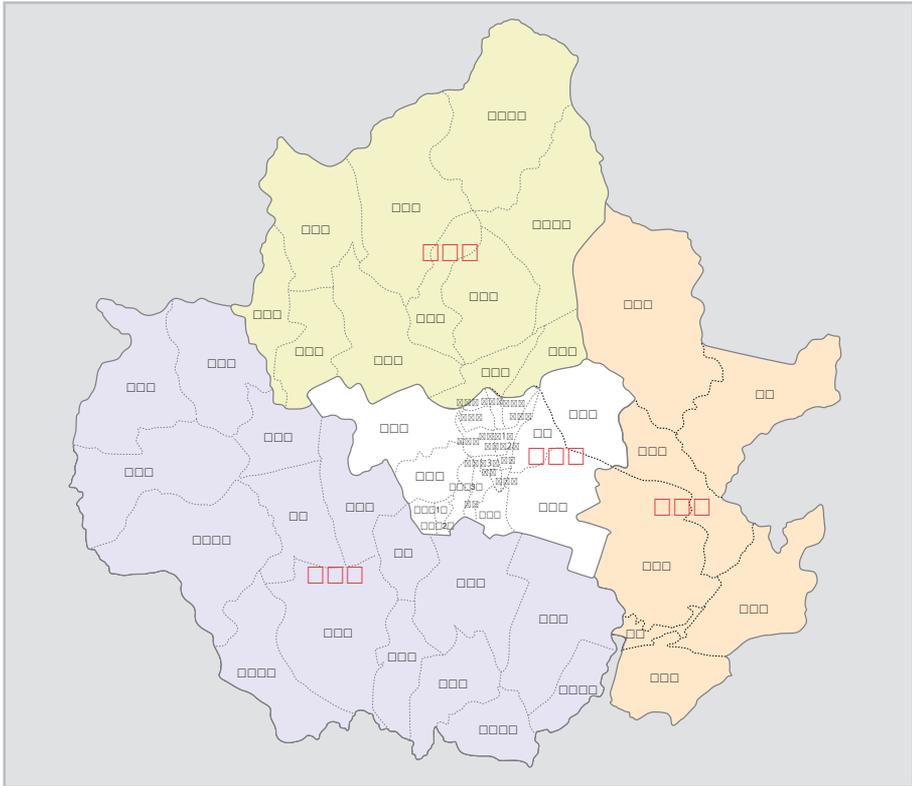
조용호 회장

임하였는데, 그는 수원 토박이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면담자 : 그러면서 이 수원시가 읍에서 시로 됐다가 또 인제 시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조용호 : 어,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도 사실은 화성면, [조용호 : 그때 일왕면 때 일왕면이었다가 [조용호 : 들

어간, 편입이 된 거죠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수원이 점점점 [조용호 : 커지죠.] 커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뭐 사실은 용인 사람도 그렇고 화성군이었던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다 수원 시민이 [조용호 : 된 거죠 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외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원 사람, 수원 시 경계, 또는 수원 사람이 누구인가, 수원 토박이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조용호 : 토박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요 근자에 와서 생긴 거지, 옛날에는 그 지방에 어떤 그 뿌리 둔 사람을 토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우리 평양 조씨 하면은 정자동 토박이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읍이나 시가 됴으로써 그런 토박이 개념이 없고 지금은 하나의 행정적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토박이라는 개념이 옛날 전통 무슨 역사적인 그런 토박이가 아니고 지금 행정동으로 같이 뭉치면 그냥 그거 하나의 토박이, 용인도 수원 들어갔으면 그게 수원 사람이고 화성군도 수원에 들어갔으면 수원이고 그렇지, 뭐 이 사람은 수원 사람인데 화성군 사람, 이 사람은 용인 사람 이렇게 분류가 안 돼요. 수원이 그러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그런 것이 약한 게 수원이예요. 좋은 점이 그겁니다. 다른 지방에 가면 그거 갈르거든요. 저 사람은 이북서 피난 온 사람, 저 사람은 초등학교 어디 나온 사람. 이천만 해도요 못 산대. 강화도 가도 못 산대. 외지 사람 못 산대, 도저히 못 살겠대. 그런데 수원은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은 그거 없습니다. 수원은 그걸 다받아 줘요. 그러니깐 수원은 아주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면담자 : 하하하 수원은 진짜 배고픈 사람 밥도 줄 줄 알고, 불쌍한 사람 먹여 주고 도와주는 데가 수원입니다. 그걸 꼭 쓰세요. 『수원시사』에. 누가 반대하는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54년을 수원서 남의 일을 해 왔어요. 지금도 수원에 조용호 그러면은 좋은 일하는 사람, 아주 소문 난 사람이예요. 지금도 하여튼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



2010년대 수원시 영역

와요, 그림 쫓아가서 도와줘요.

면담자 : 그러니까 회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수원시 권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수원 사람이다. [조용호 : 그림, 음 그렇지만은 그중에서는 이주한 사람도 있고 대대로 회장님처럼 여기서 오래 산 사람도 있잖아요.

조용호 : 그렇죠. 이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 이북서 온 사람이나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나 하다못해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여기서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네? [면담자 : 왜요?] 다 성공했어요. 수원 사람들이 그렇게 편을 안 갈른대니까요. 다른 데 가면요 지역을 따져요. 여기 수원 그계 없어요. 두고 보세요. 여기서 장사하든지 무슨 여기서 출세한 사람이 다 수원 토박이보담요 객지 사람이 좌지우지해요. [면담자 : 하하 그래요?] 아이, 제가 저



그래서 수원이 살기 좋은 데라고 제가 애길하는 거예요. 그 애길 꼭 쓰셔야 됩니다. <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

조옹호 회장의 토박이에 대한 생각은 평양 조씨 집단처럼 정자동에 대대로 뿌리를 둔 토박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토박이라는 개념은 수원 시민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현재 행정적으로 수원에 사는 모든 사람은 수원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수원 시민과 수원 사람을 일치시키며 그 안에 수원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토박이라는 개념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2. 토박이 경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28년생부터 1954년생까지 수원 토박이들은 ‘수원 사람’과 ‘수원 토박이’에 대한 경계가 세 가지 변수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수원 사람과 수원 토박이의 경계는 거주기간, 거주공간 그리고 정서라는 변수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수원의 확장 과정에서 수원·화성·용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기형 전 이사장의 논지를 들어보자

면담자 : 근데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수원이, 읍하고, 일제시기에 수원을 시대하고 화성군, 용인군하고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게 같이 이제 살았었나요? 왜냐면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들이 용인군 사람들이 70프로(%)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일제시기부터도 읍에 용인 사람이나 수원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화성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기형 : 그거는 그게 아니고, 수원에 영동시장에 7할(割) 이상이 용인 사람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병희 국회의원이, 무임소장관까지 했잖아요. 그 이병희 씨가 용인 사람이거든. 그가 인제 수원으로 진출을 해서 수원서 살게 되니까 자연히 용인 사람들

이 그를 쫓아서 수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죠. 많아서 장사라도 해 먹고 살겠다, 이래 가지고 영동시장이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며] 그 옛날에 영동시장이라는 거는 그게 지금 처럼 그런 장목(장터)이 아니고 그냥 허허벌판이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보단도 (보다도) 사변 후까지도. 사변 후에 내가 그 일왕면 농지담임허던(하던) 시절, 1950, 55년, 56년 그 시절만 해도 그 닷새에 한 번 장(場)이 서. 오일장. 오일장이 서는데 장날이 아니면 그냥 벌뚜구니(벌판야). 그냥 들이야. 좌판만 있고, 그 장날이 돼야 좌판 차려 놓고 장사들 하고, 인제 그러던 시절에 그 용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거죠. 장사해 먹고 산다고. 그 옛날에 그 장이라는, 오일장이라는 게 여기 근방에 오일장 서는 데가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아주. 그래 가지고 응? 저기서부터 서신장(西新場), 발안장(發安場), 오산장(烏山場), 수원장, 용인장 이렇게 나가는 거거당? [면담자 : 어, 그래요? 그러니까는 장돌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돌뱅이? 장돌뱅이들이 장사 보따리를 짊어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도는 거야. 저기 저 발안, 저 서신장을 보고 거기서 인제 발안을 걸어와서 거기 장 보고, 발안서 오산 와서 장 보고, 오산서 수원 와서 장 보고, 수원서 용인 김량장 보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장돌뱅이들이 돌아댁기던 그러던 세월 속에서 그 용인 사람들이 뛰어든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동시장이 이제 말하자면 발전이라고 그럴까, 그 좌판 다 없애고 이제 장이 서기 시작을 하고 그런 거죠. (중략)

면담자 : 그럼 연무동에서는 시장을 어느 시장 다니신 거예요? [이기형 : 응? 시장. 연무동에서도 영동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요? [이기형 : 그렇죠] 아, 그 북쪽에도 연무동에도 저기 시장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우시장(牛市場).

이기형 : [동시에 말하며, 목소리가 커지며] 그때는 집이 몇 채 없었지. 공설운동장이야 피난민수용소고, 그 우에야(위에야) 뭐 감나무촌이라고 있는데 거기 뭐 집 한, 한 30호?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될래야 소비자가 없으니까 시장이 형성 안 됐지. 그러니까 영동시장이 뭐야 그 주로.

면담자 : 그러니까 그 영동시장에서 수원장이 순신) 거죠. [이기형 : 그렇지] 그러다가 상설 시장이 된 거죠?

이기형 : 네, 네, 네. 그 일반 시장은 영동시장이 전에 오일장 장소였다가 이제 장옥을 지면서 상설시장으로 되고 북수동, 북수동 삼일학교, 매향(梅香)여학교 맞은편 그 삼일학교하고 매향여학교는 매향동이야. [면담자 : 네, 알아요.] 화홍문에서 내려온 냇가를 경계로. 그 이쪽은 북수동이거든. 그 북수동에 우시장이 있었어. 커요. 이 수원 우시장이 제일 컸어 이 가건방(근방)에서는. 근데 그 우시장이 해방 후에 영화동(迎華洞)으로 갔어요. 영화동, 연무동 건너쪽(건너쪽에), 영화동으로 우시장이 갔다가 그 우시장이 그 후에 여기 가면 그 태



안, 태안읍에 거길 뭐라고 그러더라 [생각하며 이 신동탄, 신동탄 있는 우측에 그 태안, 그 태안면인데 태안면 글루거기로 우시장이 옮겨 갔지. 그게 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 (중략)

면담자 : 그러니까는 뭐 수원시가 이제 독립적으로 되기 전서부터도 화성하고 오산 그다음에 같이 인제 수원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생활권 안에 있었구나. [이기형 : 그렇, 그렇죠.] 행정구역이 변했어도 [이기형 : 네. 인제 지금 그 근데 용인은 달라요? 용인은 항상 달랐어요?] [이기형 : 응기 용인은.

이기형 : 용인은 다르죠. [면담자 : 왜요?] 왜 달라냐면 이 용인과 수원은 광교산을 중심으로 죽 내려오는 영(嶺)이 있어. 응? 이게 고개가. [기침을 하며 그래서 거기는 거리로 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면담자 : 가까운데 근데 그런 그 오감(느낌)으로 멀리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영(嶺)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2차 구술조사>

이기형 전 이사장은 수원군 시절부터 수원군에서 산 사람들이 수원 토박이라고 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1914년부터를 말하고 공간적으로는 위의 인문윤에서 이야기하는 수원, 오산, 화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었던 5일장의 범위(서신-발안-오산-수원-용인)를 말한다. 즉 거의 100년, 3대에 걸친 거주기간과 수원군이라는 공간이 수원 토박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에서 거주기간은 수원 토박이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지만, 공간적으로는 가장 확대된 지역을 수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1910년 수원군의 인구는 7만 4,000명, 수원면의 인구는 6,9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35년 수원군의 인구는 17만 2,000명이었고, 읍으로 승격한 수원읍은 1만 4,000명 정도였다가 1944년에 3만 6,000명 정도가 되었다.

차희상 전 경기도의원이 가지고 있는 수원 토박이의 경계는 거주기간을 볼 때 50년, 즉 1960년경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한다. 이 시기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기 직전으로, 1949년 독립한 수원시는 1963년 화성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성장 토대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때이다. 이때는 이기형 전 이사장의 공간적 범위보다 수원이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던 시기이다.

30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을 주장하는 김성근 회장의 경우 1980년대는 1970년에 삼성전자가 매탄동에 들어오고 한일합섬이 조원동에 설립되어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후에 수원시의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시기를 말한다. 즉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원시의 인구가 1970년 이후 2000년까지 10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수원시에 타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던 것이다.

〈표 1〉 수원의 인구 증가

구분	연도	인구수(명)	비고
수원군	1925	수원군 : 147,297 수원면 : 10,374	이기형 전 이사장의 토박이 규정 거주시기
	1944	수원군 : 189,967 수원읍 : 36,146	
수원시	1949	52,772	수원시로 승격
	1955	81,304	1950년 한국전쟁
	1960	90,801	차희상 전 도의원의 토박이 규정 거주시기 1963년 화성군 일부 지역 편입
	1970	169,967	1967년 경기도청 이전 삼성전자, 한일합섬 이주
	1980	310,104	김성근 회장의 토박이 규정 거주시기 1983년 용인군 수지, 기흥 일부 편입 1988년 장안구, 권선구 분구
	1990	644,622	김태형 대표의 토박이 규정 거주시기 1993년 팔달구 신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 편입, 현재 시세 완성
	2000	944,239	2003년 영통구 신설
	2010	1,054,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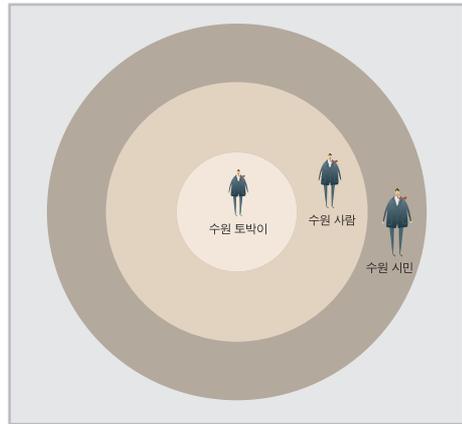
〈표 2〉 수원시 행정구역의 확장

연도	변경 내용	면적 및 동수
1931	수원읍 승격	
1936	수원군 일행면, 태장면, 안릉면 일부 흡수	
1949	수원시 승격	23.04km <sup>2</sup> (27동)
1963	화성군 일행면, 태장면, 안릉면 일부 흡수	84.66km <sup>2</sup> (47동)
1983	용인군 수지면 일부 흡수	96.67km <sup>2</sup> (49동)
1987	화성군 매송면 일부 흡수	105.55km <sup>2</sup> (51동)
1994	화성군 반월면 일부 흡수	117.13km <sup>2</sup> (54동)

그런데 이기형 전 이사장, 차희상 전 경기도의원, 김성근 회장은 모두 부모 대부분 이미 수원에 정착하여 살아온 수원 토박이인 반면, 김태형 대표는 한국전쟁 후 용인에서 부모님이 수원으로 이주하여 1953년 수원에서 태어났다. 김태형 대표는 수원에서 태어났으면 모두 수원 토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대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 이전에 수원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토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수원의 인구가 60만 명을 넘고 시 영역도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확장된 때이다. 이렇게 수원 토박이들이 생각하는 수원 토박이의 경계는 출신 배경, 직업, 세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거주기간과 거주공간 외에도 정서를 언급하는 사람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수원 토박이들이다. 김태형 대표 외에도 수원JC 50대 회장을 역임한 김재홍 사장(1965년생, 삼부자갈비 대표)도 수원 토박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김재홍 사장은 부친이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이후 형제들이 사는 수원으로 이주하여 그때부터 3대에 걸쳐 수원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김재홍 사장은 자신이 수원 토박이라고 느낄 때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인식될 때라고 한다. 즉 자신의 수원 토박이 정체성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원 72동우연합회를 창립한 김태형 대표와 마찬가지로 1984년에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재홍 사장도 수원 시내 남문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학연을 통해서 서로 다 알게 되고 친구가 되는 지역적·학연 네트워크를 말하였다. 즉 김재홍 사장은 차희상 전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정체성에 부모라는 뿌리의 비중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원 내에서의 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원 토박이들의 정서를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수원 사람과 수원 토박이의 경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수원 시민 내지 주민이다. 그중에서 자신을 수원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자신들의 지역적 정체성을 수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주기간과 거주공간에 관계없이 수원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그중에서 대대로 수원에서 거주했거나 일제시기부터 거주했거나, 해방 이후 또는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최소한 1980년대부터 거주하면서 수원의 역사적 발전을 경험하고 수원의 정서를 공유한 사람들은 수원 토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원시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보면, 조선시대 수원 화성 자체가 하나의 신도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읍성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수원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63년에 화성군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수원시의 생활권 내에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수원 사람으로 자신들을 인식했을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1983년과



수원 사람의 경계

1994년에 편입된 화성군 반월면 일대와 용인군 수지면과 기흥면 일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수원 사람으로 인식할지도 의심스럽다. 수원시의 경계가 변하면서 수원 시민 내지 주민의 경계도 변해 왔고, 수원 사람의 경계도 변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터뷰에서 구술을 해 준 수원 토박이들은 일제시기 또는 해방 후, 적어도 한국 전쟁 직후에 수원 내에서 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하여 부모가 일구어 놓은 경제적·사회적 토대를 발판으로 수원 지역사회에서 엘리트로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차희상 전 도의원에 의하면, 수원 토박이는 현재 수원 인구의 약 20%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수원 시민의 80%는 이주민들이다. 인구 구성으로 볼 때 토박이는 더 이상 수원시에서 주류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토박이는 자신들의 입지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용호 회장은 토박이와 이주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구별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 토박이들의 영향력은 아직도 강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원의 근현대사를 함께했고, 또한 수원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수원의 문화적 전통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제시기와 해방 이후부터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토대를 닦아 왔고, 그 결과 수원 지역에서 엘리트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수원 토박이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 의 기질
2. 이주민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 되기
3. '수원 사람' 은 누구인가?
4. '수원 사람' 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윤택림 | 한국국술사연구소 소장

## 03 | 수원의 지역성과 ‘수원 사람’의 정체성

한국사회에서 지역성은 특정 지역 사람의 기질이나 정서 또는 인성의 전형성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객관적인 지표로 일반화되기 힘들지만, 특정 지역민의 전형성은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여러 지역에서 온 이주민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신지역의 지역성은 비교가 되면서 더불어 토박이들의 기질이나 정서가 부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수원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상(像)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원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수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자. 이와 함께 ‘수원 사람’은 누구인지, ‘수원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자

### 1. 수원 토박이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의 기질

수원 사람 하면 가장 먼저 회자되는 지역적 이미지는 ‘수원 깍쟁이’라는 것이다. 『수원 사람들의 삶과 문화』(수원문화원, 2008)에서도 수원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중에서 “수원 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뛴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원 사람이 빨가벗고 삼십 리를 뛴것잖아. 그게 일반적으로 수원 사람이 독허다 하는 거



야. 빨가벗고 추운 겨울에 삼십 리를 뛰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용인즉은, 여기 수원 군이니까, 남양 사람이 수원장을 보러 왔어. 장은 수원장 하나니까. 와서 장을 보고 술을 한 잔 먹고, 옛날엔 뺨스가 있어 뭐 있어. 옛날엔 중우 하나 그거거든. 술 한 잔 먹고 잤던 모양이야. 아, 그래서 생각이 난 거야. 그날이 자기 아버지 지사(제사)여. 개 일어나서 그냥 뛰었다는 거야 삼십 리를. 수원 사람 똥 개 삼십 리라는 거야!

수원 토박이인 이기형 전 수원공업고등학교 이사장도 수원 깍쟁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면담자 : 인제 말씀하시기를 수원 사람들 이제 타지 사람이 수원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수원 사람들은 오산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이기형 : 그렇죠. 그 수원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사람이 수원 깍쟁이 그러면 안 들어, 싫어해요. “우리가 아니다. 남수원 깍쟁이, 오산, 오산 깍쟁이지 우리가 왜 깍쟁이냐.”고 그러는 거죠.

면담자 : 근데 왜 수원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그래요?

이기형 : 그 얘기 한 마디 해요?[면담자 : 네, 해 주세요.]이 저 우스갯소린데, 수원 사람 하나가 서울 가서 잠을 자다가, 잠을 잘래니까 옷을 벗고 자야 할 것 아니야? 옷을 벗어서 이렇게 다락, 다락 있죠. 그 다락문을 열고서 옷을 다락에다 넣고 잤어요. 이게 다 우스갯소리여. 그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다락문을 여니까 다락이 아니여. 창문이여. 응? 창문 이렇게 창문 할 수도 있고 다락문도 이렇게잖아. 그 이런 게 이 사람은 그냥 어수룩해서 다락인 줄 알고 문을 열고 옷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자고 일어나서 날 밝았는데 아, 보니까는 다락, 다락이 아니라 한테지 모야. 그래 가지고는 입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어딜 나가요. 지금 같으면 못 나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여관 주인보고 옷을 한 벌 얻어다 달라든지, 사 달라든지 얻어 입고 올 이야긴데, [기침을 하며] 주인이 있으라고 붙잡아도 고집을 쓰고 영등포서 여기를 뛰어 왔다는 거예요. 수원을. 응? 알몸으로. 그래서 그 수원 깍쟁이다 그런 말이야.

면담자 : 하하하, 수원에 있는 옷을 가지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자기 옷을 입기 위해서?

이기형 : 그렇지. 남의 것 안 입는다. 그 알몸으로 뛰어 왔대요. 그래서 수원 깍쟁이 소리가 났다는 야사가 있어.

면담자 : 근데 서울 사람도 서울 깍쟁이라는 얘기 들잖아요. [이기형 : 서로 그러는 거지] 음,

근데 서울 깍쟁이하고 수원 깍쟁이하고 누가 더 깍쟁인 거 같으세요?

이기형 : 그 수원 깍쟁이, 깍쟁이라면 수원을 가리키는 거요. 하여간.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기침을 하며] 우리가 흔히 충청도 양반 그러잖아요. 그 충청도에 양반만 살아요? 응? 상놈도 있겠지. 양반이 있으면 상놈도 있게 마련인데. 근데 충청도 양반 그러거든. 전라도 개똥쇠 그런다고. 개똥이 아니라 개땅인데, 원래가. 호남평야를 개땅이라고 그래요. 그래 개땅쇠. 쇠금배나 칼로, 개땅쇠. 개땅쇠인데, 개똥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개똥쇠만 살아요? 거기도 양반도 사는데? [흐흐, 기침을 하며] 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고. <2012년 4월 2일, 오산시 자택, 1차 구술조사>

이기형 전 이사장은 1928년생이다. 이 세대들에게는 여러 가지 판본(version)으로 수원 깍쟁이 이야기가 전해졌고, 수원 내에서도 회자되었던 것 같다. 『수원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판본은 수원장을 보러 온 남양 사람을 수원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이기형 전 이사장이 제기한 수원군 시절 수원군(남양 지역을 포함하여)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수원 사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이기형은 다른 지역의 전형적인 이미지(예를 들면 충청도 양반, 전라도 개똥쇠)를 예로 들면서 수원 깍쟁이의 일반화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1938년생인 수원 토박이 김성근 회장도 수원 깍쟁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면담자 : 그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수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깍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상공업자, 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근 : 그런 얘기 종종 들읍니다. 수원 깍쟁이. 그러나 “경우가 밝다.” 이 소리죠. 깍쟁이라는 것은 “경우가 밝다.” 이런 얘깁니다. 경우가. 그러니까 “니 거 내 거 분명히 따질 줄을 알고 받았으면 줄 줄을 알고 하는 경우가 밝다.”는 뜻에서 깍쟁이죠, 딴 뜻은 없습니다. 수원 깍쟁이 뭐 하지만 아 수원 깍쟁이가 암만 날뛰어도 개성 상술에 당합니까, 못하죠. 네.

면담자 : [하하하] 그러면은 저기 인제 회장님도 상공업, 수원에 상공업자들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경우가 밝고, 그다음에 인제 다 뭐 줄 거 주고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다?

김성근 : 그럴 겁니다. 제가 뭐 남을 평가하기는 제 앞가림도 못 하면서 건방진 얘기.

면담자 : 아, 회장님 경우를.

김성근 : 아, 건방진 애길런진 몰라도, 저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선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각쟁이 소리는 제 앞에서는 저를 사귀고 나면은 그 소리들은 못 합니다. 저는 주고받지요, 받고 주지는 않으니까 각쟁이 소리 안 들죠. 먼저 준다 이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주고 “나중에 어, 생각해서 주고 싶으면 줘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하는 얘기니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죠, “테이크 [앤] 기브(take [and] give)”가 아니라, 저는, 영어에도 그거는 철칙 같애. “주고받는다.”가 있잖아요. 나는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수원 각쟁이 뭐 벌거벗고 삼십(30) 리를 뛰느니 뭐니. 이런 소리 아주 귀가 아프게 들어왔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되고 없어진 얘기지만, 수원에 무슨 각쟁이예요. 백십(110)만에서 수원 토박이는 십(10)만도 안 되고 오(5)만도 안 될 텐데, [면담자 : 맞아요.] 지금 다 외지에서 왔죠. 나는 그걸, 그걸 생각, 그걸 얘기를 합니다. 수원? 아 수원 만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다 하고 있지, 수원 토박이는 오(5)만도 안 되는데 무슨 토박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토박이 소리 하다가간 몰매 맞아요. 수원 이제는. 수원 토박이 소리 못 합니다. 왜냐면 외지에 와서 상술이나 뭐 상권 잡고 이렇게 버팅기고 앉았는데 어디 가서 토박이 소리를 해. “임마, 너는 저기 가서 놀아.” 그럴텐데 [하하].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원 사무실)

각쟁이라는 말은 ‘가계쟁이’, 즉 상인을 뜻하는 말이 ‘각쟁이’로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sup>2</sup> 수원 각쟁이와 더불어 유명한 서울 각쟁이와 개성 각쟁이의 공통점은 모두 상업이 발달한 도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거래가 활발한 곳에서는 썸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성근 회장은 각쟁이라는 의미는 “경우가 밝다.” 또는 “니 거 네 거 분명히 따질 줄 안다.”로 해석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수원 토박이의 인구가 극히 작아지고 있는 현재 수원 각쟁이의 이미지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토박이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한다.

평양 조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던 조용회 회장은 수원 각쟁이의 유래는 수원 화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뿐, 그 이후에 수원에 사는 지역 토박이들은 절



일제시기 상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조선시대 화성의 상업이 활성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상점인 가가(假家)를 열고 장사를 했다. 객쟁이는 '가가'를 운영하던 상인을 일컫는 '가가쟁이'가 변하여 생긴 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껴 가며 살던 상인들의 모습에서 '수원 객쟁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1950년대 남문시장 일대

대로 깍쟁이가 아니라고 수원 깍쟁이의 지역적 이미지를 부정한다.

면담자 : 그러면요, 회장님은 사실은 서울에서도 공부하셨고 대학도 나왔고, 서울에 가서 대한체육회 일도 하셨잖아요. 근데 서울, 서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도 서울 깍쟁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수원도 다른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그런대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조응호 :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 수원을 화성을 축성시킨 이후에 정조대왕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깍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지로 여기 살지를 않고요, 다 정조가 돌아간 후에 다 떠납니다. 수원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때 팔부자거리라는 게 그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원에 소위 말하는 토착민들이 여기서 다시 상권을 갖고 살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 정조가 있을 때 사람들이 깍쟁이지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수원 사람 그런, 저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수원 사람 그래 가지고 수원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 수원 사람한테 손해 봤다는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요. (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

그런데 수원 깍쟁이라는 지역적 이미지와 함께 수원 토박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원 사람들의 기질이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수원 사람들은 “지약스럽지가 않다.”는 것이다. 2차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이 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수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기형 : 그래요. 그 원래 수원의 지금 그 시가지가 [면담자 : 네, 수원시가지] 그 옛날에는 일개 촌락이었었다 그 말이지. 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지난번 얘기할 때 조금, 조금 얘기는 내가 비취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했죠. 여기 정조(正祖)가, 어, 정조가 자기 친장(親葬)을, 말하자면 사도세자를 화산(花山)으로 모시고 나서, 그해 수원에다가 화성을 축성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도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녕리(安寧里)에 사는 일부 그 부민을 수원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내 했어요. 그러죠? [면담자 :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원이 발전되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그렇게 모여, 모여서 사는데, 수원에 향교(鄕校)도 그때 옮겨 갔다고 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수원이라고 하는 고장이 원래가 거기에 붙어서는 토착민들만 산 게 아니라 인제 안녕리 방면에서 이렇게 이주를 시켜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그 수원유수부(留守府)를 두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원시청이죠? 수원에 수원유수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요새로 말하면. 응? [면담자 : 관리들이 관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의 대부분이 아전(衙前)들이, [면담자 : 아!] 응? 아전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그런 말이죠. 아전이란 건 뭔지 아시지? [면담자 : 네, 알아요 응? 저 ‘관아 아(衙) 자 ‘앞 전(前) 자. 그러니까 수원유수가 거(기) 하면서 집무를 하면 그 앞에 하나의 청사를 짓고 거기에 근무하던, 요새요즘 말로 하급 공무원. [면담자 : 네, 알아요.] 하급 공무원들, 그 아전. 그 아전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유래로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그 수원의 토착민들이 “지학스럽지가 못했다.” [면담자 : 지학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 살고자 하는 아주 말하자면 집념이 그리 강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아전, 아전 출신 후에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게 하나 말하자면 중요한 얘기가 될 거죠.

면담자 : 근데, 아전 출신 후에들은 극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기형 :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들이니까. 관료, 하급, 하급 관료들이니까 녹(祿)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공업에 종사하고 이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녹을 먹고 사는 후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6·25라고 하는 전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인제 직접 본 애긴데, 우리나라가 8·15광복 후에 화폐개혁을 두 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6·25사변 후에 화폐개혁을 했거든. 또 한 번. 그런데 내가 전달에도 얘기했지만은, 수원 공설운동장이 지금 연무동(鍊武洞) 그 충훈담 밑에 거기가 공설운동장인데 그것이 6·25사변 후에 그 건너에 지금 보훈원(국립보훈원) 자리에 피난민들이, 6·25 피난민들이 거기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군(軍)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전부 소개(철수)를 시키는 바람에 그들이 연무동 그 공설운동장으로 건너와서 토담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것 같아. [면담자 : 네,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생긴 일이에요. 거기에 주로 평강(平康), 철원(鐵原), 금화, 연천, 이 지역에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수용소가 거기에 있었는데, 화폐개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폐개혁을 해서 화폐를 바꿔 줘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현찰로 바꿔 주는 시기가 왔다. 그 돈을 바꿔 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 수원에 사는 토박이들은 어렵도 없고 그 피난민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돈이 나왔다. 현금이. [면담자 : 하하하, 오!] 그 왜 그 기적 같은 소리냐면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거지만은 그 시절에 6·25사변 후에



그 피난민들 생활을 보면요, 아침에 해가 부엌에 올라오면 가족이 있는 대로 다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나가. 그 깡통이라는 게 이렇게 일 가롱(겔론(Gallon) : 액체의 단위)짜리, 일 가롱 들어가는 우유깡통이라고 있어.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 요만한 거 이렇게. 그 우유깡통을 다 구해 가지구요, 끈을 맨(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거는 흉내를 내며] 여 걸구서 세 식구면 세 식구, 네 식구면 네 식구가 걸어서 밥 얻어 올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다 나가는 거예요. 해가 부엌에 올라오면 그럼 거기서 나가면은 지금의 이의동(二儀洞), 상하광교동(上下光教洞), 조원동(棗園洞), 송죽동(松竹洞), 파장동(芭長洞), 이목동(梨木洞), 정자동(亭子洞), 이 화서동(華西洞) 이쪽(이쪽)으로 꼭 퍼져 나가. 하얗게 나가요. 식전에 일찍. 그럼 그 이후로 다 밥을 얻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먹을 분량의 3일 내지 4일간 먹을 밥을, 먹을거리를 얻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다 놓고 다 각기 돈벌이를 나가는 거예요. 요새로 하면 영동시장으로 뭐 화장터로 어디로, 다 돈 벌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 밥을 빌어다가, 밥을 빌어다가 썩지 않게 놓고 보관해서 먹으면서 돈은 악착같이 벌어야 사니까 돈 벌러 다 나갔다 그 말이지. 그렇게 그 사람들 생활, 생활하는 방법이지 하나의. 그러던 고장이 화폐개혁 때 돈을 바꿔 주는데 그 연무동에 피난민촌에서 수원 시내에서 제일 많은 돈이 나왔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고물 주서대주위대 파는 사람. 고물 주서대주위대 파는 영감님이 수원 시내 최고 돈을 가지고 있었다. 땅에다 향아리를 묻어 놓고, 향아리에다가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갖다 모아서 그 화폐개혁 때 바꿨다. 그런 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길 하죠. 만약에 6·25라 그러는 전쟁이 우리가 휴전선을 지키고 실제 잃었던 땅을 도로 찾아서 원상태로 복원을 해서 지금 와 있지만은, 만약에, 6·25전쟁 때 우리가 피난을 북쪽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 보자. 북한 사람들이 피난 나와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반대로 만약에 북쪽으로 피난을 갔으면 우리 남한 사람들도 그렇게 ‘지학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북한 사람들하구요, 남한 사람들은 그게, 그게 달라요. 북한 사람들 의지력이 강합니다. 의지력이 강하고, 이 남한 사람들이 ‘농기’ 예요. 아주 ‘농기(のん-き)<sup>3</sup> [면담자 : 농기?][흐흐흐] 말하자면 느리다 그럴까 느낌보라 그럴까 그런 악착같은 그런 의지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 수원이 원래가 옛날부터 이 근세에 와서 “도농(都農)도시다, 도농도시, 농사를 겸하는 도농도시다.”라고 자처하지만은 애초에는 농촌도시죠. 농촌, 농촌인데, 그 정조가 친장을 화산으로 모시고 수원에다 화성을 쌓는데 거기에 부민을 형성을 할러니까 안녕리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거기에 그 발전 초기에

는 그러니까 1780, 90년대, 1700년대 후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화성이, 화성이 준공된 게 1795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1700년대 후반에 도시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그 유수부를 뒀기 때문에 아전, 아전족이 많았다. 요새로 말하면 하급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살아서, 인제 거기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발전돼 나오면서 그 후예들이었기에 말하자면 나태하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자기개강조하며 ‘지학스럽게’ 이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를 않고 남의 덕에 살아 보자고 하는 그런 타성이 있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2차 구술조사>

이 전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한국전쟁 시 피난민들의 강한 생활력과 수원 사람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한 세대 후에 태어난 김태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면담자 : 선생님, 살아오시면서 타지 사람들이 수원 사람이다 하면 뭐라고 하나요?본인이 서울에 가거나, 타지에 가실 때 수원 사람이다 하면.

김태형 : 수원이 막연히 아시잖아요. 깡쟁인지 뭔가 그러잖아요. 근데 수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주 그냥 그 못 먹던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유순한 편이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남을 뭐, 그런 건 없죠. 단 그 지역적으로 전라도 사람처럼, 지역적으로 못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던 사람은 단합심이 크잖아요. 수원 사람은 각자 먹고살 게 있으니까 서로 그런 게 없는 거지 뭐. 그런 게 없을 뿐이지 뭐 [면담자 : 단합심이 없어요. 하하하] 깔끔하죠. 성격들은 경우가 밝죠. [면담자 : 경우가 밝고 남한테 신세도 안 지고. 잘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죠. 깡쟁이는 깡쟁이죠. 뭐. 남한테 배려도 하고 하는 것이 좀 약하지. 네네. 배가 부르니까 뭐. <2012년 9월 11일, 수원박물관>

김태형 대표가 말하는 수원 깡쟁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깔끔함은 이기형 전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수원 사람들이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유롭고 살 만하고 유순하다는 것, 즉 “지악스럽지 못함” 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수원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남한테 신세도 안 지고 나쁜 짓도 안 하는 대신, 배려를 한다거나 단합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수원 사람들의 이런 정서 때문에 애향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72동우연합회를 결성하



게 되었다고 한다. 수원 토박이의 이러한 성격은 고색동 영신고등학교의 설립자인 박창원의 손자 박상연의 구술에서도 나타난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거죠. 다만 술을 잘 안 하니가 용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은 있죠.<sup>4</sup>

## 2. 이주민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 되기

수원은 조선시대 삼남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도시였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교통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의 인구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원 인구는 인근 지역을 편입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 것은 그만큼 이주민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원 이주민들의 유입 과정에서 첫 번째 사건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시 수원은 피난길의 주요 길목이었고, 서울이 수복되기 전까지 여러 지역 주민들이 생활했던 피난민촌들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때 수원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수원 사람이 된 피난민들이 많았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수원에 들어온 외지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면담자 : (중략) 근데 인제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보실 때 외지인들이 수원에 와서 인제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그러면은 피난민들.

이기형 :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원이 집단적으로 수원시민이 움직인 거는 정조조(正祖朝), 정조조 때 수원이라고 하는 고장을 하나의 그 도시를 형성할려니까 이 화성시 안영리 근처에 있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켰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인제 두 번째는 6·25사변이 나면서 피난민들이 피난민 수용소가 네 개가 다섯 개가 공설운동장에 정착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게 들어온 거죠 그게.

면담자 : 근데 그 일부가 또 아직도 남아 있으신가 봐요. [이기형 : 응?] 그 피난민들 중 일부



세류동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소장)

가아직도 계속 살아, [이기형 : 그림은요, 그림은외 많이 남아-

이기형 : 네. 그리고 거기서도 보시면은 그게 전부 흙벽돌집이에요. 자기들이 손수 벽돌 짚어서 지은 거거든. 근데 지금 가 보면요, 아마 그때의 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집은 헐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집은 놔두고 외지에 사람들인데도 없는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냥 살 만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줄여 가지고 들어오고, 이 사람은 돈 벌었으니까 나가고. 그 사람만 자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은 아마 반도 안 남았을 거예요.

면담자 : 음, 그렇게 그러면은 피난민 왔고 그다음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인제 수원이 개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화성, 또 용인, 이런 오산 이런 데서 이렇게 올.

이기형 : 그렇죠. 뭐 근방 사람들이죠. 근방 사람들. 수원 본토에 사는, 본토박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가게 [기침을 하며, 말을 정정하며] 가세가 기울면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줄여 사는 거 마찬가지로 큰 집, 큰 집 짓고 잘살던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서 줄이면 돈이 없잖아요. 흠벽돌집이라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게 살다가 못되게 저, 된 사람들은 글루거기리 이사 오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깡통 차고 빌어다 먹으면서도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나가고, 지금도 영동 시장에 가면은 뭐 이제 그 내 또래 된 사람 별로 없지만은, 대개 지금 한 60~70대 이렇게 된 사람들 가끔 만나요. 몇몇은 만나는데, 그들도 옛날에 그 공설운동장에 살던 사람들이거든. 내가 동장하던 시절에. 다 나와 살아요. 다 아파트에 가서 살고, [하하] 고급 현대식 건물 짓고 살고 돈 벌어 가지고, 거기는 이제 빈민촌이 되다시피 됐는데, 거기를 이제 그, 어느 시장 댐가 그거를 개방을 했어요. 그 흠벽돌집을 헐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도록 허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 지금도 가 보면요, 그 연무동 그 성 밖으로 그 공설운동장 그 넓은 자리가 2층, 3층, 4층 건물 뻗혀요. [면담자 : 네, 알아요.] 옛날 피난민촌 같지가 않아. 응. 면담자 : 네. 그러면요, 수원 이제 확장, 커지면서 이제 화성이나 용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새로 인제 이주한,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수원 시민이 됐는데, 그 사람 외에도 외에, 말하자면 예를 들면 서울이랄지 아니면 전라도랄지, 경상도에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기형 : 있죠. 그니까 그 시내 가 보면 본(本)이 나타나대. 뭐 호남(湖南)동호회 간판 붙여 놓고, [면담자 : 어, 그래요?] 응? 응. 호남동호회 간판 붙여 놓 것도 있고, 뭐 어디어디 향우회(鄕友會) 뭐 그런 걸 보면은 그 고장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로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단이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면담자 : 근데 수원에서 와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은 당연히 직업이 많고 뭐 돈벌이가 되니까 당연히 수원, 수원, 서울을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수원에 이제 그런 다른 지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먹고 살고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이기형 : 그렇죠. 지방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대로 서울을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수원에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응? [하하] 서울서 서울 사람들이 낙향한다고 내려가다가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거주의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지연관계 뭐 인맥이고 뭐 이거 따라땡기고따라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가다 주저앉아서 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다양화됐지. 다양화됐어. 아주.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한국전쟁기 수원에 들어와서 정착한 피난민 외에도 그 이후에 다양한 이주민들이 수원으로 들어왔다. 『수원시 세류동지』<sup>5</sup>에는 세 명의 이주민들의 생애사가 있다. 이들이 세류동에서 살기 시작한 시기가 각기 다르고, 수원 사람이 되는 과정도

다른데, 이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말하는 수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홍승숙<sup>6</sup>은 1928년에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서 태어났다. 1947년에 천안으로 시집갔다가 1953년 세류동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녀가 수원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철도기관사였던 남편이 전근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세류동에 정착하는 당시에 대한 구술이다.

홍승숙 : 처음에는 객지니까 외로웠지. 그런데 할아버지남편을 말함 직장 친구들이 많고, 그때는 애들이 돌이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외로운 거 몰랐어. 그때 누가 반갑게 해 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충북대학교 교수였어. 근데 지금은 교수 안 하지. 김기철이라고 그전에 농대 다니면서 그 사람이 같은 고향이니까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철도부원이고 그 사람은 학생이니까 그 사람이 차를 못 타면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랬지. (중략) 그이네가 있고 그래서 외롭지도 않았어. 지금은 동네에 다 친구지. 평생을 같이 사는 친구지. 여기서 제2고향이야. 그렇잖아, 반세기를 냉겨[넘겨] 살았으니까.<sup>7</sup>

홍승숙은 남편의 직업을 따라 이주해서 처음 객지의 외로움을 남편과 같은 고향, 즉 충청도 이주민과의 교분으로 극복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을 동향 사람과 함께 버티고 나서 그녀는 동네에서 친목계를 조직하여 ‘어머니친목회’라 부르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또한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초창기 부녀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보람 있게 하였다.<sup>8</sup> 이제는 본인이 세류동의 ‘터줏대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의 구술을 통해서 한국전쟁 직후 세류동에서 적응을 도와준 것은 수원 토박이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는 토박이가 아니더라도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규일은 1925년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해방이 되자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전남 순천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1964년에 수원 세류동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최규일은 순천에서 도정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이 매우 적었던 차에 인천에 사는 누이동생과 매제가 수원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여 이주하였다. 그는 수원에 와서는 프라이팬과 두꺼비집을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다. 최규일은 모진 노력 끝에 영동시장에 있는 월성상회, 수성상회, 공신상회를 단골로 만들어서 물건





1950년대 세류동거리(수원박물관 소장)



세류동의 수인선 철길(1995년, 수원박물관 소장)



1970년대 영동시장 일대(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을 팔게 되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최규일 : 와 가지고 고생 무척 했어요. 돈을 못 벌으니까. 후라이팬 만들어도 처음이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상회 거래 갖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렸어. 한번은 매제가 팔려 가는 거를 따라가 봤어. 어디어디 가나. 그리고는 인제 나중에는 매제가 물건이 없을 때 내 물건도 갖다 줘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써 보니까 내 꺼이 낫거든. 어디가 조금 틀려야 사지, 똑같으면 왜 내 걸 사겠어. 그래 가지고 인자 여기서는 매제보다 내가 단골이 좀 낫게 팔렸어. (중략)<sup>9</sup>

10년 정도까지는 내가 동네에서 신임을 못 받았는데, 내가 살면서 동네 친목계 같은 데 가서 혹시 글씨나 써 보면 믿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나이만 해도 한자 쓰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 한자고, 국문이고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 지금은 많지만. 그러니까 한 15년 후로부터는 동네에 인자 남자들 친목계 총무 맡았으니 그때는 아무 구별 없이 더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랐지요. 지금은 더 그렇고.<sup>10</sup>

외지인이었던 최규일은 세류동에서 거의 15년간 신임, 즉 수원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1964년에 이주했으니 거의 1970년대 말이 되어서야 수원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홍승숙이 부녀회장이 된 것이 1970년이고, 그녀가 세류동에 이주한 것이 1953년이니까, 그녀도 수원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15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박용천은 1926년에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하였다. 한국전쟁 시 피난을 와서 남하하였다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 철도청에서 근무하였다. 일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000년에 세류2동으로 이주하였다. 다음은 세류동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박용천이 세류동에 오게 된 사연이다.

박용천 : 우리 외갓집이 저기 장안동 거기 있잖아. 거기 북문 가면 여기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농협 있어요. 거기였어. 그땐 보통학교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연백에 살 때도 외갓집에 몇 번 왔어요. 그때도 수원역에서 내리면 무조건 북문 가서 내려라 북문이 우리 외갓집이니까는 북문까지는 그 차밖에 안 탔었어요. 북문 가서는 도로 돌아오고, 수원역에서 와서 있다가 수원역에서 또 북문 가고 그랬다고. 아. 구길 있잖아? 그 길로 다닐 때는 큰 도로가 없었어요. 쪽 갔다 쪽 오고 쪽 갔다가 쪽 오고 그러더라고.<sup>11</sup>

수원에 세류동인지 이거 아파트 한주아파트라는데 샀는데, 그걸 99년도에 샀나? 사가지고서는 그걸 세를 줬다가 신도시 내가 그전에 살던 데가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았으니께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살다가 여기 2000년 3월 15일에 여기 도로 왔어요. 내 집으로. 여기 오다 보니께는 여기 형님도 만나서 오갈 때 없으니까 여기 와서 놀고. (중략) 처음에는 이 아파트라는 데는 앞뒷집 사람도 모르고 살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여기 이남에 나와서 객지로만 맵기니깐느 그런 거는 하나도 뭐 안 해. 그저 뭐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로 알면 알고 모르면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아유 여긴 텃새도 없어. 옛날하고 틀려. 그건 케케묵은 얘기지. 이제 텃새가 어디 있어. 텃새 믿었다간 얻어맞게. 여기 다 타관에서 피서(모여서) 사는 사람이지. 이 본토에서 산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알아야 돼. 나가 이 동네 살았으면 이 동네 다 옛날 사람이 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나갔어. 그 사람들도 타관에 가서 살아. 제 바닥에 사는 사람 몇 안 돼요. 열이면 하나, 둘이야. 다 나가서 살아 인제. 보상받아 가지고, 이젠 그런 거 없어. 옛날에야 토박이다 뭐 그런 거 따지지 지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이라는 플래카드가 달려 있는 유천사거리

그런 거 없어.<sup>12</sup>

박용천의 말처럼 2000년 수원은 이미 4개 구에 인구 94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다. 그리고 수원시 인구의 20% 정도의 토박이만이 수원에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토박이의 텃새가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수원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최소한 15년은 걸려야 수원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수원 토박이라고 생각하는 김태형 대표의 구술을 뒷받침한다. 김태형 대표는 수원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지인과 거리를 두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음을 연다고 하였다. 조웅호 회장이 주장하듯이 수원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수원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인심을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수원 사람들의 ‘깍쟁이’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깔끔하다.” 또는 “경우가 밝다.”는 한편으로는

“친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수원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수원 사람은 누구인가? 수원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앞장에서 수원 시민, 수원 사람, 수원 토박이를 구분하였다.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수원 시민 내지 주민이다. 수원 시민은 수원에 살면서 수원 시민으로의 법적·행정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원 시민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는 지방선거 때이다. 투표권은 토박이건 이주민이건 수원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모두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수원 총인구 110만 명 중에 토박이의 비중이 20%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희상 전 도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수원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수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내세우고 싶어도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수원 인구의 10만~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수원 토박이들은 대대로 수원에서 거주했거나, 일제시기부터 거주했거나, 해방 이후 또는 한국전쟁 직후 그리고 최소한 1980년부터 거주하면서 수원의 역사적 발전을 경험하고 수원의 정서를 공유한 사람들이다. 특히 1960년 이전에 부모가 이주하여 수원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은 수원 토박이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후 수원의 모습을 기억하고, 1960년대 이후 수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수원읍과 1960년대 수원시 공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수원 사람의 정서가 몸에 밴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누구누구 집안” 또는 “누구누구의 딸, 아들” 혹은 “어느 학교 선배, 후배”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수원 토박이들은 자타가 모두 수원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수원 시민 중에서 자신을 ‘수원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자신들의 지역적 정체성을 수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거주기간과 거주공간에 관계없이

수원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수원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수원 토박이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이들을 수원 사람이라고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다음은 수원 토박이인 김태형 대표의 수원 사람에 대한 말이다.

면담자 : 인제 수원 인구가 110만이 넘잖아요. 그중에 수원 토박이가 20% 될까.[김태형 : 그렇지요. 20%에서 25% 네네] 근데 이주민들이 훨씬 많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의 변화가, 수원이 굉장히 커졌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형 : 어차피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살아가면서 직업을 따진다면 그래도 친구를 가장 잘 접하게 되니까 별 그 외지 사람을 접할 일이 없잖아요. 더러 외지 사람도 많이 사귀는데, 뭐 지금은 수원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지방 사람들도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지방 사람 많이 사귀지만, 구태여 수원 사람이니, 내가 수원 토박이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수원이 더 시원찮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지방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많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결국은 그런 사회적인 것으로 가게 되지, 토박이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하하하.

면담자 : 토박이는 그런데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김태형 : 그렇지요. 그게 다 알지. 웬만하면 다 나쁜 것도 나오지. 근데 뭐 외지 사람도 필요한 사람만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검증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지는 아니지만, 봐서 그 사람을 사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단 얘가지. 그런 차이일 뿐 무슨, 그리고 수원인들이 뭐 이제는 다 복합도신데 뭘 그걸 뭘. 그런 거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원이 조용하고 좋은 동네 아니에요. 풍수도 좋고, 재난도 없는 동네잖아요. 광고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원이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호수나 관광지가 수원에 많잖아요. 수원성 같은 것이 인제 수원 사람들은 애착이 많죠. 토박이들은요. 객지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굳이 차별화를 둔다면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원 사람은 광고산 이런 데 애착이 많아요. 화성 같은 데, 객지 사람들이 뭐 그냥 수원에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지. 우리처럼 저게 아- 발전했으면 하는 애착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연환경이 보존이 되고 그런 게 복원되는 데 관심이 엄청 많죠. <2012년 9월 11일, 수원박물관>

수원의 문화 전통에 대한 사랑과 보존 정신은 영통의 청명단오제에서도 드러난



수원 화성

다. 영통 해주 오씨가가의 오이환(1947년생)은 고향인 영통이 개발되면서 고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영통구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명단오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명단오제를 부활시켜 잊혀 가는 고향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sup>13</sup> 오이환의 이런 노력은 할아버지의 교육사업과 아버지의 계몽사업의 맥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오이환은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인 전통문화 복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4</sup>

이제 대도시 수원에서 수원 사람은 김태형 대표나 오이환과 같은 수원 토박이처럼 수원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애착심을 지닌 주민들이다. 비록 수원에서 살아온 세월이 짧다 하더라도 수원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원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수원 사람일 것이다.





영통 청명단오제

#### 4. ‘수원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수원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제시기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수원 토박이들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주하여 현재까지 근 50년을 수원에서 살아온 수원 사람들의 삶에서 몇 가지 특수성이 발견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수원 화성의 존재이다. 수원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서 화성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도시 수원의 기원이 화성행궁과 수원 화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화성의 중심가인 남문에서 북문으로의 대로변은 일제시기 그 중심이 남문과 수원역으로 이동하였어도 수원 사람들에게는 삶의 무대의 중심이었다. 일제시기와 해방, 한국전쟁기까지 남문을 중심으로 성문안시장(북수동시장)과 성문밖시장(현 영동시장)은 농촌으로 둘러싸인 상업도시이며 교통의 요지인 수원의 중심부였다. 1990년대 영통지구의 신시가지가 개발되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인 상



1970년대 남문 일대

점과 유흥업소가 영통 쪽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남문은 소비와 유흥의 중심이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수원 사람들은 남문의 음식점과 술집에 모여 서로 친구가 되고 정보를 교환하며 자연과 학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수원 사람의 정서를 공유하였다.

수원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특수성 중 하나는 수원 화성이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신도시였기 때문에 구읍치의 주민들이 신읍치로 이주하거나 편입되면서 수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본래 화성 읍성이 조성된 자리에는 원주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원에 정착하면서 수원 사람이 되어 간 것이다. 또한 수원을 둘러싼 5일장의 순환케도를 토대로 수원, 화성, 오산, 용인 등지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수원 사람의 경계는 모호하게 된다. 따라서 수원 사람의 경계는 매우 유동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변화해 왔다. 이렇게 수원 사람의 경계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영동시장의 경우와 같이 외지인(예를 들면 용인 사





람들과 피난민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다는 것이다.

수원 사람들의 삶에서 또 하나의 특수성은 수원이 수도권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수원을 거쳐서 갔고, 그 과정에서 더러 서울로 가기에 버거운 사람들은 수원에 정착하여 살았다. 또한 수원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은 일제시기부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서울로 유학을 갔다. 해방 후 1970년대 중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기 전까지 수원의 인재들은 서울의 명문 중고등학교로 진학해 갔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모두 서울로 이주해 간 것은 아니었다. 수원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경부선, 수인선, 수여선을 비롯한 철도교통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 따라서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이 가능하였고, 수학이 끝난 후에도 수원 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수원을 떠나지 않고도 교육을 비롯하여 서울이 주는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에 수원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원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인재의 유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원은 일제시기부터 경기 남부의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일제시기 수원에 고등교육기관인 수원고등농림학교와 수원농업학교가

수원 화성의 관문 팔달문 화성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수원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1980년대 까지 팔달문에서 장안문으로 이어지는 팔달로와 팔달문 주변, 소위 '남문'은 수원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었다. '남문'은 수원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소였고 쇼핑의 대명사였다.



수원역 앞(1990년) 서울과 삼남 지방의 길목인 수원역은 일제시기부터 전국의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또한 수원 사람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있었기 때문에 경기 남부의 많은 인재들이 수원에 와서 수학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는 정부기관의 관리들이 되었다. 즉 수원은 학연을 통해서, 수원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손실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수원 사람들의 삶 속에서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로써 수원은 명실공히 경기 남부의 수부도시가 되었다. 1970년대 말까지 박정희 군사정부하에서 수원은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상징하는 농업도시로부터 삼성전자가 상징하는 공업도시로의 변환을 시도하였다. 많은 수원 사람들의 기억 속에 1970년대 삼성전자의 공장 설립과 그에 따른 수원 경제의 활성화는 ‘좋은 옛 시절(good old days)’ 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날이면 남문 상가와 유흥가의 매출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고등동에 위치한 경기도청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 사람들은 '수부(首府)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수도권 확장과 개발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공업도시로서 수원의 이점은 사라졌다. 삼성전자 공장과 한일합섬 공장이 이전하였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곧 이전하게 된다. 이제 수원은 더 이상 농업도시도 아니고 공업도시도 아닌 거대한 소비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수원은 영통 신시가지 건설과 삼성전자 자연연구소의 입주로 중산층들의 베드타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 사람들의 지역성의 중심에 있는 화성도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변신 속에 있다. 화성행궁을 복원하고 그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성은 현재진행형의 도심에서 과거 보존형의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다. 수원 사람들에게 화성행궁은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되어 버리자 더 이상 수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심





2000년대 서수원 주거지역의 모습



화성행궁

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수원 사람들의 삶은 신도시 화성 읍성에서부터 문화재 화성을 지닌 소비 도시로서의 변천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수원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수원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수원이 어떤 시가 되길 바라는지에 달려 있다. 그것에 따라서 수원 사람들의 삶의 특수성은 다시 조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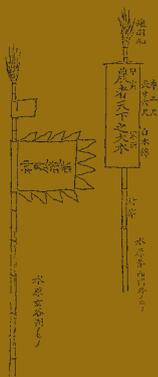




## 2

### 사회 변동과 도박이의 생활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나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수원은 모순된 이미지, 서로 충돌하는 정체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수도 서울을 둘러싼 경기 지역으로서 도청이 위치한 수부(首府)도시이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시내 도처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와 농촌이 온존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 등 대한민국의 첨단을 달리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모태가 된 공업도시이면서도 농업도시라고 하는 자기인식도 대단히 강하다.



1. 모순인 듯 공존하는 양면적 정체성
2. 토박이사회가 가졌던 공동체적인 모습
3. 재래적 공동체의 기반에 놓인 불평등 구조
4.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도 공동체일 수 있었던 이유

안 승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 01 | 수원 토박이들의 삶과 재래적 사회질서

## 1. 모순인 듯 공존하는 양면적 정체성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나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수원은 모순된 이미지, 서로 충돌하는 정체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수도 서울을 둘러싼 경기 지역으로서 도청이 위치한 수부(首府)도시이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시내 도처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와 농촌이 온존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 등 대한민국의 첨단을 달리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모태가 된 공업도시이면서도 농업도시라고 하는 자기인식도 대단히 강하다. 이 농업도시라는 정체성에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라는 현대적 기반 외에, 권업모범장과 농사시험장 등 일제 식민통치와 관련된 착취의 기억이 얽혀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정조 대에 자생적인 농업 근대화를 이루려던 꿈이 당시 조성된 물적 기반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져 온 지역이기도 하다.

정조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근대로부터 이어지는 유산들을 좀 더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도시의 주요한 역사문화경관을 특징짓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이 현대에 복원된 것으로 시내에 그와 관련된 독특한 문화전통이 계승되어 왔다고 하기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 수원의 독특한 문화전통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정조의 효성으로 상징되는 효 문화가 근래 부각되고 있지만, '각쟁이' 룬으로 대표되는 실용성 중시의 수원 사람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되었든 그런 수원의 역사적 자기정체성은 대단히 뿌리 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다른 역사적 중심지들에 비하면 수원의 역사성은 정조 이래 200년 남짓한 기간에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모순되고 충돌하는 인식들 사이에서, 수원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들의 삶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주민들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다.

본래 수원군 일형면 지역이다가 1936년 수원읍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수원읍에 편입된 화서동은, 수원 화성 바로 외곽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동네 중 하나이다. 지금은 도시화와 재개발로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지만, 이곳은 본래 동말, 고양골(또는 고양말), 꽃피(화산동) 등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동말은 본래 각성바지 마을이었으며, 꽃피에는 경주 김씨들이 많이 살았고, 고양골은 동래 정씨들만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한 집성촌이었다.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0)에 따르면, 화서동에서 타성들은 ‘뗏간’, 즉 헛간이나 창고 같은 곳에 방만 있는 흙벽으로 된 집을 짓고 일 년 혹은 자식들을 장성시킬 만큼의 일정 기간 품을 팔면서 살았으며, 소작인이나 머슴은 거의 없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화성 축조 이래 수원 지역의 경작지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로는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유입인구를 활용하는 고용노동 비중이 큰 것은 수원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서둔동 일대의 여성들이 일제시기 이래 수원고등농림학교 및 수원법원 등에 근무하는 고등관 사택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서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모순된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근래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수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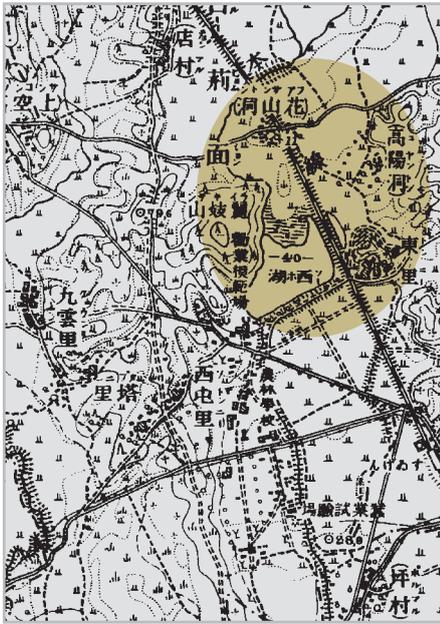
현재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이 유지되는 한편, 여기에 많은 유입인구가 얹혀 이질적인 사회 구성을 지속해 온 정황들이 확인된다. 고양골 토박이인 동래 정씨 집안에서 태어난 정규호(남, 1936년생)에 따르면, 화서동 동말은 철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소(沼)를 끼고 있고 요정 비슷한 술집도 있어서, 일제시기부터 젊은 사람들 왕래가 많고 “건달들도 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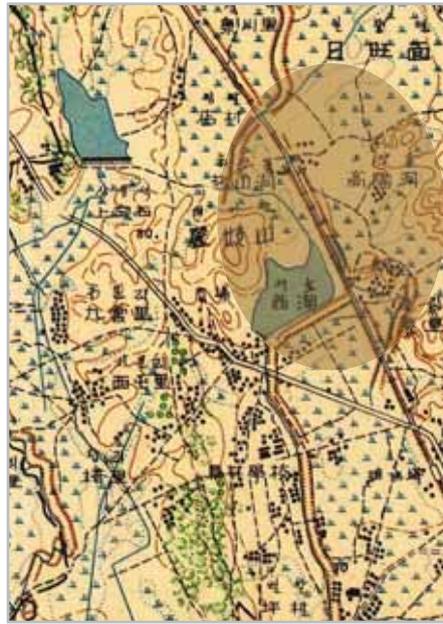
일제시기 화서동말수인박물관(소장)



화서동꽃피마을(1973년)



1910년대 고양골, 꽃미(화산동), 동리



1950년대 고양골, 꽃미(화산동), 동리

동네였다고 한다. 이리다 보니 해방 무렵 거주호수가 이미 백 호가 넘는 큰 동네로, 이를테면 “실제로는 꽤 먼저 앞서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식으로 볼 때는 너무 좀 되바라진 그런 형태의 마을”이었다. 특히 동말에는 돌산이 있어서 화성 축조 당시부터 이곳에서 채석을 해 왔다는 기록이 있고, 일제시기에도 이곳에서 돌을 깨서 철길 놓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규호는 “그래서 우리 어릴 땐 남포라고 해서 그 폭약을 터뜨리면 종을 땡땡땡 치고 대니면서 빨간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위험 표시를 하고 다녔단 말야? 위험하다는 걸.”과 같은 추억담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런 회고는 마을 전체에 감도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해 준다.

이에 비하자면 그의 고향 마을인 고양골은 전형적인 농촌 동족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개울가로는 미루나무가 줄을 지어

늘어선 전형적인 조용한 농촌마을이었다고 한다. 40여 호가 거주하는 고양골에서 동래 정씨가 삼십여 호 살고, 그 밖에는 동래 정씨 아래에서 소임을 보거나 묘지를 하는 타성들이 몇 집 살고 있었다. 수필가이기도 한 정규호가 지은 수필집 『추억은 잠들지 않는다』(삶과 꿈, 1998)에는 집성촌의 종갓날 풍경을 기록하고 있다. 어른과 젊은이들, 중심인물과 주변인들 사이의 대조가 흥미로우며, 특히 동족마을의 종계일에 연포탕이 불리일키는 사회적 에너지에 관한 기록으로서 절묘하다.

우리 큰댁(종손)은 초가집으로 꽤 오래된 고옥이었으며, 종갓날이면 먼 일가 어른들이 모여들어 바깥 사랑방이 꽉 차서 장수연담배 연기로 방안이 자욱했다. …… 때론 의견 차이로 큰 소리도 나오고 일정한 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를 끌어버트다가 핀잔으로 무안을 당하는 어른들도 더러 있었고 …… 계꾼들을 먹이기 위해 약주 한 동이에 연포탕 한 동이를 끓이느라 마치 잔칫집을 방불케 하였다. 연포탕은 우선 다시마와 소고기 내장을 넣고 국물을 끓이다가 쌀가루를 걸죽하게 풀어서 끓이는데, 거기에 집에서 만든 두부를 송송 썰어 넣고 각종 양념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참기름에 갠 고춧가루 다대기를 풀면 먹음직스러운 연포탕이 되는 것이다. …… 동네 사람들은 사랑마루며 마당에 명석 몇 닢을 깔아놓고 어서 종계가 끝나기만을 껌벅이며 기다리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짹째 울타리에 단으로 묶어 세워 둔 수수대에서 수수깅을 잘라내어 젓가락을 만드느라 수선을 피웠다.

한편, 이웃 마을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해방 무렵 약 40호가 거주하던 꽃피 마을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좀 낙후된 곳”이라는 인상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였다. “전기가 동말로 해서 고양골로 이렇게 들어왔거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골보다도 한 이십 년 이상 아마 전기가 늦게 들어갔을 거여. 그럼 문화적도래는 게 그걸로 가름[가늠]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늦게 좀 들어가고, 더 농촌적인 데가, 꽃피가 더 농촌지역이었지.”라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설명이었다.

화서동에서 문화유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약사님’이라고 불리던 석불이다. 본래 현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큰 엄나무와 함께 서 있었으나 일제시기 공출로 나무가 베어지면서 소나무가 엄나무를 대신하게 되었고, 1980년경 동래 정씨 선산 밑으





약사불을 모신 절집(2007년)



약사불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곳』, 2006)

로 옮겨졌다가, 화서동 도시 재개발과 함께 '절집'은 사라지고 '약사님'은 수원 박물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따르면, 이 석불은 영험함이 널리 알려져 도처에서 만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동래 정씨 일가 중 꼽추처럼 허리에 탈이 나는 사람이 생기면서 외지인의 출입을 금하게 되었다. 수원이 화랭이패 문화 등 경기 지역 무속문화의 중심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원에서 알아주는 유서 깊은 동족마을에서 '약사님'을 모시고, 그 '절집'에 외지 무속인들이 제집 드나들 듯하여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이를 금지하는 상황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다.

또 '절집'에서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로 접어들면 자시(子時)에 '석불치성'을 드렸는데, 본래 동래 정씨 남성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이 치성은 많은 남성

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매달 초하루 아침 10시경 동래 정씨 집안 아낙들이 주도하는 의례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농촌적인 문화의 한 부분이 '남성들의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도시적인 특성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다른 농촌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약사님'의 영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정규호에게 고향의 추억으로 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沼)와 개울에서 고기를 잡고 놀던 기억이었다.

정규호 : 영험하긴 뭐가 영험하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 추억이래는 게 거기 소가 인제 그 아래 있으니까, 거, 못자리 이렇게, 모가 자랄 썸 되던 사월 달썸 될 거야, 아마. 사월, 오월 달! 사, 오월 달 되면, 이 물고기가 알 깔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 비만 떨어지면 그 소의 고기가 그냥 꽃뽕, 우리 동네 논이로 다 올라와, 고기가. 그 고기 잡는 재미가 제일 있었죠, 고기 잡는. 거기 물고기가 그렇게 흔했으니까 집집마다 삼태그물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혼자 잡아 끝은 재밌거든. 모아서 두 사람이 끝기도 하고. 그래서 천렵을 많이 했지, 천렵을. 밥 하나 국 하나 끓여 가지고 먹으면 그제 꿀맛이고, 한참 철 넘어서부터는 막걸리도 거기다 곁들여서 먹으면 제일 재미있는 소일거리였지 뭐, 쫓았을 때는. 밤에도 뭐, 밤새면서 고기를 잡어요.

지금도 그에게는 손맛으로 제어하는 그물질 기술에 대한 추억이 생생한 것처럼 보였다.

정규호 :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면 비만 떨어지면 고기가 어느 냇가로 큰 데 오르고 뭐 그러는지 다 알아. 올라오는 게 다 보여, 눈에는. 밤에 가서 치고 밤들 새고 아침이면 한 짐씩 지고 들어오고. 고길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면담자 : 불 켜 놓고 잡으시는 거예요?

정규호 : 아니요, 그냥 요 촉감으로 잡는 거지. 삼태그물 대고 있으면. 물뺀이 있는 데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탁 치거든.

면담자 : 아! 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정규호 : 응. 들어서서, 아주 고기 잡는 재미가 재밌었어. 그리고 인제 아침에 미쳐 못 나간, 빠져나간, 이따위 메기 같은 이런 놈들이 물꼬 같은 데서 있단 말야, 돌아댁기다 보면, 그거 잡는 재미도 있고.

천렵에 나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손기술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전체로서의 이러한 손기술들은 전통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상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옹호는 지금은 없어진 수원의 노포(老鋪) 광덕상회의 옛 주인이다. 그는 광덕상회를 부친으로부터 이어받았다. 조옹호의 부친 조재훈(趙載勳)은 수원에서 평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유명한 정자동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뜻한 바 있어 1940년 수원 남문시장(문밖장)에 포목상점을 열었다.





1950년대 후반 정지동(조웅호 제공)

그의 고향 마을인 정지동은 본래 광주부 일용면 정자리였다가 1789년 수원부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형면, 1936년 일왕면 관할이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면서 일왕면은 화성군 관할이 되었으나 1963년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정지동이 되었다. 대대로 정자리는 평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조웅호의 어린 시절에는 약 60호의 거주호수 중 타성은 서너 집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정지동 일대에는 80여 호의 평양 조씨 사정공파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들 평양 조씨 일파가 그전의 터전이었던 양주(현 의정부시) 민락동을 떠나 정자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조웅호의 14대조인 사정공 조시준(趙時俊) 때의 일로 전해진다. 이 입향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는 『수원의 동족마을』(수원시, 2006)에 설명되어 있다. 단지, 조시준이 양주를 떠난 배경에 대해 조웅호는 “증조부 조건(趙狷)의 ‘조선조에서 벼슬을 하지 말라.’는 뜻을 벗어나고자 해서였다.”며 이 보고서와는 약간 다른 설명을 하고 있었다.

개업 초기부터 광덕상회에서는 삼남에서 올라오는 조선 삼베(마포)와 무명(백목), 창호지 등의 위탁판매를 하는 한편, 통제경제 아래 배급되는 비단의 공매거래를 겸하고 있었다. 해방 후에는 포목류의 위탁업으로 전업하게 되었는데, 이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감정하는 감식안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위탁업은 단지 생산지 수집상과 소비지 소매상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되는 물품을 감정하고 그 품질에 따른 상품등급을 매김으로써 적정가격을 통한 거래를 보증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옹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옹호 : 쉽게 말해서 직접 거래하는 거는 상도덕을, 위계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각자, 각자 해면?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객주에서 물건에 대한 심판을 해 줘! 이건 얼마 짜리다, 이거는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하다, 그거를 가름해 주는 게 위탁업들의 노하우지. 지킴으로 말하면, 품질보증도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보증을 중간에서 주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감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건을 보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삼베의 경우 품질이 좋은 물건은 세포(細布)라고 하여 가늘고 고운 실로 짠 포이다.

조옹호 : 쉽게 말하면 삼이, 가늘어야 돼요. 삼이, 가늘어야 돼. 굵으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가늘대는 게, 사람이 이걸 잘라 가지고 무릎에다 놓고 비비거든? 비비서 실을 맨드는데, 고 실을 가늘게 하는 게 재주예요. 그래서 고, 가늘게 맨들어서 짜는 게, 스무 자 한 자루 해서 또르르 말아 놓는 게, 요기 요 주먹에 들어오는 게 '세포' 라고, 가늘 '세' 자, 세포라고, 그런 게 제일 좋은 삼베죠. 응. 이게, 그니깐 이게 부피가 늘어날수록 싼 물건이야.

이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아 놓은 포의 부피를 짚어 봄으로써 가늠하는 것이다. 그는 동대문시장의 포목상도 모르는 방법으로 품질을 측정하여 상대를 놀라게 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조용호 : 내가 늙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삼베 보는 것을 나만큼 보는 사람이 없어. 응? 저기 저, 일화를 얘기하려면, 저 선경그룹의 제일 그 회장, 최종건 씨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그런 베를 좀 사재. 근데 우리 집이는 시골이니까 한정이 있잖아. 근데 거기는 최씨 집안이 족속들 말고 임원들, 뭐 띠래도 할래니까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보고 좀 더 사달래. 그래서 내가 동대문을 갔어. 근데 동대문을 가서 내가 베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꾸욱 눌러 보니까 주인이 날 보고, “여보, 베를 이렇게 눌러 보고 알우?” [그래서] “여보, 나도 몇십 년 경험이 있어.” 그랬더니 누구네. 그래서 내가 “수원 광덕상회에서 왔소.” 그랬더니 깜짝 놀래면서, “아휴 그러시면, 대, 아주 선배님이세요.” 그래.

삼베의 품질을 판정하는 데에서 삼의 가늘기와 함께 중요한 것은 삼베의 색이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색깔! 그, 삼 색깔이 노랗게 나오거든요? 삼이 좋으면 실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깨끗지 않은 삼은, 쉽게 말하면 삼베가 짜다 보면 이렇게 얼룩이 지지. 울긋울긋한 거. 색이 동등치가 없으니까.”

품질을 가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베의 양(길이)을 측정하는 방법에도 요즘 젊은 상인들이 따라 하기 힘든 기술이 있다.

조용호 : 그니까 그거는 이제 뭐, 공부 식으로 베는(베우) 게 아니라 경륜에 의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 포래는 거는 서른다섯, 여섯인데 이걸 열일곱 가닥이에요. 이걸 세 번을 접어, 접어서 그러는데, 접으면 놓으니까 안 퍼지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쥐고 딱 뿌리면서, 뿌리며 딱 잡아댕겨야 돼! 그러면 이걸 딱 잡아댕기면, 땡기면 퍼져요. 그니까 이게 기술이야! 그래 가지고 요 손으로 요거를 또로로 열일곱 개를 부채살처럼 요렇게팔을 펼쳐 보이며, 요게 딱 오십 센터거든, 요게. 재니까 [동대문시장의 상인이] 나보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 2. 토박이사회가 가졌던 공동체적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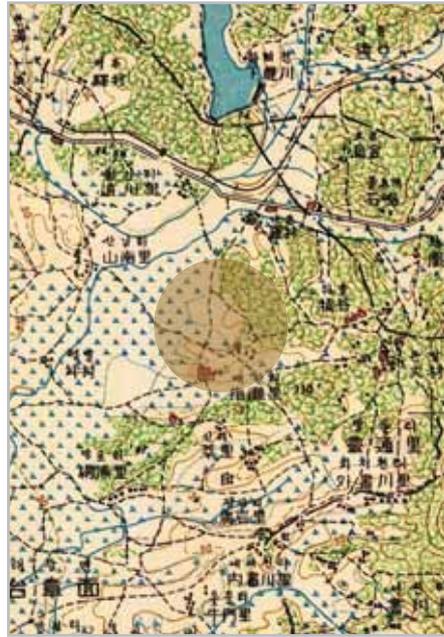
다시 화서동 · 정자동 일대의 옛 시절 이야기로 돌아오면, 수원의 농촌적인 모습

에 대한 기억은 끝도 없었다. 정자동과 화서동 일대 들판에서 벼를 벨 적에는 논에 든 너구리들 잡는 것을 보느라 신이 났었다. 화서동의 정규호는 “너구리는 이 들판에, 정자동 동네서부터 벌판이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벼[벼] 벨 적에 논에 너구리들이 많았다고. 그걸 낮으로도 찍어서 잡고. 아이 우리는 못 잡고 농민들이. 벼논에 너구리가 들어요, 가을에. 그럼 벼 빈 데로는 없으니깐 벼 안 빈 논이로 모인다고. 마지막 벼 벨 적에 그때 많이 나와. 옛날에 너구리야 집 근처에 흔히 있던 거지.”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는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농사시험장 뒷동산에 가서 벼씨를 털어먹던 일을 생생히 기억해 내기도 하였다. 일제시기부터 그러하였다는 그의 설명에 버스요금에 대해 묻자 그는 “근데 하여튼 돈 그거, 우리가 돈이 있나 그때. 꼬깃꼬깃 감춰 둔 거 어떻게 해서 타고 가고, 누가 태워 주면 타고 가고.”라고 설명하였다. 이 역시 완전히 도시도, 그렇다고 완전히 농촌도 아닌 수원이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수원이 역사도시라는 점은 동서남북으로 수원에서 교차하는 도로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조의 능행길(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원을 잇는 대로의 곳곳에서 소위 ‘거동길’과 관련된 구전을 들을 수 있다.)이나 수원을 지나 삼남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뿐 아니라, 모세혈관처럼 얽힌 다양한 길들과 관련한 구전의 원천이 된다. 영통구 매탄동의 말통골 마을은 ‘말 마(馬)’에 ‘통할 통(通)’, ‘골 곡(谷)’자를 써서 한자로 마통곡이라고 한다. 이 마을 토박이인 김진섭(남, 1934년생)은 “시방 내려오신 [마을 가운데의] 도로가 옛날부터 사용하던 도로예요. 아주 단일도로입니다. 그랬는데 옛날에 주로 이제 선비들이 공부하고 전라도에서 올라오실 때 이 길을 말을 타고 통과를 했어요. 서울로 과거시험 보러 가실 때. 그래서 말을 타고 통과했던 골이라고 해서 말통골입니다.”라고 마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였다. 원천동에 있는 역말에서 말을 먹이고 숙식을 하던 여행객들이 이 말통골을 통해 왕래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이 길은 북쪽으로 북수원을 통해 의왕과 안양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서울길이고, 남쪽으로 망포동을 지나 태안읍 병점(떡점)을 지나 오산으로 가는 길이다. 한편 영통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쑥고개’, 산드래미를 지나 수원 시내로 넘어가는 길에는 ‘한봉재’라고 불리던 얇은 고개들이 있었다.



1910년대 말통골



1950년대 말통골

말통골이 지닌 이러한 가촌(街村)으로서의 특징은 과거 주막들의 존재와 지금은 사라졌지만 마을 입구 길가에서 있던 두 그루의 두릅나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말통골뿐만 아니라 원천동 역말, 원천동 먼내(遠川)는 모두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모두 주막집들이 하나 이상씩 영업을 하고 있었다. 길가에 서서 마을 입구임을 표시해 주던 두 그루의 두릅나무는 지금은 모두 쓰러지고 없다. 한 그루는 해방 직후에 쓰러졌고, 다른 하나는 십여 년 전 없어졌다고 한다.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던 여름에 두릅나무를 쓰러트린 바람을 주민들은 ‘해방바람’이라고 불렀다. “아우, 해방바람이 아주 쟁쎄. 대단했쎄. 그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니까. 그때 해방바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말하면 태풍이에요. 아주 큰 바람이었어요. 그 뭐 시골에 보통 지붕이, 다 초가니까요. 거의가 다 날라갔쎄.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이 말통골도 기본적으로는 농업을 생계로 삼는 농촌마을이었다. 해방바



말통골 길 정비작업(1972년)

람이 불던 60여 년 전은 물론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기 직전의 1970년경까지도 주민들은 자기 농사를 짓는 90%와 남의 집에서 품을 팔던 10%쯤을 합해 모두가 농사꾼들이었다. 토지의 활용에서도, 현재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일대가 모두 논이어서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었다. 밭을 전부 합쳐도 논 면적이 다섯 배 정도 많았다고 한다. 말통골이 수원군 태장면 지역이던 시절 매탄리는 옷말, 아랫말, 안말 등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해방 직후에는 매탄리 전체에 50호가량이 살고 있었고, 이 중 옷말에 12호, 아랫말에 24호, 안말에 10여 호가 살았다고 한다. 50호가량이 거주하던 해방 무렵 말통골에는 경주 김씨, 파평 윤씨, 김해 김씨 등 3개 성씨가 가장 많이 살았다. 대개 안말에는 파평 윤씨가 많았고, 옷말과 아랫말에는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가 섞여 있었다.

김진섭은 경주 김씨로 그의 집안이 말통골에 처음 정착한 것은 증조부 때의 일이었다. 그의 증조부는 현 화성시 동탄면 신리에서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으며, “항

시 상투를 쓰고 있고 활을 쏘는 벼슬”을 한 분이었는데, 분가하여 말통골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말통골의 경주 김씨는 계림군파와 상촌파가 섞여 있는데, 별다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마을이 경주 김씨의 정착과 함께 이백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논은 금성개울들과 봉성들, 산드래미들 등 제각기 이름이 있던 세 곳의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면적은 세 곳 모두 각 3,000평 정도였다. 이들 논은 일제 말기 원천저수지가 만들어진 이래 모두 수리안전답이 되어, 마을에서 천수답은 2~3%밖에 되지 않았다. 저수지에서는 3~4월경 못자리할 때와 6월에 모내기할 때, 그리고 가을에 ‘참참이’ 물을 내려 보냈는데, 이앙을 위한 물 공급은 매년 양력 6월 1일부터로 날이 정해져 있었다. 신대저수지(원천 윗방죽)와 원천저수지(원천 아랫방죽) 두 곳에서 물을 공급하였으므로 수량은 충분한 편이었다.

이런 원천저수지조차 바닥을 보였던 가뭄이 한국전쟁 때 있었다. 김진섭은 “해방 바람하고 육이오 때 가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라면서 “바닥이 다 말라서 동네 사람이 몽땅 다 가지고 저수지 안에 있던 물고기를 가마니로 잡아 오는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나 많은지, 바닥이 말라서”라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이 원천 위·아랫방죽의 바닥을 말렸던 가뭄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서에도 기록이 있다. 『수원 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기전문화재연구원 외, 2005)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이 저수지에서 수로감시원을 했던 김천영(남, 1933년생)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과 1978년에, 그리고 하동 별말 태생의 한양훈(여, 1929년생)이 일곱 살 때도 이렇게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가뭄이 있었다. 한양훈은 오빠 한봉교와 그 친구인 명수 씨가 “하얀 대가리에 하얀 비늘 여러 개가 나고 뿔이 거꾸로 난 잉어”를 잡았다가 영물이니 놓아 준다고 일부러 물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원 지역에서 농촌적인 삶을 기반으로 작동하던 농촌 공동체적인 문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매탄동 말통골의 김진섭은 스물대여섯 살 무렵 김정배 이장 밑에서 반장을 보면서 신작로에 자갈을 까는 마을 공동부역을 다녔던 일을 기억해 냈다. 작업 장소는 태장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원천다리 밑 개울에



매탄동과 원천동 마을 공동 작업(1975년)

가서 자갈을 캐서 수원과 용인을 연결하는 신작로에다 깔았다고 한다. 해마다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하루나 이틀씩 신작로 자갈작업을 하였는데, 3~4월과 8~9월에 한 번씩이었다. 이 작업은 영통골 등 원매탄의 마을들 외에 신매탄의 산드래미와 새터, 원천동의 나촌말, 먼내, 역말 등 태장면 북부 지역의 7~8개 마을이 함께 같은 구역을 맡아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태장면 남부 지역의 마을들은 병점과 오산 방면의 비행장으로 가는 길 쪽에서 작업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가기구의 동원으로 진행되는 부역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농촌 공동체적인 특성들이 발현되고 있었다.

가령 마을 공동부역을 나가면 식사는 각자 해 가지고 가야 하는데, 당시 마을 사람들 누구나 경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막걸리 한 사발씩으로 점심을 때우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대개 원천양조장에서 막걸리 한 통씩을 받아다가 우선 먹고 나중에



추렴을 해 갖는 식이었다. 당시 ‘나협 회비’ 라고 하여 한센병 환자를 위한 기금을 걷었는데, 반장이 이를 걷어서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선 이 돈을 막걸리 시는 데에 썼던 것으로 김진섭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외 간혹 감자나 고구마를 썬 온다든가 김밥을 싸 온다든가 먹을거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

화서동 고양골의 정규호는 마을의 ‘뒷동산’ 인 숙지산의 숲을 지키기 위해 순산(巡山)했던 일을 기억해 냈다. 주민들은 팻말을 만들어서 온 산에 둘러 세우고, 돌아가며 산을 순시하며 타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해 가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을 하였다. 주민들은 팻말을 꽂아 놓는 것 외에 팻말에 벌채를 금한다는 내용을 적어 끈을 매서 걸고 다니면서 산림감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팻말을 패용하고 순산을 했던 것은 “기냥 가면 또 신용 안 해고 또 어떤 놈이 지랄하고 그러니까 좀 산림감시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 를 위해서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마을의 산을 지켜 내면서, 주민들은 가을에 숙지산에서 나는 뽕감을 공동체적으로 분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공동체’ 적인 면모는 함께 대동으로 산에 가서 뽕감을 꺾고, 이로부터 나온 뽕감을 추첨에 의해 분배하던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정규호 : 그래 가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부 한 사람씩 나와! 갈퀴 가지고, 지게 가지고. 그러면 인저 전부 같이 굶어서 나무에다 다 짊어지면은, 가랑잎 해 오는 데도 있고 솔가래 해 오는 데도 있고, 솔가래가 좋잖아?

면담자 : 예, 예.

정규호 : 이게 제비 뽑는다고, 전부 다. 그래서 솔가래 가져가는 사람은 박수 쳐 주고.

면담자 : 아, 그러니까 작업은 공동으로 해 놓고 제비 뽑아가고, 뽑아가고.

정규호 : 응. 삼십, 삼십 사람이 나와서 삼십 지게를 해 논단 말야. 그러면 제비 뽑으면 모자라지 않게, 공평하잖아? 그렇게 해서 노나서 때고, 솔가래가 오면 아주 땡타는 거지.

정규호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 산림을 지켜 내기 위해 순산을 돌던 일과 가을에 낙엽을 굶어다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일은 고양골 마을의 대성인 동래 정

씨뿐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던 타성들도 모두 똑같이 참여하였다. 즉, 마을 주민인 이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차등은 없었다. 그것이 비록 종중산이었지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숙지산에서 땀감을 긁어내는 일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대개 며칠씩 이어졌다. 한 해 동안 나온 잔가지 이파리를 모두 긁어냈기 때문이다. “한 지게가 뒹여, 한, 며칠을 긁어 대니까 그냥 대여섯 짐씩, 어떤 땐 여남은씩 노나나뉘) 가고 그러지. 다 긁었어, 다. 매일매일 아침에 긁어 놓으면 점심 때 둘러서 또 가져가고, 저녁 때 또 긁어서 또 한 짐씩 가져가고 그렇게. 한 삼사 일 작업 돼요.”

산에서 땀감을 훔쳐 가려는 이들로부터 산림을 지켜 내는 일은 어느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도둑이 많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앞서 화서동 꽃뫼 마을과 고양골 마을 사이에 전기가 들어온 시점에 20년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는 전선을 끊어 가는 도둑들이 많아 애를 먹었다. “들판이 이렇게 있다가, 인제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동네가 또 있고 이러잖아? 거기를 맨날 끊어 가, 이놈의 도둑놈들이 전선을 밤에, 그걸 여러 번 당했다고, 아주. 그래서 나중엔 전기만 나가면 쫓아가면 끊어 놓고 못 가지고 가, 미쳐. 그렇게 해서 전깃줄을 자꾸, 그런 일도 있는데, 하여튼 전깃줄을 끊어 가 버렸다고, 옛날에. 구리가 비싸니까.”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에도 일제시기 서둔동에서 “수라 돈다.”고 하여 겨울철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북을 치며 야경을 돌았던 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수라’란 외부 침입자나 범법자를 경계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돌아가며 지키는 일을 가리키는, ‘순라(巡邏)’에서 유래한 말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위 ‘딱딱이’가 아니라 북을 치며 도는 것이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 순라활동의 특징이었다.

화서동에서도 나무벌채를 마구잡이로 해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외에, 마을에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자치적인 야경활동이 있었다. 화서동에서의 야경활동은 두 사람씩 조를 이루어 경비활동을 한다는 점은 순산과 같았지만, 순산이 주로 낮에 도는 것이라면 야경은 밤에 북을 치고 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 차이가 있었다. 야경은 도둑들로부터 마을을 지켜 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를 예



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잿간에서 불이 많이 났어요, 잿간. 재 쳐다 놓으면 짚으로 이렇게 엮었으니까 불이 나고. 아무튼 이렇게 댕기고 그러니까, 인제 예방도 하고. 그때는 북을, 북을 하나를 땡! 땡! 땡! 치고 그러면서 순찰 돌고.”

순산도 야경도 모두 고양골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으므로, 실제로 무언가 단속을 하고 벌칙을 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순산을 갈 때 팻말이 없이 “그냥 가면 신용도 앓고 또 지랄들을 하고” 하던 상황은 이런 어려움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야경의 경우에도 직접 도둑을 잡는다고보다는 경계와 예방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에 대해 정규호는 “응, 안전을 위해서, 도둑이 도망가려는 애기지 뭐. 여기 순경 도니까, 순경 도니까 도망가라,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야경활동은 대개 1950년대 정도까지, 순산활동은 1960년대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

숙지산의 빨감은 이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분배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굶어내리는 슬가지나 이파리만으로는 한 해 겨울을 나기에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은 모두 나뭇잎의 방식으로 연료를 확보해야 했다. 화서동에서는 대개 광교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왔다. “밥 싸 주면 가서 나무 해고 한 짐씩 해 갖고 저녁 때 오지.”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일상화된 일과였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마차로 한 대씩 사다가 매기도 하였다. 정규호의 경우, 당시 광주 땅이던 금토리(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친척이 있어서 좀 보내 달라고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마차에 나무를 싣고 화서동까지 왔다고 한다. “일기들 왕래 있으니까 언제 거 나무 한 바리 좀 보내, 그러면 가져오고 그랬었지. 밤새도록 걸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밤새도록 걸어오고, 나무 부리고 요기 허고 또 한나절 걸어가는 거지. 거기가 풍덕천이로 해서 걸어가. 아휴 나도 한 번 걸어봤는데 그거. 겨울에 그냥 아침에 떠나면 캄캄해서 들어가.”라는 것이 이와 관련한 그의 설명이었다.

아직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은 당연히 살기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단합이 잘되고 농촌에서 “참 재미있게 살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정우(남, 1943년생)는 지금은 신시가지로 개발된 영통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다. 영통 택지개발 이전의 영통리는 고개 하나씩을 사이에 두고 큰말, 뒷골말,

은행나무골, 새터말, 말통골 등 몇 개의 작은 단위 마을들이 이어져 있었다. 해방 무렵 이미 50~60호로 이루어진 각성바지 마을이었다. 그중에는 경주 김씨, 해주 오씨, 전주 이씨, 청주 한씨 등이 비교적 오랜 동안 이 마을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온 성씨에 속하였지만, 모두가 5~7호 규모를 넘지 않았다. 택지개발 직전 세대수는 100여 세대에 이르렀지만, 호수 자체는 50~60호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영통 일대의 경주 김씨는 계림공파와 내의 갈천공파로, 17세기 초 무렵 충주에서 이 일대로 입향한 김원립(김원립 및 그의 장남의 묘는 충주에 소재함)의 후손들이라고 전해진다. 해주 오씨는 추탄공파로, 17세기 중엽 경기도 광주군 모현면 지역으로 입향한 오윤겸의 후손들이다. 모현면 오산리에서 기곡면(후의 기흥면) 서천리로, 이어서 영통리로 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통리의 전주 이씨는 견성군파(견성군의 묘는 남양주 별내면에 있으며, 파종회 사무실은 구리시에 소재함)이다. 본래 양주(현 남양주) 땅인 마석에서 이주하여 영통리 근방의 영덕리(당시는 용인 지내면 소속)에 정착하면서 용인 땅으로 입향하고, 이어서 영통리로 분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 한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주 김씨, 해주 오씨, 전주 이씨 모두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용인과 수원, 화성의 경계를 이루는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분가를 해 나가면서 지역적 기반을 확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상으로 경계 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 확장이나 개발에 따라 그 소속지가 변해 왔을 경우, 마을을 넘어서는 정체성의 형성은 어떤 것들을 기제로 삼고 있었을까.

이정우는 택지개발 이전의 향수 어린 기억으로 가장 먼저 학구(學區)를 단위로 대항하던 체육대회를 떠올렸다. “참 그때 새마을사업 하고 그럴 땐 참 동네가 단합이 잘 되었어요. 참 재미있게 살았어, 그때는. 매년 또 학구단위 체육대회가 있어. 학구단위 체육대회를 하면, 부녀회 줄다리기를 가서 영통이 1등을 허구 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는 뭐 두레패까지 다 가지고 가서, 온 부락 사람이 잔치였어, 학교에 가서. 배구대회, 육상, 줄다리기 ……”

여기에서 말하는 ‘학구’란 특정 지역 주민의 자녀가 특정한 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통학구역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새마을운동 시절 체육대회를 할 때 단



위가 되었던 학구는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학구를 말한다. 영통리의 경우 태장면 소속일 당시 태장국민학교에 다니는 태장학구로 분류가 되었고, 인근에는 병점학구, 기안학구, 안룡학구 등이 있었다. 현재 영통동 일대는 망포동에 있는 태장 초등학교에 다니는 태장학구에서 제외되었지만, 농협 조직은 여전히 과거의 태장학구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의 학구와 달리 농협 조합원들은 과거의 학구를 단위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의원 이사 선출을 비롯하여 모든 농협 조합활동이 과거의 학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범위의 지역적 단위들이 각 마을들과 시군 단위 사이에서 지역적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면대면 사회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과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한상진(남, 1951년생)은 원천동에서 나고 자랐다. “원천유원지에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뿌리 깊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청주 한가들, 대성 지역입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 가지고 정말 어려서 ‘컨추리 보이’ 같은 시골마을이었지만, 원천저수지가 일찌감치 유원지가 되면서 수원의 많은 시민들이 요새는 소풍이지만 그 당시에는 원족(遠足)을, 요새 말하는 사구라꽃이고, 벚꽃? 큰 게 있어 가지고 그 유원지로 소풍을 갔을 때, 우리는 그 고향에 원천유원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는 수원북중학교 입학 후 동네의 형들과 함께 걸어서 통학하면서 형들이 공부를 시키던 기억을 술회하였다.

한상진 : 학교를 가면, 4킬로를 걸어가면, 선배들 등살에 못 견뎠어요. 요새처럼 왕따 그런 게 아니라, 월말고사 시험 본 거, 결과서 내놓아라,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선배들이 자꾸 보자 그러는데. 공부 잘하나 못 하나 보는 거죠.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선배들이 4킬로를 걸어가면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학교 가다가 선배들이 뭘 물어보냐면, 영어를 물어봐요. “너 오늘 뭐 배웠니?” 그 영어 단어를 물어봐요. 그러며는 막 뭘 물어봐. 자기들이 배웠던 과정을 아니까 1학년 수준의 영어를 막 물어봐요. “야, 입마, 그것도 몰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가면서 이 선배, 저 선배들이, 그게 지끔 보면 선생님이야, 선배들이. 그 역할을 해 준 거야. 그래서, 아임 윌리, 아임 샐리, 고 투 더 마운틴, 아이 고



원천유림지(1976년)

투더 스쿨,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 가서 공부를 뒤질 수가 없었죠. 선배들 등상에. 챔피언이간, 자존심에!

상업의 영역에서는 이런 재래적인 질서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유지되고 있었을까. 앞서서도 살펴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 말기 상업에 투신하였던 조재훈의 경우를 보자. 고려 충신 조건의 후손이면서 화성 건설 당시의 수원유수 조심태의 후손이기도 한 그의 집안에서 보자면, 장사에 뛰어드는 일이 가격(家格)을 훼손하는 일로 보였음은 물론이다. 특히 한학자로서 조선왕조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정자리에 강당을 세워 널리 그 뜻을 가르치고 있던 부친 조옥현(趙鈺顯)은 이런 아들의 처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조용호 :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생을 해시니까, 청렴하시니까, 농사도 안 지시지. 그러니까 먹고살 수가 없는 거야, 양식이 없는 거여,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정자리에서 유일하게 저녁에 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우리 집이여.

면담자 : 아, 예.

조용호 : 응. 그니깐 아버님이, 쉽게 말하면 양반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인의 길로 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많이 매를 맞으셨대요.

면담자 : 아, 장사 시작하시면서요?

조용호 : 응. “상인이, 상인, 천민이 되는 게여 이놈아.” 그래서 인제 아버님이 일화로 들으면 개성까지 도망을 가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9대 종손이시거든, 우리 집안에? 그래 종손이 어떻게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오서 가지고 매를 맞았으면서도 거기서 인자 수원으로 나오시는 거지, 장사를 하러. 할아버지는 꾀꾀하게 그래도 끝까지 선비정신을 지키셨고, 아버지는 6남매 자식을 맥여 살려야 되니까, 6남매를 맥여 살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 물론 일제 말엽이지만 상인의 길을 가신 거지, 응.

조재훈은 부친의 뜻을 일면 계승하면서도 이와는 뚜렷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그는 아들인 조용호에게 “장사를 한다고 해서 양반이 못 되는 것이 아니며, 양반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다. 무엇을 하든 양반은 양반의 정신을 지니고 있으면 양반인 것이고, 장사도 상인정신을 바로 세워서 하면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조재훈이 가게를 열며 ‘널리 덕을 베푼다.’는 뜻을 지닌 광덕상회(廣德商會)라는 상호를 지은 것도 이런 취지에서 비롯하였다. 조용호는 이를 “선비의 후손으로서 그 자신 전형적인 선비이면서 상업에 뛰어들어 상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부친은 해방이 되어 나라를 되찾고 세금을 납부할 때는 우선 본인이 목욕재계를 하고 지폐도 새것으로만 골라서 세무서를 찾았다. 국민이 된 도리로서 상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일종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실한 납세행적을 높이 평가받아 경기도 사람으로는 최초로 국세청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이렇게 매 거래에 깨끗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당시 거래하던 은행들에서는 “광덕상회 돈은 세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 넘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졌다.



광덕상회와 창업자 조재훈(조용호 제공)

그의 덕을 베푸는 상인정신은 비단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도 일관하였다고 한다. 가령 광덕상회에서는 남문시장의 오일장에서 좌판을 펼쳤던 영세상인들이 철시한 후 많은 짐을 들고 오가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무상으로 밤새 물건을 맡아 줌으로써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가령 이튿날에 용인 등 인근의 다른 오일장에 출시하려는 장꾼들도 새벽에 그의 가게에서 물건을 찾아 출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화들에서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면모와 동시에 충과 효·인 등 유교적인 전통윤리를 지키려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3. 재래적 공동체의 기반에 놓인 불평등 구조

앞에서 수원 시내 토박이들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략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불평등·차별화의 논리들과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이념적으로 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실생활에서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공존하는 상황을 전하는 다른 일화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개업 당초의 광덕상회는 비단의 공매거래와 포목 및 한지의 위탁거래를 업종으로 삼았다. 위탁업과 객주업이 어떻게 다른지 묻자 조응호는 당시 위탁업을 다른 말로 객주업이라고도 하였는데, 위탁업이 객주업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또 객주업은 위탁업보다 좀 더 아래 위계의 상업을 지칭했다고 설명하였다.

조응호 : 그럼요, 객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객주라는 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지. [그렇지만] 객주라는 개념은 우리 그런 일반물품도 객주라고 그랬고, 술 먹고 이렇게 좀 쉬어 가는 데 그것도 객주라고 그랬거든. 그 객주라는 개념은 광활적인 거고, 모여 가지고 재우고 맥여 주고 술도 팔고 그래는 것도 객주였고, 인제 쉽게 말하면 위탁업은 조금 고급이고 양반계급들이 해는 거고, 객주라고 그러면 약간 중인급들이 해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신분에 대해서 비참했거든.

이런 의미에서 조재훈처럼 양반으로서 상업에 뛰어들어 상도를 추구했던 ‘유자상인(儒者商人)’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근본적인 단절은 유업(儒業)과 상업(商業) 사이에서보다는 ‘양반상업’과 ‘중인상업’ 사이에 놓여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니까 비록 죽어도, 이런 표현을 안 하지만, 양반은 정육점을 안 했잖아, 옛날에는? 안 돼, 요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비록 장사를 해더라도 양반 후손들은 천민이 해던 것은 안 했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파는 사람, 술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천하게 봤지.”라고 그의 설명은 이어졌다. 이러한 설명들에는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그 속에서도 유지되는 전통적인 신분 관념의 흔적이 동시에 새겨져 있다.

일제시기 남문 밖의 별관에 있던 건물을 매입하여 시작한 광덕상회는 한국전쟁 중 폭격을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조재훈은 건물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 새로 건물을 올렸다. 이 신축 광덕상회는 한국전쟁 후 남문시장에 선 가장 성대



영동 거북산당 도당굿(수원문화원·수원시, 『수원의 마을굿』, 2006)



한 건물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 자리는 수원 남문장 상인들의 수호신이 모셔진 영동 거북산당과 바로 이웃한 위치이기도 하다. 조용호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은 아니었지만, “전통이라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시월에 거북산당에서 제를 올릴 때는 주변의 여느 상인들처럼 거북산당에 고사떡으로 당시루를 올렸다고 하였다. 당시루고사는 점포에서 고사떡을 올려놓고 축원하는 형태의 고사였다. 거북산당의 내력에 대해 그는 “거기가 거북산이란 산이에요. 거북산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다 길을 내죠. 길을 내니깐, 그게 바로 영동시장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깐 영동시장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추모제를 지낸 거죠, 거북산당에서. 그거는 지금도 계승하고 있어요. 뭐, 그 뭐라고 해, 산신령한테 하는데, 뭐 추모제라고 해야지.”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었다. 거북산당과 같은 민간신앙적인 제의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 신앙 전승의 차원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들을 지키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앞서 설명한 ‘양반상업’ 과 ‘중인상업’ 에 대한 인식의 간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신분 관념, 반상관계의 유제(遺制)가 지속되는 현상은 해방 이후에도 사회 도처에서 확인된다. 말통골의 김진섭은 옛 하인의 후손들이 해방 이후로도 주인집과의 관계를 이어 가던 사례를 설명해 주었다. 말통골에는 외지 지주의 마름을 보던 김학○라는 사람이 있었다. 김학○는 “참 옛날로 따지면 양반이니까, 그 거기서 알아듣기 쉽게, 일하는 분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리, 마님.’ 이래 가면서 일해 주는 조백○라는 분이 있었어요.”라고 설명을 시작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런 종은 “자손이 딸을 못 나면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아야” 했다. “조백○ 내외가 살았는데 그 집에서, 허드렛일을 해 줬는데, 아들만 낳았지 딸을 못 낳았거든요. 그러다 딸을 하나 낳아서 조매○이라고, 매○이를 낳고 갔어요. 분가를 한 거예요. 조매○이라는 사람이 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매○이 신랑은, 또 정춘○이에요. 정춘○이가 신랑이고, 그래서 두 내외가 또 살았어요. 두 내외가 살았는데, 그 두 내외 틈에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못 낳았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 집에서 살아야지?”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노비 신분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도 딸을 통해 노비 신분의 하인 지위를 계승

하고, 그 딸을 주인집에 남겨 둬으로써 분가의 재원을 지원받는 관행이 일제시기 및 해방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주인인 김학○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50년대 후반 사망하면서 생기게 되었다. 정춘○-조매○ 부부가 딸을 낳지 못해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김학○의 집을 점유하고 있는 주인이 정춘○-조매○ 부부가 되었던 것이다.

김진섭 : 노인네들이 자손이 없었어요.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게 조매○이, 정춘○이 살림 아닙니까, 그게. 돌아갈 무렵에 서울에 김자 영자○자 되는 분을 양자로 모셨거든요. 그게 참 그때 얘기를 하면, 그 집에 안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었는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그 양자 모신 사람이 다 주지를 앓고, 일부만 줬어요. 행랑채를 줬는지 안채를 줬는지 그 때 가지고서 참 궁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 떠났고, 거래도 안 하죠. 그래도 마름 봤으니까 먹을 만큼은 있었는데, 그것을 상속을 받긴 했는데 그 양자가 다 가져갔지 다 주지를 앓았던 말이에요.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조금만 받았지, 다 받지를 앓았던 말이에요. 받은 게 집이 시골집인데 행랑이 있고, 안채가 있었는데 평수가 한 30평 되는 데서 한 열 평은 받았을 거예요. 논은 한 천 평, 밭은 오백 평, 그 정도 받았지요. 고것이 비율로 따지면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인을 두는 관행이 그 상속·분가 관행과 함께 해방 직후까지도 오류이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가(주인의 의무이기도 한)를 시켜 주지 못한 채 죽었을 때 하인에게 적어도 상당량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농촌사회의 시각이 드러난다. 정춘○-조매○ 부부는 그 후로도 말통골에 계속 거주하다가 10년 전쯤에 이 고장을 뒀다고 한다.

이러한 신분제적인 관계들의 유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생활의 영역은 상례와 혼례로, 상여나 가마를 메는 역할을 소위 ‘중인’ 들에게 시키는 관행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화서동의 정규호는 과거 고양골 마을의 주민들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국수를, 상이 나면 막걸리 등을 들고 해당 집으로 가서 잔치나 상례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부고나 청첩 등을 돌리는 범위는 대개 꽃피,



동말, 고양골 세 동네가 모두 한꺼번에 움직임으로써, 화서동 전체의 동네 일로 길 흉사를 치렀다. 반면 상계 등 관혼상제를 치르는 게 조직은 세 마을에 각기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에서도 고양골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고나 청첩 등을 돌리는 일은 소임들의 차지였다. 이들은 온갖 동네 심부름이나 상가나 잔칫집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였고, 장가갈 때 함을 지고 가는 일 등도 모두 이들의 차지였다.

상여를 메고 운반하는 일의 경우, 고양골 마을에서는 이들이 아니라 인계동과 지동 사이에 양쪽으로 늘어진 ‘상여도가’ 에서 사람을 불러다 시켰다. 상여를 쓰는 주민들은 상이 나면 우선 상여도가로 사람을 보내 어떤 규모의 상여를 쓰고 몇 사람의 상두꾼을 불러 메게 할 건지 계약을 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상여도가의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요령쟁이와 함께 마을에 들어와 운구를 맡았다. 물론 상두꾼들을 불러다 상여를 메게 하는 것은 그나마 경제력도 있고 집이 번듯한 상가에서의 일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고인을 ‘섭섭하지 않게’ 보내려고 하는 후손들의 뜻에 따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는 십여 명이 드는 큰 상여는 흔치 않아서 없는 사람들은 네 명이 메는 상여로 상례를 치르기도 하고, 지계에 지고 가서 묻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오히려 “상여 쓴 것만 해도 근래에 와서 쓴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정규호 : 몇 사람 걸로 할 거냐. 사람 숫자가 많으면 큰 거여, 상여도, 쪼꼬만한 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큰 거는 좀 우리같이. 이거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종. 요령쟁이가 있어서, 저, 상여소리를 해 가면서 치고 가면 그, 운치가 있잖어? 그러면 잘 모시는 거고. 아, 상여 멋있게, 큰 걸로 샀으면 “아, 그 집에 돈 많은 사람 죽어서 나가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고, 마을 사람들도 많고, 또 “뒤에 조객이 많이 걸어가면 어, 아주 잘 돌아가서 멋있게 간다.” 이렇게 얘기 듣는 거고. 아, 대엿 명이, 서너 명이 메고 가는 거 보면 불쌍한 사람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상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따라 고인이나 상주가 달리 보이고, 이에 따라 상례를 번듯하게 치르려는 욕망은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



전통상례의 상여꾼(조용호 제공)

서 그때 저 5·16 나고 관혼상제 폐지해 버릴 때 그때 많이 정화됐지.”라고 슬회될 정도였다.

화서동의 경우 남문 밖의 상여도가에 의존함으로써 상여 운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수원 시내에서도 마을 단위 자체 인력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 물론 이런 마을들에서도, 인근의 다른 농촌마을들처럼 상여를 메는 일이 중인들의 일이라고 여기며 자신은 양반의 후예이기에 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령 말통골 마을의 경우 상여는 주민들이 스스로 메는 것이 현재 80세가량 된 노인이 기억하는 이 마을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마을에 상여를 메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상의 구별에 의해 상여를 메도록 하는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말통골 마을은 태장면 지역이었지만 수원 시내에



가까웠으므로, 시내나 시내와 가까운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상여를 따로 구비해 두지 않았다. 그리고 상이 나면 수원 시내에 있는 상포업체(김진섭은 지동초등학교 앞에 있던 '누룩회사' 아래로 상포업체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였다.)에 연락해서 상여를 가져오도록 하여 상례를 치렀다. 상두꾼들은 우마차에 상여를 싣고 와 조립을 해 주었고, 상두꾼과 함께 온 '요령쟁이'가 상여소리를 매기며 상여행렬을 인도하였다. 상여를 가지고 온 상두꾼들은 운구를 맡지 않고 상여를 따라서 장지까지 가고, 상여에서 시신을 내리면 다시 상여를 해체해서 우마차에 싣고 돌아갔다.

이때 상여를 메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상포계원들이었다. 그러나 “말이 상포계지, 동네면 젊으면 다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요새말로다가 왕따당해요.”라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물론 협조적이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공동운구를 회피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평하면서도 그 집에 상이 나면 기본적으로는 협조하였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식이다.

면담자 : 혹시 양반인 분들은 안 메려고 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김진섭 : 베식베식 안 할라고 그러죠. 근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만 밋다고 그러죠. 안 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심히 또 안 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주를 봐서라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면담자 : 그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맥에 상이 나면 동네에서 안 해 줄라고 하나요?

김진섭 : 어렵죠. 잘 안 할라고 그러죠. 그래도 또 몇 사람은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해 주지만은, 해 주면서도 퍽거리는 거죠. 해 주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요. 마지 못해 해 주면서도, 그 양금이 오래 간다구요. 누구는 뭐 상여도 안 뻘라고 들고 어쩐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 다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지끔은 다 떠났잖아요?

면담자 : 그래도 동네분들이 인심이 좋으신 거 같아요. 다른 동네에서는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절대 안 해 주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진섭 : 여기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 : 차기 저기 하고, 맨날 얼굴 마주치고 그러는데 그게.

면담자 : 불평하거나 퍽거리면 그 양반들은 뭐라 그러세요?

김진섭 : 뭐라 그럴까.

○○ : 속으로 미안해 하는 사람은 미안해 하는 거고, 뻔뻔스러운 사람은 뻔뻔스러운 거고.  
김진섭 : 한 마디로 철면피조 뭐.

영통리는 이와 달라서 자체적으로 상여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과거 반상의 구별에 따라 상민(중인)들에게 상여를 메게 했다가 마을 사람들 전체가 계를 조직하여 운구를 담당하게 된 것은 매탄동 말통골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이 구별에 의한 문제들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마을 내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영통리의 마을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통리 촌락사회에서 골간을 이루는 가장 포괄적인 조직으로는 대동계가 있었다. 대동계에서는 본래 1년에 두 번 대동회를 개최하여 이장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을재정에 대한 결산을 본 후 이장이 밥을 대접하였다. 대동회에 참여할 때 마을 주민들은 ‘이세(里稅)’라고 하여 여름에 보리 한 말, 겨울에 쌀 한 말씩을 가지고 갔다. 이는 “말하자면 이장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었다. 하곡과 추곡 두 번을 걸어 1년에 두 번 대동회를 열던 관행은 1970년대 중반 보리값 하락과 함께 연 1회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곡, 추곡 두 번을 했는데, 하곡 때는 보리쌀 한 말인데, 부락 사람이 와서 [대동계 모임을 하느라] 그날은 이장 집에 와서 먹잖아. 근데 먹는 값도 안 된다고. 보리쌀이 싸니까. 그래서 하곡은 없애 버렸어요.”라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또한 사촌계가 있어 공동으로 상여를 구비하여 관리하면서, 마을에 상이 나면 함께 상례를 치르고 장례의 운구를 담당하였다. 사촌계는 계원 중 상이 나면 다른 계원들이 쌀을 서너 되씩 또는 한 말씩 가져와서 상가에서 밥을 새며 상례의 모든 일을 거들어 주는 조직이었다. 그 쌀은 개인적으로 하는 부조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상례 기간 조역을 나선 계원들이 상가에서 스스로 먹을 식량조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어려우니까, 그때 인제 자기가 밥을 가 새워 주는데, 먹을 게 없시니까 자기가 먹을 걸 먹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촌계라는 걸 묶은 거고”라는 것이 이정우의 설명이었다.

계원은 별도의 가입절차를 통해 선택적으로 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가입되어 있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이 점 역시 말통골의 상황과 유





대동곶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1989년, 세류동 궁말, 유성열 제공)

사하였다. 마을에 상여를 메지 않으려는 주민들이 있었던 점도 같았다. “옛날에는 왜냐하든 상인(常人)은 메고 양반은 안 메고,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인제 사촌계를 가지면서 다 같이 메는 거죠.” 사촌계는 이와 같이 반상관계의 유제로 남아 있던 상여를 메는 사람과 안 메는 사람의 구별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이승모의 논문 「장례와 관련한 동계의 변화와 ‘유학’ 계」(『역사민속학』 15, 2002)에 따르면, 반상관계에 의한 차별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시점에서 운구 문제를 해결하는 구 양반층의 대응전략에는 경제적 보상을 통한 하계원(향촌 중인) 동원, 상여도가 등으로부터의 상두꾼 고용, 양반 따로 상민 따로 상계를 조직하는 유학계의 결성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이 분화가 다시 한 단계 더 변화를 이루면서 대동상계로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매탄동이나 영통동의 사촌계 결성에 관한 주민들의 증언은 이 마지막 단계로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도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그러한 차별의 관습들이 잔존해 있었다. 이정우도 그가 어렸을 때까지 반상관계의 문화는 생활 곳곳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여를 메는 사람과 메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외에, 혼례 때 가마를 메는 것도 상민들이 하던 일이었고, 또 동네 세배 문화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남아 있었다.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거 있었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집집마다 세배를 꼭 다녔거든. 그러면 부모님이 어느 집에는 가서 세배를 하라, 어느 집에는 안 가도 된다, 그게 있었지. 우리가 다닐 적에는 꼭 다니는 집이 있어, 오씨네, 한씨네, 김씨네. 고 사람들은 인제 양반이라고 보는 거죠. 상인(常人)한테는 세배를 안 갔어, 그때는.” 이렇게 상이 낮을 때 상여를 메고, 정월에 세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동네 어른의 반열에서 제외되던 상민 집안이 영통리 50~60호 중 3분의 1가량에 이르렀다고 한다.

#### 4.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도 공동체일 수 있었던 이유

이정우에 따르면, 반상의 구별을 없애고 마을 주민 대동으로 상여를 메기 위해 사촌계가 결성된 것은 그의 부친이 젊었을 무렵이었다. 그러나 세배 문제로도 짐작되듯 사촌계가 만들어졌다고 하여 모든 ‘양반’들이 바로 사촌계에 가입하여 상여를 멘 것은 아니었고, 그 변화는 차츰차츰 이루어진 점진적 과정이었다.

이정우 : 상여도 그전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사촌계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그게 차츰 차츰 없어진 거죠. 나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그때 인제 상인이, 그계(양반이) 아닌 사람은, 벌써 인제 알아서 해요. 자기네들이 인제 상여 밀 거 미고, 또 상여 미고 가서 산소 만드는 거, 다 그 사람들이 해요. 다 하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밀 때는 그게 없어졌지, 그 후에 분들은. 그게 있었는데, 우리도 안 뗏었는데, 그게 인제 자꾸 습관이 되니까, 서로 인제 머리가, 문화가 깨고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같이 메자. 너희 부모나 우리 부모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이하기 시작했죠.

변화의 시기는 이정우가 군대에 가던 무렵부터이며, 1960년대까지도 일부 그러



한 구별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러한 대동적인 통합이란 것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는 점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옛 양반집 어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여를 메지 않는 등 마을 단위의 통합에 대한 어깃장과 균열이 여전히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촌계가 결성된 후로 젊은이들은 너나없이 대동으로 상여를 메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여를 메 준 데에 대한 사례로 상주 측에서 내놓은 돈을 밑천으로 삼아, 사촌계에서는 자금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자금은 후일 동네기금으로 통합되었는데, 사촌계의 자금을 마을자금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아주 깔끔하고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동네기금이 되면 상여를 메는 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양반' 출신의 장노년 세대가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 때문에 초기부터 사촌계에서 상여를 메어 왔던 주민들이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반상관계의 유제에 따른 차별의 기억과 그에 따른 감정적 앙금이 쉽게 가시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정우 : 그전부터 기금은 있었는데, 우리 세대 들어서 동네기금으로 만든 거죠. 사촌계 기금을 동네기금으로 합쳐서, 그거 할 적에 싸움도 꽤 했어, 그 분들하고, 그 기금을 왜 거기다 놓느냐.

면담자 : 그럼 그렇게 기금을 합치는 것을 반대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이정우 : 그 돈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양반이랑 격차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놓는 거야.

면담자 : 그러니까 상민이었던 분들이 반대하신 거네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 모아 놓은 것을 왜 내놓느냐.

이정우 : 예, 예, 그런 입장이었어.

면담자 : 그건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정우 :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제 젊은 사람들이 단오제도 지내고, 동네기금이 필요하니까 따로 모으지 말고 하자고 그랬지. 젊은 사람들이 상여도 미고 하니까, 그걸 따로 할 게 있느냐, 그래서 마을 총무를 하나 맨들어 가지고 통합을 쳤지요. 근데 그거는 사촌계에서 묶은 거는 무슨 회비를 내서 걷어서 묶은 것이 아니고,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거기 무슨 회방아도 달고, 행여를 미고 가는데 상주들이 뭘 내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모은 기금이

지. 그건 딱 데 쓰지 않고 상여를 수리하거나 거기에만 쓰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한 사람이 오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 동네기금으로 만들지 왜 별도로 하느냐, 그래서 인저 그거를 부락기금으로 합쳐진 거죠. 단오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단오제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합치자. 근데 그 돈을 합칠 적에 참 많이 싸웠어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사촌계 외에 친목계도 있었는데, 이는 계원 직계가족의 혼상갑례가 있을 때 쌀 한 말씩을 주는 조직이었다. 여기서의 쌀 한 말은 물적 부조의 성격에 가까웠고, 부조의 양이라는 면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친목계도 사촌계와 마찬가지로, 이정우의 부친 연배들이 젊어서 결성한 것이었고, 이 경우 계원수가 조금 적어 40~50호 규모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는 혼상갑이 있으면은 계통문이라고 있어. 창호지에 써서 집집마다 다 돌려 그걸. 한 바퀴 돌고, 싸인을 하는 거예요. 창호지에 이름을 쪽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에 표시를 해. 싸인을 해서 보내는 거죠. 딱 집에 보내고, 딱 집에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통문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며칠날 어디에서 잔치를 하는데 쌀 한 말씩 가져오시오 인제 하며는, 쌀 한 말 가져오면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타면서.” 친목계 통문을 돌리는 역할을 맡은 심부름꾼이나 임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서명을 한 계원이 다음 계원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식으로 순회열람을 시켰다. 그리고 계통문을 받은 계원이 서명한 후 바로 다음 계원에게 통문을 전달하지 않고 묵힐 경우 벌칙규정이 있었다. 벌칙으로는 쌀 한 말 정도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이정우는 기억하고 있었다.

앞서 상여를 메고 나온 돈을 기금화하였던 사촌계 자금을 대동기금으로 통합하는 데에서 나타났던 이견과 관련하여 잠시 언급된 것처럼, 영통리에는 대개 10년을 단위로 하는 세대별 조직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 이들은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외에 집단적으로 마을 내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마을 내 중심이 되는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그 집단적 발언권의 강도도 달라졌다. 이러한 세대별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한 이정우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영동 십오회 आयु회(1981년, 이정우 제공) 십오회는 영동리 30~40대 남자들의 친목모임으로, 매월 15일에 모임을 갖는다고 하여 '십오회'라고 명명하였다.



영동 영우회에서 주최한 경로잔치(이정우 제공) 영우회는 영동리 남자들의 친목모임 중에서 가장 젊은 연령대의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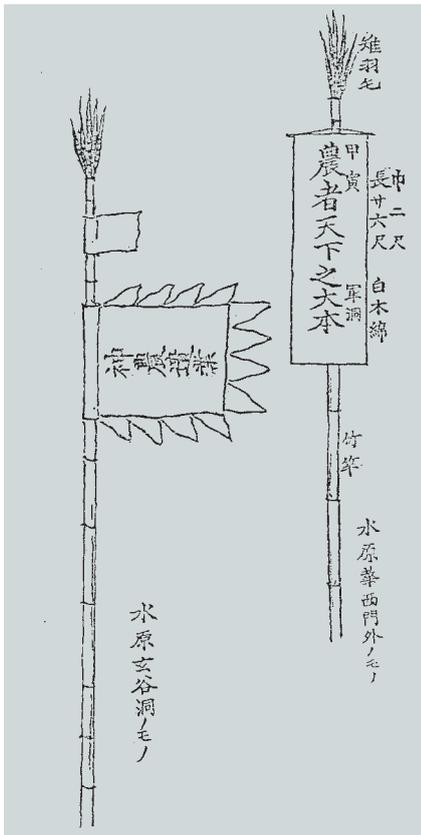
이정우 : 그니까 인제 기금 나오는 걸 가지고 장례 치르고 부락에 기금으로 만들어서 동네 기금으로 이용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한 40대니까는, 동네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갔더니 50대까지 딱 끊더라고. 40대 위에 50대까지 끊는 바람에, 그럼 우리도 30대, 40대 해서 묶자, 해서 우리가 해니깐 또 우리 밑창에 젊은 사람이 또 묶어 주고. 그래, 계별로 층층이 있어서, 동네 부락에 무슨 일을 하려면 모임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장을 하면서 우리 모임이 주도가 된 거죠.

이렇게 결성된 이정우 세대의 모임은 매달 15일 모임을 갖자고 하여 '십오회' 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에 앞서 결성된 바로 위 10년 단위 세대의 모임은 '청명회', 바로 아래 10년 단위 세대의 모임은 '영우회' 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15명이었던 십오회 회원은 현재 13명이며, 그 위의 청명회는 결성 당시 근 20명, 아래 세대의 영우회 회원은 10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세 모임은 모두 모임 내에서 최연장자와 최연소자 사이의 연령 차이가 10년 안쪽이 되게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던 재래의 촌락사회 역시 완전히 평화롭고 평등한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상관계와 같은 차별적인 원리가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공동의 생활을 찾아 나가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실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그것을 '공동체'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차별과 불평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조정하고 재분배하며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병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농촌의 대표적인 공동노동조직인 두레가 일하고 노는 방식이 어땠는지를 보아도 공동체조직 내의 계급·계층적 분단이라고 하는 차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말통골 마을의 두레 사례를 보자. "두레가 다 입고 가서, 앞에 서서 띠를 두르고 장대를 앞에 앞세우고, 장대에 기 달린,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쓴 기가 있어요. 그 걸 논두랑 복판에다 세워 놓고 일하는 거죠. 들어올 때는 팽과리 두드리면서 들어오고요. 집에 들어오면 술 한 잔 먹고 한바탕 노는 거죠." 이러한 두레 공동작업은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면서 말통골 일대의 논이 모두 그 부지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어졌다.





두레 농기(일본 상무성,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경기도·충청도·강원도편, 1906) '갑인년(1854년) 화서문 밖 구운동의 두레 농기'와 수원군 서신리변(현 평택시) 현곡동 두레 농기이다.

이 마을의 두레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논 제초작업을 할 때 결성되었다. 그런데 실제 모든 주민들의 논매기에 두레가 가동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농으로 농사짓는 경우이나 두레가 일을 나시고 나머지 농민들은 품앗이로 제초작업을 하였다. “두레가 안 나갈 적에는 소농이죠, 농사가. 두레패가 기본적으로 꿩과 리, 장구 다 있어야 두레가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돼야 나가지요. 그만큼 여유가 돼야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농이면 두레가 나가는 거고.” 이 설명에서 농촌의 노동공동체인 두레는 일부 대농의 소유지 혹은 경작지에서 제초작업을 할 때만 가동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적인 맥락에서는 대농과 소농의 경제적 격차가 두레 가동의 전제적 요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공동노동 외에 두레조직이 주도하는 세시풍속으로서의 놀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말통골 마을의 경우 두레 공동작업을 하는 외에, 마을에서 두레가 풍물을 두드리며 노는 것은 정월 대보름의 지신밟기와 팔월 한가위의 거북놀이가 있었다. 거북놀이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해방 무렵까지였다. “그건 한 60년 됐겠지만서두. 수수잎새귀 따서 옷 맨들어 입고, 거북이놀이 저기 받아 가지고 송편 받아서 노파 먹기도 하고. 거북이놀이도 많이 해 봤어요.”

한편, 거북놀이를 하지 않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거북을 만드는 데 쓸 수수를 구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거북이가 입을 옷은 수수일새귀를 따서 하는 건데, 수숫잎을 못 따게 하니까요. 그것을 따면 수수가 다 영글고 이러지를 못하니까요. 남의 집 수수밭에 가서 그걸 죄 훔쳐 와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했지요. 옷 해 입을 게 뭐 있어요? 산골 같아야 풀 깎아다가 풀로다가 옷을 맨들어 입는다지만 엮어서 도랭이모냥. 도랭이 아시죠? 저, 우비. 산골 같으면 풀이 많아 가지고 풀로 맨들어서 옷 해 입었겠지만, 여기는 그런 풀이 없으니까 남의 집 수수밭에 가서 일사귀 엮어서 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죠.

그 외 정월에 두레 풍물을 두드리며 노는 것은 “떡국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정월에는 거북이놀이가 아니죠. 말하자면 떡국 얻어먹으려고 노는 거죠. 그럼, 초대하는 집도 있어요, 좀 있는 집에서는. 우리 집에서 놀아라, 술 한 잔 내고 싶다, 떡국도 내고 싶다, 이라고 초대하면 가는 거죠. 그 인심을 얻는 것이 역시 있는 집이로구나 하고 표시를 내는 거죠.”

따라서 두레가 살아 움직이는 배경에는 노동 과정이 되었던 놀이 과정이 되었던, 농촌 부유층과 중하층 농민 사이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경제적 재분배의 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섭의 경우, 농사를 크게 짓고 잘사는 사람이 두레패를 불러다가 놀게 하는 일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 갔다.

면담자 :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두레패를 불러 놀게 하고 먹이는 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김진섭 : 인심을 얻기 위해서죠.

면담자 : 인심을 왜 얻어야 되죠?

김진섭 : 인심을 얻어야 후한 사람이 되잖아요. 인심을 못 얻으면 누가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도 잘 안 하고, 외면을 하고, 좀 도와줄 일도 안 쫓아가고 이래지만, 인심을 얻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 사람이 인심을 잃고는 못 살거든요.

두레패를 불러다 먹이는 것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설명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 가자, 김진섭은 마을에서 인심을 잃는 경우와 관련하여 멍석말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였다.

면담자 : 이름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 밝히셔도 좋고 그런데요. 혹시 인심을 잃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김진섭 : 제가 알기에는 명석말이를 한 게 한 사람 있어요. 명석말이가 뭐냐 하면, 남의 집 쌀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남의 집 쌀을 훔친 사람이 있어서 그 놈을 잡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걸 어떻게 혼낼 수가 없고,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명석말이를 해 가지구설랑, 명석을 거다 돌돌 말아 가지고 혼을 내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질 모르죠 이제. 본인은 누가 주동이 돼서 하는지를 알겠지만서도, 누가 와서 나를 밟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명석말이를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동네에서 명석말이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김진섭이 열댓 살 무렵, 지금으로부터 65년 정도 전의 일이었다. 그에 따르면, 명석말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명석말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누가 밟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명석말이라는 별칭의 합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명석말이를 주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말 잘하는 사람, 나이 많은 분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노인네죠. 명령조로 아무개 오너라, 불러다 오너라 해서, 오면 혼을 내주죠.”라고 설명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명석말이의 경우, 마을 안에서 쌀을 한두 말 훔쳤기 때문에 제재를 당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 “경찰까지 가는 것은 가혹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 자체의 벌칙을 택하는 것이고, “그게 한민족의 인심이에요, 고운 마음씨. 자체에서 해결을 하자, 그런 거죠.”라는 설명이었다. 경찰이 개입되면 “문제가 커지고, 대대로 망신을 해니까요. 그건 대대로 흉터가 되잖아요. 앙금이 대대로 앉지.”라는 것이다. 명석말이를 당하는 것도 망신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경찰 가서 하는 거보단 덜 하고” 게다가 “그렇게 아프거나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마을에서 이를 택할 수 있었다. 명석말이는 실제 아프거나 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저 동네에서 망신을 주는 처벌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설명

이었다.

반대로 인심을 얻어 도움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그런 사람이 이게 평생 사는 동안 인심을 얻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심을 얻어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어디 누가 물에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심을 잃었으면 외면을 하거든요. 못 본 척하니까. 하지만 인심을 얻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대들어서 도와주니까. 그게 인심이거든요.” 이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외면하기와 인심 쌓기, 망신 주기와 앙금(또는 흠터) 남기지 않기, 이런 실천지침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일이 토박이들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하나의 운영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원리를 실천지침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든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이야말로 계급과 계층의 분열, 신분적인 질서에 의한 차별 등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마을질서가 나름의 힘과 기능을 갖고 영위될 수 있었던 배경일 것이다.





1. 위기가자 기회였던 근대화시기 수원지의 변화
2. 근대화시기 재래문화 논리를 활용한 토박이들의 대응
3. 토박이들의 문화적 실천

안 승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 02 | 가속화하는 근대화와 수원 토박이들의 대응

### 1. 위기이자 기회였던 근대화시기 수원의 변화

수원 지역 토박이들의 일상적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외인성(外因性) 사건들에서 가장 극적인 경험은 아마도 전쟁의 충격일 것이다. 정규호의 경우,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일본 군인들이 학교에 주둔하며 방공호를 파던 일을 기억해 냈다. 그는 신흥국민학교를 다니며 현재 영복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선 산마루 고개를 넘어 등하교를 하였는데, 당시 신흥국민학교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매일 아침 1개 소대씩 고개로 와서 토역작업을 하였다. “방공호 파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럼, 그놈들 훈도시 바람에 작업하고 그러는 걸 다 봤지.”

그가 학교를 다녔던 일제 말기는 전시체제기였으므로, 각종 동원의 현장에서 초등학생으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 안에 참배시설이 있어 이곳에서 참배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수원신사로 직접 가서 참배를 하여야 했다. “아침이면 학교에 고안댕이라고, 거 신을 모시는 집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마다 거기 참배하고. 월요일 날만 그리 가나 봐, 신사산 바위라고.” 이러한 신사참배시설은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인들의 손에 파괴되었다. “고안댕이, 맞는지. 고안대이. 그래서 해방되고서 그걸 집어서 부서대고 그러는 걸 내가 봤는데. 아 왜정 때 군인 갔다 온 사람들 화딱지 나니까, 집을 부수고 그랬지.” 신사 파괴는 해방 당일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그



는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어린 나이였으므로, 일제에게 강점당하고 있던 당시를 대단한 억압으로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의 싱가포르 점령은 고무공을 얻은 날로, 기부금품을 ‘희사’ 해 기관포를 ‘헌납’ 한 날은 공포탄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신났던 날로 회상하는 식이다.

정규호 : 싱가포르 뺏었다고 공을 하나씩 쫓을 때 그거 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공이니까.  
[면담자 : 공이요? 공놀이 하는 공이요?], 그럼. 고무공 던지고 하는 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기 점령했으니까 일본놈들이 그거 하나씩 쫓다고. 우린 전에 뭐 기관포 그런 거 하나씩 사 주면 학교에서 따다다닥 쏘고 그랬어요 [면담자 : 아, 기관포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학교로?] 그럼! 그거 연습탄을 쏘는 거겠지. 진짜 쏘지는 않고, 그럼 그거 마약 나가는 거 보면 말이야 신나고 그랬다고. 전부 다 순금을 내서 그걸 사서 헌납한 거지.”

그는 자신의 수필집 『추억은 잠들지 않는다』(삶과 꿈, 2008)에서 “양손을 벌리고 한쪽으로 커브를 틀며 ‘야 하야부사 센또기 나가신다. 앵— 앵— 따따따따 따따따따’ 하며 산소 위로 활개치며 떨어 때는 정말 비행기라도 타고 기총소사라도 해대는 양 신바람이 났었다.”며 유년시절을 추억하기도 했다.

일제시기의 기억은 이렇듯 정치적·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순진무구’에 가까운 원형적인 기억이지만, 한국전쟁 와중에 목격한 참상은 막 철이 들어가던 그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고양골의 경우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든 주민이 특히 많았기에 그 충격이 적지 않았다. “육이오 때 우리 동넨 많았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삼십여 혼데, 거기 인민위원장이 있었고, 부위원장인가? 하여튼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충성을 다했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의용군을 열두 명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지.” 마을에서 의용군으로 징집되었던 열두 명 중 대부분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두어 사람은 전쟁 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북한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중에 전해졌지만, 징집당한 이의 일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

음은 물론이다.

이러다 보니 국군의 수복 후에는 다시 가혹한 보복이 좌익계 주민들에게 가해졌다. 그는 위원장, 부위원장 하던 주민들은 “그 이튿날로 그냥 박살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규호 : 수복되고 그냥, 그때가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워요, 그때는. 그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꽃피, 고양골, 동말 세 동네서 다 작대기들 다 들고 와서 그냥 때려 부쉬,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삼십 분이니까 그 집이 다, 문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은 저, 마당에 그냥 죄 이렇게 일렬로(테러다 놓고) 그냥 뛰드려 패서 다 늘어졌지 뭐 그냥, 다 까뜩. 식구고 뭐고 그냥 다 꿰어, 막 그냥. 가가지고, 근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잡혀 갔는데, 한 놈이 또 튀었어. 튀었는데, 몇 달 만에 잡혀 묶어 왔더라고. 그 뒤로 가서 아주 그냥 죽이 됐죠.

그의 기억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게 작대기 같은 것들을 되는 대로 들고 나와 좌익 인사들을 후려 때리고 가옥을 파괴한 후 이들을 군경에 인계하였다고 한다. 당시 화서동에서 활동한 좌익 인사들에 대해서는 “[보도연맹] 그런 데 가입한 사람들이 그런 거 시켜 주면 좋아서 그냥. 아, 동네에 금방 우쭐해서. 그런 맛에 한 거지. 개들이 완장부대를 동원한 거여, 완장만 차 주면. 똑똑한 놈을 채 주면 잘 안 하는데, 무식한 놈을 채 주면 죽기 살기로 하거든. …… [인공치하에서] 아주 꺼떠거리고 저희 세상 만난 줄 알고 그랬지. 그랬으니까 사람들 자꾸 군대 가자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걸려든 거지.”라고 말하였다. 수복 후 이들을 폭행한 성난 군중의 수가 백여 명이 넘다 보니, 맞는 쪽은 “초죽음이 돼서 늘어난” 양상이었다. 지게 작대기로 때려서 집이 무너지는지 의아해 하자, 그는 “아, 그 이런 문짝, 한식 문짝 같은 거 몇 번만 치면 다 떨어지지 뭐 있어.”라고 간단히 답하였다.

이 기억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여튼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교훈으로 그에게 남게 되었다. “전시 때는 상당히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아주 위험한 거야, 전시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가정하면 그런 리스트 있는 사람 먼저 치는 거야. 뭐, 어느 나라든.”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억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개전 초기 국군이 퇴각할 때에도, 수복 후 이어진 1·4후퇴 당시에도, 이에 못지않은 아비규환의 양상은 되풀이되었다.

정규호 : 일사후퇴 때도 보면 기찻길이 그냥 뺨뺨하게 사람이 내려오는데, 머리 깎은 거는 그냥 고기서, 그 자리서 다 총살시켰다고. 서호에서.

면담자 : 아, 탈영병, 인민군을?

정규호 : 아니, 탈영이 아니라 그건 교도소였다고.

면담자 : 아, 교도소! 머리 깎았으니까!

정규호 : 모자 이렇게 벗겨서 그 자리서 싸 죽었어. 봤어, 그걸!

면담자 : 여기서 바로, 시내에서?

정규호 : 응! 아, 서호, 서호에서. 기찻길에서 기찻길이 뺨, 딱 차서 내려오니까, 서울서.

면담자 : 다들 걸어 내려오는 거니까?

정규호 : 그럼. 걸어 내려오니까 육이오 때도 그랬어, 육이오 때도. 육이오 때가 외려 많았지.

면담자 : 6·25 때도, 1·4후퇴 때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정규호 : 응, 처음에. 그래서 교도소 놈 막 내려오고, 이놈들 좋다고, 세상 만났다고. 이, 정 부가, 완장부대가 무식한 놈을 시키는 거여. 그래야 열심히 허거든.

화서동에서 인민위원회 간부를 맡았던 이 중에는 화서동의 대성(大姓) 집단이던 동래 정씨도 있었고, 다른 성씨도 있었다. 또 인민군으로 징집되는 과정에서도 동래 정씨라고 예외이거나 하지 않아서, “안 갈 수가 없어서 다 갔다.”고 한다. 징집된 동래 정씨들의 숫자가 각성바지에 비해 적지 않았던 배경과 관련하여, 정규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정규호 : 다 갔어요. 안 갈 수가 없고, 또 그때는 사상, 그런 것도 또 몰루고, 그냥 가자,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가고 그러는 거지 뭐. 그니까 좀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쫓아갔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장가들고 해서 간 사람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빨리 그냥 손들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 경향이. 그니까 딱딱한 게 아주 딱딱한 게 아니고, 그때는 해라는 대로. 딱딱한 놈은 해라는 대로 할 거 아녀! 이, 안 배워 놓은 사람들은 우선 나는 집으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는 거지. 무슨 사상이 그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난 집으로 간대는 거만 아는 거고.

이와 같이 현재 수원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70대 후반의 토박이들에게 일제 식민치하의 전시체제가 그리고 한국전쟁기의 경험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인 강도의 변화였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원초적인 깨달음의 계기였다면, 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이렇게 해서 형성된 생존의 기술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적응과 변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일찍이 접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거대한 힘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영통구 매탄동 말통골 마을은 본래 수원군 장주면 매탄리 지역으로, 웃말·아랫말·안말 등 세 개 마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1914년에 수원군 태장면 소속이 되고, 1949년 화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부터 다시 수원시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공장과 빌라 등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이 동네의 경관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러한 행정구역 자체의 변화가 아니었다. 김진섭(남, 1934년생) 등 말통골 노인들의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시가지화된 것이 30여 년 전부터의 일이라면서, 그전까지는 해방 무렵의 거주호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삼성전자 들어오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한 20년 정도? 한 30년 됐겠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온 뒤에 다 바뀐 거예요.”라는 김진섭의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매탄동에서의 삶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1971년 착공, 1973년 준공)의 입주로 격변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주민들의 설명에서는 삼성전자 유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병희가 한 역할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김진섭 :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이병희 씨가 국회의원 할 텐데, 그 양반이 삼성전자를 이리로 끌어왔거든요? 삼성전자를 이리 끌어오니깐, 그래서 여기 농사짓던 것을 다 삼성전자에 준 거예요. 그 당시 가격이 300원인가 그럴 거예요, 평당. 시세보다 좀 더 준 거예요. 그 때 받은 게 300원인가 33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나 개발 당시 주민들이 그렸던 미래의 모습은 그 이후 실제 전개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었다. 김진섭은 삼성전자 유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매탄리와 영통리 사이에 들어선 삼성전자 수원공장(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자 25년사』, 1989) 위쪽 산이 많은 지역이 영통리이고, 아래쪽 마을이 매탄리이다.

“그때는 처음에 삼성전자 여기 올 적에는, 유치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삼성전자 오면은 거기 가서 일해도 먹고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들랑 잘 됐다 싶어설랑 다 팔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치가 된 건데,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취직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100프로 다 취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에 따르면 대개 당시 30대 이하인 주민들은 처음에 들었던 소문처럼 삼성전자에 정식으로 취직이 되었지만, 40~50대 이상 주민들의 경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계속 농사를 지었다 라면 평생 할 일이 끊이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상황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에 비춰 보면, 이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생업전선으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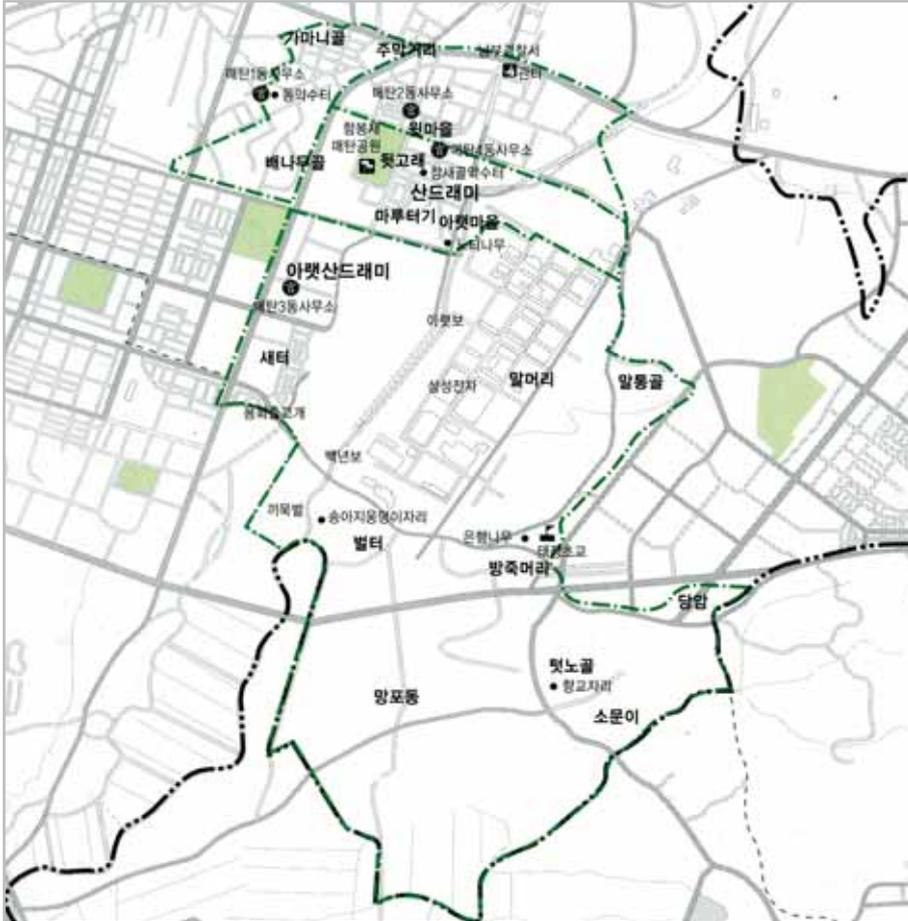
삼성전자와 매탄동 산드래미마을 자매결연식(1975년)

은퇴였다고 할 수 있다. 논을 중심으로 핵심 농토를 삼성전자에 팔고 농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1970년대 초의 농민들에게,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대단히 막막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물론 농사를 포기한 주민들이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앞의 설명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젊은 주민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며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었다.

김진섭 : 삼성전자 혜택을 보기는 많이 봤지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취직을 했으니까. 아마 동네 땅이 들어 간 사람들은 조금 더 특혜가 있을 거예요. 반장을 시킨다든지, 보수가 좀 낫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 아래, 이 동네 사람 말고 저 아래게 사람들이 올라올 적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정식으로 학교 졸업하고서 여기 와 취직을 한 거지만, 여기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나오고 취직했을 때에는 조금 아마 그런 혜택이 있었을 거예요.





1990년대 매탄리의 변화

그뿐만 아니라 비록 대기업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중소기업체들이 일대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40~50대 주민들도 그럭저럭 취직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다. 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경우에도 자식들이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일정하게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김진섭 :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나이가 많으면 일도 못 했고 쉬었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40~50대 먹은 사람들은 가공을 해도 농사짓는 것보다는 낫지요. 가공비만 해도, 삼성전자가 오니까 그 주위에 쪼그마한 공장들도 들어오거든요. 옷 공장이나 그런 게. 그 삼성전자 때문에 쪼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일을 많이 했죠. 협력업체도 있고,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도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60~70대는 지금이나 그때나 일했었어요? 못 하지. 지금은 70~80대가 살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살지도 못했어요. 환갑만 지나도 “벌써 환갑이래야.” 이럴 텐데. [60~70대 이상은 별로 하는 일이 없었지요. 자손들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잘 다 취직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매탄동에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은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가 속한 세대가 어디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조성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세대에게는, 여느 농촌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영위하였을 장·노년층 농민으로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일제시기의 식민 통치와 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후의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상업에서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정자동에 살던 조재훈은 이 동네의 대성 집단인 평양 조씨로서 한학자로 서당을 운영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뜻한 바 있어 상업에 투신하여 1940년 팔달문 밖에 포목·지물 중개업을 하는 광덕상회(廣德商會)를 열었다. 부친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유일하게 “집에서 연기가 나지 않던” 어려운 살림에서 6남매를 기르기 위해 상업에 뛰어들면서, 그는 장사를 하더라도 양반의 정신을 지니고 있으면 양반인 것이고 장사도 상인정신을 바로 세워서 하면 된다고 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평생 글만 읽던 집안에서 자란 조재훈의 상업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인 조용호(남, 1936년생)가 들은 얘기로는, 열네 살 때 짚신 네 켤레를 삼아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아 용돈을 번 것이 조재훈의 첫 거래였다.





신축한 광덕상회(조용호 제공)

조용호 :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인제 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버님이 열네 살 때가 그때, 자기가 손수 맨든 짚세기짚신라고 있잖아요? 신발. 짚세기를 네 켤레를 맨드셨대요. 인제 그걸 시장에 나가서 아버지가 그걸 팔어 가지고 용돈을 조금 버신 거지. 그래 가지고 상인의 눈을 뜨기 시작해 가지고 인제 그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시내 나와서 집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아까 들었던 그 영동 십일의 육, 그저 허허벌판에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어. 그거를 인제 싸게 아버님이 사신 거지.

개업 초기 광덕상회는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삼베와 무명, 창호지의 위탁거래와 통제경제 아래 배급되는 비단의 공매거래를 업종으로 삼았다. 공매거래는 일본인들이 관청의 통제 아래 공급하는 비단을 민간에 배급한 뒤 일정 이익을 상인이 갖고 나머지는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위탁거래는 생산지 상인들이 수집하여 가져온 물품을 위탁받아 소매상에 판매한 후 3부(3%)의 구



1960년대 광덕상회(조웅호 제공)

전(口錢)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었다. 조웅호는 수원시장에서 위탁매매가 성했던 중요 품목으로 포목 외에 해산물과 가미솔을 들었다. 이 세 가지 상품의 위탁업이 우시장 및 나무장과 함께 수원시장을 특징짓는 주축 품목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조웅호는 광덕상회가 개업하던 일제 말기 공매업과 위탁업을 겸하는 포목중개상은 수원 시내에서 광덕상회와 삼원상회 두 곳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두 점포 모두 위탁업을 하며 소매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았다. 또 당시 삼원상회와 광덕상회 간에 구역이나 거래대상이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거나 거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하는 상태에서 단지 거래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조웅호 : 삼원상회는 그, 쉽게 말하면 큰,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이라는 건 아니더라도 조



금 큰 가게였고, 우리는 쫄 변두리, 시장에서 쫄 변두리. 삼원상회는 시장 한 중심이었고, 우리 집은 변두리니까 우리가 쫄꼬만, 우리는 소상회이었고 그거는 큰 상회였지.

일제시기 공매업과 위탁업을 하던 광덕상회는 해방 후 포목류 및 지물류의 위탁 판매업에 전업하게 되었다. 광덕상회와 같은 중개상에게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현지 수집상들은 대개 삼남 지방에서 직접 물품을 가져와 중개상에 맡기고, 이전에 맡겼던 물품의 판매대금을 찾아 수원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다시 생산지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조옹호 : 거의가, 인제 여기 여인숙에서 하루 이틀씩은 묵고들 갔죠. 교통이 불편하니까. 응? 그런데 대개 그때 당시에는 갔다가 자기가 요맘때 또 물건, 또 회전시키니까 올라오면 그거 팔아 가지고 돈 가지고 내려가고 물건 가져오고. 그냥 그때 당시에 하나의 그뉘, 회전식이랄까?

1960년대 초 부친이 작고하자, 조옹호가 광덕상회의 주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도 이미 포목 및 지물 유통업을 둘러싼 상업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의 중심이 기차에서 자동차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옹호 : 61년도만 돼도,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차문화라는 것이 쇠퇴되고. 옛날에는 전부 기차로 운송이 됐거든, 응? 그러다가 인자 자동차가, 인자 빠스 이런 게 대중화되니까 유통구조가 무너지는 거지!

기차가 운송수단의 중심이던 시절, 수집상들이 지방의 오일장 등에서 매입한 상품은 기차를 통해 수원역으로 탁송되고, 수원역에서부터는 당시 '마루보시[丸星]'라고 불리던 조선운송회사(1930년 조선운송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49년 한국운수주식회사로 개명, 1963년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합병하여 대한통운주식회사가 됨) 직원들이 이를 광덕상회까지 배송하였다. 광덕상회로 전달된 상품은 포장을 뜯어 가게에 진열하였고, 소매상들이 이를 구매해 갔다.

그러나 1960년대로 접어들 무렵에는 점차 트럭을 통한 운송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수집상들이 직접 물품을 가지고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물류 자체가 점차로 '개인화' 되게 되었다.

조용호 : 근데 그것이 인자 기차문화가 없어지니까 추력으로 오잖아! 추력으로 오다 보니까, 인자 개인화되기 시작한 거지. 그니까 옛날에는 시골 장터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기차로 부쳤어요. 예? 그럼 기차, 철도에서 그것을 백 프로 안전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일반 차, 소위 말하면 대중교통문화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추력으로 운반이 되지요, 추력으로 직접! 그러다 추력문화가 오다가 나중에는 자가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웃음) 그니까 자꾸 발전되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물론 이러한 '물류의 개인화'가 트럭운송의 등장에 의해 바로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트럭운송이 시작되던 무렵만 해도 수집상들이 직접 물량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광덕상회 등 위탁업자를 찾아 물건을 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수익이 나는 길을 찾아 움직임으로써, 이러한 거래의 관행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꾸 약어지니까, 응? 그중에서 상인들 중에 한두 놈이 그, 이탈하는 거지. 그니까 한두 놈이 이탈을 하니깐 그게 그냥 나중에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1960년대에는 유통환경 전체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지켰지만, 1970년대에 들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이에 광덕상회는 1971년 일차로 가게 문을 닫고, 이삼 년 후에는 완전히 폐업하여 가게 자체를 없애 버렸다. 가게 문을 닫은 시점에서 완전폐업 시기까지 광덕상회의 영업에 대해서 조용호는 "접었대는 게, 가게 문을 거의 닫아 놓고 장사 안 하는 척하고 몇 년 장사를 쪼금 더 했지. 세무공무원들 보기 싫어서, 또 닫으려고 했더니 세무공무원들 와서 전통가게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여! 참 웃기는 놈들이여. 쉽게 말해서 떡 주고 뒤통수치고 그래는 거여."라고 설명하였다.

광덕상회의 폐업은 "유통업이 발전되니까 위탁을 안 하지, 직접 거래를 하지!"라고 요약 설명되는데, 이는 유통환경 전체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하다못해 고수 수료라도 안 즐라고" 현지 수집상과 경기 지역의 소매상이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





1970년대 초반 남문시장 일대 1960년대 이후 상거래 관행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위탁업보다 직거래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그전에도 중개상이 소매상과 수집상의 직거래를 차단하거나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는 ‘하나의 룰’이 있었다. 즉 소매상과 수집상 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물건의 품질에 대한 판정과 신용이 필요하였는데, 이 역할을 중개상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객주에서 물건에 대한 심판을 해 줘! 이걸 얼마짜리다, 이거는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하다, 그거를 가름해 주는 게 위탁업들의 노하우지, 지금으로 말하면, 품질보증도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보증을 중간에서 주는!” 이 중개상의 역할을 생략하고 직거래가 시작된 사실은 중개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업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직거래를 막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인들도 하나의 룰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직접 거래하는 거는 상도덕을, 위계질서를 무너

뜨리잖아요, 각자, 각자 해면?” 이라는 것이다.

이 유통구조의 효율화라고도 볼 수 있는 수집상과 소매상 사이의 직거래가 조용호에게 '상도(商道)의 붕괴'로 설명되는 이유는 그에 따라 거래의 판도 자체가 서로가 속고 속이는 질서 없는 세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조용호 :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商) 문화라는 것이, 상도(商道)라는 것이 시대 흐름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니까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씩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을 안 거치죠. 응?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상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니까 옛날에는 소위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물건을 보고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요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수궁하고 파는 사람도 수궁하고 해서, 소위 말하자면 그,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줘서 서로 믿고 했는데, 이쪽 놈은 파는 놈은 속일라고 거짓말하고, 사는 놈,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게 살라고, 거기 상도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면담자 : 정글이 되는 거죠.

조용호 : 예,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님이 한탄을 하신 거지. 응? 그런데 나는 그랬어. “아버지, 그게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어쩔 수 없잖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또 장사를 안 하게 되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도 밥 먹고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접죠.

그의 부친이 설립하여 30여 년간 영업해 온 광덕상회를 포기하게 된 것은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들 자체의 변화도 원인이 되었다. 섬유 산업과 주거양식의 발전에 따라 상회의 주요 취급품목이었던 삼베와 백목, 창호지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인도 떠나고 위탁업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쇠퇴의 과정과 그에 대한 시각은 “언제 변화가 왔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자연적”인 변화의 와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다.

조용호 : 그전에는 개인 수공업에 의한 상거래가 됐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수공업이 쇠퇴되고 기계문화가 되니까, 인제 뭐 광목이 나온다, 옥양목이 나온다, [인조비단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의식주도 완전히 바뀌어지죠.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창호지



를 쓰는 사람이 어딴습니까? 다 유리문으로 허잖아요? 그니 창호지래는 게 없어지기 시작 하죠. 지금은 창호지래는 게 지금은 뭐 어느 무슨 민속, 뭐애나 쓰이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니까 그게 1960년대에 와서 그냥 급격히 몰락하는 거예요. 뭐 인구에 반비례하는 거지 요. 인구는 늘면서 재래 물품은 그냥 추락을, 그냥 떨어지는 거지요. 삼베래는 게 지금 쓰는 게, 사람 죽었을 때 수의나 쓰지.

또한 광덕상회가 문을 닫게 되었던 데에는 앞서 잠시 드러났던 것처럼, 영업의 부진뿐 아니라 상인으로서 조응호가 관청과의 실랑이에 지쳤던 측면이 있었다.

조응호 : 1960년대, 우리 시민들을 들들 볶는데, 어떻게 볶냐면, 그때는 정말 답답해. 무조건 국세청에서 수원세무서에 일정금액을 걷으라고 그렇게 나와. 예를 들면은 오역을 걷어라! 그러면 서장이 직원들 보고 각 지역마다 “너희들 얼마 얼마씩 걷어!”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지역에 와 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쁜 놈한테는 좀 덜 받고 미운 놈한테는 더 받는 거야! 응? 그러니까 [뒤통을 조금 주는 데는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 근데 돈을 안 주면 계속 올리는 거야! 그렇게 세무권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 그렇게 이 새끼들이 와서 우리 장사꾼들 아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대학교 경제과 나왔는데, 너 같은 새끼를 돈을 주느니 나는 세금을 더 내겠다 그거야. 내 말이 맞지 않아? 나는 계속 세금을 더 내는 거야! 근데 내다 내다가 인제 못 내겠어. 세금 뭘 차면 가게 문을 닫았어. 아버지는 그래도 이걸 좀 주셨거든, 노인네가. 응? “아, 선비들하고 조금씩 섞여야 돼. 시대에 따라 사는 거야.” 그래. “아이 아버지 아니죠, 왜, 저런 새끼들 밑에서, 공무원이 월급 보고 사는 거지”. 안 쫓더니 나는 뭐야? 해서 문을 닫았지.

이러한 양상은 비단 세무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경찰관서의 예를 들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국세청, 경찰, 아, 경찰도 사이드카 타면, 일 년만 타면은 집 한 채 벌고 그럴 때여! 그 사이드카가 뭐인 줄 아냐? 경찰 소속이 아니여, 도경국장 소속이여! 도경국장님이 오면은, 수원에 어디 지역에 어디가 돈 잘 버느냐? 거, 돈 잘 버는 상가에 보냈던 시절이야. 거 옛날에 그랬어, 자유당 시절이라 그때.” 광덕상회가 폐업하고 몇 년 후, 수원 시내 포목 위탁업의 거포(巨鋪)였던 삼원상회 역시 위탁판매업무를 중지하고 소매업으로 전환하

였다. 그는 최종적으로 광덕상회를 폐업하던 시절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조용호 : 나도 그, 아버지 밑에서 몇 십 년을 했으니까. 보는 법, 다루는 법, 인제 그게, 빨리 말하면 인제 하나의 골동품처럼 세월이 가도 존속이 되는 거 같으면 내가 했지. 근데 아,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장사로구나. 또 물건도 줄어들지만은 소비자도 아주 급감을 했고, 또 급감한 당시에 뭐, 암만 전통도 좋지만 전통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그니까 아주 접을 때는 과감히 문을 닫자! 그래 가지고 인제 가게를 내가 체육회를 나오면서 거기다 빌딩을 쪼꼬맻게 지은 거야, 하나, 그게, 응? 장사 안 해도 그냥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변한 거야. 그리고 옛날의 무슨 무안이나 거창이나 진주 같은 데서 물건이 또 안 나와요. 노인네들이 그 삼베나 백목을 짜는 재주가 없어. 한 번, 그 한 필을 짜려면 한 달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노력을 해 가지고 요새 돈으로 한 오만 원 받으면 뭐가 되요? 그니까 안 해는 거야. 인력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이렇듯 시대의 변화는 유통체계의 변화임과 동시에 생산자의 변화이면서 소비자의 변화이고, 또한 상인들 자체의 변화 과정이면서 상품들의 변화이기도 하였다.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찾아 열성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변화가 지시하고 있는 방향을 읽고 그 독해의 방식에 따라 처신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변해 나갔다. 그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변화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변화는 모두 사람들 각자가 저마다의 선택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 2. 근대화시기 재래문화 논리를 활용한 토박이들의 대응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흔히 ‘근대화’라고 불리는 근현대기 한국사회의 변화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 온 생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하였고, 그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수원시재개발사업소 개소(1979년)

나타났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와 선택의 과정들을 보면, 선택을 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재래의 문화적 논리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적 실천지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래의 것들을 활용·변형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민이나 상인들보다 훨씬 취약한 '전통문화에 기반한 논리'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의 사례를 봄으로써,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경험은 수원시청의 공무원인 김충영(남, 1955년생) 전 환경국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979년 10월 시청 도시과 도시계획계로

첫 발령을 받아 33년의 공무원 생활 중 만 18년, 햇수로 20년 넘게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 온 탈유신시대 수원 도시개발의 산 증인이다. 그는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에서 태어나 화수초등학교와 삼괴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으로 나와 수원공고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수원시청에 취직하였다. “도시계획의 ‘도’ 자도 모르”던 그가 이 일을 장기적으로 맡게 된 것은 첫 발령 이듬해 수원시청 도시계획계에서 터진 과장동 수도관 비리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김충영 :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40년 전 도시계획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도시계획을 법적으로 확정도 안 하고 도면에다 연필로 그려 갖고 하던 시절이라, 누가 좀 와서 청탁하고 그러면 연필로 이렇게 그려 놓았다가, 그다음 날은 이렇게 그려 놓고 이러는, 그런 시절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도시계획계에 있을 때에도 그 짓을 해 갖고 [엄지와 검지를

붙이때 이걸 많이 챙겨 먹었는데, [급수계장으로] 가서 뭘 짓을 했냐면, 그때 시절에 수도관이 쇠관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PVC관이 나왔어요. 그 계장이 쇠관으로 설계해 갖고 돈을 받아서 인 마이 포켓트를 하고, 공사는 PVC관으로 했어요. 그 당시 1억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큰돈이야. 그 돈을, 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먹은 거야, 시청에. 그래 갖고 10여 명이 다 잡혀간 거야. 그리고 서너 달 있다가 수원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든지, 징계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한 50 몇 명을 골라 갖고, 경기도 시군에 다 골고루 한두 명씩 뿌려 버렸어. 그러다 보니 우리 도시계획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계장은 여주로 가고, 차석은 시흥군으로 가고, 삼석은 안양으로 가고, 사석은 오산 화성으로 가고, 나만 남았어. 1년도 안 된 놈이, 수원 도시계획을 내가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나 말고는 도시계획계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 수원시에. 경험자가 없어. 근데 다 도시파에 있다고 해서 다 도시계획을 했다 그러겠지? 근데 아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계에서 한 사람이 해, 핵심은. 인사? 인사 있다고 다 인사 하는 줄 알아요? 핵심은 딱 한 명이예요. 제가 도시계획에 '도' 자도 모르면서 그 인연으로 도시계획을 한 20년을 했어요.

다른 모든 수원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계획을 맡은 공무원들에게도 수원의 도시개발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어떤 공무원은 그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타지로 좌천되었지만, 김충영 국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경력 거의 전체를 채울 전문분야를 갖는 계기도 되었다.

도시개발은, 나아가 도시개발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갖게 된 한 공무원이 그 공무원담임의 영역을 넘어 시민사회의 영역에 참여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김충영** : 97년 12월 4일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게 이제 시로 날라온 거예요, 그 소리가. 근데 내가 그때 뭐 했냐면 도로과장을 할 때예요. 그때 내 생각이 머릿속에 수원에, 화성에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근데 우리는 관광객 모실 준비가 됐나? 주차장은 어떻게 도로는 어떻게 주변정비는 어떤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다음 날, 맘먹고, 그전엔 성곽을 다 돌아본 일이 없죠, 팔달산이나 올라가고 그랬는데, 맘먹고 성곽을 한 바퀴를 돌아 봤는데 이게 너무 영망진창 개판인 거야. 그게 97년 12월이니까, 15년 전에는. 아 이게 그래 갖고, 며칠 있다가는 성 밖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안 되겠어. 그래서 제 밑에 도로정비계장이라고 있는데 도로 정비하고 그러는.





연무대를 둘러보는 화성시랑모임 회원들(2000년)

“야, 성곽 좀 돌아보자.” 그랬더니 왜 도냐고 그래.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그 친구하고, 도시파에 ○○이라고 아시는지 몰라, 그 친구하고 셋이서 토요일마다 연무대에다가 차 세우고, 까꾸로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지동시장 가서 순대국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 잔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런 것을 몇 번 했어요.

이렇게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공무원들의 ‘외도’였지만, 이는 곧 수원 지역에서 화성의 역사와 이를 매개로 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젊은 연구자들이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과 민이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합류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배제하지 않는 학술적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충영 : 그런데 너무 우리가 화성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전문가를 붙여 보자. 그래서 내가 넷, 아니 다섯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화성을 도는 데 같이 돌아.”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 갖고, 그렇게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8명이 성곽을 돌고, 지동

시장 가서 순대 한 그릇 먹고, 막걸리 먹으면서 토론, 얘기하고. 근데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말을 퍼트려 갖고, 합류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합류를 누가, 누가 했냐 하면,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학예사 친구들이 따라붙었어요. 학예사가 아니지, 그때는. 그냥 야인들이지. 이 친구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다음에 시청 친구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에 그 누구야, 그 꼬마, 하여튼 그 시절에, 이래 갖고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성을 사랑하는 모임을 하자! 그래 갖고 화성사랑모임을 했는데, 한 1년쯤, 도시계획과장 가고 그럴 때니까? 한 3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만들자, 사단법인을 만들자, 화성을 사랑하는 모임 그건 좀 그렇다, 그래 가지고 화성연구회로 하자, 그래서 화성연구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원 화성의 건설은 18세기 말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 그 후의 파괴와 재건, 개발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역사이자 현실에서의 삶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조의 꿈이었던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은 단지 18세기 말의 기획과 실천만으로 이루어진 한 겹의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파괴와 복구를 거듭하면서, 역사도시 수원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건설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대단히 오래된 여러 겹의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의 성곽 복원과 그 역사적 전거와 의미의 재발견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적 재창조의 과정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조 대의 화성 건설이라는 기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계승을 통한 재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승을 통한 재창조’의 작업은 화성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수원 시내 도처에 존재하는 이보다 훨씬 주목을 받지 않는 다른 민속문화의 현장들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가령 영통신도시에서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영통 단오제의 경우를 보자. 이 단오제는 옛 영통리로부터 계승되어, 영통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랜 일은 아니었다. 사실 단오제는 경기 북부 이북의 발농사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세시풍속으로, 경기 남부 이남에서는 문화적으로 그리 큰 초점이 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왜 단오제가 중요해졌던 것일까.

영통리의 토박이로 영통지구 개발 이전에 이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정우에 따르면, 영통리 단오제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농촌 새마을사업 당시의 개발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전통이다.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길을 자갈로 포장하기 위해 청명산에 있던 서낭당의 돌을 가져다가 깔았는데, 이후 노인들 중에 까닭 없이 아픈 사람들이 느는 등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 내에서는 서낭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이런 논의를 제기하던 이들은 “서낭을 위해 굿을 한 번 하자.”는 주장을 하였는데, 새마을사업을 주도한 측이기도 하였던 이정우 등 마을의 젊은 층들은 이런 논의가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충책으로 굿판은 별이지 않되 서낭에 제사는 올림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마을 내 이견을 해소하려 하였고, 그 결과 이정우가 이장을 맡은 이듬해인 1983년부터 마을에서 단오제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정우 : 그때 당시에, 내가 이장을 볼 때인데,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안 좋은 것 같잖아. 굿을 한다는 게. [그렇] 생각도 못 하고, 근데 그때 모임이 있었어요. 친목회같이 모임이 있고, 인제 우리가 그림 40대, 30대까지 모임을 갖자,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어, 인제.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내가 그 안건을 냈지. 사실 이 이만저만하니가 우리가 굿을 한다는 건 안 되니까, 우리 단오제 식으로 해서, 단오제를 지내면서, 부락에 축제를 하면서, 서낭도제를 지내고, 그래서 그렇게 잔을 붓고 한 것이 여태 인제 단오제가 쪽 이어지는 거지.

물론 그전에도 영통리에 그네를 매고 뛰는 등 단오놀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한신대학교박물관, 1993)에 따르면, 현재 단오제 의례에 통합되어 있는 산신제는 기우제의 성격을 띤 행사로 가뭄이 들었을 때 행해지던 의례였다. 해방 후까지도 가뭄이 들면 올리던 이 기우제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약화되었고, 근래에는 일부 부녀자들에 의한 개인의례로 축소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단오제는 일제시기에도 이루어지던 행사였으나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거의 사라졌던 것이 1983년 이래 새



영동 단오제(1983년, 이정우 제공) 본고사 전에 장소를 옮기며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의 풍물패가 함께한다.

롭게 부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에 응한 오이환도 “특별한 고층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유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단오제’라는 이름이나 ‘제사’의 형식을 갖춘 의례, 풍물 연주 등 음악적 요소, 그리고 ‘단오제’라는 이름 아래 종래 이루어지던 기원을 달리하는 여러 의례적인 형식들이 통합된 것은 1983년에 비로소 시작된 현상이다. 이 중 ‘제사’ 형식의 의례적 요소를 갖춘 것은 마을 토박이로 수원에서 동장을 지낸 경력도 있는 이정우의 부모님 연배에 해당하는 인물인 김병석의 주도에 의해서였다. 그가 주로 제관을 보면서, 단오제를 앞두고는 목욕제계를 하고 적극적으로 제(祭)의 여러 가지 세부절차를 주관하였다는 것이다. 또 풍물을 연주하며 음악적 요소를 갖춘 것은 이정우와 같은 세대조직의 구성

원이면서 이정우 후임으로 이장을 보았던 오이환의 회사에 도움을 받았다. 이정우가 단오제 논의를 제기하자 오이환이 “동네 농악을 준비하라고” 10만 원을 내놓았고, 이 돈으로 풍물을 장만하여 동네 농악대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이정우 : 그래서 이제 아주 그때부터 풍물놀이도 하고, 동네 이제 그네도 뛰고, 해서 그뻐 참 모임이 참 잘됐어. 고향에 나간 사람들도 전부 오고, 그레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찬조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부락기금으로 쓰고, 동네잔치를 하면 부녀회원들도 협조를 잘해 주고. 그래서 그게 계속 하다가 새마을 사업하면서 동네 회관도 있었고, 자매결연한 데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회관 뒤가 밭인데, 거기 오이환 네 밭인데, 거기서 회사를 해 줘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운영을 했었거든요, 동네에서.

이렇게 1983년에 만들어진 단오제는 크게 네 곳에서 제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은 황골에서 영통리로 넘어오는 샘말고개에서 풍물을 두드리면서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간단한 제를 올리고, 청명산 중봉에 있던 ‘중에우물(중의우물)’이라고 불리던 우물에 올라가 산신제를 올렸다. 이어서 서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던 서낭당 터에서 서낭제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중앙에 해당하는 큰말 느티나무 앞에서 단오제 본제사를 올렸다. 앞서의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단오제의 제관은 마을의 개발위원장이 맡았으며, 제물은 부녀회에서 장만하였다.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간략한 제사, 산신제 및 서낭제에는 과실과 포·술을 제물로 올리고, 영통사 주지가 축관을 맡았으며, 제관 외 마을 책임자 6~7명이 참여하였다.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단오제 본제사에는 떡·적·포·술·과일을 제물로 올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주민들이 어울려 음복을 하고, 풍물을 울리며 여흥을 즐겼다.

이정우에 따르면, 영통리의 서낭은 본래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시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 대를 이어서 만신을 하던 할머니 두 분이 있었는데 이들이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거나, 지나가는 행인과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떡이나 북어 등 음식물과 돌을 올려놓는 정도로 신앙행위가 이루어졌다. 서낭에 올린 떡은 좋다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여 있어도 먹기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모두 배가 고프던 시절이

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집어 먹었다고 한다.

또한 산신제를 올리던 중에우물도 본래 이곳에 기원하면 비가 온다고 하여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수장’ 이라고 하여 기우제를 지낼 때 우물에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는 활동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었고, 또 나무를 한다면지 하여 산에 오르는 이들이 이용하면서 때때로 지저분한 것들을 걷어 내는 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는 외에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의례를 치르는 신앙처는 아니었다. 이 우물은 영통사라는 절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던 수장도 중단되었다고 한다. 앞의 보고서에서 영통사 주지가 축관을 맡게 되었던 내력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어쩌면 ‘중에우물’이라는 명칭 자체가 영통사와 거기에 정착한 스님(중)에 관련된 것중의 우물인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단지 마을에 있던 나무 앞에서 제를 올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느티나무를 지켜 내기 위해 실제 여러모로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의 노력이 동원되었고, 어렵게 얻어 낸 정책자금도 투입되었다. 본래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는 우뚝하게 도드라진 곳이었다. 그래서 나무의 위용이 더드높아 보였던 것인데, 지형이 그러하다 보니 비바람에 흩어 깎여 나가는 폐단이 있었다. 그로 인해 느티나무의 뿌리가 드러나는 등 위기가 닥쳐오자, 주민들은 정책자금 지원을 얻어 축대를 보수하는 노역에 나섰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축대가 사라져서 다시 평지가 되었지만, 당시 그렇게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느티나무는 토양 침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나무 자체의 위용도 지킬 수 있었다. “그전에는 오뚝하게 올라와 있었지. 그게 축대로 쌓고 보수를 하니 나무가 그냥 활성이 되어 가지고 더 잘 자라” 닳던 것이다.

영통리의 주민들이 큰말의 느티나무를 지켜 내고 그 앞에서 단오제를 올리며 마을공동체를 강화했던 기억은 같은 영통리였지만 거목이었던 은행나무를 지켜 내지 못했던 은행골의 사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당시 은행골의 은행나무는 큰말의 느티나무보다 크고 더 오래된 나무였는데, 사유지에 있는 개인소유였던 관계로





영동 느티나무

1970년경 소유주가 은행나무를 베어 팔아 버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정우 : 근데 그것(은행골의 은행나무)이 개인 것이었어요, 오 서방네. 오 햄영 씨라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나무장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나무장수가 베어 갔어요. 참 은행나무가 컸었는데, 오 햄영이라고 햄영이라는 벼슬이래요. 그래서 오 햄영 집, 오 햄영 집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마을에서 귀히 여기던 거목들뿐만 아니라, 마을을 둘러싼 산들 역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가꾸어지고 지켜진 것이었다. 험벗은 산은 이정우가 임대하기 전인 10대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산림조합에서 진행한 사방공사(砂防工事)로 비로소 푸르게 되었다. “그전에는 청명산이고 뭐고 나무가 없어서 산이 빨긴 묵떡지” 이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나무를 해서 때야 했던 주민들은 용인 땅인 지곡리(현 용인시 기흥구



조립사업 전 영동 지역의 산(이종구 제공) 땃감 마련을 위한 벌채로 황폐해진 산으로 주민들이 사방공사를 하러 올라가고 있다.

지곡동)까지 가서 나무를 해 와야 했다. “아침에 여기서 도시락을 해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가면은 새벽밥 먹고 가면은 저녁에 어둑어둑해져서 들어와, 나무 한 짐 해 걸 머지고.” 하던, 대단히 고역스러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사방사업을 한 뒤로는 속성으로 자라는 나무를 많이 심었으므로, 아직 연탄이 널리 사용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산에서 나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이런 고역이 없어졌다. 당시 농촌에도 연탄보일러 없이 구들에 연탄아궁이를 만들어서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때고 있었다. 연탄은 돈을 지불해야 사는 것이었고 나무는 노력으로 구할 수 있었으므로, 1970년경까지도 생활이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은 연료로 나무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사방공사는 품값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영동리 인근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망포리(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도 와서 작업에 참여하였다. 당시 오리나무와 아까시나무를 심었는데, 불과 3~4년 만에 크게 자라 땃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사방공사를 한 산도 모두 사유지였고 원칙적으로는 아무나 나무를 해 갈 수 없었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그런 것을 지킬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정우에 따르면, “나무 해 가는 것을 산주(山主)가 말리기도 했지. 말리지만 숨어



때때, 몰래 해다 때는 거지, 싸워 가면서 해는 거지, 숨어 가면서 싸움도 많이 했지.”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지키고 하던 당시의 활동을 이정우는 ‘산 푸르게 운동’으로 기억하였다. “그때 한참 산 푸르게 운동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때 참, 그건 참 잘했다고 봐요. 그때 비료도 참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 산에 그 비료도 많이 주고 그랬어. 한 1~2년 사이에 산이 다 퍼러졌으니까.” 이 운동의 초기에는 나무를 못 베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낙엽도 못 긁어 가게 할 정도로 단속이 삼엄하였다. 당시 비료는 ‘중과석(重過石)’이라고 불리던 중과인산석회 비료가 사용되었다. 중과석 비료는 “혼합비료에 등글등글한 것 섞여 나오는” 비료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심었던 오리나무와 아까시나무는 둘 다 잘 퍼지고 잘 자랐지만, 오리나무의 경우 벌레가 먹어서 금방 죽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렇게 충이 생겨요. 그래서 죽어, 나무가. 이파리부터 먹기 시작하면 나무까지 다 먹어. 아, 나무 밑동에 서부터 파 들어가니까, 벌레가. 그래서 죽는 거야. 다른 나무는 안 먹더라구. 오리나무만 그렇게 먹었어요.”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정우의 설명이었다. 게다가 오리나무는 목재로 쓰기에 약점이 있었고, 화목으로서도 그다지 매력 없었다. 오리나무는 생나무로 있을 때는 단단하지 않다가 마르면 단단해졌기 때문에, 땀감으로밖에 용도가 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땀감으로도 적당하지 않았다. “산을 푸르게 하는 데에는 좋은데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것이 오리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이렇게 오리나무가 죽은 자리에는 금세 아까시나무가 퍼졌다. 아까시나무는 화력이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정우 : 아까시나무가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나무가 못 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시 나무를 잘못 심었다는 등 말이 많았지. 그래도 땀감으로는 제일이었어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한편에서 밭둑에 심은 아카시아나무가 밭으로 파고들어 애를 먹이는 폐단도 있었다. “그게 그래서 밭둑 같은 데도 심었어요. 산 밑창에 밭이 있으니까. 에이, 그래 밭으로 파고들어서 그놈의 아까시나무 때때 골치를 썩이구. 땀감은 좋았는데, 농사짓는 데는 해가 되는 거예요.”

영통리에서 단오제를 올리게 된 계기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서낭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길에 깔았던 사업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지만, 이외에도 영통리에서는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을 높은 곳에 물탱크를 올리고 상수도를 파서 마을 전체가 상수도 물을 먹게 된 일도 있었다. 물탱크에서 마을까지 수도관으로 호스를 묻는 비용은 정책자금을 받고, 공사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 부역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마을들 사이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개를 낮추거나, 길 양옆으로 토관을 묻고 흙을 덮어 마을길을 넓히거나, 도로에 자갈을 까는 등의 사업도 모두 정책자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노역은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 부역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영통리에서 병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인 땅을 거쳐서 가야 했는데, 당시 용인에서는 화성 땅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사업을 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길을 만들고 포장하는 등의 모든 일들이 영통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점은 영통리가 화성군 행정구역 내에서 상당히 오지에 해당하였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영통리 주민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협조가 잘되었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우선 소요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비용을 절감하면 그만큼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의 연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정우 : 근데 나무두,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대구치는 걸 딸라며는 나무가 있어야 돼. 근데 나무를 살라면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산에 가서 미루나무를 베 가지고 제재소에 가서 쪼다가, 그걸 대고 한 거여. 자금을 덜 들이고, 도로포장을 많이 할라니까. 소나무는 베지 못하고, 미루나무 같이 생긴 거 잔나무들 베다가 용인시까지 가서 허가받아서 제재소에서 쪼다 그걸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끼고 경비를 절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지방 행정당국에서 나오는 정책자금을 받아 오는 일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해마다 하다시피 하는 새마을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뚫고 정책자



새마을사업으로 달라진 영동리(1984년) 마을 진입로가 시멘트로 포장되고 새마을회관과 놀이터가 들어섰다.

금을 받아 와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인 연망이 큰 힘을 발휘하였다.

이정우 : 태안면이 41개 부락이었는데 41개를 노랏 주다 보면 사실 1년에 한 번도 힘드는 거지, 정책자금 오는 게. 근데도 내가 일 보면서 참, 해마다 그 자금을 받아다 해마다 했어요. 이는 사람들의 협조를 많이 받았지. 태안면에 내 친구가 총무과장으로 있었고, 선배가 계장으로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정보를 줘. 이런 정책자금이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넣어라. 그래 넣으면 총무과장이 결재해 주니까. 그러나 해마다 새마을자금은 못 주고, 올해 새마을사업이다, 내년에는 정책자금이다, 뭐다, 뭐다, 종목이 있으니까, 해마다 걸러가면서 주는 바람에 그 혜택을 좀 봤지. 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적인 연망은 단지 정책자금을 받아 오는 데에서만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각종 잉여물자를 타 와 공사에 보태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면사무소 등 관청에 근무하는 마을 사람들도 힘을 발휘하였고, 국민학교의 선후배 관계 등 인맥도

중요한 연줄이 되었다.

이정우 : 그래 그 도로포장을 다 했어.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용인시, 아니 수원시청에 운수과에 있는 부락 사람이 있었어. 영통리 사람이, 운수과에. 그래서 여기 레미콘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가 하니깐 그거를 지원해 준 거야, 거기서. 레미콘 남는 거를 거기 쏟아다 부어 달라, 그걸 받아다가 쓰고 그랬어, 그런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남으니까, 남는 거를 거기다 보내 달라, 그래 남는 걸 많이 썼어. 그래 손수 비벼 가지고 공구리를 쳤대니까? 국민학교 선배지요. 태안초등학교지, 지금. 태장국민학교죠, 옛날에.

### 3. 토박이들의 문화적 실천 \_ 전근대에서 근대로, 다시 탈근대로

그러나 이렇게 개발을 통해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이 변화를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양상은 비단 1970년대 들어서의 산업화나 도시화, 새마을운동 이래의 현상만은 아니다. 가령 화서동 고양골 토박이인 정규호(남, 1936년생)에 따르면, 화서동은 동말·고양골·꽃피 등 세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 동말은 철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소(沼)를 끼고 있어서 요정 비슷한 술집도 있는 등 일제시기부터 젊은 사람들 왕래가 많고 이른바 ‘건달’ 들도 좀 있는 동네였다. 정규호는 “실제로는 꽤 먼저 앞서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구식으로 볼 때는 너무 좀 되바라진 그런, 그런 형태의 마을”이라고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동네이다 보니 해방 무렵 동말의 거주호수는 이미 100호를 상회하였다. 반면 고양골은 동래 정씨 동족마을로 전형적인 농촌 촌락의 모습이었으며, 꽃피는 이도 저도 아니면서 ‘좀 낙후한 곳’이었다.

한 리 안에서도 마을들 사이에 나타났던 이러한 차이는 이미 해방 이전 진행된 도시개발의 결과 나타난 마을들 간의 공간적 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마을 사이의 차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그 양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 고양골은 완전히 아파트단지화가 진행되어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꽃피는 예전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아파트가 건설되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화서동 꽃뿔마을(김현락 제공)

토박이들과 이주민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형국이며, 동말이 이런 변화에서 가장 뒤쳐진 상태에 있다. 그만큼 고양골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 차이라는 면에서 가장 극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천동의 토박이인 한상진(남, 1951년생)은 사범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부친이 위독해지자 장남인 그가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 귀향하게 되었다. 귀향 당시에는 머슴을 두고 소 열 마리를 키우며 축산업에 종사하였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몇 년 하다 그만두었고, 이후에는 예비군중대장을 하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연소 대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민주정의당 수원시당의 조직부장을 거쳐, 경기도 생활체육회에서 일한 후,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의정회장, 수원시장레식장(연화장)운영회 초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다양했던 그의 경력 중 이 글의 맥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의동·하동개발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과 광고원주민상가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으로서의 경력이다.



개발 전의 이의동 해령골



개발이 예정된 원천 일대



이의동·하동 개발투쟁위원회 사무실(<http://cafe.daum.net> 광고동!그리고 내고향 이의동·하동)

이의동과 하동 지역에 광고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2002년도의 일이었다. 한상진은 이의지구 개발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를 만들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상진 : 아, 이게 신문에 나자마자, 제가 이거는 아니다. 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전통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고향을 개발시키는 것까지는 시대 차원에서 좋은데, 너희 마음대로 개발을 시키느냐, 우리 의견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할려면 결집해야 된다, 그래서 이의동개발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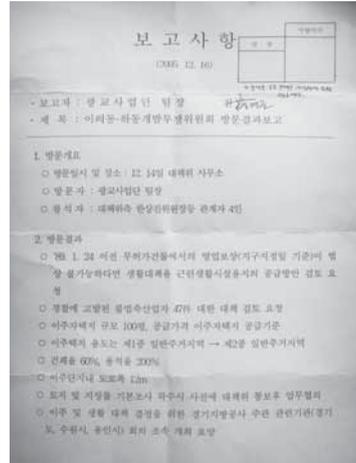
위원회의 작업은 주민의 보상요구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위원회는 한편에서 주민고충상담실을 운영하며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한편, 각 개인들의 집단별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로 요구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보상요구

안을 작성하였다.

한상진 : 여기[보상요구안]에 보편은 주민들의 재산권, 기본권 침해내용서부터 지역에 대한 특성상, 이런 걸 서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고서 너희들이 이 지역주민들을 그냥 잡아먹겠다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분류별 보상요구안을 만들든 거예요. 토지평가에 대한 보상, 종중토지·묘소 보존에 대한 거, 뭐, 가옥주 이주대책에 대한 안, 상가,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안, 제가 이거 책 맨드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공장이 있는 사람들은 공장들에 대한 보상안, 세 들어 있는 세입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 인권침해를, 유린당하지 않도록, 그네들에 대한 보상안, 따로따로 다 두는 거예요. 죄 생각이 틀리잖아요. 무허가 비니루하우스 집에 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 불쌍한 동포들, 여기에 대한 보상안.

한상진에 따르면, 그가 위원장으로 있던 위원회의 ‘개발투쟁’은, 여느 ‘투쟁위원회’들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는 그 특징을 “낙서를 하지 않고 경찰의 경비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한상진 : 그래 가지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도시에 가문은 페인트로다가 벽에 낙서를 막 써 붙여요. 근데 낙서를 한 방울만 하든 내가 가차없이 용서를 못한다. 우리가 여기를 지킬래면은 그런 지저분한 자체를 금해야 된다. 투쟁이라는 거는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양아치들, 깡패들, 그 무질서한 그런 투쟁을 하지 말자, 깨끗한 투쟁을 하자, 그래서 현수막 써서 내걸기, 깨끗하게, 벽에다 낙서 금지, 이런 거. 그리고, 저는 투쟁을 해 가지고 집회날은 경찰관 입장에 섰어요. 저도 예비군중대장을 했고, 공익을 담당했던 사람이라. 에리아를 벗어나지 말아라, 도청 답을 넘어가지 말아라, 가차없이 용서 못한다,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와서 요구하는 거는 도지사를 만나자, 만나 가지



광고개발 관련 문서(2005년, <http://cafe.daum.net/광고동!> 그리고 내고향 이의동·하동) 개발투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보고한 내용이다.



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협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도청을 테러하거나 우리가 공공 기물을 파손할라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그 깨끗한 플레이, 투쟁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가 끝나면은 경찰관서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오히려 받았어요. 아, 대단하시다고.

또 한 가지 위원회의 활동에서 중요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벌인 활동이었다. 즉 관청에는 공시지가를 높여 주도록 건의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설득함으로써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상진 : 그게 바로 현대식 투쟁입니다. 무조건 돈 달라픈 근거 없는 돈을 주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의원 생활이나 공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투쟁이지, 야, 돈 내놔, 낙서나 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그, 획기적인 겁니다. 감정사들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보통 30프로에서 50프로, 증감증가를 시켜 냈어요. 그리고 어떤 필지는 100% 까지, 이러니까는, 이런 투쟁, 정말 샤프한 투쟁을 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이러한 두뇌 플레이를 한 거고.

그에 따르면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막후작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부를 하는’ 투쟁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한상진 : 또 한 가지 가장 큰일을 한 것은 2006년 8월 보상이었어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법에 6월 보상을 안 주고, 8월까지 가른 우리가 세금을 35%를 무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들어가 가지고 따졌어요. 따지니까 건설국에서는, 도시건설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근데 개네들은 그 법을 몰라요. “너희 공무원 헛해 먹었지 않느냐, 왜 몰르냐, 너희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세정과장을 불러 올리거라!” 세정과장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투쟁위원회 위원장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맞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공부 많이 해구서 늘 들어가죠. 지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 한 거 아녜요. 그러면 “너희들 어차피 예산 세워 놓은 거 두 달 빨리 돈을 풀어 갖고, 더 일찍 보상을 주면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덜 물지 않느냐, 국가에 대해서는 저기지마는, 주민들



이의동 · 허동 개발투쟁위원회 사무실 앞에 내건 깃발들(<http://cafe.daum.net> 광고동! 그리고 내고향 이의동 · 허동)



개발 반대 플래카드가 붙은 성죽골(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수원시 이의동 · 허동 옛 사진집』, 2011)

예게는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6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6월 보상을 따냈어요. 두 달 빨리. 그 바람에 돈도 빨리 만져 보면서, 어차피 줄 거니까. 그래서 그 세금도 덜 내고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자는 그런 걸 못해요. 많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언론지상에 이런 걸 입수해 가지고, 그거 멍히 앉아 있으면 8월 달에 돈 준대, 아 이 두 달 참지 뭐, 싸움도 다 끝나고, 뒤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막후교섭과 실리추구, 타협과 조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표면에서의 ‘강단 있는 퍼포먼스’가 필요하였고, 한상진은 이러한 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였다. 원천유원지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사들의 비리가 드러나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터지자, 그는 기자들 앞에서 지역을 찾아온 경기도시공사 사무처장을 앉혀 놓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막후교섭과 타협만을 하는 위원장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또 뒷돈 30억을 받았단다가, 고교 선배인 수원시장을 봐 주기 위해 시청은 가지 않고 도청에만 가서 시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는, 억울함을 못 이겨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휘발유를 몸에 끼었을 때 라이터까지 쫓아 붙이 붙지 않아서 실제 분신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분신을 시도했던 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상진 : 그것은 첫째는 500년의 전통사를 갖고 있는 우리 씨족사회가 살고 있으면서, 나의 고향, 그 어려서 이름답게 살던 이 고향이 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뺏기던지 내 후세에 뺏기든 나는 이런 데 참가를 안 할 텐데, 내 세대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내가 이런 투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밥 먹고, 주민들을 옹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저리가 나는,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해느냐. 그런데 칭찬하는 사람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항상 여(輿)가 있으면 야(野)가 있듯이, 아까 얘기한 돈 얻어먹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날조가 되고 있으니깐 더러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내가 요구한 문제들이 100프로 관철이 안 되니까. 그게 그 당시에 금방 관철을 해 줘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니 행정부에서는. 살살 녹여 주는 거죠. 근데 성질이 급하니까 더러워서 몸으로 한 번 보여 주겠다, 뭐가. 근데 술 한 잔 먹고 죽는다는 자체를 생각을 안 해 본 거죠. 야, 정의감에 불타서 애들 장난처럼 그랬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생과 사의 길을 내가 걸어갔던 거예요. 그때 라이

터 불만 커졌으면 화상을 입어서 개판이 되었거나 죽었거나, 그런 거죠.

이의동·하동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상점에 대한 분양권을 배분함으로써 이들을 신도시의 상인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될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의 결성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3월 26일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궤도에 올랐다.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예정지구 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에게 8평 규모의 상점에 대한 입주권을 주기로 하고, 이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 그 계기였다. 당시 이러한 상가입주권을 받은 ‘광교 원주민’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 첫째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타지로 나오게 되었던 주민 그룹, 둘째는 개발지구 안 또는 밖에 거주하면서 개발지구 내에서 영업장을 갖고 상업에 종사하던 상인 그룹, 셋째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지구 안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던 농민 그룹이다. 개발사업 착수 당시 이 세 그룹에 속한 인원은 1,200명가량이었다.

이들 원주민 그룹에 대한 상가입주권 부여는 광교신도시 내 신대역세권, 경기대역세권, 그리고 경기도청역세권의 세 권역에 들어설 상가에서 각 조합원당 8평씩의 점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단지 상가입주권은 원주민 개인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상가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따라서 각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으로 참가할 원주민들을 모아 각자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했다. 즉, 원주민들이 자유의사로 조합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각 조합들은 경쟁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 조합의 규모에 따라 상가건물의 규모가 결정되었던 셈이다.

각 조합의 규모는 40명을 단위로 삼도록 되어 있어서, 이 인원 규모의 조합원을 모아 하나의 단위조합이 구성되면 300여 평으로 구획된 상가필지 하나씩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신대역세권에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상가를 구성하게 된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의 경우 결성 당시 조합원이 308명이었으므로, 모두 여덟 필지의 상가부지를 배정받았다. 다른 조합들이 한 필지씩 배정받을 수 있는 규모밖에 되지 않았던 데에





광교원주민상가조합 창립총회(『경인일보』 (www.kyeongin.com), 2009년 3월 27일)

비하면,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의 크기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주로 한상진이 개발투쟁위원장을 하면서 쌓은 명성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대해 한상진은 “야, 한상진이는 지역사회에서 덕망과 역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조합에 많이 몰려온 거”라고, 그와 함께 조합에서 일을 하는 정이찬(남, 1967년생)은 “그전에 도시공사 여기 하면서 투쟁위원 하면서 주민들 이익을 많이 챙겨 주셨고, 그게 조합까지 간 거죠.”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1,200여 명의 상가입주권 배정자 중 개발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주민 그룹은 약 650가 구였는데, “여기광교원주민상가조합는 원주민들은 다 들어와 있고, 떠돌백이들은 각자 흩어졌고, 그렇게 보면 되죠.”라고 한다.

결성 당시 초대 조합장을 맡으면서 그가 내걸었던 조합이념은 첫째 경쟁력 강화, 둘째 이익 극대화, 셋째 업무 투명성이었다. 다음은 업무 투명성과 관련한 그의 설명이다.

한상진 : 이게 무슨 재건축이고 뭐고 시행사한테 돈 받아먹고 뭐 구축되고 이런 게 기본이 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 하지 말자, 누구든지 이런 거 하면 난 용서를 못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면서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이게,

현 정부가 금융권제도를 막아 버렸습니다. 돈을 못 빌려 주게끔, 그러다 보니까 1차 금융권에서는 돈을 못 빌리게끔,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경기지방공사로다가 토지비도 갖다 내야 되고, 우리 뭉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회사는 그것을 못 막는 바람에 도산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사채를 끌어다 일단은 막고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제가 여기다가 내 자산을 10억대 이상을 투자를 해 놓고 있어요. 제가 여기 지분도 아닌. 그 바람에 우리 조합이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이 높은 평가를 해 주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부갈등이 많아졌어요. 돈 거기에 갖다 놓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이들의 시도가 성공적인 전환으로 맺어질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목적하지 않았던 지점으로 귀착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와 같은 운명적 전환을 겪어야 했던 이들의 사례가 후시참고의 지점이 될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개발의 과정에서 걸었던 자신들의 삶의 궤적과 그 변화 자체에 대하여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개발의 결과 생체기로 남은 삶의 단층들
2. 수원다운 색깔은 어디에.....
3. "발가벗고 팔십 리를 뛰는 수원 짝쟁이"를 넘어서

안 승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 03 | 오늘날의 삶과 변화상에 대한 수원 토박이들의 인식

### 1. 개발의 결과 생채기로 남은 삶의 단층들

앞장에서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들어설 당시 정부나 기업이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른 미래가 전개되었지만,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팽창에 힘입어 농토를 박탈당한 농민들조차 그런 대로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보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1980년대와 달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서비스산업 발달이나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경제 발전의 축에 변화가 생긴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은 같은 도시개발이라도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매탄동의 경우 이웃한 영통지구의 급속한 개발과 대비를 이루면서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성과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의 소외감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김진섭 : 이 길말통골을 관통하는 옛길에도 버스가 2대나 다녔어요. 12번하고 29번 버스가 다녔는데, 전부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는 사람이 없고 길이 좁고 하니까 버스가 못 다녔죠. 지금도 버스안 다녀요.

면담자 : 그럼 다 자가용을 타시나요?

김진섭 : 자가용이 아니라 콜택시를 꼭 불러서 타기 때문에, 버스가 없어요.

면담자 : 왜 버스가 없나요?





영동의 끝자락으로 밀려난 말뚝골(2002년) 삼성전자 공장과 영동 아파트단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이 말뚝골이다.

김진설 : 길도 좁죠, 개발이 안 되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 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다니면 타겠는데.

면담자 : 개발이 안 된 것은 왜인 건가요?

김진설 : 몇 번 건의를 해도 여기 개발이 안 되네요. 자세한 건 몰라도 공업화되기 때문에 공업도시기 때문에, 공장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맨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역을 공업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 특혜라고 들어온 게 소각장밖에 더 있어요? 소각장이 이 근방에 있어요. 쓰레기를 전부 태우는데, 공기가 얼마나 나쁘겠어요.

○○○[면담 자리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주민] : 영통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버스 노선마저 뺐긴 거예요.

김진설 : 지금은 뭐든 다 영통이예요.

○○○ :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도로가 넓잖아요. 그 도로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가용도 그러지만 버스도 다.

김진섭 :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우리네 걸음으로 20분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콜택시를 불러야 해요.

면담자 : 20분이면 그냥 어디 가겠네요.

○○○ : 이 더운데 노인네들이 그걸 걸어가겠어요?

영통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자 버스노선의 일대 재편이 일어났고, 과거 호남에서 서울로 가던 노변 마을이던 말통골은 이제 시내버스마저 들어오지 않는 ‘도시 속 오지’가 되었다. 말통골로 들어오던 버스노선이 끊어진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수원 시내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을 나가야 한다. 말통골 마을에 버스가 끊어진 시기는 영통신도시의 착공시기와 일치한다. 자가용 등 개인소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과 기본조건이 다른 노인들에게 이는 ‘영통에 버스노선마저 빼앗겨’ 울며 겨자 먹기로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 재앙이 되고 있었다.

이곳이 그저 여느 농촌이었다면 20분을 걸어야 버스정류장이 나오는 상황은 드문 일도 아니고, 유난히 소외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청소재지인 인구 백십 만의 거대도시 수원 시가지 한복판,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기업 삼성전자의 본거지 공장 바로 담장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특히 인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영통신도시에 버스노선을 빼앗긴 셈이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외와 박탈감에 따른 불편과 불만은 정확히 어떤 분석과 대안 모색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 위의 문답에서 상업지구로 바뀌면 매탄동에서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까닭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진섭은 이내 “그건 잘 모르겠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영통리의 원주민이었으나 영통신시가지 개발 이후 영통지구 밖에 나와 살게 된 주민들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시가지 조성 이후 고향을 떠난 영통리 토박이 이정우의 설명으로는, 영통리를 떠난 원주민들 역시 어떤 계획 아래 움직이기보다는 대부분 그때마다의 편의에 따른 움직임에 의해 향후의 행보를 정해 나갔던 것으로 느껴졌다.



가령 이정우가 속한 영통리의 동년배조직 십오회의 회원 15명 중 영통지구에 정착한 주민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영통리 주민들 거의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중 매탄동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냥 우선 나와야 하니까 가까운 데 살은 거지. 그랬다가 그냥 여기 앉은 거야.”라고 설명하였다.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과 대안 모색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가까운 데에 이주하여 향후의 상황을 살펴려던 것이 새로운 뭔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착지로 굳어졌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도시재개발로 원주민들이 환산유리하게 된 상황은 낯설게 된 고향 마을과 그곳에 살고 있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 대단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 핵심적인 지점은 영통리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의례로 재탄생시켜 촌락 단결의 핵심적인 장치가 되었던 단오제와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이정우에 따르면, 처음 원주민들이 이주하여 나왔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영통신시가지의 동장이 십오회 모임을 찾아와서, “단오제를 승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찬조를 해 줄 테니” 십오회 회원들이 행사를 계속 맡아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십오회 회원들은 “그러지 말고 동네에서 주최를 해쇼. 그럼 우리가 찬조를 해 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거 주최해서 할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때 내가 그거 할 적에 보면, 온 부녀회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소 내부를 한 부 가져오면 보통 50근이 넘어. 그거 한 부를 다 갖다가 삶아서 부락 사람들이 그냥, 가마솥 걸어 놓고, 다 같이 먹고 잔치를 했는데, 그걸 행사를 할라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전에는 살으니까 했지만 다 나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이었다. 논리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는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해 버린 고향에 대한, 자신이 떠나야 했던 옛 고향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편치 않은 감정이 산견되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십오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동사무소가 주최가 되고 이주해 간 원주민들이 찬조자가 되어 속개된 단오제에서 오랜만에 동네로 돌아온 원주민들은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영동 청명단오제 단오제의 주체였던 영동 원주민들은 이제 손님으로 참석한다.

이정우 : 그래 내가 처음 동사무소에서 할 때 가서 봤더니, 과거에 본토인들은 행사에 곁돌고 참여해 봐야 소용이 없어. 가면 또 식권을 쥐, 천 원씩 내고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니 어떡하. 그게 [십오회 회원으로 유일하게 영동지구에 재정착한 오이환이가 거기 위원장을 하고 하니]가 우리가 간 거지. 그런데 가 보니까 부락 사람들이, 고향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더라구. 그래 인자 이환이가 부락 사람들이 오면 자기 돈으로 식권을 사 가지고, 부락 사람들 식권을 주는 거야. 근데 얻어 먹는 것도 한 번이야 괜찮지, 떳떳하지가 않잖아. 왜 개인의 사비로다 그걸 하나. 그래서 거길 안 가는 거야.

원주민들은 이미 고향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주최자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고 지켜 온 단오제였으므로 찬조금을 내고 참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작 단오제 현장에서 이들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 있었고, 이 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야기하였던 것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정우의 경우 영통 동장을 만나 단오제 행사에서 자리를 동별, 통별로 마련할 때 ‘영통 본토인’을 하나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동장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되지 않았다.

이정우 : 고향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받으니까, 그걸 넣어 주면은 우리도 떳떳하게 가고 좋지 않겠냐. 어이 좋다고 그러더라구, 동장이, 좋다구 그래. 그렇게 했더니 근데 계속 안 넣는 거여. 얘기는 좋다고 해 놓고, 동장이 바뀌었는지 어졌는지는 몰라도. 안 넣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인제 그럼 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거기 다 찬조금을 내냐.

상황을 보다 못한 오이환이 나서서 2012년의 경우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친목회 원들에게 다시 참여하도록 얘기를 하였다. 이정우는 이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유쾌한 감정으로 자리를 함께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나는 그때 불일이 있어 못 갔는데, 갔던 사람들 얘기는 들어봤지. 올해 어떻게냐.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야. 뭐 자리는, 먹는 자리는 하나 마련해 봤는데, 뭐 사 먹고 가고, 뭐 행사는 자기네들 행사지, 부락 사람들, 옛날 본토인들 가 봐야 누구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차츰차츰 안 가는 거야.” 이미 그곳은 자신들의 마을이 아니었고, 느티나무도 단오제도 자신들과의 연결 고리를 상실한 듯이 보였던 것이다.

마을을 떠나기 전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고향과 자신을 이을 수 있는 매개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이 없어지게 되자 마을기금의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이를 주민들에게 분배하여 해체하지는 주장과 공동의 기억을 위한 기념물을 고향 땅 느티나무 앞에 남겨 두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정우 : 한편에서는 나와서 그 기금을 살려서 뭐를 하자, 이렇게 하는 편이 있고. 한편에서는 해체를 하자. 너희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지, 본토인 말고. 세대수가 백 세대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지. 그러니까 찬성, 반대 해 가지고 해니까, 부결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논의가 가닥을 잡지 못해 귀착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당시 기념물을 남겨 놓지는 의견을 가졌던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일이 되었다. 동네가 사라지고, 느티나무 앞의 단오제에서도 객으로 전락해 버린 처지에, 이곳이 자신들의 고향이었고 언제 어떻게 해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징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정우 : 그걸(기금을) 해체하면 뭘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그래 봐야 영통 사람들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래니깐 뭘 이정표를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영통 느티나무 밑창에다가, 딴 데도 보면 그걸 많이 했더라구, 비석이나 선도비 같은 걸 하나 세워서 영통의 내력을 쪽 기록을 해서 하나 세워 놓면은, 응?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해서 해체가 됐다는 걸 기록에 남지 않냐. 누가 와서 봐도, 그래 영통에 살았다는 걸 근거로 해서 하나 해자. 왜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흐지부지 없어진 거야, 해체가 되니까. 그냥 없어진 거야, 노파 버리고, 전부 다. 그리고 나니깐 단합이 더 안 되지. 근거가 없지, 해자 그랬더니 그걸 안 했어. 고게 좀 아쉬워. 지금 영통에 가며는 눈에 띄는 것은 느티나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옛날 유적이라는 것은, 그래 고걸 했으면 좋았는데 고게 좀 아쉬워더라고. 선도비 같은 걸 해 놓으면 고걸 쭉 써 놓잖아요. 어디든지 있더라구. 그래 우리도 고걸 하나 했으면 했는데.

이 마을의 토박이 성씨인 전주 이씨로 영통에서 태어나 자란 이정우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영통리 이장을 보았다. 그는 1969년부터 7~8년간 서울에서 양품점을 열어 옷 장사를 하며 고향을 오갔는데, 1976년 완전히 귀향하여 영통지구가 택지개발되기 전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현재 그의 아들은 광명시에 살고 있으며, 큰집도 조카도 모두 서울에 있다. 서울살이를 하다 귀향을 하여 재정착한 경우였으므로, 그의 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우리 애들은 여기 내려오기 힘들 거야, 내 생전에는 없어.”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직장이 타지에 있다 보니 과거 지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던 활동에 아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이들의 생각 여하를 떠나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과 고향을 이어 줄 고향 사람 자체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었다.

이정우 : 서울에 다 직장이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산소 있어도 관리를 못 해. 그래서 전부 다가 이제 화장들을 하고, 공원묘지에 하고 그러잖아요. 나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여기 있는데, 내 작은조카도 인제 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 거지. 나 없으면 관리를 못해요, 직장 다니고. 별초할 때도 내가 연락해서 오라 그러고, 그럼 같이들 오고 그러지만, 나 없으면 누가 그걸 해. 종친회도 애들은 신경 안 쓰고.

이와 같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대부분이 개발사업 이후 재정착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의 단합이나 정체성 계승의 안정적인 매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은 다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후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광고신도시 지구에서 이의동·하동개발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광고원주민상가조합 조합장으로 있는 한상진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었다.

한상진 : [보상금액이] 100만 원이면 3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현행법에, 누가 개발한다 그랬습니까? 개발은 정부가 시켜 놓고, 돈은 지들이 뺏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세 번만 바뀌면 재산이 없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촌지구에는 생존자가 다 연로한 사람들이 등기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개발되느냐고,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나이가 많은 양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 엄청난 손실이에요. 보상받을 때 세금 냈잖아요. 그리고 현찰로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받을 때, 아버지가 슬금슬금 다 쓰면 상관없지만 아들한테 나눠 줄 때 상속세를 30%를 또 내잖아요. 35% 내고, 30% 내면 벌써 75%가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병 더럽게 걸려 가지고 상속받은 사람이 또 죽으면 30%를 또 내잖아요. 세 번 하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문에 내면 국가가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요. 투쟁지역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의 설명은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지구 주민에게 주어진 보상금은 단시간 안에

75%가 국고로 되돌아가고, 운이 없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100% 가까운 액수가 다시 국고로 되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산액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사소한 설명이기는 하다. 상속세는 원금이 아니라 사망 당시 보유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세 단계 만에 원금이 탕진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상을 받은 주민들 개인의 현실적인 자산운용능력 보유여부를 떠나, 국가와의 관계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개발에 따라 주어진 보상을 장기적으로 지켜 가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상진 : 조상 대대로 안 쓰고 관리하고 했던 건데, 아니 누가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 아니 그럼 개발을 국가가 지정한 곳은 세금을 빼거나 해야 하는데 지들이 해 놓고, 돈을 국가가 다 뺏어 가요. 지금은 내 재산이 내게 아니에요. 국가 거예요. 문서만 갖고 있지. 내 재산 내 용도대로 쓰고 싶은 거 국가가 언제 고사하면 못 하는 거죠.

다행히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럴 듯한 새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에도 고향의 상실에 따른 박탈감은 적지 않았다. 화서동 고양골의 토박이 대성집단인 동래 정씨도 농지가 전부 아파트단지가 되면서 현재는 이리저리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고양골 토박이였던 정규호의 경우 수원 사람이 용인 사람이 되어야 했던 문제를 호소하였다.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세거지였던 화서동을 떠나 용인 흥덕지구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소득원이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집은 용인에 있기에, 이제 그는 수원 사람도 용인 사람도 아닌 묘한 위치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점은 생활에서 물리적으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적잖은 이질감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규호 : 거기, 골프장 밑에 아주 공기도 좋구 그래서, 거기가 살지. 그게 지금, 난 항상, 난 수원 사람인데 여기 가 사는 게, 주소도 길 하나 사이 용인이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 지금. 수원으로 와야 할 텐데 다시.



아파트촌으로 변한 정자동 멀리 보이는 것이 숙지산이다.

고양골 마을의 뒷동산이자 종중산이었던 숙지산은 이제 시민의 공원이 되어 있다. 이 점은 일제시기에다 나무 한 그루 못 배게 하며 지켜 왔던 숙지산의 자연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갖는 자부심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정작 그곳을 선영으로서 지켜 왔던 후손들은 그 우월한 산림경관으로 아파트화와 공원화 적지못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선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보전된 숙지산 환경이 도리어 그곳에 있던 선영을 옮겨야만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규호 : 왜정 때도 뒷동산이라고 우리 산이 있는데, 종중산이지. 근데, 거기 나무를 하나도 안, 못 비었어요. 고대로 나무가, 그때 나무가 그대로 있어서. 그 근처에서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왔지, 숲이 좋으니까! 그 참나무 그런 것도, 옛날에 그저, 백 년은 넘었겠지, 그런 것들은? 산소들도 있고, 네, 다 있어요. 이장한 사람들도 있고. 공원지구로 지금 묶여서 저걸 못하니까 이장한 사람들은 이장도 했고.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주민들은 이 뒷동산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산에서는 전부 벌목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산만은 벌목을 하지 못하게 지켜 왔기 때문에 속지산에 이름드리나무가 우거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그 숲이 경관요소로 주목을 받음으로써, 고양골이 오히려 아파트 건축의 적지가 된 셈이었다.

## 2. 수원다운 색깔은 어디에 ……

이렇게 수원 토박이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 도시개발 과정에 대하여, 도시개발의 행정주체였던 담당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979년 공무원이 된 이래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쌓아 온 수원시청 김충영 환경국장은 1980년대와 현재의 도시계획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김충영 : 제가 한 80년대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80년대가 보릿고개 시절이라면 지금 2010년대 도시계획은 우리 문화수준 경제발전하고 비례하는 그런 아주 섬세한 도시계획을 하죠. 그전에는 선 그어서 다 밀어서 길만 났을 뿐이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지금은 학문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시대고, 과거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은 팽창하는 도시의 발전상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도시상과 개발의 방향을 규정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 자신도 참여했던 수원의 도시개발과 계획을 현재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수원의 옛 길들과 모습을 지키면서 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김충영 : 으응, 제가 그전에는 화성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봤고, 처음 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시가지 보면 그냥 그, 실오래기 같은 농로길 같은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 저거 뭐 하나, 그렇게 소홀히 보고 그랬는데. 만일 도시계획을 지금 한다면 과거



6대로, 10대로, 이런 조선시대 옛날 길들을 이런 거를 살려 놓고 옆에다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렸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산도 덜 깎고, 옛날 길도 고스란히 보존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도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미학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는 옛날 같으면 경부역전을 만들고 마라톤대회를 해도 그 경로를 사람도 없고 보도도 없는 국도변으로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미학, 산업화시대 도시계획의 심미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산을 깎고, 보도도 옛 청취 어린 가게도 없이 찾길만 행하게 뚫린 도시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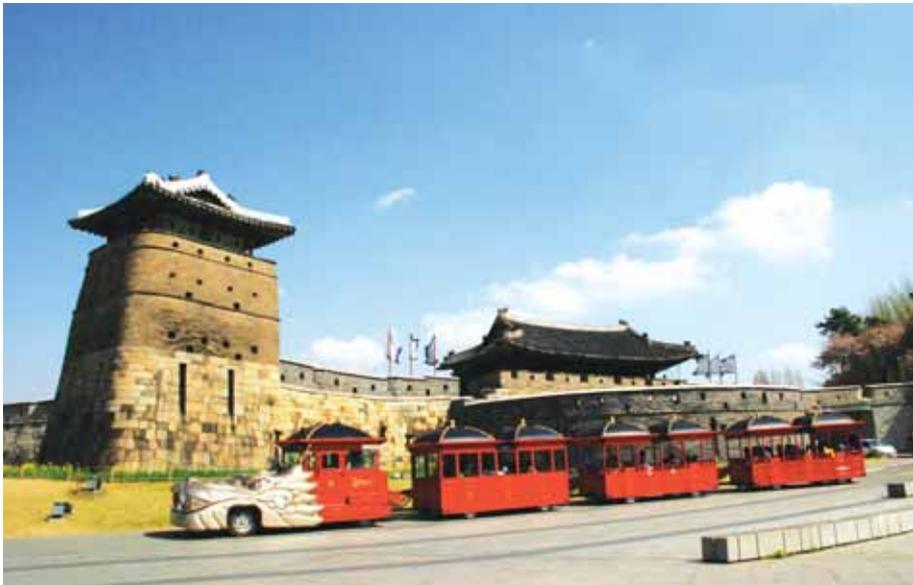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인식은 동시에 철저하게 실용적인 계산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김충영 국장의 설명에서도 수원의 화성개발사업이 돈은 많이 들지만 수원 시민의 실질적인 생계나 산업과는 연결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있었다. 그는 “제가 화성사업을 오래 하면서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이는데, 관광객은 많이 느는데, 실제로 수원에 와서 자고 가지 않고, 오래 있지 않고, 수원에 돈을 안 쓰고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뭘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그가 찾아낸 대답은 “근데 결국은 울타리인 성곽, 성벽만 있지 우리 전통 문화나 이런 것이 없다.”는 점이었다.

김충영 : 껌테기 성곽만 보고 가게 해서는 또 안 된다. 우리 문화를 체득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놓고 가게 해야 되는데, 성내에서 전통문화를 찾아볼래니까 눈을 까뒤집고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옥은 이미 다 망가졌고, 성내는 도시계획선 그어서 길 내면서 한옥들 다 철거해서 효용도가 높아지니까 한옥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양옥들, 빌딩, 상가들을 지어 갖고, 성내 모습은 다 의미 없는, 족보도 없는 이런 동네가 되었고. 그래서 전통을 찾다, 찾다 찾은 게 성내에 옛날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잘 살려 내자. 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옛 거리를, 옛 문화를 살려 내자, 그런 생각이예요.

이는 결국 그간의 수원 도시개발이 하드웨어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원은 수원



1970년대 화서문 일대(1977년)



화성개발사업 이후 화서문 일대(2011년)

다운 특색 있는 문화를 갖지 못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충영 : 우리 수원은 지금 특징이 없습니다. 인구가 114만인데, 수원은 이렇게 가면 200만이 되도 수원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곽? 그거는 그냥 수원에 땅에 붙어 있는 놈이지, 그건 수원의 문화라고 볼 수 없어요.

정자동 토박이 평양 조씨의 후손으로 일제 말기 설립된 남문 밖 광덕상회를 이어 받았던 조용호도 수원다운 문화적 특색의 결여에 대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원에서 급격한 도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외형만 있고 내용이 없는 안타까운 변화였다는 것이다.

조용호 : 그래 내가 수원시장보고 그런 거야. 당신 뭐 수원시가 무슨 백만이 넘는 도시고 무슨 화성이 그거. [그렇지만] 사상이 죽은 도시는 소용이 없다 그거야, 사상! 응? 정신이 없는 도시! 내가 얘기야. 수원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 없는 좋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게 효(孝)다, 그거야. 응? 화성? 그거 하지 말고 외국에다, 한국에 가면 수원에 가서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를 배워라! 그건 진짜 인간의 정신의 뭔가 어떤 걸 느끼는 것 같다! 그걸 해야 수원이 발전이 되지, 여그다 뭐 호텔이나 하나 더 이쁘게 짓고.

이는 수원이라는 도시를 만든 정조의 판단에 경기 남부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그의 효심이 깃들어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행개발론'은 성곽을 짓고 건물을 올린다고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무엇이 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조용호 : 내 주장은 그거여. 수원이 무슨, 내줄 게 뭐 있어. 아, 저기 로마 가면, 로마보담 여기 이건 뭐 건물도 쪼끄맏고 무슨 뭐, 또 수원이 그랬다! 이게 잘된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 또 또 모범을 보이고, 다른 도시에서도 모범이다 보면 한국적인 어떤 상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잘하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무슨 그까짓 건물을 보러 와요? 뭐, 성 보러 옵니까? 인간적인 따뜻한.



효행기념관 수원시는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1987년 파장동 지지대고개 근처에 효행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위락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효행기념관을 건립하였다. 효행기념관은 정조의 효행과 관련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전시하였으나 콘텐츠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2010년에 폐관하였다.



행궁동 공방거리 행궁동 공방거리는 화성행궁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수원시가 도로와 건물 외벽을 정리하면서 공방과 갤러리들이 입주하면서 조성되었다. 특히 주말이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상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특화된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개발되어야 할 효행의 문화가 결코 전통시대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이 경북 김천의 해장국집에서 겪은 경험을 예로 들었다. 40대 시절 한 해장국집에서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추가로 시켰는데, 식대를 지불하면서 보니 추가주문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주인은 ‘서비스’라며 받기를 사양하였다는 것이었다.

조용호 : 깜짝 놀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남을 수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여보 내 나 이 팔십이 다 돼 가지고 운동삼아 일하는 거지, 나 이뿔이뿔 먹자고 하는 거 아니요. 오늘 난 나 먹고 살 만큼 벌었으니 베푸는 거” 라는 거야! 와! 얼마나 한국적인 거야? 외국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의 정서야. 응? 근데 그런 사례는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맥여 주고 재워 주고 싸 주고 그러는 문화! 뭐 효자비, 무슨 열녀비, 나는 그거는 이렇게 중요하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저희 아버지 위해서 넓적다리 찢라 가지고 고깃국 끓여먹고 그게 뭐 자랑이야? 그거는 인간이 안 할 것이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문화거든! 응? 그러면은, 수원이 성곽도시다, 이거에서 거기다 뿌라스 효! 뿌라스 인간! 뿌라스 봉사! 그걸 해 봐요! 세계에서 없는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성곽이 그게 무슨 대단한 거야? 정조의, 정조의 바로 그 사상이 백성을 생각한 거거든. 백성이래는 거 뭐예요? 백성이래는 거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백성도 아니에요. 못생기고 못 배운 사람이고 천민도 하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동등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을 만들어 주지는 게 경제정책 아니야? 그것을 살려야죠!

그는 광덕상회의 영업이 한창 활발하던 시절에 부친으로부터 꼭 지켜야 할 도리라 배운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돌아가시기 직전 유훈처럼 들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거 제일 먼저,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우리 광덕상회가 제일 먼저, 수원서 제일 먼저 문 열고 문 닫는 집이여. 부지런해라. 그 다음, 비록 상인이래도 양심을 속이지 말라. 응?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버님이 강조한 게, 하루에 세 끼 밥 먹을 만큼만 벌어라. 그게 부를 너무 갖지 말라는 거지. 하루에 밥 세 끼 먹을 만치만 벌어라. 우리 아버지 신조가 그거예요. 좋은 얘기죠?”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실 무렵이 가까워서 하신 말씀은 욕심을 갖지 말고 베풀고 살라는 것

이었다. “사회에 조끔 베풀어라, 베풀고 살아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 상인들이 우리 아버지 저 뜻을 살려야 됩니다! 응? 상인이 욕심을 가지면, 아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들도 욕심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상인이 점포를 계승할 아들에게 평소 너무 많은 돈을 벌지 말도록 가르치고 베풀고 살라는 유훈을 남기는 일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논리만으로 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여 오히려 위기에 처한 시대를 넘어서기 어렵다. 상인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삶의 리듬을 지켜 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소위 ‘슬로우 라이프’의 정신이기도 하다.

수원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수원이 라는 도시의 특성 중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와도 같은 존재라는 점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존재가 그러한 ‘농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보증하였다면, 일제시기에는 농사시험장(그리고 그 전신인 권업모범장)과 수원고등농림학교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수원 화성 건설은 정조가 조선 농업의 중심적 근거지로 수원을 키우려던 기획이기도 했다는 점이 있다. 수원 토박이들에게 수원에 있던 농사시험장(현 농촌진흥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떠나, 무엇보다도 도 그저 버찌를 따러 다니던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다.

면담자 : 예. 수원, 인제 역이 있고 도회지고 막 이랬으니까 일제 때 공출물량 같은 것도 다 일로 다 모여들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정규호 : 전엔 역하고 수원 시내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럼 이 종로에서 뺨스가 한 대가 다 났다고. 그러면 지금 말하면 꼬깃꼬깃한 돈 꼬불쳐 났다가 뺨스 타고 인제 저 모범장 가는 거야, 진흥청 위위까지 가니까, 뺨스가. 갔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면담자 : 아, 모범장에 가는 뺨스예요?

정규호 : 예. 그 모범장에 가면, 거기서 소로 [길리] 이렇게 올라오면 뺨씨가 많았던 말야, 벗!

면담자 : 아, 버찌.

정규호 : 벗나무, 그 까만 거. 그거 따 먹는 재미에 거기를 그냥 그 뺨스 타고 가서 그걸 털





서둔동 농촌진흥청과 서호 일대 서둔동은 조선시대에는 둔전이, 일제시기에는 권업모범장이,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농촌진흥청이 위치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농업 연구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2003년에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이 이전하였고 농촌진흥청도 2014년에 전라북도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과거의 명성만 남게 되었다.

어서 집으로도 가고, 주로 그런 재미로들 타고 대냈지. 근데 하여튼 돈 그거, 우리가 돈이 있나 그때? 꼬깃꼬깃 감춰 둔 거 어떻게 해서 타고 가고, 누가 태워 주면 타고 가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먼저 수원을 떠나고 농촌진흥청의 전라북도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그 부지는 시민의 쉼터를 겸하는 농업박물관으로의 변신이 모색되고 있다. 정규호가 한창 그곳에서 놀며 즐길 때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농촌진흥청의 이전이 결정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치적·역사적 의미는 남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역시 축제나 가요제 등 행사가 있을 때 수원 시민들이 몰려들어 함께 즐기던 현장이었다.

정규호 : 지금도 아직은 시험답(試驗畝)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저것도 떠나야 될 판이니깐 걱정이예요. 그래도 농업도신데 그냥 다 떠나가고, 학교도 떠나고 진흥청도 떠나고 해서, 난 잘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버찌를 따러 다니던 그곳이 수원의 농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주는 역사적 보루로 자리를 잡았음이 확인되는 이 설명을 듣고, 이 ‘농업도시’ 라는 인식이 수원 사람들에게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단호하였다.

정규호 : 아, 그럼,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냐? 정조 때도 여기, 만석꾼도 많고 다 그때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을 많이 썼는데. 수원도 이게 이주도시예요, 이게. 수원이. 아시지? 저 병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주해 온 거야.

정조의 구상에 의해 사람들을 이주시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농업도시, 그리고 그 성격을 근대적인 것으로 이어낸 일제시기의 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과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청, 이 역사가 사라진다는 점에 대한 수원 토박이들의 위기감은 남다른 면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시가지들 조금만 벗어나면 펼쳐진 수원 들판의 논에 허다하던 물고기와 너구리가 모두 사라지고 난 후, 그나마 남아서 수원을 지키고 있던 것들마저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위축되고 있는 토박이들의 삶과 정체성의 지속에 대한 회구이기도 할 것이다. 그 회구의 대상이 되는 수원 사람의 수원 사람다운 특색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 3. “발가벗고 팔십 리를 뛰는 수원 깍쟁이”를 넘어서

수원 사람들의 심성을 표현할 때 흔히 등장하는 상투어 중 하나가 ‘수원 깍쟁이’ 라든가 “발가벗고 팔십 리를 뛰는 수원 사람” 이라는 표현이다. 수원 사람들의 소위 ‘독한 면’ 을 표현한 것인데, 영통동의 토박이인 이정우의 경우 전부터 노인들한테 많이 듣기는 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군대에 가서라고 하였다. 그는 이런 표현이 확산된 것이 자기 지역 사람들을 챙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해

고 있었다. “지역 편중 나오는 게 그게 군대 가서 그 술어가 엄청 많이 퍼지는 거 같애. 지역적인 편중이 엄청 많아요, 군대 가서도. 아, 우리 군대 가면, 경기도 사람들이 쫓병이 들어오면 얼마나 위해 주는데. 그래서 도별 차이가 나고. 그 얼마나 지역 편성이 많은데, 군대에서.” 결국 자기 지역 사람을 챙기려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단합을 도모하고 남과 차별화하려는 언설들이 자꾸 인용됨으로써 확산된다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지역 편성’에는 수원 토박이인 당사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주민들에게 차별적인 구조로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연고나 경험적 지식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정우 :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친목계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그런차별 같은 걸 안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쪼끔 그런 거를 느끼는 거 같애. 왜냐면 우리는 학교관계도 있고 하는데 학우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자꾸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고 하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걸 좀 느끼더라구. 하여튼 친목계에서도 선후배가 있잖아.

수원 자체가 이주민들의 도시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주민이 토박이가 된 후 새로운 이주민들에 대해 암암리에 배타적으로 되는 특성이 수원에서도 작용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조용호 역시 수원 토박이들의 배타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던 식당의 주인이 전라도 출신이라면서, “외지인들 잘 안 받아들이는 게 수원이여. 그래 수원 깍쟁이 소릴 듣는데, 여기 이 사람은 나하고 만난 지가 지금 한 40년 넘는데도 나는 전라도, 경상도, 무슨 타 지방 사람이라면 더 위해 줘. 왜 그러냐? 수원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외지인들 계속 버리는 문화라면 수원은 발전 없다.”고 강조하였다.

‘수원 깍쟁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 김에 그에게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구했다. 그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거나 어디 적어 놓 건 없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이렇잖우.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서는 게 구전 아니야?"라며 나름의 설명을 시작했다. 정조가 화성을 축조한 후 수원을 중심도시로 삼아 큰 변화를 이루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자 19세기에 수원은 황폐화된 도시로 변했고, '수원 각쟁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 타지 사람과 수원 사람 간의 이해 부족의 결과라는 것이다.

조용호 : 정조가 화성 축성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수원을 중심도시로 해 가지고 뭔가 이나라에 큰 변화를 이뤄야겠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룩할라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원 화성이 근 백여 년이 넘도록 황폐화된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면담자 : 아, 예.

조용호 : 응?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았어요? 여기서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는 농토가 있습니까? 화성 성안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삼남에서 서울로 인제 과거를 보러 가든 저 안성 쪽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수원 길을 택하는데, 수원에만 누가 하나 맥여 주고 채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도시가 황폐되다 보니까. 여유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렇게 저, 대개 어떤 부락에를 가면 양반이든 부호든 간에 집안에서 맥여 주고 채워 주고, 또 뭐한 사람은 차비도 좀 주어 보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수원은 그게 없잖아, 일체 그게 할 수 없고 베푸는 사람도 없고! 그러게 여기 수원에 오면, 쉽게 말해서 되려 밥값을 내야 밥을 얻어먹었어. 응? 여기 생활이 그리 운택허질 안 허니까. 성안에 뭐가 있어. 일절 없어. 뭘 먹고 살겠어? 옛날에는 농사짓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니까 수원에 가면은 돈을 내야 먹을 수 있다.

면담자 :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조용호 : 응.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아주 나쁜 말이 각쟁이여. 아주 천민이라는 거지. 각쟁이란 게 아주 천민을 지칭하는 거라. 그러니 수원놈들은 아주 지독한 놈들. 응?

일단 얘기가 시작되자 그는 “수원 사람 발가벗겨도 팔십 리는 간다.”는 수원 사람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속언에 대해서도 나름의 설명을 이어 갔다. 역시 정조와 관련된 내력이었다. 그에 따르면,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입시시키려 한 화산은 십리 밖 백리 이내라는 왕릉입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서울 남대문에서 수원 장안문까지 거리가 100리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80리라 표현하는 언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야 사도세자의 묘가 위치한 화산이 100리 안쪽이 되기 때문이



었다. 그런데 정조의 비호가 각별하였으므로 수원 사람들은 남들이 흔히 하는 관변 상납 등을 앓고 현릉원과 수원 화성을 매개로 한 정조의 권위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정조가 서울서 수원 사람은 야경이래도 밤에, 쉽게 말하면, 수원 간다 그러면 내보낸 거야! 응? 그러니 그냥 서울의, 지금으로 하면 그 관리인들, 그 아전들이 도대체 땡전 한 푼 안 쥐, 수원 사람은.” 이런 점을 알뜰게 본 타지 사람들이 “정조가 그냥 보호하니까! 저 수원놈의 새끼 빨가벗겨도 [서울에서 수원까지] 팔십 리를 간다, 응? 저거 옷 벗겨도 갈 놈들이다.” 하여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조운호의 ‘수원 각쟁이론’의 주요 내용인 19세기 수원 황폐화에 대해서는 그 자신조차 특별히 근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20세기 초에 찍힌 사진들에 이미 수원성이 상당히 퇴락한 상태였다는 점이라든가, 그 시절 수원의 인구가 만 명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등이 그 정황으로 설명될 뿐이었다. 한편 그는 이로부터 동학사상의 적실성과 전봉준의 선각자적 면모, 그리고 경부철도가 안성으로 가는 경로를 택하지 못함으로써 20세기 들어 수원이 다시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정우는 그가 지적한 외지인에 대한 차별구조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박이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고향이 살기 편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내가 토백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연관이 되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자기 고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그는 수원 토박이의 입장에서, 고향에서 익숙한 옛것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였다.

이정우 : 자꾸 보면 옛것이 자꾸 없어지는 게 그게 좀 아쉽지. 옛것을 좀 살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옛것은 자꾸 지금 없어져. 젊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옛거를. 향시, 뭐든지 옛것이 자꾸 살아나야 저희도 따라가는 거지, 옛것이 완전히 사라지려는, 어디나 사람이 뿌리가 있는 건데, 식물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옛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아쉬워요. 전 화성 행성(화성행궁) 같은 것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정조대왕 같은 걸 하는 것은. 그 안에서는 사람들은 개발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옛것을 살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고장에 대한 애정은 토박이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의 문제인식과 비판의 지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령 정규호는 화홍문 복원과 관련 하여, 화홍문의 칠간수문 상류 하상(河床)에 심어진 나무가 홍수 때 화홍문을 다시 파괴할 위험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규호 : 용두각 위로 저기, 푸루장수영장, 광고 푸루장까지 가면 나무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큰 나무가. 옛날에 수해가 안양에 났는데, 이 미루나무가 떼내려가 가지고 다리를 막아서 수해가 컸거든, 안양에? 이걸 난 없애라는 거야, 노상 얘기가 그걸 캐서 옮기든지 비튼지 개울 바닥에는 심지 말아라, 그게 내 주장인데, 먼저 시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호우가 내렸을 때 직접 현장답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자꾸 얘기해 봐야 뭐. 작년에도 내가 일부로 비 많이 왔을 적에 나와 보니까 그, 억새풀이 한 이 메타 된다고, 자라면, 우리 키 일 메타가 넘어요, 그거. 한 이 메타 돼요. 그게 풀이 하나도 안 비고 물 그쪽 내려갔어, 작년에도. 그런데 돌아보면은 [나무가] 쓰러져서 가서, 하나 쓰러지면 연쇄야, 연쇄로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쓰러져] 떼내려온 나무가 한 번 걸쳐 보라고, 이게 안 떼내려가나. 이게 두 번 떼내려갔다가 세 번째 세운 거예요, 화홍문이.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타당성 여부가 아니다. 토박이로서 갖게 된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정이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이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소중한 부분이다.

인구 백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한 수원이 현재 부딪혀 있는 문제들은 단순할 수 없으며, 이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이 요원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러나 그 답은 누군가 혹은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점차 물위로 떠오르듯이 드러날 것이다. 자신의 고장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일에 더욱더 많은 토박이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 그리고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토박이로서





수원을 대표하는 화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은 토박이는 물론 이주민에게도 수원 사람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의 의식과 활동을 키워 나갈 때, 이 과정이 시작되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을 김충영 국장 식으로 '문화' 라고 보든, 조용호 회장 식으로 '사상' 이라고 보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에 성곽만 있고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 식은 수원 토박이들에게 이미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의 삶을 통해 만들고 채워 나가는 과정이,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정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수원이 본래 이주민들의 도시라는 정규호의 지적은 수원에서 토박이와 이주민 사이의 구별이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점을, 수원 사람으로서의 통합이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에서 보아 온 것처럼 수원에서 화성 성곽을 채우는 그러한 문화적 전통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제부터의 수원 도시개발이 담당해야 할 과제 역시 이 지점에 있을 것이다. 정조가 시작했으나 화성 건설 이후 온전히 끝을 맺지 못했던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서의 수원 만들기는, 현대화된 거대도시 수원의 문화역사적 정체성 형성을 통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 3

##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수원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의 중요성과 문화적 전통이 약화되면서 수원시의 정체성도 위기에 처해 있다. 농업도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해체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원시가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라는 수원시의 정체성 재정립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1. 수원의 중심, 성 안
2. '가진 자' 들의 공간, 성 안
3. 호호부실(戶戶富實) 인인화락(人人和樂) 에서 '북수리 아리랑' 으로
4. 북수동 113번지 주영식 일가
5. 북수동 사람 주덕수

김 현 미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01 | '성 안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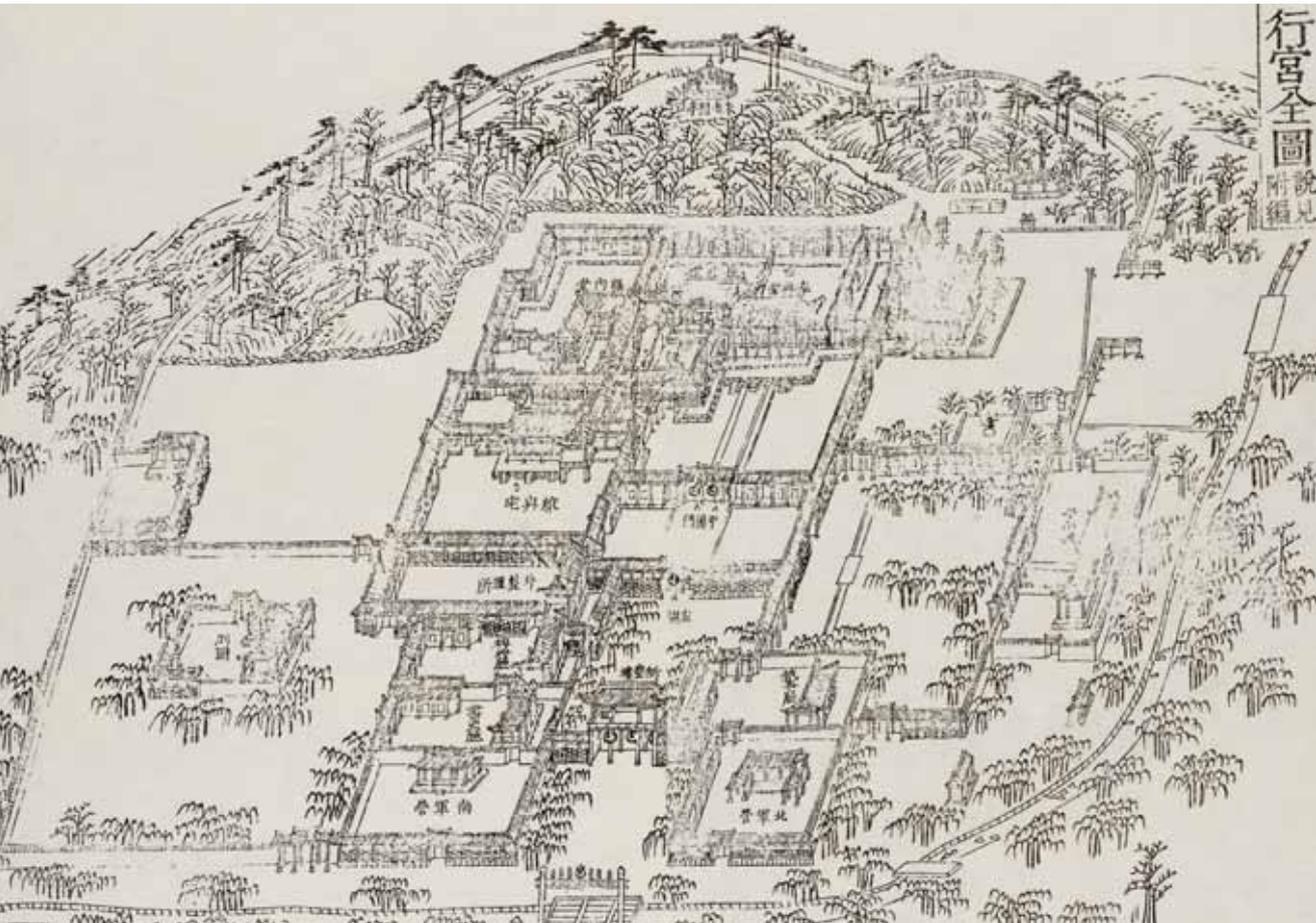
## 1. 수원의 중심, 성 안

수원의 중심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떤 이는 시청이 있는 곳을, 어떤 이는 수원 역전을, 또 어떤 이는 남문 일대를 말할 수 있겠다. 시청은 행정의 중심이고, 수원역은 교통의 중심이고, 남문은 전통적으로 수원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관점에서 수원의 중심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 팔달산 아래 화성행궁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행궁과 수원부 읍치를 둘러싼 화성 안이 된다.

화성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花山)으로 옮기기 위해 천장예정지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 조성한 신도시로, 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이 화성 성곽이다. 화성이 건설되기 전 이 일대는 수원부 읍치였던 화산의 외곽으로 매우 한적한 지역이었으나 읍치 이전 후 수원부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신도시 화성은 관아·행궁·도로 등의 시설과 주거와 상업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춘 한양의 배후도시가 되었다. 특히, 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과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화성의 서쪽으로 팔달산이 있고 그 아래 성 안의 중심 위치에 화성행궁이 자리잡았다. 행궁은 정조가 현릉원으로 능행차를 할 때만 왕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평상





화성행궁(『화성성역의궤』)

시에는 수원부의 관아로 사용되었다. 행궁 주변으로 부속 건물들이 배치되어 관가(官街)를 형성하였다. 성 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행궁의 전면에 위 아래로 놓여 있고 이 도로는 행궁 앞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도로와 만나 십자로를 형성하였다. 이 십자로가 지금의 종로사거리이다. 성 안에는 도로와 나란하게 흐르는 천이 있어 성 안 공간을 동과 서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천의 서편은 행궁 및 관청

등 주요 행정시설들이 자리하였고 이에 따른 고위 관료들이나 상류 계층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동편은 주민들의 살림집과 넓은 평지가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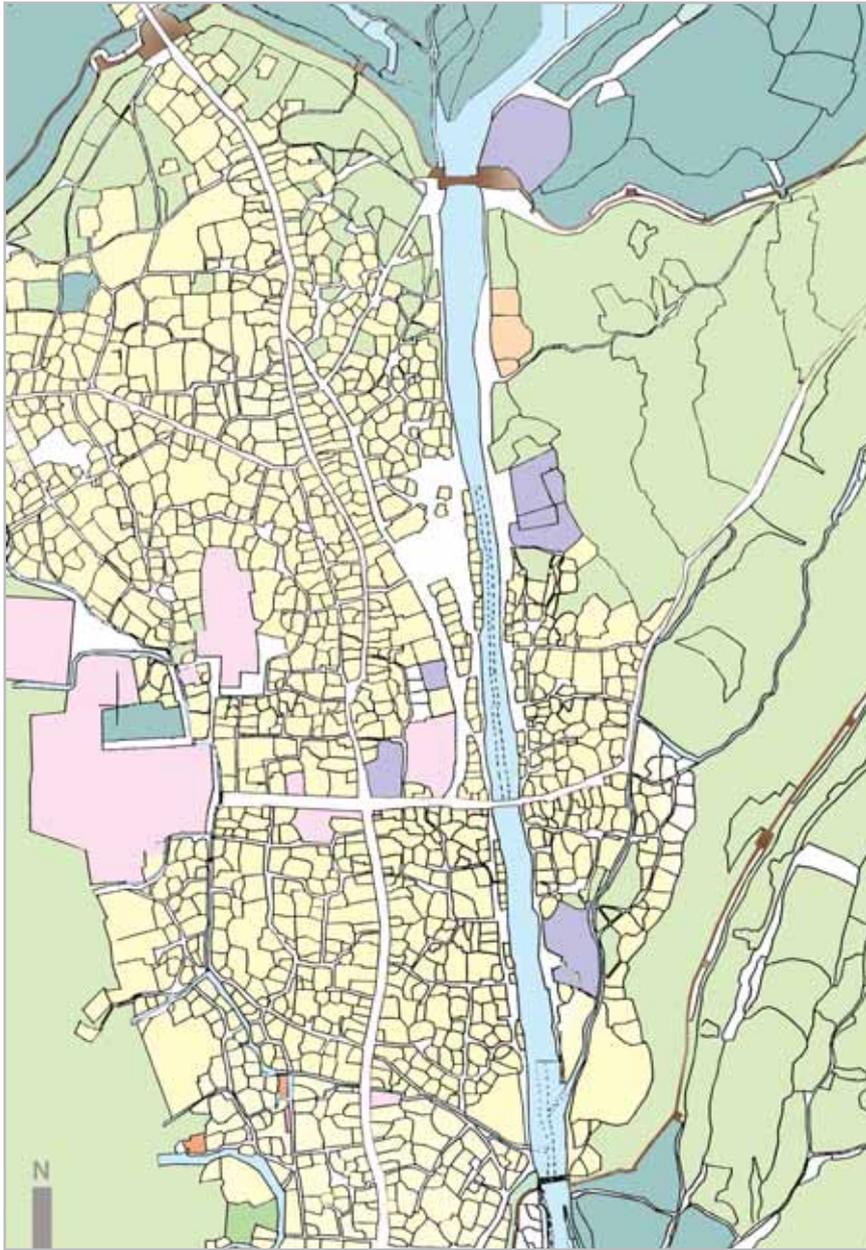
조선시대에 성 안은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북부면과 남부면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가 단행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남창리, 남수리, 북수리, 신평리, 산루리, 매산리 등 6개 리가 수원면으로 묶이면서 성 안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들 6개 리 가운데 성 안 지역은 남창리, 남수리, 북수리, 신평리이다. 남부면의 남창동이 남창리가, 남수동과 매향동이 남수리가 되었고, 북부면 북수동과 보시동이 북수리, 군기동·신평동·장안동이 신평리가 되었다. 현재 성 안에는 북수동, 장안동, 신평동, 남창동, 매향동, 남수동, 팔달로1·2가 등의 마을이 지형지세를 이용한 성의 구조에 따라 위치해 있다.

성 안의 마을들은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 양편에 형성되었다. 도로 서편의, 행궁이 자리한 신평동은 관가의 전통을 가진 곳이다.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시기도 경찰서, 법원, 토목관구, 수리조합, 학교 등 관공서가 들어섰다. 신평동 남쪽의 남창동은 성 안의 부촌이었다. 특히 일제시기에는 일본인 관리들이나 사업가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이후에는 영동시장 상인 가운데 부를 축적한 이들이 이주하였다 고 한다. 그 유명한 99칸 양성관 가옥도 남창동에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남창동은 대지가 100평 이상 되는 한옥들이 즐비하였고, 국회의원이거나 병원장 등 수원 지역 유명 인사들의 주택이 많았다고 한다. 신평동 북쪽은 서민층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안동이다. 도로 동편의, 북문에서 종로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인 북수동은 남쪽과 북쪽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이다. 남쪽은 옛 보시동으로 조선시대 성 안 최대의 변화가였고, 북쪽은 주거지였다. 종로사거리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도로 양편은 팔달로1·2가로 전통적인 상업지역이다. 팔달로는 팔달문 밖 중동사거리에 이르는 팔달로3가로 이어진다. 이들 수원천 동편 지역에 비해, 수원천 서편은 조선시대 주민들의 살림집과 넓은 평지가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고 지속적으로 서민층 주거지의 경관을 보여 왔다.

초기의 성 안 변화가는 행궁 앞 십자로, 지금의 종로사거리 일대였다. 그러다가





1910년대 성안 도시체계

일제시기에 남문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매산로가 등장하였다. 한말부터 수원에 이주한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는 성내에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의 수원역 쪽에 자리를 잡았고 이를 계기로 수원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된 것이다. 일본인들이 수원역을 주변으로 일본인촌을 형성한 것은 교통의 편리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부철도 부설 당시 수원 사람들에게 형성된 반일 정서 탓이기도 했다. 반일 정서로 인해 수원의 유지들이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수원역전 상권은 점차 성 쪽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산로가 개발되면서 수원역에서 남문으로 이어지는 상권이 형성된 것이다. 1920년대 일본인 상공업자 현황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역전과 남문 일대에 몰려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종로사거리 남쪽의 상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쪽의 보시동과 신평동 일대 도로변에 형성된 성 안 상권은 수원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남문 상권에 비해 많이 침체되었다.

영건 당시부터 수원의 중심지 기능을 하던 성 안은 근대적 사회 변동과 함께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조선왕조의 멸망은 행궁을 중심으로 성 안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읍치의 권위를 보호하던 물리적 구조물인 성벽은 근대적 도시공간에서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더구나 일제시기 행궁과 성벽 훼손, 한국전쟁 시 성문 파괴 등을 거치면서 성 안은 좁고 쇠락한 곳일 뿐 더 이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없었다.

그 결과 1959년 수원시청이 교동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성 안은 행정 중심지 기능을 잃게 되었다. 더불어 1970년대 화성 복원사업과 1980년대 동수원 개발로 성 안은 공동화되기 시작하였고, 200년 전 수원의 중심지로서 ‘특권’ 과 ‘동경’ 의 대상이었던 성 안은 이제 오래된 ‘향수’ 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 2. ‘가진 자’들의 공간, 성 안

화성은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물·시





19세기 성 안(「화성도」, 수원박물관 소장) 서쪽으로 행궁이 자리하고, 종로사거리 위쪽으로 팔부자 거리가 그려져 있으며 시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장·도로·거주자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갖추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정조는 이를 위해 화성에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다. 즉 각종 국가적 '특혜'가 신읍치 부흥책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구읍치에서 신읍치로 이주한 자들은 정조가 베푼 각별한 특혜를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 무덤인 현릉원 조성 공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조는 10만 냥이라는 큰돈을 수원부에 지급하여 이주비용을 충당하게 했다. 그리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빚을 탕감해 주고, 연로한 자들의 벼슬 품계를 높여 주었

다. 또한 수원부의 유생과 무인만을 위한 특별 과거를 실시하고 근속기간이 오래된 교속(校屬)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정조는 이러한 조치들로 수원부의 이주민이 빠른 시간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먹고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수원에서 문무과 과거시험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은 구읍치 이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화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화성을 변화한 상업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화성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원을 거주자 가운데 경제력이 있고 장사를 할 줄 아는 자에게 자본금을 빌려 주어 시전을 개설하게 한 것이다. 당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시전을 개설한다는 것은 큰 특혜였다. 입색전(立色廛)·어물전(魚物廛)·목포전(木布廛)·미곡전(米穀廛)·유철전(鑰鐵廛)·관곽전(棺槨廛)·지혜전(紙鞋廛) 등이 행궁 앞 십자로에 들어서자 이 일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였다. 정조가 바라던 대로 화성이 대도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시전 일대에 형성된 팔부자 거리의 명성은 번성했던 성안의 모습을 현재까지 전해 주고 있다.

이처럼 화성은 국가적 특혜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는데, 이는 성의 '안'과 '밖'을 사회적으로 구분 짓는 의미를 내포한다. 성벽을 통해 구분되는 성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즉 그 구분선은 '권력'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었다. 영건 당시부터 성 안은 왕권을 상징하는 행궁과 관청, 금권을 대표하는 시전 등이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관리와 부유한 상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성 밖 지역과는 생활수준이 달랐다.

화성이 건설되고 약 100년 후인 1909년경에 작성된 「민적통계표」를 보더라도 수원군 관리와 상업 종사자의 70~80%가 성 안 지역이 속해 있는 북부면과 남부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북부면과 남부면은 성 안 지역 외에도 많은 동리가 포함되지만, 남문 밖의 산루동·매산리·교동 등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이므로 관리와 상인들은 대개 성 안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화성의 북쪽 관문인 장안문(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성안은 성밖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대한제국기까지 성 안의 주요 세력은 관리층이었다. 1789년 최초로 화성에 이주한 구읍치 거주민이 224호였는데, 관아에 근무하던 관속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읍치라는 특성상 거주자 중에는 관속들이 많았다. 수원부의 새로운 읍치로 건설된 화성은 행정의 중심지였고, 1896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관찰부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성 안의 관리층이 더욱 두터워졌다.

그러나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후, 전통적 지배세력인 관리층은 몰락하고 일제가 이식한 자본주의에 눈을 돌린 상업 자본가들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수원의 유지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소위 1세대 수원 유지로 불리는 양성관·차유순·홍사훈·윤태정 등은 수원을 비롯해 용인·이천·안성·진위 등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양반가의 대지주가 아닌,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토지에 투자해서 지주가 된 사람들이다. 대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일제시기 수원의 유지들은 자녀들에게 근대적인 교육을 받게 하여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기호흥학회·교육사업 같은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성 안은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전근대시기에는 정치권력을 가진 관리가, 근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상인지주층이 성 안의 실세였다. 즉, 성 안은 성 밖과 구별되는, ‘가진 자’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호호부실(戶戶富實) 인인화락(人人和樂)’에서 ‘복수리 아리랑’으로

성역을 완성한 이듬해 정조는 화성을 둘러보고 “성역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호호부실(戶戶富實) 인인화락(人人和樂)’이 여덟 글자이다.”라고 했다. 화성을 세운 정조는 성 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모두 부유하고 즐겁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정조의 상업육성책으로 형성된 성 안 십자로 일대의 변화가는 “상업의 발달을 통해서 수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고 하여 ‘보시동(普施洞)’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보시동은 현재 복수동에 속하는 지역인데, 복수동은 남북으로 장안문 성벽에서 종로사거리에 이르고, 동서로는 성 안을 관통하는 정조로와 수원천 사이의 지역이다. 복수동은 장안사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구분이 가능한데, 위쪽은 원 복수동이고 아래쪽이 옛 보시동으로 1931년 이후에는 복수정 1구와 2구로 구분되기도 했다.

1914년 일제가 시행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복수리로 통합되었지만 원 복수동과 보시동은 성격과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보시동은 팔부자 거리와 우시장 같은 상업 기반시설을 갖춘 곳인 데 비해, 원 복수동은 화성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거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911년 「화성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고 집들 뒤편 수원천 쪽에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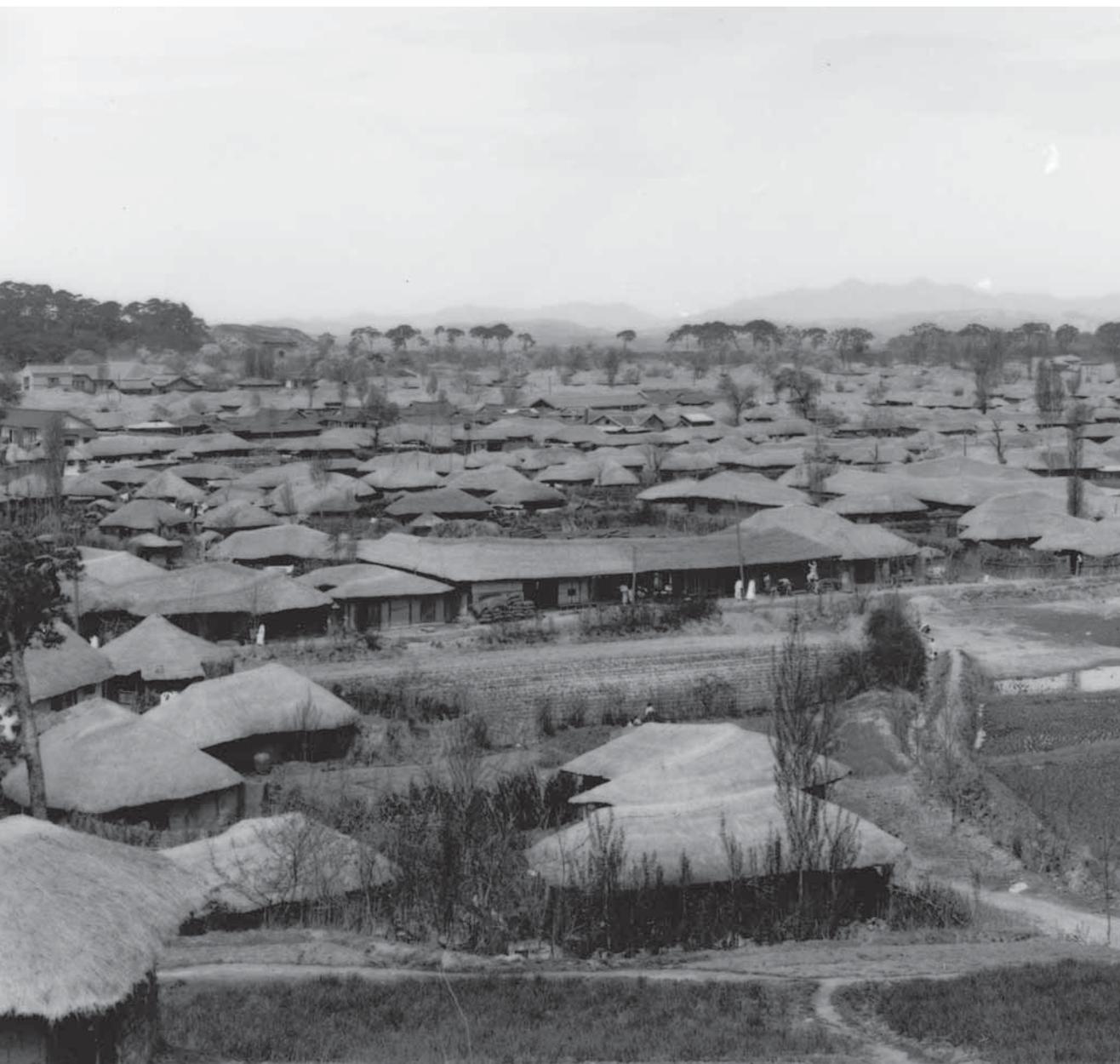
거지보다 논밭의 면적이 더 넓은 모습이 농지가 없는 보시동과 사뭇 대조적이다.

성 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시동도 근대적 변화에 휩쓸렸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곳은 수원 기독교의 성지로 변화하였다. 성 안의 풍요를 상징하던 팔부자 거리에 성당이 세워지고 십자로 한가운데에 교회가 들어섰다. 1897년에 화성 왕림성당의 알릭스 신부가 당시 천주교 조선교구장 뮈텔(Mutel) 주교에게 매물로 나온 30칸짜리 팔부잣집을 성당 부지로 매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것이 복수동성당의 시작이다. 100년 전 종로사거리에 세워진 수원종로교회는 수원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다. 미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수원을 경기도 선교의 거점으로 선정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리와 양반층의 반대에 부딪혀서 처음에는 원 복수동 지역의 초가를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세가 확장하면서 지금의 종로사거리에 교회를 세웠다. 수원 최초의 개신교 교회는 이렇게 해서 화성 장용영의 영의 사령부인 중영이 있던 곳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중영은 천주교 박해 당시 신자들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팔부자 거리에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고 화성의 부속건물인 중영 터에 개신교 교회가 들어섰다는 것은 화성의 영화가 이미 몰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호호부실 인인화락' 하기를 원했던 정조의 바람과 달리 100여 년 후 화성은 부가 한곳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한때 화성의 번영을 대표하던 복수동은 가난으로 인한 슬픔이 넘쳐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당시의 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수리와 신평리 주민 중 350여 명이 4-5일씩 조석반을 해결하지 못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명절(名節)이 부자(富者)에게는 한 희열(喜悅)이 되고 빈자(貧者)에게는 고통(苦痛)거리인 것은 수원(水原)뿐 안일 터이나 수원 성내(城內)에 빈민(貧民)의 극궁(極窮)한 참상(慘狀)은 볼 수 없는바 더욱이 심(甚)한 동리는 복수리, 신평리 양 리인데 현재 4-5일씩 조석반을 끌리지 못하여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사람이 신평리에 30~40여 호, 매호에 5인씩만 할지라도 350여 명에 지날 것인데 그들 동정하여 주는 이가 없고 그네의 고통은 점점 심하여 가는바 음력 세말은 닥쳐와 노인은 줄임을 부르짖고 이해들은 남의 집이 부러워 기근을 들켜 치고 설 차리기를 졸르는 등 참아 당치 못할 정경으로 사회를 원망하고 인생을





일제시기 북수리 일대(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저주하여 마지않는다.〈「네댓새씩  
굴머서 통々히부은이」, 『동아일  
보』, 1925년 1월 19일〉

「주요도시 순회좌담」에서도 1930년 당시 성 안 북부 지역의 열악한 현실이 언급되었다. 화성학원이 기생촌으로 유명한 남수리에 위치한 것은 부적절하니 기생촌을 옮기는 것이 합당한데 이왕이면 화홍문 근처로 옮겨 성 안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다. 또한 종로에서 북문에 이르는 신작로의 하수구가 모두 막혀 여름장마 때 물난리를 겪었지만 당국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스스로 일제가 자신들과 상관없는 데 신경을 쓰겠냐는 자조적인 원인 분석을 했다. 일 본인 상권이 형성된 남부는 당국에서 주거환경에 신경을 쓰지만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북부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지광』 1929년 6월호에 실린 「수원 북수리 아리랑」은 당시 북수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 수원 북수리 아리랑

- |                                    |                                    |
|------------------------------------|------------------------------------|
|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br>아리랑 살고개로 넘어간다. | 아리랑 타령이 왜 생겼나<br>슬픈 눈 가슴이 미여진다.    |
| 2. 밭 가는 농부네 아리랑은<br>도조와 장리가 걱정일세.  | 일 년 열두 달 지여 논 것은<br>누구의 곳집을 채워 주나. |
| 3. 제사장 여직공 아리랑은<br>시집갈 미천이 걱정일세.   | 기계는 돌아서 돈을 넣고<br>돈은 돌아서 어디로 가나.    |

이렇게 점차 쇠퇴하는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동진회' 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북부에 중등학교를 건립하는 등 수원 북부 발전책을 도모하였으나 일제의 감시와 여러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호호부실 인인화락' 을 지향했던 성 안 북수리는 100여 년 만에 도조와 장리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노동을 착취당하는 여직공들의 슬픔으로 미여지는 곳이 되어 버렸다.

## 4. 북수동 113번지 주영식 일가

영건된 지 200년이 지난 2011년 현재 화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1만 4,000명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수원 토박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100년 넘게 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일하게 대를 이어 오는 것으로 알려진 집안이 있다. 물론 그동안 지번이 바뀌고 집 모양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성 안 토박이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하고 성 밖으로 이주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끈기 있는 집안이다. 북수동 정주 주씨 주덕수의 집안이 그 주인공이다.

이 집안의 수원살이는 주덕수의 증조부 주사옥(周使玉)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집안 내력에 대해 전해지는 족보나 여타 자료들이 없고 주덕수가 조부와 부친에게 자세한 들은 바도 없어 단편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을 조합해서 짐작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주사옥이 1874년에 사망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주씨 집안이 수원에 들어온 것은 적어도 1870년대 이전으로 보인다. 그러니 150여 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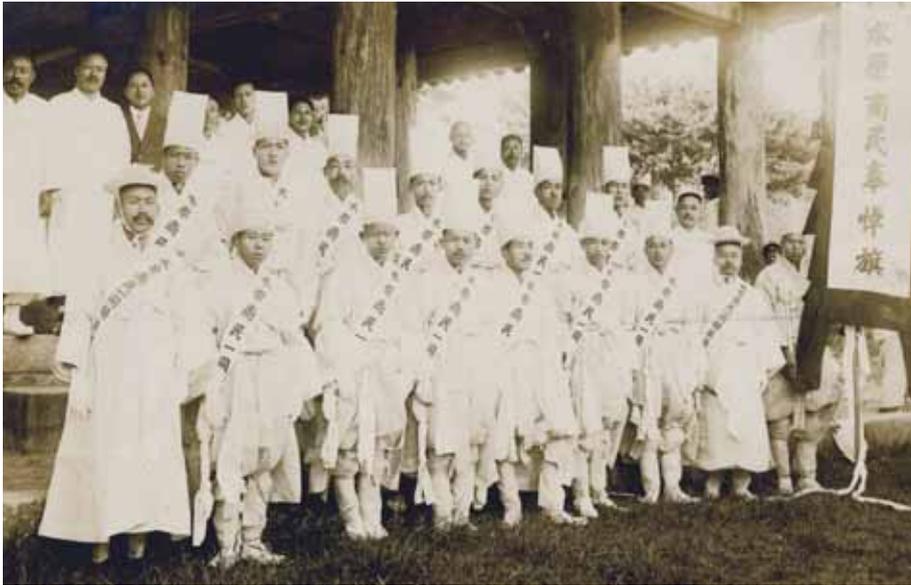
수원 성안에 살고 있는 썸이다. 그 사이 집은 여러 번 모양이 바뀌었고 주변의 풍광도 달라졌지만 집주인은 상속을 통하여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로 이어 왔다. 현재 호주는 주덕수이다. 주사옥을 1대로 치면 주덕수는 4대이고 현재 동거하는 그의 손자들은 6대가 된다. 국어사전에 토박이를 “대대로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으니 주덕수는 분명 수원 토박이다.

주씨 집안은 복수동 부잣집이었다. 이 집안은 주영식 대에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1900년의 광무양안에 10칸 와가와 10칸 이상 되는 초가 소유자에 주씨 집안이 없는데, 1910년대 초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보면 주영식은 복수동 157번지(현 113번지) 대지 외에 영화동·화서동·정지동·조원동 등지에 60마지기(4정보)가 넘는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 읍내 전역에 걸쳐 전답을 사들였다. 1950년 농지개혁 전까지 “영화동, 우만동, 복수동, 장안동 등 일대에서 복수동 주씨네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1920~1930년대 신문의 수원 유지 관련 기사에서도 주영식을 찾을 수 있다. 1925년 을축 대홍수 당시 수원구제의연회 일원으로 수재의연금을 냈고, 1927년 5월 15일 수원공술회에서 개최한 수원공술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1930년 수원의 유일한 무산아동 교육기관이었던 화성학원 유지를 위한 기금 모금 참여자 명단에 이름 올렸다. 1926년 순종 장례식 당시 수원상민봉도단 명단에 주용순이 올라 있는데 당시 주용순의 나이가 20대 중반임을 고려하면 주영식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 아들 주용순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영식은 수원의 제1세대 유지로 분류되는 양성관, 홍사훈, 차유순 등과 동년배이다. 이들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걸쳐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이었고, 주영식은 수원 읍내에 토지를 소유한 중소지주였다. 1세대 수원 유지들은 토지자본을 기반으로 한 상업활동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역을 넓히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주영식은 제일고보에 다니던 장남 주용순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집안에 재산이 많으니 굳이 더 배우거나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 그늘에서 살기를 원하였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



1926년 순종 인산에 참여한 수원상민봉도단(수원박물관 소장)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주용순이다.

마도 서울로 유학 보낸 장남이 '사상 물'을 먹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주영식의 모습에서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수원 상인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주용순은 부친의 뜻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복수동에 머물렀다. 그리고 1940년 무렵에 복수정 2구 구장을 맡아 보며 집안의 재력을 이용해 배급소를 운영하였다. 일제시기 구장은 지방행정조직의 말단으로, 동리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였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으므로 동회 업무는 구장의 집 한 칸에서 맡아 보는 것이 관례였기에 구장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 가운데 선출되었다. 주용순이 복수정 2구 구장이 된 것도 이런 사정에서였을 것이다. 동회 사무실과 배급소가 사랑채에 있었기 때문에 집은 항상 분주했고, 끼니때가 되면 가족 외에 객들을 포함하여 50~60명분의 상을 차려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주영식은 113번지 집을 장남인 주용순에게 물려주고 골목을 사이에 둔 채 마주

보이게 145번지에 집을 지었다. 이 집에서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과 살다가 해방되던 해에 작고하였다. 미혼의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자 145번지 집은 빈 집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전쟁 때 피난민들이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는데 결국 전쟁 후에 피난민에게 팔렸다. 개성에서 '송고직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 내려온 허진이라는 사람이 145번지 집에



노년의 주용순(주덕수 제공) 복수동 113번지 집 안방에서 찍은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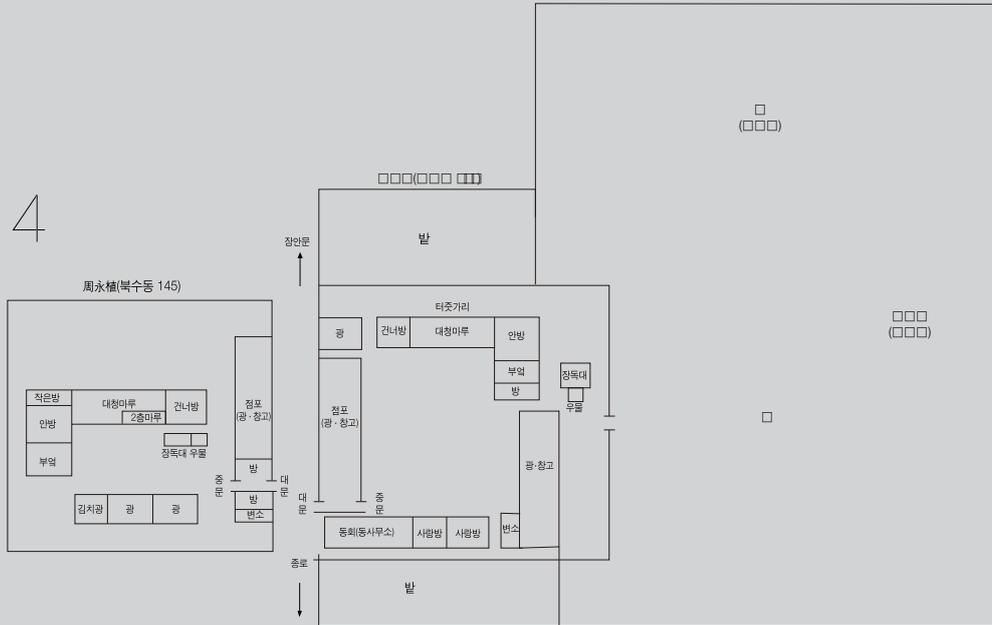
서 2년 정도 피난생활을 하다가 집을 샀다. 당시 복수동에서 이 집을 매입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던 터에 돈이 있는 피난민이 구입한 것이다.

113번지 집은 드물게 중문을 둔 구조였다. 주덕수는 남창동의 99칸 양성관 주택을 제외하고 중문이 있는 유일한 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다만 지붕은 기와가 아닌 초가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주덕수는 당시에 벗짚이 너무 많아서 그걸 소비하기 위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복수동 주씨네는 체면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부잣집이었을 것이다. 초가지붕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기와로 엮었다. 1985년에 건물 일부를 허물고 장독대와 우물 옆에 붙여서 50평 규모의 2층 양옥을 지었다. 구옥은 세를 주어 계속 사용하다가 2001년 작은아들 결혼 당시 신혼집을 지을 때 모두 허물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수원시장이 된 이백일이 113번지 집을 문화재로 지정하자고 찾아왔을 때 주덕수와 부친이 반대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내세우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집을 허물고 생긴 마당은 150평가량 되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영식은 일제시기 대개의 수원 부자들이 그렇듯 장사로 돈을 모아 대부업으로 그 규모를 늘려서 토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



주덕수가 그린 북수동 정주 주씨 가족 평면도 왼쪽이 나중에 주영식이 지어서 이사한 145번지 집이고 오른쪽이 주덕수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113번지 집이다.



북수동 113번지의 주택들(주덕수 제공) 아래의 기와집이 1908년에 주영식이 지은 구옥이고, 바로 뒤의 2층 양옥이 1985년에 주덕수가 지은 집이다. 양옥 왼쪽의 연립주택은 주덕수가 건설사업을 할 때 지어서 분양한 칠성연립이다. 현재 구옥은 없고 그 터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큰 변동 없이 복문 상권과 생활권 안의 삶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며 산 것 같다. 아들 주용순도 부친의 뒤를 이어 집안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을 보면, 이들은 입신양명보다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더 무게를 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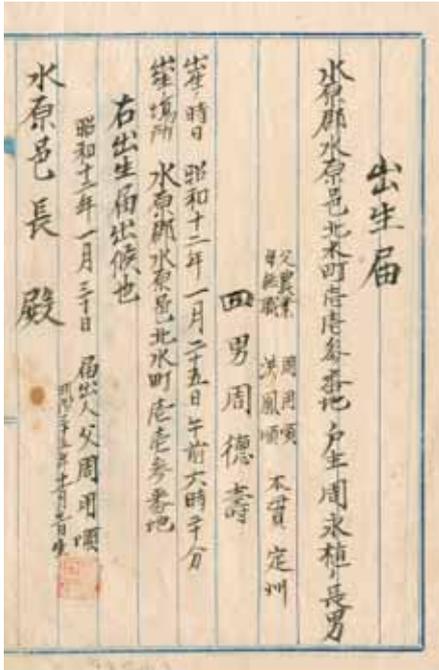
## 5. 복수동 사람 주덕수

복수동 정주 주씨 주덕수는 수원군 수원읍 복수정 113번지 주용순의 4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주용순은 농업에 종사하고 어머니 홍봉순은 주부였다. 출생일시는 1937년 1월 25일(음력 12월 13일) 오전 6시 20분이고, 출생신고는 1902년생인 아버지 주용순이 1937년 1월 30일에 하였다. 주덕수의 출생신고서에 적힌 내용이다.

음력 정월 생이던 주덕수의 누이는 같은 해 선달에 남동생을 보는 바람에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다행히 부유한 집안이라서 남문의 상점에 가서 분유를 사다 먹였다. 1930년대 후반의 수원 읍내 본정은 변화한 상업지역이라서 웬만한 생필품과 사치품은 구입할 수 있었고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쇼핑하러 가기도 어렵지 않았다. 주덕수는 어린 시절에 '모리나가 미루쿠' 카라멜, 바나나, 미짱 등을 간식으로 먹었고 그의 집 창고에는 상점에서 구입한 일본제 고급 먹거리들이 많았다고 한다.

주덕수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흥학교에 다녔다. 주덕수는 1944년에 신흥공립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는 입학경쟁률이 세던 때라 입학시험을 실시했는데, 시험은 면접 형식의 구두시험으로 진행되었다. 교장선생님을 포함하여 4명의 교사들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고 일본인 면접관이 질문하면 한국인 교사가 통역을 했다. 면접관은 책상 위에 트럭이나 비행기, 탱크 등의 모형을 올려놓고 일본어로 말해 보라고 했다. 신흥공립국민학교를 일본어로 말해 보라고도 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비행기나 탱크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대가족 안에서 살던 주덕수는 형과 누나들에게 귀동냥으로





주덕수의 출생신고서(주덕수 제공)



주덕수의 둘 사진(주덕수 제공) 왼쪽이 같은 해에 태어난 누이이다. 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물들의 옷차림과 배경의 비단 커튼이 부유한 가정임을 짐작케 한다.

주위들은 지식과 당시 유행하던 『코주부영감』이라는 어린이 만화를 통해 알고 있던 내용 등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신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4대가 신평 동문인 가족을 선정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주덕수 가족이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사양했다고 한다. 성 안만 놓고 보면 유일한 4대 동문 가족이긴 하지만 수원 전체로 보면 선배들이 여럿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평국민학교 2학년을 다닐 때 해방을 맞이하였다. 더 이상 신사참배나 일본어 수업은 없었다. 해방 후 신평국민학교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 교실이 부족해 지자 화성행궁 낙남헌을 교사로 사용했고 2부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덕수는 음악, 미술, 습자, 공작, 철봉 등 예체능 과목을 좋아했고 남들보다 잘하였다. 집에 아코디언과 하모니카가 있어서 이것들을 연주할 수 있었는데, 고학년 때는 취주

악대 활동을 하면서 서울중앙방송국에 올라가 합주를 한 적도 있다. 조희 애국가·교가 제창 때는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기도 했다.

주덕수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다. 서울로 통학하는 삼촌과 고모들을 보면서 서울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서울의 양정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갔다고 한다. 당시는 중학교가 6년제로 현재의 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형태였기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니까 양정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굳이 양정중학교를 선택한 건 기차 통학을 고려해서였다고 한다. 서울역 구내를 나와서 맞은편을 바라보면 만리동에 있던 양정중학교가 보였다. 어린 마음에 그 정도 거리면 수원에서 기차로 통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입학시험 전날 부모 몰래 혼자서 기차 타고 상경하여 서울역에서 하룻밤 자고 시험을 본 후 집으로 내려왔다. 당연히 집안은 발각 뒤집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것도 집안 어른들의 충애를 받던 주덕수가 무단 외박을 했으니 난리가 난 것이 당연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데 집안 식구들은 또 한 번 놀랐다.

부친은 주덕수가 수원농림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였다. 공립이고 집에서 가깝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수원에는 몇 개의 중학교가 있었는데 공립학교는 수원농림중학교가 유일하였다. 결국 부친의 뜻을 따라 수원농림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양정중학교는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모른다.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친은 주덕수가 수원공립농업학교와 수원고등농림학교를 나와 농산물검사소에 취직한 큰 형처럼 지내기를 원했던 모양이다.

주덕수가 다닌 수원농림중학교는 양성관 등 수원의 유지들이 대거 참여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설립된 학교이다. 1936년 수업연한 5년에 농과 1학급 55명의 수원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하였고, 초대 교장은 경성공립농업학교의 교장이 겸무하였다고 한다. 개교하던 해 12월에 현재 위치인 영화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47년 10월에 수원농림중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고, 학제 변경에 따라 1951년 8월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림고등학교로 분리 개편되었다. 수원농림중학교에 입학한 주덕수





수원농고 재학시절(주덕수 제공) 모자에 붙은 교표가 일명 '아리랑 교' 자이다.

는 수원북중학교 3회 졸업생이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개전 초기 북한군의 전세에 밀린 국군은 서울이 위협해지자 수원으로 육군본부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평택으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군 일부 병력이 남아서 장안문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북한군의 전차포 공격에 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수원에 남았던 국군 병력도 철수하였다.

그 후 전쟁 중에 장안문은 문루가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덕수는 장안문이 부서지던 당시 집에 있었다. 그의 집에서 서너 집 건너까지 시신의 일부

와 건물 파편이 날아와 떨어졌고 이 파편이 다리에 박혀서 고생한 친구도 있었다. 장안문 주변에 쌓인 잔해들은 오랫동안 주변 거주자들의 땀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잠시 동안의 용인 피난시절을 보내고 주덕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수원농림중학교는 폭격으로 교사가 무너져 교실 수업이 불가능하였다. 전시라서 천막도 구할 수 없어 학교 뒤편 할미통수바위 근처에서 수업을 했다. 책상과 의자는 없었고 양달에 모여 돌을 의자삼아 교과서도 공책도 없이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학교 신축 공사에 동원되었다. 수원역에 원조물자가 도착하면 학생들이 하역작업을 담당하였다. 전쟁 기간 3년을 주덕수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생각한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다. 3학년 때는 수원, 서울, 기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편입하였다. 학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개편되는 바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주덕수는 또다

시 수원이 아닌 서울의 사립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가 뻔한 터라 조용히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수원농고에 입학하였다. 당시는 수원농고를 졸업하고 서울농대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관례적으로 특혜를 주었다. 이러한 특혜는 수원농고가 '전통 있는' 학교라는 중장년층의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원농고는 그리 인기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더구나 수원농고 교모에 붙은 '高' 자가 흘림체여서 '아리랑 고(高)' 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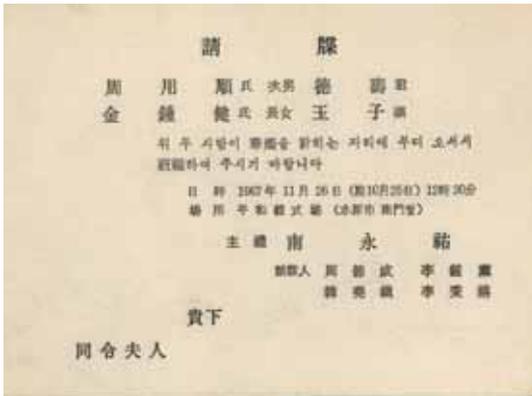


대학생 주덕수(주덕수 제공)

주덕수는 농사짓는 것이 싫어서 축산과에 입학하였다. 농사보다는 그래도 병아리나 소 키우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소설 『먼동』의 저자 홍성원이 축산과 동기생이다. 수원농고 입학생 가운데 수원 출신은 별로 없었다. 고등학교를 보낼 형편이 되는 수원 시내 사람들은 자식들을 대개 서울로 진학시켰다. 학생 대부분은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의왕,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 출신이었다.

대학만은 꼭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입학 정보를 수집하였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알아보다가 중앙대학교에 국문과에 지원하였다. 다행히 부모님이 별로 반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내고모부가 막아섰다. 막내고모부는 중앙정치권과 끈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명지대학교 전신인 서울문리사범대학 설립자가 있어 주덕수의 입학을 청탁하였다. 돈 드는 사립 대학교에 왜 가느냐며 중앙대학교 진학을 반대한 것이다. 주덕수는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2년제 서울문리사범대학 사회생활과에 들어갔다. 소위 '낙하산' 입





주덕수의 결혼 청첩장(주덕수 제공) 청첩인 명단에 이병희가 보인다. 결혼예복 차림의 주덕수(주덕수 제공)

학이라 학과도 배정받았다. 희망하던 학교와 전공이 아니라서 학교생활은 재미가 없었다. 2년 내내 서울 시내 구경을 다녔고 넉넉한 용돈으로 음악 감상실이나 극장을 찾아 다녔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 본 적도 있었다. 졸업 후 군에 입대해서는 대학 졸업 학력 덕분에 정훈 특기병으로 복무기간 내내 편하게 지냈다.

제대 후 집에서 잠시 쉬다가 취직을 했다. 사촌매부인 이병희의 도움으로 '코리아 헤럴드'의 전신인 '코리아 리퍼블릭' 총무국에 일자리를 얻었다. 이병희는 용인 출신으로 육사를 졸업하고 1962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을 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밑에서 서울시지부장을 맡을 만큼 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정치세력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또한 1960~1970년대에 수원의 국회의원을 지낸 실세 정치인이었다. 개인용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지만 평소에 관망하던 직장이라서 주덕수는 직장생활이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북수동에서 서울까지 가는 16인승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였다. 출퇴근이 힘들어서 서울에 사는 작은 집에 기거하기도 하면서 12년간 근무하였다.

1967년에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인 32세에 결혼을 했다. 중매도 이병희의 측근이 주선하였다. 용인 수지가 고향인 김해 김씨 대농 집안의 아가씨였는데 아버지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느라 인계동 철도관사에 살고 있었다. 결혼식 주례는 당시

수원시장 남영우가 했다. 수원 평화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는데 신랑이 예복으로 흰색 넥타이를 한 것은 수원시에서 처음이라 할 정도로 멋있는 신랑이었다고 한다. 신혼여행은 부잣집답게 자가용을 타고 온양온천에 다녀왔다.

1971년에 부친이 주덕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코리아헤럴드에서 관리부·자재부·총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주덕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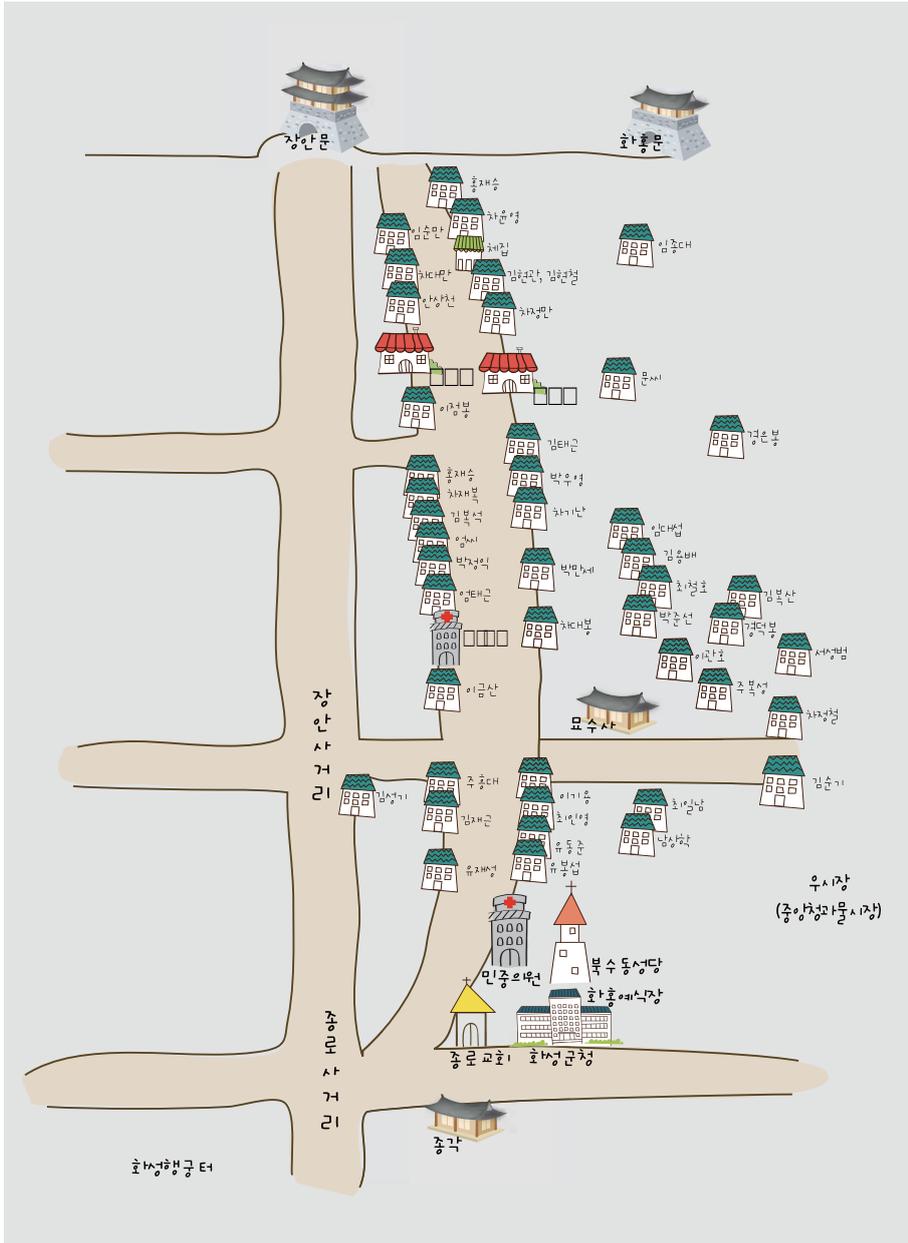
내려왔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여윌돈으로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댔다. 사업은 코리아헤럴드 재직 당시에 이미 발을 걸치고 있었다. 부친이 주신 돈으로 남이 하는 사업에 투자 형식으로 결합하여 동업하는 방식이었다. 자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거래업자들과 함께 인쇄잉크, 인쇄용지 등을 취급하는 사업을 했다. 주덕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먹고살 만한 형편이라 별로 마음 쓰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업은 주택건설이었다. 1980년대 정부는 도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계획을 세워 주택보급률을 높이고자 했다. 주덕수가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시류에 편승한 셈이다. 그러나 뒤늦게 뛰어드는 바람에 별로 재미를 보지는 못하였다. 주택사업 역시 동업이었다. 1981년에 정치동에 사무실을 둔 효성주택건설(주)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정치동 최초의 아파트인 송학아파트를 지었다. 복도식 13평형, 21평형, 26평형 등 총 138세대 6층 1개 동을 지었는데 1982년 10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금도 남아 있다. 1983년에는 아주대학교 근처에 34평형, 30평형, 24평형 6층 4개 동을 지어 분양하였다.



신축한 양옥의 거실에서 찍은 주덕수 부부





주덕수가 기억하는 1950~1960년대 북수리 사람들

뒤를 이어 정자동에 효성 아파트, 복수동 114번지 집 옆에 칠성연립을 지었다.

사업을 그만둔 후 주덕수는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외가는 수재들이 많이 난 남양의 남양 홍씨 집안이고, 처가는 용인 수지의 대농인데다가 1960~1970년대 수원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이병희가 사촌매부여서 든든한 집안 배경 탓에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함께 활동하지는 제의가 이어졌지만 워낙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수원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에 동창회나 반창회 같은 학교 모임만 참여를 하고 있다. 50대 후반부터는 수원과 화성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며 수원시의 여러 학술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평생을 성 안 복수동에서 살아온 주덕수는 자신의 삶이 그리 '특별' 하지 않기에 토박이로서 이야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110만 명이 사는 수원에서 이제 성 안 토박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 되었다. 특별한 것 없이 살았다지만 주덕수의 삶은 성 안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성 안은 수원의 중심지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수원을 좌지우지하던 공간이었지만, 근대적 변화 속에서 그 자리를 하나씩 내주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성 안을 떠나 새로운 삶과 '희망' 을 찾아 떠났지만, 주덕수는 묵묵히 시대의 변화에 순응해 가는 삶을 선택하였고, 성 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부모가 물려준 삶의 틀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근래에 와서 주덕수는 성 안 토박이로서 주목받게 되는 일들이 늘었다. 2013년 9월에는 일본 NHK에서 제작하는 수원 화성에 관한 프로그램의 수원 가이드로 참여하여 성 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토박이들이 지역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낸 데 비해 '나서기' 를 싫어한 그는 수원 지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성 안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전달하여 확산시키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수행해 가고 있다.





1. 수원의 동족마을의 형성과 특징
2. 수원 지역 증친회 상황
3. 증친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4. 증친회 토박이들의 정체성\_이기형과 조용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5. 증친회 토박이들의 토박이 의식

윤택림 |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 02 | 수원 지역 종친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sup>1</sup>

어느 지역이나 대표적인 토박이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족마을을 형성하면서 세거하여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수원 토박이들의 삶과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원 지역에서 동족마을을 형성해 오면서 종친회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수원 토박이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원 지역 종친회 회원들이 살아온 역사는 바로 수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수원 지역 종친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수원 지역의 주요 동족마을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종친회 활동 상황을 알아보겠다.

### 1. 수원의 동족마을의 형성과 특징

수원의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은 1789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신도시 수원을 팔달산 아래에 만든 것이었다. 옛 수원부 읍치는 지금의 용주사와 용건릉이 있는 일대였다.<sup>2</sup> 그런데 수원의 주요한 동족마을들은 약 500년에서 300년 전,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수원의 동족마을들은 정조가 화성을 축조하기 이전에 이미 부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대 경기도의 동족마을을 조사한 자료<sup>3</sup>에 의하면 경



기도에서 수원군이 가장 많은 수의 동족마을을 가지고 있었다. 수원군은 117개의 동족마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동족마을이 많은 것은 수원이 양반 사대부들이 세거하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은 지리적으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성에 근접하여 일찍부터 지방 호족과 양반 사대부들이 거주해 왔다. 즉 사회적·정치적으로 볼 때 국가의 핵심지역인 왕도로부터 가까운 지역이 관료의 진출이나 정치적 재기, 그리고 학문과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sup>4</sup> 특히 남양만 일대는 서해안의 주요 교역 거점으로, 조선 후기 이 지역 양반 사대부들은 새로운 선진문물과 서양의 학문을 활발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해안을 따라 간석지의 간척과 구릉지의 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소금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sup>5</sup> 또한 화성 읍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양반 사대부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역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1930년대 주요 동족마을은 송죽리의 흥천 용씨, 파장리의 광주 이씨, 하광교리의 여주 이씨, 호매실리의 밀양 박씨, 권선리의 경주 김씨, 곡반정리의 반남 박씨, 신리의 탐진 최씨로 조사되었다. 1950년대 조사된 수원 지역의 동족마을 현황<sup>6</sup>을 보면 위의 7개 성씨 외에 정자리 평양 조씨, 울전리 남원 윤씨와 파주 염씨, 이목리 장릉 유씨, 망포리 전주 이씨가 추가되었다.

다음 그림에서 주요 동족마을의 분포를 보면 2012년 현재 수원시 행정지도상 하광교리, 조원리, 송죽리, 파장리, 정자리, 울전리, 이목리는 장안구의 북부에 속해 있고, 호매실리, 권선리, 곡반정리는 권선구의 서남부에 속해 있으며, 신리와 망포리는 영통구의 남부에 속해 있다. 즉 화성이 있는 팔달구 밖 남쪽과 북쪽에 주요 동족마을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한성에서 더 가까운 북부에 대다수의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를 보건대, 수원의 동족마을은 화성 행궁 건설 이전부터 한성에 근접하면서도 읍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원 지역 동족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중소 성씨들의 군집이라는



주요 동족마을 분포도

것이다. 1930년대 조사 당시 동족마을의 규모를 보면 60호 이상의 대규모 동족마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60호 미만의 중소 규모 동족마을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sup>7</sup> 이것은 수원이 삼남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토착 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정착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왕도로부터 근접하여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하여 대규모의 동족마을이 형성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



이다.<sup>8</sup> 조선 중기부터 계속되는 사회적·정치적 혼란으로 이 지역에서 출세한 집안은 한성으로 근거지를 옮긴 반면,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던 집안들이 선영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토박이로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수원 지역의 성씨집단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지명도가 떨어지는 성씨집단이 많으며, 중소 규모의 성씨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생활양식과 경제적·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sup>9</sup>

동족마을들이 수원 읍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었다면 수원 읍성 안에는 대표적인 몇 개의 성씨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이전하고 1793년 수원의 새로운 읍치를 '화성' 이라고 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당시 성 안은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근의 지방민들을 팔달산 아래로 이주시켰다.<sup>10</sup> 신읍치로 이주한 가구는 319호였는데, 그중 244호에 대한 정보를 『일성록』에서 찾을 수 있다.<sup>11</sup> 『일성록』에 따르면 이주 가옥의 주요 성씨는 본(本)을 알 수 없으나, 김씨·이씨·박씨·홍씨·최씨·안씨였다. 그리고 이들의 직역을 보면 양반 신분층인 유학(幼學)과 한량(閑良), 향리층인 하리(下吏) 등이 대부분이었다.

일제시기인 1914년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수원군은 20개 면으로 통폐합되었고, 화성 읍성을 중심으로 6개의 마을이 수원면을 구성하였다.<sup>12</sup> 1931년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1934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수원읍에는 김해 김씨 144세대, 전주 이씨 137세대, 경주 김씨 94세대, 밀양 박씨 90세대가 살고 있었다. 특히 성 안의 북수리에는 김해 김씨 70호와 전주 이씨 70호가 가장 큰 가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sup>13</sup> 수원읍은 1936년에 수원군 일형면, 태장면, 안룡면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시역이 확대되었고 인구수와 가구수는 약 2배로 증가하였다.<sup>14</sup> 해방 이후 성 안의 대표적인 성씨들의 가구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읍은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되었고, 27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1957년에 발간된 『경기도지』에 따르면, 수원시에서 70가구 이상 되는 성씨는 전주 이씨(88호), 경주 김씨(86호), 김해 김씨(77호), 밀양 박씨(76호), 청주 한씨(76호) 등이 있었다.<sup>15</sup> 이 중 1950년대 성 안의 중요 성씨 집단은 전주 이씨(신평동), 경주 김씨(북수동), 김해 김씨(북수동), 밀양 박씨(신평동)로 추정될 수 있다.<sup>16</sup>

1960년대까지도 수원 지역에는 동족마을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밀양박씨 밀성군파 후손들이 모여 살던 호매실동 지목마을(2000년)

는 동족마을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동족마을의 세거지가 모두 수원시 내로 통합되면서 그 흔적들만이 지명이나 후손들의 기억에 남아 있게 되었다. 수원 지역 동족마을의 급격한 해체는 1960년대 이후 수원의 도시화·산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7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은 농업도시에서 탈피하여 산업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 발맞추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선경합섬, 한일합섬,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수원에 생산기지를 가지게 되었고, 1980년대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확산되면서 수원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10만 명을 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수원의 구역 확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1963년에 화성군 일왕면·태장면·안룡면 일대가 시역으로 들어왔고, 1983년 용인군 수지면 일부가, 1987년에는 화성군 매송면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2013년 현재는 4구 56개의 법정동(40개의 행정동)이 만들어졌다.<sup>17</sup> 이러한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동족마을 세거지역들이 수원시로 편입되었



다. 1963년에 하광교리, 조원리, 송죽리, 파장리, 정자리, 율전리, 이목리(장안구), 권선리, 곡반정리(권선구)의 동쪽마을들이 수원시의 일부가 되었다. 1987년에 호매실리의 동쪽마을이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신리·망포리의 동쪽마을은 1994년에 수원시로 들어왔다. 따라서 수원 지역 주요 동쪽마을들은 1990년대 중반에는 모두 수원시의 시역 내에 들어왔고, 도시화 과정에서 거의 다 해체되었다.

동쪽마을이 해체되면서 많은 성씨집단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많은 이주민들이 수원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박이들보다 이주민이 더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해서, 주요 동쪽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수원 토박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들은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친족집단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조상이 살았던 땅에서 선영을 돌보고 조상이 남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기제사와 경제적 상호부조를 통해서 동족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도시화로 조상이 살았던 마을을 떠나는 친족들이 생기고, 농지가 다른 용도로 변하였으며,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동쪽마을은 사라져 갔다. 이렇게 동성집단이 같은 곳에서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들은 동쪽마을이 아니라 도시생활 속의 동성집단이 되었다. 성씨집단들은 기제사를 중심으로 함께 조상을 모시고, 동족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현대적인 종친회의 형태로 바뀌었다. 예전부터 의례와 공동재산 관리라는 기능을 해 오던 문중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성씨집단을 대표하는 종친회로 변화된 것이다.

## 2. 수원 지역 종친회 상황

수원 지역에서 종친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로 보인다. 하광교동의 여주 이씨 종친회장을 역임한 이기형(1928년생) 전 수원공업고등학교(수원공고) 이사장은 수원 지역 종친회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기형 : 글썬요. 수원에 이제 그 종친회 하면은 이 수원을, 수원을 근거지로 한 종친회가 그리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원래 이 여주 이가(驪州 李家)가 수원 토박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 수원을 아주 그 근거지로 이렇게 해서 다 머리를 두고 일루 오고 일루 모이고 그러죠. [기침을 하며] 그런데 다른 이렇게 거리에 땡기다 보면은 무슨 시(市) 무슨 종중(宗中), 무슨 파(派) 뭐 종친회 사무실 뭐 이런 거 죽 있다고, 땡기다(다니다) 보면은. 근데 보면은 대개 다른 데에 본 종중이 있고, 여긴 지회 따위로 무슨 경기도지부다, 수원지회다 뭐 이런 식으로 간판이 붙었지. 여기 우리모양 그래도 여주 이씨면 여주 이씨 종친회. 이런, 이런 간판은 나 보진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 수원도 이제 본거지를 수원으로 해서 종친회를 맨(만)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 저 파장동에 광주 이씨(廣州 李氏)라든가, 또 정자동에 평양 조씨(平壤 趙氏), 인제 우리하고, 여기 곡반정동에 반남 박씨(潘南 朴氏)들이 있어. 반남 박씨. 아마 그 몇 집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송죽동에 홍천 용씨(洪川 龍氏)가 있어. 홍천 용씨. 그들만이 그래도 수원이 고향이라고 하고. 수원을 본거지로 삼고 있지,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아. (중략) 내가 그 지금 내가 불른(부른) 성씨들이 다 종친회가 있다는 얘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이면은(그들이라면) 종친회를 묶어서 수원을 근거지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대성이 여기 사니까. 그 아까 거기 저기에 홍씨가 또 하나 있어. 홍씨. 남양 홍씨(南陽 洪氏). [면담자 : 남양 홍씨, 네.] 남양 홍씨에, 그 홍씨는 대개 남양 홍씨 아닙니까? 근데 그 남양 홍씨 내에 당성 홍씨(唐城 洪氏)라고 하는 자처하는 집들이 있다고. 근데 그 당성 홍씨도 원래 남양 홍씨인데, 옛날로 올라가서 큰집이 당성집이고 작은덕이 있고 그래. 그래서 당성택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서신면 가면은 당성리라는 그 소지명이 있더라고. 간판이 있어. 이렇게 당성이라고. 근데 그 홍씨들 중에 속칭, 우리 여주 이가 보고 광교산 밑에 살기 때문에 광교 이씨 그래요. 응? 그런 게 많다고. 근데 그런 일체로 수원 홍씨 그런다고. 남양 홍씨인데, 수원 홍씨 그러는 홍씨들이 아까 얘기하던 홍사훈 씨, 홍사운 씨, 지금 수원 중고등학교 설립재단 그것도 수원 홍씨라고 그래요. 그 수원 홍씨들이 아마 종친회 묶었으면은 수원으로 올 거야. 화성으로 안 오고. 또 백씨(白氏)가 있어요. '흰 백(白)' 자에 백씨가 그 분이 수원이야. 수원 백씨. 수원 백씨 종친회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이기형 전 이사장에 의하면 수원을 본거지로 종친회 활동을 하는 성씨집단은 광주 이씨, 평양 조씨, 반남 박씨, 홍천 용씨, 여주 이씨, 남양 홍씨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중 이기형 전 이사장이 속한 성씨집단은 하광교동에 터를 잡은 학사공파





여주 이씨 선영 묘역 이장



수원공업고등학교 전경(수원공업고등학교, 『수원공고 30년사』, 2001) 여주 이씨 수원과 종친회는 문중 재산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선조인 이교(李孝) 선생의 인의선업(仁義善業)의 뜻을 따라 인계동에 있는 문중 소유의 터에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박천공 문중의 여주 이씨 수원파를 말한다. 여주 이씨 수원과 종친회에서 오랫동안 회장으로 활동했던 이기형 전 이사장은 1968년 문중에서 수원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설립추진위원회 일을 보게 되었다. 그는 1970년에 수원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된 후부터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이사장까지 역임하였다. 여주 이씨 수원과 종친회는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양평군 개군산면 일대를 문중 사람들과 함께 탐사하여 시조의 묘역을 찾는 일을 하였다.<sup>18</sup> 그리고 1984년에 시조 묘역 찾기를 그

만두고 시조 설단(設壇)을 세우기로 하여, 1987년 두 개의 단을 마련한 후 매년 10월 초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sup>19</sup> 학사공파 박친공 문중회가 수원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한 바는 1970년에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문중재산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문중 내에서 일어나면서 1968년에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이고(李臯) 선생의 인의선업(仁義善業)의 뜻을 따라 인계동에 있는 문중 소유의 터에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학교법인인 광인(光仁)학원이라 하였다.<sup>20</sup>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동족마을이었던 정자동의 평양 조씨도 현재 활발하게 수원 지역사회 내에서 종친회 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의 평양 조씨들은 평양조씨별좌공파사정공종회(平壤趙氏別坐公派司正公宗會)를 1979년 12월에 발족하였고, 조용호(1936년생)가 초대 종친회장이 되었다. 평양 조씨 종친회는 1980년 종친회 규정인 정관을 만들었고, 정자동에 조정회관을 지어서 종인(宗人)이 아니더라도 마을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열고 150명 정도의 종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종중의 재산을 활용하여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종인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90세가 넘으면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한 후손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sup>21</sup>

송죽동의 홍천 용씨들도 1980년대 초에 종친회를 정비하여 홍천용씨수원종친회(洪川龍氏水原宗親會)를 결성하였다. 홍천 용씨 종친회는 송죽동 솔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종친회 총무상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이 사무실은 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홍천 용씨 종친회의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와 묘지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새로운 족보를 발간하였고,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팔탄면에 문중 공동묘지를 구입해서 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sup>22</sup>

신리의 탐진 최씨는 중서령공파의 중시조인 6세 최응규가 수원에 정착하여 그 후손들이 여러 지파를 형성하였는데, 그중 부호군을 지낸 14세 최효충을 기세(欺世)로 삼아 부호군파라는 소중회를 조직하여 중층적인 문중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중서령공파 종회는 198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세류 선산 처리



송죽동 흥천 용씨 선산 묘역(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흥천용씨수원중친회 사무실

와 종종 재산으로의 등록문제로 재조직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신나무실의 부호군파는 신리가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택지개발이 추진되자 문중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에 탐진최씨부호군파종회(耽津崔氏副護軍派宗會)를 설립하여 상설 종회 사무실을 열고 침체된 중서령공파의 종회 역시 재조직하였다. 1998년에 탐진회관을 준공하여 부호군파 종회 건물을 짓고 상설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위 종회인 중서령공파 종회 사무실을 겸하고 있다.<sup>24</sup> 탐진최씨 부호군파종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진 최씨 부호군파 안성 선산 별초(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탐진 최씨 부호군파 시제(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활동은 시제와 별초다. 그리고 시제만큼 중요한 사업은 족보 편찬과 중서령공파와 부호군파의 통합홈페이지 제작이다.<sup>25</sup>

곡반정동의 반남 박씨는 입향조 청라공의 장남인 대승의 3형제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서도 셋째 성개공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58년 『반남 박씨 세보(世譜)』가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반정동 반남 박씨들은 1960년에 『반남 박씨(潘南 朴氏) 세양공파보(世襄公派譜)』를 출간하였다. 세양공파보의 편찬은 곡반정동과 인근 태장면 반월리, 동탄면 석우리의 반남 박씨들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보 편찬은 반남 박씨 청라공파 종중회로 발전되어 1970년대 중반에 종친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반남 박씨 청라공파 종친회는 조상에 대한 의례인 시제를 지내고 있고, 용인시 영덕리 종산인 석현산이 택지개발로 수용되어 이곳에 위치한 입향조 청라공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를 이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sup>26</sup>

이와 같이 수원 지역에서 주요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가 현재까지 문중조직이 종친회의 형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씨집단은 매우 적다. 이것은 수원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원시 내에서 토박이의 수가 적어졌고, 동족마을의 해체는 수원을 본거지로 하는 문중조직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종친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동족마을의 성씨집단은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고 조상에 대한 공동의 의례를 통해서 성씨집단의 결속과 화목을 다지기 위하여 문중조직을 만들었다. 문중조직이 활발해지는 시점은 18세기부터인데, 이때가 본격적으로 동족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 조상 중 유명한 관리나 학자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파종회가 형성되어 결속하게 되어 대종회에서 파종회로 분가하면서 자신의 조상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따라서 문중조직의 일차적인 목적은 조상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한 동족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였다.<sup>27</sup> 그런데 한 성씨집단이 한 마을의 대다수 인구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문중조직은 동족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문중조직은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조상에 대한 의례인 기제사와 시제를 모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지만, 동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마을 자치의 형태로서 마을공동체의 윤리 규범까지도 통제할 수 있었다. 즉 문중조직은 혈연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지연공동체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원 지역의 주요 동족마을들이 수원시의 시역 확대로 모두 편입되었고 도시화와 개발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성씨집단은 같은 마을에서 살지 않게 되었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혈연공동체로서의 성씨집단은 이제는 지연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고, 문중의 재산과 문중조직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문중조직들은 도시화와 개발 속에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고, 동족마을의 해체로 사라지는 조상의 묘역과 유제들을 보존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에 종손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문중조직은 종손 외의 종인들이 함께 관장하는 종친회로 현대적 변신을 하게 되었다. 수원 지역의 주요 문중조직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종친회 규약을 만들어 문중조직을 재편하여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수원의 문중조직들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문중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가지고 조상을 섬기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광교동 여주 이씨  
중친회 회장을 역임  
한 이기형 전 이사장  
은 수원공업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말하면서 문  
중의 재산에 대한 개  
념이 변화했음을 보  
여 주었다.



평양 조씨 별좌공파 사정공중회 정기총회(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이기형 : 네. 근데 그게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말을 정정하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은 우리,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별, 남의 걸 탐을 낸다거나 그 부(富)를 숭상을 한다거  
나 그런 집안이 아니고, 선비집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며] 자처하는 집안이에요. [땀자  
: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 옛날 조상 할아버지들 대대로 그 선비로 죽 선비정신을 살려왔  
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같은 것도 나라에서 옛날에는 높은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이랬  
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으로 내려오던 재산을 그 동안에 쪽 선대 할아버지들은 그것을 지  
키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알고 이렇게 왔지만은 수원공고를 설립한 까닭도 우리들이  
나이가 사십(40)이 넘어 오십(50)줄에 들면서[1960년대 말을 말함] 이제는 머리가 바뀌었  
다 이 말이지. 응?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그냥 보전해 가는 데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회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진 것도. (중략) <2012년 4월 2일, 오산시 자택, 1  
차 구술조사>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문중의 재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화성  
지역과 용인 지역에 속했던 이들 동족마을이 1963년부터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1960  
년대부터 시작된 도시 개발로 선산과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문중  
의 재산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문중의 재산을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용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광교동 여주 이씨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중의 재산을 재정비하여 인계동에 있는 문중의 토지에





개발 전 영통 신나무실 일대(수원시, 『수원의 동쪽마을』, 2006) 신나무실 탐진 최씨는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세거지가 모두 수용되면서 선산을 이장하였고, 문중조직은 토지보상비 관리를 위한 종친회로 변화하였다.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정자동 평양 조씨들은 도시 개발로 지가를 보상을 받게 되었고, 현재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근처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예전 종친회장 조광호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죽동의 홍천 용씨도 울전동 택지개발보상비를 받았고, 호매실동의 밀양 박씨 문중도 선산인 금곡동 일대가 '수원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영통동 신나무실 탐진 최씨는 오늘날 영통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두 영통개발지구로 편입되었다. 곡반정동의 반남 박씨도 선산인 석현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다. 수원시 편입과 도로 및 택지 개발로 문중재산의 수용은 문중재산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확인하게 했고, 이로써 문중들은 문중 규약인 정관을 도입하여 문중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친회로 재정비를 거치게 된 것이다.

문중은 조상을 중심으로 조상의 제사, 즉 시제를 지내기 위한 조직이었다.<sup>28</sup> 이렇게 종래의 문중조직이 지연공동체의 위상을 상실하고 혈연공동체로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종친회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 기능도 변화하게 되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상에 대한 의례가 가장 중요한 문중 활동이기는 하지만, 종친회의 정기총회는 시제만큼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탐진 최씨의 부호군과 종회가 정월 보름 전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는 100~150명 정도의 종인이 참여하는데, 음력 10월 9일에 모시는 시제에도 그만큼의 종인이 참여한다.<sup>29</sup> 왜냐하면 정기총회에서 종친회의 재산 관리와 운용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전후로 기존 동족마을의 문중조직이 종친회로 재조직되면서, 종친회는 개발에 대응하여 시조 묘역을 되찾거나 이전하고, 문중 공동묘지를 마련하는 사업을 해야 했다. 곡반정동의 반남 박씨는 택지개발로 선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과 선산과 혈연공동체의 결속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입향조가 정착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입향조를 모시고 시제를 지내게 된 것이다.

또한 동족마을에서 동족 내의 결속과 상호부조도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학사업이다. 예전에는 문중조직은 조상들을 위한 것, 즉 시제가 주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후손들이 잘되어야 조상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학사업이 아예 교육사업으로 발전된 것이 광고동 여주 이씨 종친회에서 이룬 수원공업고등학교 설립이었다. 이 외에 종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조하는 경우도 있고, 문중 공동묘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종친회의 위상은 상설 사무실의 운영에 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친회들은 문중의 재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종회 상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은 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같이 살던 마을이 사라진 상황에서 종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탐진 최씨 종친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젊은 세대 종인들과의 교류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상설 사무실의 운영과 홈페이지 제작은 도시화되고 정보화된 수원 지역에서 성씨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문중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





탐진 최씨 종친회관인 탐진회관(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원 지역의 주요 종친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분들이 자신의 성씨집단만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었다. 평양 조씨 종친회 회장을 여러 번 역임한 조용호는 평생 동안 수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 왔다. 현재에는 선친이 물려준 광덕상회 건물을 임대를 주지 않고 바둑사무소를 운영하여 지역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면담자 : 근데 회장님,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하시는 상회는 어떻게 됐어요?

조용호 : 지금 이제 관됐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바둑사무소를 거기다 꾸

며 가지고 그 바둑사무소 한 육십 평 돼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요 다 무료예요. 바둑도 두시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잡숫고 소주도 잡숫고 라면도 끓여 잡숫고 밥도 해 먹고 다 무료예요. 거기 오면. [면담자 : 노인정] [조장호 : 아니, 수원시 바둑협회 회장 노인정이 아니에요. 바둑. [면담자 : 그러니까 노인들이 오셔서 그런 거 다 하시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와요. 지금도 가면 몇 십 명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바둑협회를 해 가지고요, 세계대회도 했어요. 수원서. 68개국 초청, 70개국 초청했는데 두 나라만 못 오구요, 68개국 왔어요. 매년 전국대회를 해요. 대한민국에선 없는 대회를 합니다. 제가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울서도 우리 수원사무실에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중략) 제가 집세 100만 원을 받아 봤자 10년을 받아야 일억이여. 근데 십 년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일억 가지고 내가 그 돈 써 보지도 못하고 아들놈의 새끼가 쓸 텐데, 그 안에 베풀고 가자.

지금도 저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뭐 부산, 울산, 광주에서요 나 찾으러 오는 사람 많아요. <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 4. 종친회 토박이들의 정체성 \_ 이기형과 조용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수원 지역에서 동족마을을 형성해 살아온 성씨집단의 종친회 회원들은 가장 오랫동안 수원에서 살아온 토박이들이다. 이들 중 광고동 여주 이씨 종친회 회장을 지냈던 이기형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회장을 지냈던 조용호의 삶의 궤적을 보면 토박이 의식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기형과 조용호의 생애 연보와 수원의 시기별 변천을 <표 1>로 정리하였다.<sup>30</sup>

두 수원 토박이의 삶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우선 둘 다 화성 읍성에서 벗어나서 수원군 일형면에서 출생했으나 일제시기에 수원읍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표 1> 종친회 토박이 이기형과 조용호의 생애 연보

연도	수원시	이기형(광고동 여주 이씨)	조용호(정자동 평양 조씨)
1793	정조 17년 신읍치 화성 명명, 화성 유수부로 승격		
1796	정조 20년 화성 성역 완성		
1895	고종 32년 수원군으로 강동, 남부 면과 북부면(24동)으로 구분		
1914	수원군 수원면(6리)		
1928		수원군 일형면 하광교리 여주 이씨 동족마을에서 출생	
1931	수원읍(12정)으로 승격		
1936	수원군 일형면 일부 흡수하여 18정이 됨.		수원군 일형면 정자리 평양 조씨 동족마을에서 출생
1937		삼일소학교에 입학	
1940			수원읍 분정 11-6번지로 이주, 아버지는 영동시장 광덕상회(비단) 영업
1942		삼일소학교를 졸업하고 함북 청진의 정어리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중학교 야간을 다님. 집은 수원읍 지소정(연무동)으로 이사	



연도	수원시	이기형(광교동 여주 이씨)	조용호(정자동 평양 조씨)
1943			세류국민학교 입학
1945	해방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옴.	
1946		수원읍 서기로 발령	
1948	남한 단독정부 수립	국방경비대에 입대, 하사관학교 입학	
1949	수원시(27동)로 승격	2등상사로 진급	수원중학교 입학
1950	한국전쟁 발발	개성 만수산에서 후퇴하여 철곡군 369고지 전투에서 부상당함. 치료 받고 9사단 백마부대에 들어감.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1954		제대하고 돌아와 화성군 일왕면 농지담당이 됨.	
1955			성균관대 경제학과 진학
1959			성균관대 졸업하고 광덕상회 도움.
1962			수원시 공무원이 됨.
1963	화성군 일왕면, 태장면, 인릉면 일부가 수원시로 흡수(법정동 47, 행정동 16)	수원시 연무동에서 행정서사를 하다가 사법서사 개업	
1967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		
1968		여주 이씨 학사공파 박천공 문중회에서 수원공고 설립추진위원회 일을 보게 됨.	
1971		수원공고 설립 이후 학교 행정을 맡음.	
1972			대한체육회 총무과장으로 일함.
1978			경기도생활체육회 초대 회장
1979			평양 조씨 종친회 초대 회장
1983	용인군 수지면 일부(현재 영통구)가 수원시로 편입		
1985		여주 이씨 종친회 회장 역임	
1987	화성군 매송면(현재 권선구 호매실, 금곡동)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		
1988	수원시가 장안구, 권선구로 분구		
1993	팔달구 신설		
2003	영통구 신설		
2004		수원공고 이사장 역임	
2009	화성행궁과 그 인근인 장안구, 권선구 일부가 팔달구에 속하게 됨. 팔달구 일부가 영통구로 감.		
2012		은퇴	수원바둑협회 회장

다. 이기형은 하광교리에서 삼일학교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 해방 전에 가족이 지소정(연무동)으로 이주하였다. 조운호의 선친은 가족을 수원읍 본정으로 이주시키고 성문박시장(현 영동시장)에서 광덕상회를 열어서 사업을 했다. 이들의 수원읍 이주는 화성의 일제시기 변화와 관련이 있다.

신도시 화성은 관리들과 장인, 상인들이 거주하는 상업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화성은 ‘먹고살 거리’를 제공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sup>31</sup> 그런데 신도시 화성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도시가 재구조화되었다. 화성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 시기 화성 내부가 가지고 있었던 ‘꺼리’의 대부분이 화성 밖 팔달문에서 수원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었다. 수원은 경기 남부의 최대 도시로서 경부선으로 연결되면서 일제 식민 지배기구들이 설치되고 수인선·수여선과 연결되어 일제 식민 지배의 효율성이 작동하는 근대적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sup>32</sup> 1930년대 수원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어 인쇄, 직물, 곡자, 주류,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다.<sup>33</sup>

따라서 1931년에 수원읍이 생기고 1936년 수원읍이 확대되면서 부근의 동족마을 사람들이 농업을 그만두고 수원읍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생활의 터전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족마을에서 자영농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도 형편이 어려웠던 이기형 전 이사장은 삼일소학교(당시 6년제 학교)를 나온 후 함북 청진의 정어리공장에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중학교를 다니다가 해방되던 해에 졸업하였다. 일제 말기 농촌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서 이기형 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이기형 : (중략) 그래서 아무튼 내가 유년기를 지내 온 거는 참 너무도 참담해하게, 참담해하게 지내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 그것이 비단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수원시의 어지간한 사람은 거의 다 그런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학교에 가면은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이 태반이요. 음. 그 인제 못 먹은 학생은 그 학교 담임선생님 덕이 꼬끄 학교 울타리 밖인데 불러내서 점심도 교대로 맥이꼬먹이꼬. 그런 은혜도 입어본 적이 있구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원족(遠足)을 간다, 어? 국민학교 때 요새 말하면 소풍이지. 그 원족 가는 날 그래도 있는 집 자제들은 ‘벤또(べんとう)’ 라도 도시락이라



도 싸서 끓여지고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죠. 그래 가면 그 몇몇은 인재인제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그걸 먹고 앉았는데, 우리는 더 먹고 싶으니까 그걸 안 불러고보려고 또랑에 가서 가재 잡고말을 정정하며 가재 잡아먹고 그러 [말을 바꾸며] 유년기를 그렇게 우리가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나만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012년 4월 2일, 오산시 자택>

이기형 전 이사장은 가난으로 수원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없었지만, 조용호 회장은 부친이 광덕상회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일제시기에 성 안 아이들은 신평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일본 아이들은 매산국민학교에, 남문 밖 아이들은 세류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조용호 회장은 본정이 팔달문 밖이라서 세류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수원중학교(당시 6년제)에 진학하였다.

두 사람은 8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군대 생활과 한국전쟁 때 외에는 수원을 떠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군인이 된 이후 1953년 제대 때까지를 제외하고는 수원을 떠난 적이 없다. 조용호 회장은 한국전쟁 때 부산에 피난을 갔다 온 때를 제외하고는 수원을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닐 때도 기차로 통학을 하였고, 나중에 대한체육회에서 총무로 일할 때도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통근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수원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기형 전 이사장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원의 변화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해방이 되어 연무동 집으로 돌아와서 1946년에 수원을 서기로 일하였다. 또한 1953년 군 제대 이후에도 일왕면(1949년 이후 화성군 소속) 농지담당으로 일하였다. 1963년에 수원시가 화성군 일왕면 일대를 편입시키자, 그는 연무동에서 행정서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조용호 회장도 대학을 졸업하고 부친이 하는 광덕상회 일을 도와 주다가 1962년 수원시 공무원이 되었다. 그의 수원시 공무원 생활은 나중에 대한체육회에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들이 출생한 지역사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하였고 토

박이로서의 이점을 더 극대화시켰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모두 수원 지역의 명망가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이기형이 기억하는 남평우와의 에피소드다.

이기형 : (중략) 그래 가지고 저 지금 남경필이가 국회의원 아니야? 그 남경필이 아버지가 남평우요. 남평우가 그 이병희가 [호호호] 그렇게 돼서 수원에서 시세가 떨어지는 바람에 남평우가 국회의원 된 거지. [면담자 : 아 그렇게 됐구나.] 수원이, 수원의 발전을 시킨 것도 이병희고, 이병희가 자멸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는 얘기지. 그 남평우, 남평우 얘기 좀 해 드릴게. 내가 육군하사 때 갈매기 두 개 육군하사 때 사변 [기침하면서, 사변 전이죠. 1948년도 11월달에 용인으로 모병(募兵)을 나갔어. 그때 모병관이 원병위이라고 육군 소원데 그 사람하고 같이 모병을 나갔는데, 거기 '용남(龍南)버스' 라고 하는 버스회사가 있어 [면담자 : 네, 이 남평우 씨 거.] 용인에. 근데 그 남평우의 아버지 남상학 씨. 그이가 지금 남경필이 할아버지여. 근데 남상학 씨가 용남버스라는(라는) 거를 네 대를 가지고 버스회사를 해요. 근데 그 되게 부지런해요 이 양반이. 근데 우리 네 사람이 모병관을 나가 있는데 그 진흥여관에 있는데 벌써 새벽이면 와 이 양반이. 응? 오면은 그때, 그때는 그 용인에 담배 취급하는 전매서가 있었어. 그 담배 사실 담배갑에 안 들은 거. 그걸 이만큼씩 가져와요. 그 남상학 씨가. 남경필이 할아버지가. “이 담배라도 피셔야 돼.” 그 이제 우리가 식전에 바람 쐬러 나가면 그 용남버스에 가면은 그 지금 남경필이 아버지. 남평우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그게 그 아버지 그 버스회사에서 차 닦는 거예요. 걸레로. 아 그런데 이게 세월이 얼마 흘러서 [호호] 남평우 국회의원하고 그 후로 이제 남경필이를 만났다 말이야. 그 남경필이 국회의원 아니야 지금? [호호] 남경필이를 내가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자네 아버지가 중학교 때 할아버지 차 닦는 거 내가 본 사람 이야.” 그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래. “아저씨 소리도 하지 마라. 할아버지야 내가. 임마, 내가 너 할아버지 뻘이지 왜 아저씨냐. [호호호] 내가 군대 가서 모집. 그 저 군인 모집하러 나왔을 때 니 아버지 중학생이었었어. 그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래.” 이 깔깔대고 웃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나를 무시할 못 해요. 우리 학교에 오면 내가 곧 그렇다고 [호호]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2차 구술조사)

또한 두 사람은 1970년 말과 1980년대 중반부터 중친회 회장을 10년 이상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1985년경부터 수원공고 이사장이 되기 전





수원시장에게 감사패를 받는 조웅호

인 2004년까지 근 20년 동안 종친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웅호 회장은 1979년에 초대 회장을 하면서 12년 동안 활동하였다. 당시는 기존의 문중조직이 정관을 가지는 종친회로 탈바꿈하는 시기여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문중의 재산에 대한 처리와 종친회의 위상을 세우는 작업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수원의 역사와 함께하였는데, 그들의 후손들도 모두 수원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들이 모두 수원에서 살고 있다. 조웅호 회장도 1남 3녀를 두었는데, 막내딸만 제외하고 모두 수원에 살고 있다. 수원 토박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수원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용이했을 것이다. 또한 수원 토박이로서의 자부심과 수원에 대한 애착도 지속적인 거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점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면서 다

양한 봉사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수원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용호 회장은 대한체육회를 그만둔 후 경기도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에도 수원바둑협회 회장을 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 5. 종친회 토박이들의 토박이 의식

수원 지역의 주요 동족마을 출신이면서 종친회 활동을 해 온 이기형 전 이사장과 조용호 회장의 생애사는 수원 토박이들의 의식을 보여 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토박이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고향’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고 구술하였다.

면담자 : 그럼 수원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기형 : 그 인제 아버지. 아버지 대(代)에 아들 손자를 거느리고 타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떠날 때 아들이나 손자들은 거기가 고향이야. [면담자 : 그렇죠? 응? 응. 대개 “넌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기준이 어딴니까 기준이. [면담자 : 제가 태어난 곳,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살던 데가 고향이다. 아버지 낳은 고장이 고향인 거여. 응? 아버지를 낳은 데가 고향이 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저희 아버지 따라서 타향에 갔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 들으면 저 지금 사는 데 거길 얘기를 해요. 고향을. 그러니까 그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고향 개념마저도 확실히 구분을 했다고. 아버지가 살던 곳이 고향이나, 아버지 나온 곳이 고향이나. 아버지 나온 곳. 그 더 뿌리를 더 두텁게 하는 뜻이지.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2차 구술조사>

이렇게 고향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이촌향도로 사람들이 자신과 부모가 출생한 곳을 떠나서 살게 되는 현상이 매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던 세대가 적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조용호 회장의 다음 구술은 종친회 활동을





조용호 선친의 장례 조상과 부모와 자신이 나고 자라 묻히는 곳이라는 '고향'의 개념을 이제 수원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는 토박이들의 '뿌리'를 중시하는 토박이 의식을 볼 수 있다.

조용호 : 그 지금 죄송하지만 수원시청에 들어가면요, 시장, 부시장, 국장도 나가면 딱 차례하고 딱 경례 붙여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면담자 : 하하하] 제가 잘못된 꼴을 못 봐요. 국회의원도 제 앞에 오면은 다 벌벌 떨어요. 나는 이계손을 비비면서, 아뵐 안 해요. 우리 조씨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출세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뭐 저한테 무슨 뭐 누구 취직을 부탁할 거야. 잘못되면 우리 거 이런 얘기지만 우리 평양 조씨 같은 기질두요,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왕한테도 잘못되면 도끼 가지고 가서 기둥 찍고 조헌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바른 소리 했잖아요. (중략) 옛날에 양반은 추위도 곁불을 안 쬐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굶어 죽어도 그게 양반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청렴도 선비정신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그 무사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칼 들고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의 좋은 그 선비정신이 지금 살리지 않습니까. 예? 옛

날에 신문고 뚜드려서라도 왕한테 억울하다고 그러면 받아 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문고 뚜드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정신병원에 보내잖아요. 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과 그 미는 정부에서. (중략)(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선비정신’은 아마도 동족마을 출신의 수원 토박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토박이 의식이 아닌가 한다. 즉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조상으로부터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중앙으로의 진출과 출세, 부의 축적보다는 ‘청렴함’을 중시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수원 지역 중소 동족마을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이주 인구의 증가로 토박이의 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기형 전 이사장과 조용호 회장은 토박이 세력의 약화를 의식하고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토박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파장동 광주 이씨 『대종계 좌목』(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수원의 동족마을 출신 토박이들은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기형** :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 토박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토박이라 그러는 거는 옛날에 몇 집 안 살고 모든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가 옛 보수적이긴 하지만 옛 조상들이 주로 이어져 내려온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 세대까지가 토박이 소리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것이 어느 때까지나 우리 세대까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말야, 지금 저 윤 박사 [면담자]도 애길 했지만은 사람이 서대문 살다가 강남으로도 가는 게, 도시가 확장돼서 발전되면 발전되면서 따라가면서 살게 마련이라고. 실제 여 수원도요 수원시청이 그 전 권선구청 있던 자리가 수원시청 아닙니까 그게. 저걸로 그 동수원 지금 시청 있는 데는 그



허허벌덕지(허허벌판)거든 그냥 논만 있고, 그 또 시청 갖다 지으니까 그 인저리(인저리)가 다 또 개발이 되잖아요. 그게 수원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서 또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도시 형세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쫓아가며 살게 돼 있고, 또 토착민, 토박이 하는 것도 그 토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뭐 구습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적인 것, 아주 그 구태의연한 고대로, 고대로를 그 생활문화양식을 고대로 이어받아서 산 세대가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우리 세대까지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 애들도 벌써 틀린걸요. 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원 토박이가 수원, 수원이었을 당시에 아까 얘기한 수원 성 안에, 말하자면 수원읍, 수원읍이던 시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가 나고 그러던 시절에 수원을 참 자기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깔고 앉아서 살던 사람들이 토백이(토박이)지. 그 아들들이나 손자들은 다 개화가 돼 가지고 새로 개발되는 도시 쫓아가며 살고, 오막살이집 살다가 나아지면 아파트 들어가고 양옥집 짓고 살고, 그 토백이 소리 못 듣는 거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수원 토박이요. 이 소리는 할 수가 있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수원 토박이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는 수원 토박이가 아니잖아.

면담자 :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앞으로 인터뷰할 그 동문회 수원 동문회, 그다음에 뭐 수원 청년회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거의. 이사장님보다 훨씬 젊죠. [이기형 :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토박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토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기형 : 토박이라고 그러죠. 토박인데, 수원에 토박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토박이라고 하는 냄새가 풍겨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면담자 : 하하하 음, 근데 그 지금 젊은 세대가 그 옛날 것을 다 아느냐, 모르거든요.

면담자 :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 먼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옛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먼저 인터뷰해야 제가.

이기형 : 지금 젊은 애들이요, 내가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듣는 게 여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 수원에 가면 '동문(東門)사거리'가 있죠. 그 '동문사거리'가 [손으로 묘사하며] 이따만한 소나무가 우거졌었어, 다. 그리고 공동묘지가 있고, 그 해방되고 바로 1946년도, 45년도 당시에, 수원에 이제 기생골목이 있어요. [면담자 : 네, 알아요.] 화성 권번이 있고, 근데 이제 기생들이 인력거를 타고 댕겼거든. 그리고 인제 전나무백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경찰청 있는 데서 넘어와서 죽으면 경기대학 후문, 수원박물관 들어가는 거기가 전나무백이요. [면담자 : 어 그래요] 거기 사는 기생이 있었는데, 인력거를 타고 갔다. 그 인력거를 타고 지금 동문사거리 거기를 지나가는데 범(虎)을 만났단 말이야 범을. 범을 만나니까 인력거꾼이, 인제 인력거 앞에 포장을 해 내리잖아요. 내려놓고

끌고 가다가 아 그냥 범이 앞에 번쩍거리고 [하하하] 이놈이 엉겁결에 사람, 기생을 태우고 인력거에다 놓고 저만 내뺐어. 그 이제 기생은 기생대로 뛰쳐나와서 도망을 해서 왔다는 얘기지. 그 실화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면요, 애들은 “아이고 범이 거기 어디라고 범이 왔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면담자 : 아니, 일제시기에도 거기가 그렇게 울창했어요?

이기형 : 아 그럼. [팔로 둥그렇게 묘사하며] 이런 소나무가 그 동문사거리 거기서부터 그 동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동문 안으로 들어오면 죽 내려오면은 그게 남향동이야. 저 장대 장대입구 이쪽으로 저 미망인촌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 왜정 말엽에 일본 사람들 다 베어 갔죠. 배 맨드는(만드는), 배 맨드는 조선소로 다 갔어. 팔달산에도 그래요. 팔달산에도, 다 그랬어요. 그 뭐 불과 지금 뭐 불과 한 60년. 한 60여년 전 얘긴데, 그런 얘기 지금 애들, 아 6·25 때 굶었다는 얘기하면은 그뎨 라면 없었냐는 소리하는데 뭐.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이기형 전 이사장은 부모가 수원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수원 토박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수원의 역사를 모르면 진짜 토박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과 50년, 60년 전의 수원의 모습을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수원 토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수원의 근현대사를 경험한 세대만이 수원 토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기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세대, 즉 일제시기에 태어나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고 수원의 지난 50년간의 발전상을 목격한 사람들을 진정한 수원 토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용호 회장은 이제 토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호 회장이 말하는 토박이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면담자 : 수도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좀 여기 회장님은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다 수원 사람이다라고 그러지만, 수원 토박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어떤 언제부터 산 사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호 : 글썽 근데 그거를 해면은 편을 가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니까. [면담자 : 알았어요, 하하] 그거를 하면은 내가 왜냐면 이게 시사(市史)에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사라는 거는 하나의 역사고 하나의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단점을 갖다 기록을 남기면은 후세 사람은 그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시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원은



어디까지나 포용했다, 외지 사람을 다 끌어안았다 이래야지 수원 사람들 역시 편을 갈랐다 그러면은 수원에 앞으로 전통이 살지가 않죠. 저는 지금도 그걸 깨지는 거예요. (중략) 이 지역문화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애들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시정시켜 주고 교정시켜 줌으로써 개가 바르게 자라는 것같이, 지역문화도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야 하고 좋은 정보를 살려서 계승해 줘야 그 지역문화가 발전이 돼요. 지역문화가 썩은 부분을 계속 썩었다 썩었다 그러면은 그건 썩은 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 윤 선생이 해 주실 얘기가 『수원시사』는 그거를 꼭 해야 합니다. 수원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역사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 이백(200) 몇 년 전에 정조가 수원에다가 그 인간적인 하나의 이상향을 꾸밀려고 했던 게 수원 화성 축성의 의미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성이 유네스코 등록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 저까짓 벽돌이 대단합니까? 외국에 나가면 성도 성이 아니예요 저거는. 아주 개인집 정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원의 문화와 수원의 역사가 살아가는 아주 세계적인 테마거리를 만들어야지. 수원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덴지, 『수원시사』라고 하면 수원시에서 쉽게 말해서 좋은 자료를 뽑아서 만들자 그랬는데 『수원시사』에서 수원은 각쟁이고 수원은 빨가벗고 70리를 가고, 이렇게 계속 남겨 놓으면 그거는 안 되죠. (중략) (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

조용호 회장의 구술은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토박이라는 개념은 수원시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구분 내지 차별하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원시의 미래상과 연결되어 있다.

면담자 : 그럼 앞으로 수원이 어떤 곳으로, 언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수원의 미래상은 어떻게 됐으면.

조용호 : 저는 지금 저 수원을 거의 제가 여기서 낳고 자라서 그랬대는 게 아니라, 수원 좀 도시 규모나 인구수 규모로 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거의 딱 찼습니다. 백십만(1,100,000), 물론 서부권이 약간 개발권이 남고 광고권 쪽이 좀 있긴 해도 제가 볼 때 인구가 저는 백십만이 넘는 도시가 꼭 좋은 도시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 도청 소재지고 경기도의 하나의 수부 도시로 할려면은 산업화보다는 언제 앞으로 수원이 하나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미(美)를 생산하는 도시. 정조가 바랐던 그 인간적인 가정 중심적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도시로 바뀌는 게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 내부

좋지, 산업화나 무슨 이런 건 저는 더 바라지 않거든요. [면담자 :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친 환경적이고 교육적인 도시고,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도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는 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

조옹호 회장은 수원이 “인간적인, 가정 중심적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수원 토박이라는 개념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기형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원의 근현대사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앞으로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기형 전 이사장이 생각하는 수원의 미래상에 대한 것이다.

면담자 :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수원의 앞으로의 발전상 또는 미래상 어떻게 됐



음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기형 : 근데 수원엔 주위를 주로 농촌도시를 다 끼고 있어요. 그렇잖아? 뽕 돌리(돌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겠죠. 아 여기 뭐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수원서 천안 가는데 맨 양쪽에 맨 군(郡)단위여. 행정구역이. 시(市)가 별로 없었어. 천안시 밖에. [면담자 : 근데 지금은 다 시죠 지금은 다 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참 저기 어디쯤 가야 집 몇 채 있고, 국도변에. 지금은 그냥 다 연결되다시피 됐잖아요.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의 특이성은 주위가 정말 저는 도농도시답게 농촌을 끼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발전을 할 줄 알았더니 이 '농촌진흥청' 이 농촌진흥청 구실을 지금 다 하느냐. 뭐 우린 학생은, 학생 아니니까 몰르겠지만은, 그게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요, 지금 수원 농대가 없잖아요. [면담자 : 네] 응? 농대가 없어졌잖아?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라. 농대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그 '축산시험장' 이라든가, '원예시험장' 이라든가, '정축장' 이라든가가 다 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농대가 교육기관이 없어지고 보니까 그들이 그냥 독립기구가 돼 버렸다. 물론 소속은 돼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별로 이 발전성이 없어 보이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농촌진흥청도 지금 가 보면요, 옛날 농촌진흥청이 한참 확대되고 확장하고 아주 활발했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보면 자꾸 줄어. (중략) 글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잠식을 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장 있잖아요. 서호저수지 밑에, 그것도 어떻게 뭐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이만큼 뭐 빌딩도 지어 놓고 [ㅎㅎㅎ] 그랬다고. (중략) 왜 세가 자꾸 약해지는 건 일종의 잠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다른 자금 먹혀들어 가는 거 줄인다. 그런 것이 이렇게 엿보이죠. 그래서 이제 수원엔 도농합작도시화되긴 틀렸고 이제 도시화로 가야 되는데 기왕 그렇게 될라면 이수원과 오산과 화성이 하나로 통합돼서 정부도 안 된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 경기도가 둘로 뺄까지면 어떻습니까? 도시형태가 제대로 살아서 건전하게 가면 좋죠. 난 그런 생각이예요. 이 경기도가 둘로 뺄까진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우리 얘기한 한수(漢水) 이북(以北) 과 이남(以南). 한수 이북하고 이남하고를 경기 남북부로 나눈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북판에다가 서울이라는 게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북쪽, 경기도의 북쪽하고 남쪽하고 연결해서 될 일을 할려면 어찌면은 돌아가야 돼. 복잡해서. [면담자 :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둘씩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리해졌죠. (2012년 4월 9일, 오산시 자택, 2차 구술조사)

2012년 현재 수원시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수원시의 위기는 크게 두



방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수원이 수도권 일부로 편입되면서 지가가 상승되어 수원 지역의 공장들이 더 남부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개발이 수원이 서울에서 가깝다는 유통상 편의성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이다. 1971년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공장을 지어 수원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삼성전자가 2000년대에 천안으로 이전하고 영통지구 개발과 함께 삼성전자연구소가 들어왔다. 정치적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수원의 농촌진흥청도 이전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이미 2003년에 서울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즉 수원 경제를 뒷받침해 주었던 삼성전자 공장이 이전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겼고, 수원이 농업도시의 명칭을 가질 수 있었던 두 개의 상징적인 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됨에 따라 수원 토박이들





수원·화성·오산 3개 시 공동연구용역 협약식 및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식(2012년)

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종친회 회장이었던 수원 토박이들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수원·오산·화성이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어 광역시로 발전되어 나가길 바라고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은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서 대도시로서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반면, 조용호 회장은 100만 명 정도 인구를 가진 현재의 상태에서 친환경적이고 교육적인 문화도시로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동족마을 출신으로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던 수원 토박이들은 토박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수원시의 정체성도 실험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종친회 토박이들은 토박이라는 용어 사용

도 주위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더 이상 수원 토박이들이 지역사회의 유지 내지 엘리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원 지역 대표적인 종친회들은 막대한 문중재산을 가지고 활발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사회적 담론은 토박이라는 구분의 경계와 토박이의 특권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시대가 되고 이촌향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수원시도 토박이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수원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의 중요성과 문화적 전통이 약화되면서 수원시의 정체성도 위기에 처해 있다. 농업도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해체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원시가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라는 수원시의 정체성 재정립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수원 지역 종친회 전 회장들도 수원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수원시의 미래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 祖國의未來靑年의責任

1. 수원청년회의소(수원JC)의 역사
2. 지역경제와 수원청년회의소의 결합
3. 수원청년회의소의 사회적 역할 변화
4. 수원청년회의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윤택림 |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 03 | 수원 지역 청년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한국에서 해방 후 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부터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새롭게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후 지역사회 개발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참여하여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JC(Junior Chamber), 즉 청년회의소이다. JC는 1915년 미국 미주리(Missouri)주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에서 헨리 기젠비어(Henry Gijenbeer)가 창설한 민간봉사단체이다. 기젠비어는 한 소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교통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JC를 창설하였다. JC는 지역사회에서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모여서 개인능력 개발, 사업능력 개발, 지역사회 개발, 국제경험 개발이라는 4대 활동을 하면서 발전한 대표적인 국제민간단체(JCI :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0년 동안 JCI는 청년회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개발 및 세계 회원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에서 JC가 소개된 것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평택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통해서였다. 당시 평택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서정빈은 미군을 통해서 JC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JC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52년 '평택청년애향사업회(JC의 전신)'가 조직되면서 강건원이 초대 회장이 되었고, 곧 JCI의 지방지회



가 됨으로써 한국 최초의 JC가 탄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JC 지회가 여러 지역에서 조직되어 지역사회 개발과 국제 교류에 기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2</sup>

수원JC(수원청년회의소)는 평택JC에 이어 1953년에 조직되어 2012년 현재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60년 동안 수원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한 수원JC 회원들은 어떤 토박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 1. 수원청년회의소(수원JC)의 역사

수원 지역 청년들이 JC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가까이에 있는 ‘평택청년애향사업회’의 활동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평택JC 초대 회장 강건원이 세계JC 회원들로부터 받은 구호물자들을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평택 주둔 미군 공병단의 도움으로 평택고등학교 석조건물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1953년 부산에 있던 정부가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평택과 부산에서 활동했던 JC 회원들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수원, 서울, 인천 등지에서 JC 창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3</sup>

그해 평택의 강건원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수원의 김승제에게 JC를 소개해 주었고, 서울농대 교수들과 수원 토박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JC이념<sup>4</sup>을 배우게 되었다. 수원의 청년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지역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재건하는 데 JC이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1953년 8월 5일 평택JC의 후원으로 ‘한국청년애향사업회 경기도지부(이후 수원청년애향사업회)’를 결성하였다. 초대 회장으로는 서울농대 교수인 이성환이 선출되었다.<sup>5</sup>

수원청년애향사업회가 창립된 첫해에는 회원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남문 앞 시가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작업을 하였고, 미군사복구단의 장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과 함께 수원-신갈 간 도로보수공사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1954년 2월에는 홍콩에서 열린 제4회 JCI아세아지역대회에 회원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54년 4월에 수원청년애향사업회는 공식 명칭을 수원청년회의소(Suwon Junior Chamber of Commerce)로 변경하였다.



1953년 수원청년애향사업회 회원(수원C 소장) 수원C의 전신인 수원청년애향사업회는 서울농대 교수들과 토박이 청년들이 전후 지역 사회 재건을 위해 결성한 민간단체이다.

1985년 수원청년회의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출간한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는 수원C의 발전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1953년부터 1962년까지를 초창기, 1963년부터 1971년까지를 도약기, 1972년부터 1983년까지를 성장기로 구분하였다.<sup>6</sup>

〈표 1〉 초창기(1953~1962년) 주요 활동

연도	사업 및 활동	비고
1954	어린이 예술제 개최 팔달산 소나무 식수	주민참여 환경미화
1955	어린이 예술제 개최 팔달산 소나무 식수	주민참여 환경미화
1956	어린이 예술제 개최 남문 주변 미화작업 실시 팔달산 소나무 식수 및 관리	주민참여 환경미화
1957	남문 주변 청소 팔달산 사방공사 및 소나무 식수 화서동 풀미골 마을에 송아지 1두 및 돼지 3두 기증	환경미화 지역경제

연도	사업 및 활동	비고
1958	팔달산 사방공사 및 소나무 식수 남문 주변 미화작업 실시 공설운동장 건설	환경미화 주민참여
1959	남문 주변 미화작업 실시 팔달산 소나무 식수 및 관리	환경미화
1960	어린이 예술제 개최 팔달산 소나무 식수 및 사방공사 관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품 전달	주민참여 환경미화 주민구호
1961	팔달산 소나무 식수 및 사방공사 관리	환경미화
1962	팔달산 소나무 식수 및 사방공사 관리	환경미화

수원C가 창립된 후 10년간의 활동을 보면 팔달산과 남문을 중심으로 한 환경미화사업이 가장 주된 활동이었고, 그 외에 주민참여와 구호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수원C가 초창기였고 전쟁이 끝난 직후라서 대규모의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1957년 화서동에 JC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축산으로 농촌 경제 개선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운동에 앞서는 농촌개발운동으로 볼 수 있다.



식목일 팔달산 소나무 심기 행사(수원C 소장)



1955년 농촌 모내기 돕기(수원C 소장)



1957년 팔달문 일대 조기정소(수원C 소장)



1958년 수원 지역 고아원 방문(수원C 소장)



1962년 지지대고개에 JC 사인보드 설치(수원JC 소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원JC가 제안하여 지역 경계에 세운 안내판은 이후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64년 일본 후쿠이(福井)JC와 자매결연(수원JC 소장)

〈표 2〉 도약기(1963~1971년) 주요 활동

연도	사업 및 활동	비고
1963	제1회 어린이자전거 경기대회 개최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품 전달 지지대고개 노송지대 개나리 식수	주민참여 주민구호 환경미화
1964	제1회 병상경기대회 창설 일본 후쿠이JC와 자매결연 수원JC의 밤(신년인사, 1월 30일) 『수원JC』 월보 창간호 발행	주민참여 국제결연 조직강화
1965	상설사무국 설치 제2회 수원JC의 밤 개최 제2회 병상경기대회 개최 화재의연금 전달	조직강화 주민참여 주민구호
1966	제1회 수원시 남녀대항 낚시대회 개최 제1회 한일합동 아동미술전시회 개최 파월장병 가족돕기운동 전개 팔달산 개나리 식수	주민참여 주민구호 환경미화
1967	한일 어린이 미술전시회 실시 지지대고개 개나리 식수 고아원, 양로원 위문	주민참여 환경미화 주민구호
1968	자료 상실	
1969	지지대고개 보드 개수 설치 광고수리조합 뒷산 식목 수원 광고 유원지 포장 운영 제6회 수원시민의 날 시가 행진 참가	환경미화 주민참여 조직위상
1970	제1회 서울경기지구협의회 회장배 축구대회 예선대회 승리 수원시장배 축구대회 준우승	조직위상
1971	수원지동초등학교 축구부와 자매결연 전국최초 대학생JC 창설 서울경기지구협의회 회장배 승리 수원JC 가이드 안내판 설치	조직위상

수원JC의 도약기에는 초창기 활동이던 환경미화와 주민돕기활동이 지속되면서, 주민참여행사가 어린이자전거 · 병상 · 낚시대회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수원JC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1964년 1월 30일 ‘수원JC의 밤’이 개최되었는데, 신년인사를 겸하여 수원 지역의 각급 기관장과 명사들을 초대하여 실시하였고, 현재까지도 연중 가장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sup>7</sup> 그뿐만 아니라 1965년에는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수원JC』 월보가 발행되어 조직의 체제와 위상이 정립되었다.





1966년 제21회 전국 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개막 퍼레이드(수원JC 소장) 수원JC는 대회의 유치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였는데, 옥의 코트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69년부터는 ‘수원시민의 날’ 시가 행진에 수원의 주요 민간단체로서 참가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경기 지역 JC 내의 축구경기가 활성화되어 조직의 결속이 강화되었고, 축구경기를 주관함으로써 서울·경기 지역 내에서 수원JC의 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1970년 수원JC의 밤 행사(수원JC 소장) 1964년 1월 30일에 신년인사를 겸하여 수원 지역의 각급 기관장 및 명사들을 초대하여 수원JC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는 현재까지도 수원JC의 연중 제일의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표 3〉 성장기(1972~1983년) 주요 활동

연도	사업 및 활동	비고
1972	고속도로 주변 철쭉꽃 식목 제1회 수원JC회장이 국민학교 축구대회 개최 경제인 간담회 개최 경기지구회장이 축구대회 3연패	환경 미화 주민 참여 조직 위상
1973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한국JC 하계연수회 주관 제1회 경기지구회장배 축구대회 주관 제2회 수원JC회장이 국민학교 축구대회 개최	정치 참여 조직 위상 주민 참여
1974	경기지구회원대회 주관 팔달산 주변 공동화장실 건축 제1회 경기지구회장배 회원테니스대회 주관 수재의연금 전달	조직 위상 환경 미화 주민 구호
1975	세무세미나 개최 수원시장과 시정간담회 개최 서울경기지구회장배 테니스대회 주관 무의촌 진료 사업	조직 위상 주민 구호
1976	경기지구 14개 지방JC 회장과 경기도지사 간담회 개최 육군 일선 장병 위문 자매JC사업 : 일본 후쿠이JC와 아동미술 교환전시 실시	조직 위상 국제 결연
1977	일본 후쿠이JC에서 보내 온 사진 전시회 경제인 간담회 수원시장과 시정 간담회 부인회 주최 제1회 불우이웃돕기 1일 찾집	국제 결연 조직 위상 주민 구호
1978	수원민간방범기동순찰대 발족 제1회 어린이 수영강습회 개최 수원시장과 시정간담회 개최	주민 보호 주민 참여 조직 위상
1979	새마을청소년회와 자매결연 자유중국 양명산JC와 자매결연 수원JC 회관 부지 구입 회장이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됨.	조직위상 국제결연
1980	자연보호, 나라사랑 운동, 소비절약 캠페인 주관 한국JC 최우수LOM <sup>®</sup> 회장상 수상	조직 위상
1981	수원노인대학 위문잔치 수원JC회관 기공식 거행 제1회 수원JC회장이 테니스대회 개최	주민 구호 조직 위상 주민 참여
1982	경기지구 제1회 가족종합체전 개최 시정, 세정 세미나 개최 수원JC 회관 준공식 거행	주민 참여 조직 위상
1983	시정, 세무 간담회 개최 중국 양명산JC와 아동서에 미술교환전시회 경기지구회원대회 주관(중등사거리 시계탑 건립) 제주 남원JC와 우호JC 정조인	조직 위상 국제 결연





1972년 제1회 수원JC 회장배 국민학교 축구대회



수원청년회의소 주최의 시정간담회(수원JC 소장)

1970년대는 수원JC가 내외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시기였다. 당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 충원을 활발히 하여 정회원이 100여 명이 된 적도 있었다.<sup>9</sup> 또한 축구, 테니스, 수영, 가족체육대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1970년대 수원JC

활동 중 주목할 점은 경제인 간담회를 열어서 수원 지역사회 경제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1972년 취임한 김성근 회장은 수원JC와 수원상공회의소의 연



1960~1970년대 어린이날 행사로 자리 잡은 어린이 자전거대회(홍기현 제공)

결고리 역할을 했고, 이것은 청년사업가들이 지역 상공인들과 유대를 가질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0년대 주목할 만한 것은 1975년부터 수원시장과 시정간담회를 가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수원JC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JC는 만 40세가 넘으면 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퇴한 회원들이 특우회를 조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7년 한국JC특우회가 조직된 이후 지방에서 특우회 구성 움직임이 나타났다. 수원에서는 1972년 창립 20주년 기념회에서 수원JC를 은퇴한 회원들과 논의를 거쳐 12명으로 구성된 특우회가 설립되었고, 신정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sup>10</sup> 수원청년회의소의 연대와 결속력이 JC를 떠난 후에도 특우회를 통하여 지속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72년 12명이었던 특우회 회원은 1985년에 64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는 국내 최초로 수원JC에서 수원YJC(Youth JC)가 창설되었다.



수원YJC의 밤 및 전역회원 환송회(홍기현 제공)



1971년 대학생 JC 임명식(수원JC 소장) 수원JC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JC를 창설하였다.

수원거주 대학생 12명이 가칭 대학생 JC 발기회원이 되어 수원JC의 지원을 받아서 3월 28일 총 39명의 멤버로 조직되었고, 초대 회장은 홍시만 회우가 되었다." 1972년에 39명이었던 수원YJC 회원은 1984년에는 10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수원JC는 내적으로  
는 회원수 증가를 통해, 외적으

로는 경제적 · 정치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서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원JC 상설사무소를 설치하고, 1979년에 수원시 교동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계기



# 祖國의未來 靑年의責任

수원JC회관 준공기

로 수원JC는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어 1980년대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1982년 수원JC회관이 준공되면서 수원JC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를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원JC는 예상했던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에 시작된 수원JC 회장기 국민학교 축구대회는 1981년 제10회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 밖에 제1회 수원JC 회장기 테니스대회, 경기지구 제1회 가족종합체전도 일회적인 행사였다. 5월 5일 어린이날 개최하는 어린이 자전차대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지속되고 있다. 또한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가 발간된 1985년 12월 현재 수원JC의 정회원은 79명으로 1970년대 초반보다 줄었다.

1985년 이후의 수원JC 역대 회장들의 활동 기록은 2012년에 발행된 「2012년 수원청년회의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자료집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다.<sup>12</sup> 국군장병 위문, 노인정 돕기와 같은 주민구호사업은 1992년에 개소한 '사랑의집' 지원사업으로 발전하였고, 그 외 피해학대아동캠페인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주민 돕기의 차원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연변조선족자치구 심장병 어린이





한미음 의료봉사(수원JC 소장)



피해학대아동 방지 캠페인 청소년 가요제(수원JC 소장)

돕기 도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역환경 미화활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1980년대부터는 스폰서 JC(용인, 김포, 이천, 성남, 신반월, 오산) 및 우호 JC(제주남원)와의 교류행사가 증가하였다. 외국결연 JC인 일본의 후쿠이JC, 중국 양명산JC와의 교류도 지속되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 및 주민참여행사를 주로 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수원JC의 위상을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스폰서 JC, 우호 JC, 해외결연JC와의 상호 교류가 증대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주민참여행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1회 어린이미술 실기대회(1986년), 제1회 청소년음악회(1990년), 한일국교친선 야구대회(1992년), 수원JC 회장배 태권도대회(1995~1998년), 한일주니어축구페스티벌(1999년, 2000년), 해피수원청소년가요제(2005년, 2007~2010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 외 장학생 지원사업이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수원JC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JC를 설립한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모색과 기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 수원과 수원JC는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수원JC 회원들은 전후 지역사회의 엘리트로서 또한 사업가 내지 경영인으로서 수원 지역사회를 위하여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없었던 환경 보호 및 미화, 주

민참여행사 주관, 주민 돕기 활동, 국내외 타 지역과의 유대 및 결연 활동을 해 왔다. 수원JC의 활동과 업적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 놓은 수원 현대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 2. 지역경제와 수원청년회의소의 결합

수원JC는 만 40세 이하의 지역 청년들이 정부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주민 차원의 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지원을 해 왔다. 그런데 봉사와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JC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봉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 1972년 수원JC 20대 회장이었던 김성근(1938년생) 회장은 1962년에 회원이 되었는데, 당시 수원JC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김성근 : 그래서 이제 제 역사는 84년이 됐지만, 85년 되지만, 제가 아, 50여 년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걸 맡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원의 젊은이들, 우리 선대들이죠, 선대들이 6·25를 겪고 나서 미국의 문명, 그러니까 '제이씨(JC)'라는 단체의 활동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이드(side)에서, 백(back)에서 보니까 아무나 또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선망의 대상의 단체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선배들이 이끌어 주셔서 가지고 거기에 또 입회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입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옵서버(observer, 관찰자)로 몇 년씩 데리고 댕기면서[다니면서] 트레이닝(training, 훈련)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입회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제이씨(JC)라는 단체에 입회한 것은 1962년도 말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중략) '제이씨(JC)'라는 단체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6·25로 인해서 들어왔고 평택에 '애향단체'라는 게 생기면서 수원도 '애향사업회'가 시작되다가 그게 명칭이 '수원청년회'에서 '수원제이씨'로 바뀌죠. 이런 역사. 그러기 때문에 수원은 전국에 몇백 개의 로칼(local, 지역단체)이 있습니다. 인제 지금은 불어나서, 그 당시에 인제 우리 수원 그때 날리고 있었을 시절이죠. 그래서 수윈도 이거 창업한 지가 금년에 60주년 됐습니다.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휘원 사무실>



김성근 회장의 말대로 1960년대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존 회원들의 관찰과 지도가 있어야 했다. 1985년도 수원JC 정관에 따르면 추천인을 통하거나 심사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가 이사회와 승인을 받아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었다.<sup>13</sup> 또한 매월 회비를 내야 하는데, 1985년도 정관에는 회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1985년도 정관 중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3조 입후보 등록 서류 조항에는 등록금이 명시되어 있다. 회장은 200만 원, 상임부회장은 100만 원, 부회장은 50만 원, 감사는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1985년도에 수원JC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200만 원의 등록금이 필요했고, 1980년대 초에 대학등록금이 3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 40세 이전에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었다면 자수성가보다는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초기에는 수원농대 교수들도 정회원으로 있었으나, 1960년대로 가면서 김성근 회장과 같이 부모의 재력으로 사업가가 된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근 회장의 부친은 1928년 교동에 본정철공소를 설립하여 일제시기 목탄차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본정철공소는 삼광공업사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1957년에 갑자기 부친이 작고하여 김 회장은 삼광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62년 초부터 수원JC에 옵서버로 들어가서 그해 말에 정회원으로 입회하였다. 현 국회의원인 남경필 의원도 해방 이후 용인에서 용남버스를 운영했던 남상학의 손자이고, 수원JC의 회원이었다. 해방 후와 한국전쟁 후 수원 지역사회에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토박이 집안의 청년들이 초기 수원JC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수원JC 회원들은 지역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1985년에 발간된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에는 특우회 회원 64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특우회 회원들이 속한 업종들을 보면 공업사, 버스조합, 음식점, 축협, 건축, 양복, 백화점, 농기구, 운수, 전기, 병원, 학교, 양조장, 제조업, 주유소, 빌딩임대, 신문사, 관광, 보석, 인쇄업 등이다.<sup>14</sup> 양조장·농기구상은 전통적인 농업도시 부자들이 하는 업종들이고, 병원·백화점·학교·금융업·주유소·빌딩임대 등은

대부분 큰 자본이 필요한 근대적 업종들이다.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에는 1985년도 정회원들이 운영하는 상호가 나와 있다. 정회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종들은 인쇄, 유통, 숙박, 요식, 상점, 병원, 세무, 건설, 관광, 부동산, 식품, 운송, 각종 대리점 등이다.<sup>15</sup> 즉 JC 회원들은 수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중소 규모의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였다고 볼 수 있다. 총 79명의 회원들 중 주식회사 소속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사업자들이었다. 2012년도 자료<sup>16</sup>에서는 정회원이 38명인데, 이들이 속한 업종은 요식, 기획, 인테리어, 무역, 관광, 부동산, 세무, 교수, 가스, 주류, 병원 등이다.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점이나 상점은 거의 없고, 특수 분야의 전문업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소속은 4명밖에 없고, 모두가 개인사업자들이다.

이 자료들을 볼 때 수원JC 회원들은 업종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원 지역에서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건, 개인의 전문성에 의해서건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자들이 모여서 수원 지역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집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1960~1970년대에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85년에 특우회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은 1980년대에 그만큼 사업이 번창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해 온 업종이 많았다. 이에 비해 1985년도에 활동하던 회원은 각종 대리점 대표들이 많았고, 2012년으로 올수록 특수 분야의 전문업체 관련자들이 증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주식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아서 회원들의 사업 규모도 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원JC 회원들이 종사하는 업종들은 수원 지역사회의 중소 자영업자들의 입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반면 농촌도시 또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측면은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수원이 인근 농촌지역을 편입하면서 도시화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색보다는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들에 JC 회원들이 종사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JC 회원들이 주로 중소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수원상공회의소 회원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JC와 상공



회의소는 지역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수원JC 20대 회장이면서 수원상공회의소 대의원이었던 김성근 회장은 수원JC와 수원상공회의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설명해 주었다.

면담자 : 그럼 수원제이씨(JC)하고 상공회의소 의원 활동을 인제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김성근 : 아닙니다. 그거는 이 상공회의소는 프로(professional)라면은 인제 '제이씨(JC)'는 아마추어(amateur)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에 입각해 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제이씨(JC)의 이념이 뭐냐 하면은 [생각하며] 아- [면담자 : 봉사] 다 잊어버렸어. 다.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죽 보시면은.

면담자 : 자주, 자립, 자발적으로.

김성근 : 그거는, 그거는 저기고 3대 목표가 '지도역량 개발', '지역사회 개발', '세계와의 우정', 또 저기하는 [면담자 : (책<sup>17</sup>을 찾아보며) 여기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 거 같애.] 그래서

면담자 : 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어떤 지역 개발을 위한 봉사하는 단체라는 거죠?

김성근 :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20대서부터 40대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 다만 그 당시에 자립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면담자 :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목적은 그렇게 하고 자격은 그렇게 부여된다 하더라도 만 20세 넘어 자기 자영업 을 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니까 회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즘에 제가 일찍이 이 기업을 했다 하는 거 때문에 우리 선배한테 낙점이 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참여를 하게 됐고.

면담자 :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진짜, 그러니까는 어떤 [김성근 : 프로(professional)들, 프롭니다.] 기업인들이.

김성근 : 네. 기업인들이 회원으로서, 회원은 회비를 내는 회원을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상공회비를 내는 회원 중에서 의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출하듯이 이 상공의원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표를 경합이 붙었을 때는 표를 얻어야만 의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엔 의원이 된 다음엔 회장도 경선해서 할 수도 있고 추대해서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인제 두 번째는 그런데, 또 의원 자체는 그렇게 정족수에 못 미치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만은 정족수가 넘었다 하면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는 게 의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그-개절차가 있듯이 상공의원도 상당히 뿌리를 오래 내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그냥 지명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상공인 중에서 의원에 선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면담자 : 근데 제이씨(JC)에 있던 분들이 상공회의소 의원도 많이 하나요?

김성근 : 몇 분 있었습니다.

면담자 : 아, 많이는 아니고, 몇 분 [김성근 : 네.]아, 그러면 그 말은 상공회의소에 들어가려면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의 수준이 좀 일정 정도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김성근 : 그러니까는 제이씨(JC)인 중에서 제가 전부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우리 선배들 중에서 보편은 최종건 회장, 제이씨(JC) 출신이예요.

면담자 : 아, 최종건 회장.

김성근 : 박찬인 씨가 있고, 김승제 문화원장이 있고, 신정옥 수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종득 수원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성근이. [하하]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면담자 :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는 게.

김성근 : [동시에 말하며] 우리, 우리 상공회의소 의원이 40명, 50명 미만이거든요. 40명 미만일 때도 있고 이제 이젠 의원 수가 변화가 있는데, 기업체 수와 인구에 비례해서 저기가 있는데, 제이씨(JC) 멤버들도 한 50~60명 되는데 거기에서 인제 다만 그 상공의원이지만 10프로(%), 20프로? 50명에서 10프로면 열다섯 명, 그렇지. 10프로, 20프로 미만이었어. 제이씨(JC) 출신은.

면담자 : 아, 그렇군요.

김성근 : 그렇게 10프로 미만, 20프로는 절대로 안 되지. 많이 영입하려고 늘어도 조건이 나 뭐 이게 맞지 않으면 영입을 상공회의소에 영입을 못 하거든요. 상공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인은? [면담자 : 그렇죠.] 상공업을 해야 되고 일정 회비를 낼 수 있는 매출이 일어나 줘야 되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을 회비로 가능하죠. 회비를 낸 그러한 실적이 있어야만이 의원에 등록을 해서 입후보를 할 수가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죠.

면담자 : 그러니까 매출로서 기업의 그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김성근 :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가기는 네 상공업자여야 되고.

김성근 : 네. 그래서 인제 상공업자가 된다면은 매출을 회비를 냈다 하면은 그것도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 채널(channel)을 통해서 추천을 받든지 또 뭐를 하든지 해서 인맥이 어느 면에선 또 형성돼야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됩니까? 그리고 캐리어(career, 경력)도 몇 년 이상의 캐리어(커리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비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캐리어는. 응.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런, 서울에서 딱 하니 이사 나와서





1972년 제20대 수원JC 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김성근(수원JC 소장) 앞줄 왼쪽 두 번째가 김성근 전 회장이다.

거기 하면 대기업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1년 됐다고 캐리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몇 년 내서 회비 냈다.” “아 그 업체 좀 앞으로 영입을 합시다.” 하면은 인제 그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서부터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딱 와서 상공회의소 들어올라고들어오려고 들어온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 자기 영업상 뭐 저기로. 그러나 그거는 그런 자격요건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런 캐리아를 만족시키지 않아 주면은 자격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 줘야지. 기다렸다가 인제 와야지.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원 사무실)

수원JC와 수원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 활동에서 상호 협력하지만, 경제적 사업 분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JC는 아마추어적인 청년 실업가들의 모임이라면, 수원상공회의소는 전문적인 대규모 사업가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리고 김성근 회장이 운영하는 삼광공업사의 사업 활동을 보더라도 수원 지역경제와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었다. 삼광공업사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 일제시기에는 목탄차를 개발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자동차 엔진 보링(boring, 재생) 사업을 하여 삼광보링을 만들어서 수원 근교 일대 자동차들의 재생 작업을 맡아서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자 엔진 재생이 필요 없게 되어 보링사업을 중단하고 다양한 산업기계를 만들었는데, 그중 유한김벌리의 코텍스 제조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였다. 또한 현대건설이 수원비행장을 건설할 때 건설장비 부품을 조달하고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다음에 삼광공업사는 헬기 부품들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군수업체가 되었다. 이러한 사업 활동은 수원 지역사회에 한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원의 상공인들이 수원 시내의 상업과 공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겠지만, 수원 자체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인 선경합섬을 비롯하여 수원 상공인들은 국내 내수와 해외 수출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수원JC의 청년들은 주민들의 소비와 수요에 서비스하는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원에 있었던 한일합섬이나 선경합섬, 삼성전자는 수원 주민들의 소비를 위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둔화나 침체에도 수원의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자들에 비하여 영향을 적게 받는다. 수원이 베드타운(bed town)으로 되어 가고 있어서 서비스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원JC 회원들이 종사하는 업종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85년도에는 정회원이 79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8명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 수원JC는 정회원수가 말해 주듯이 매우 쇠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수원청년회의소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그렇다면 수원JC의 쇠퇴와 수원 지역사회에서 수원JC의 사회적 역할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수원JC가 창설된 1953년도에 JC 회원들은 남문 길거리 청소부터 시작하였다. 서울농대 교수들과 수원 토박이 청년들로 구성된 초기 회원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원을 복구하고 JC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수원 지역사회의 전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어린이 자전거 경기대회를 시작하여 수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수원JC의 밤을 정례화하고, 일본 후쿠이JC와 국제결연을 맺고, 회원을 증가시키는 등 내외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 수원JC는 정부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역행사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회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수원JC의 위상이 높아졌고, 어린이 자전거 경기대회 외에도 수원JC 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참여행사를 확대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제인간담회와 수원시장과의 시정간담회를 통해서 수원JC는 지역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인 엘리트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시기 JC특우회도 만들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YJC도 창설되어 수원JC는 대학생-청년 사업가-장년 사업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결망의 확대는 회원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초기 수원JC가 추구했던 민간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1980년대에는 자유중국 양명산JC와의 국제 결연을 비롯하여 스폰서 JC의 확대, 우호 JC와의 교류 등 JC 자체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다. 수원JC는 수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만큼이나 JC 자체 네트워크 행사가 많아지면서 수원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보다는 국내 다양한 지역들의 연결체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JC 네트워크 내에서의 활동과 행사가 많아지면서, 수원 지역사회 속에서 수원JC의 위상은 약화되어 갔다. 1985년에 수원JC 정회원은 79명이고, 특우회 회원은 64명이었다. 그런데 2012년에 정회원은 38명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회원수가 2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수원JC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2002년도 50대 회장이었던 김재홍(1965년생)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수원JC 창립 50주년 기념 꽃시계 제막식(수원JC 소장)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김재홍 수원JC 제50대 회장이고, 네 번째가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다.

김재홍 : 제가 JC를 들어간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JC를 하셨는데, JC가 좋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님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휴대폰 울림-끊임] 그래서 저를 자꾸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저 때만 해도 JC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JC의 이미지가. [면담자 : 언제 들어가셨어요?] 저는 좀 늦게 들어갔어요. 예, 98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JC가 저희 아버님이 하실 때만 해도 처음 취지는 김성근 의원님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모임을 결성해서 뭐 봉사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수원JC는 JC 중에도 JC가 2002년에 회장할 때도 374개가 로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원JC 그러면 주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황태자 클럽'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 제가 50대 회장을 했어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죠. 올해가 60주년인데, 그런데 그 역사 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계신 중에 80년 같은 경우는 IMF 터지기 전에 아주 끝내줬을 때 아님니까? 그래도 워낙 선배들이 지역 안에서는 뭐 장사를 하셨던 뭐를 하셨던 그래도 수원 안에서는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세요. 부잣집 누구네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뭐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놀러 다니며는 얼마나 뽀뽀찌근하게 놀으셨겠어요. 술을 한 잔 먹어도 그렇고, 물론 좋은 일들도 많이 하셨지만. 네? 그런데 그게 자꾸 변질이 되가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선배들은 그 시대 안에서 그 정도의 재력도 갖고 있고, 그 정도의 자기들의 역할 해 나가면서 JC가 청년 리더를 양성한 거니까, 리더의 역할도 해 나가면서 뭐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도 누리고 이렇게 해 나간 거지만, 점점 올수록 그런 사람만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대 선배들이 한 걸 보고 그 영광을 그냥 재현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후려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폐단이겠죠. 아유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선배님들은 얘기 안 하셨을 수, 선배님들은 JC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당시, 특히나 70년대, 80년대 JC를 하신 선배님들은 JC가 굉장히 수월 지역에 큰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2012년 8월 21일, 동수원 삼부자갈비 사무실)

김재홍의 부친은 삼부자갈비의 창업자인 김수경(1939년생)이다. 김수경은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인 1948년에 형제들이 있는 수원으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쳤다. 그리고 백부가 경영하는 갈비집인 수원옥에서 일을 배워서 1980년 동수원에 삼부자갈비집을 열었다. 김수경은 1972년에 수원JC의 회원이 되었고, 1980년 JC를 은퇴한 후에는 특우회 회원이 되었다. 김재홍 사장은 현재 부친의 가업을 이어서 삼부자갈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친은 수원JC가 가장 왕성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던 1970년대에 회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JC의 가입을 권유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재홍 사장이 JC에 들어갔던 1990년대 말에는 JC가 지역사회 봉사단체라는 초기 이미지보다는 지역사회의 특권집단이라는 이미지가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수원JC 제20대 회장이었던 김성근 회장이 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수원JC가 김재홍 사장이 제50대 회장을 하게 되는 2002년에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특권집단으로 변해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미 1970년대, 1980년대로 가면서 JC 자체의 네트워크 활동과 행사의 증가로 JC의 활동 내용이 변화하였고, 초기의 취지보다는 JC의 정치적·사회적 위상과 특권을 누리는 지역집단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창립 초기부터 수원JC가 누렸던 특권은 회원들의 경제력과 지역에서의 위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JC는 JCI이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해외에서 열리는 JCI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해외 JC 회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1990년 이후이므로 1980년대까지 JC 회원들은 평범한 지역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해외여행의 특권을 누렸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김성근 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김성근 : (중략) 우리 수원에서의 그 위상은 제이씨(JC)가, 그 국제적인 단체가 제이씨(JC), 로타리안(rotarian), 또 그 다음에 뿔니까. 라이온스(lions). [면담자 : 라이온스 이렇게 있잖아요? [면담자 : 네, 네.] 와이엘씨에이(YMCA), 뭐 와이스 맨(wise man)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제이씨(JC)가 효시예요. 역사들은 어떤지 몰라두요, 수원에서 이 국제기구라 해서 단체가 활동하는 건 이 제이씨(JC)가 효시예요.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라이온스'가 좀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하고 '로타리안'들이 생기고 한 거는 그 이후고, 그러니깐 "제일 처음에 수원에 뿌리를 내린 거는 역시 국제적인 단체로서는 제이씨(JC)가 효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단체에 가입하고 싶은 열망은 많은, 가진 젊은이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스크리닝(screening, 선별)이 아주 조밀하고 그래서 거기에 거쳐 나가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선배들이 찍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가입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봐 가지고 "저놈 쓸 만하다." 하면은 참 이렇게 찍어 가지고 훈련 좀 시키고 해서 유도를 해서 가입을 시키고 해 왔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배로부터 선별을 받는 그런 행운도 있지 않아 가지고는 여기 가입하기가 어렵죠. 또 추천이나 이런 것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이씨(JC) 가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여기 외무부에 등록된 업체, 저기[단체]거든요. 제이씨(JC)가. 그래 가지고 그 우리 활동하던 60년대, 70년대는 사실은 암흑세계 아닙니까. 외국에 한번 나가기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미팅(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갔지만, 이것은 외무부에서 여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외무부도 장 찍히지 않으면 못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제이씨(JC)는 우선권으로 찍어줬어요. 그래서 상당한 인물들, 상당한 인원이 해외 각종 이런 미팅(meeting)에 참석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국제, 특히 그 컨퍼런스(conference)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에 유치도 하고 해서 한국에서 효시적인 위치에서 딱 그룹이 많지만 그런 걸 제치고선도 예를 들어서 64년도에 "컨퍼런스를 저, 저 유치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딱 단체는. 근데 했어요 우리 제이씨(JC)는. (중략)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원 사무실)



김재홍 사장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선배들은 수원JC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 이 시기 선배들은 어린이날 하는 어린이 자전거 대회와 같이 수원시나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신들이 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당시 JC 마을을 선정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와주는 활동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한다. 그런데 JC 회원들은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정규 모임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입기 시작하여 그것이 단복으로 관례화되었다. 이것은 당시 공무원들도 농촌지도복을 입었고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장을 입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원JC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만들어 냈던 것이었다.

김재홍 사장에 의하면 1980년대 말부터 JC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고, 1997년 IMF 이후에는 수원JC 조직이 반토막이 났다고 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JC 회원들이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나 경기침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회원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1972년에 창설된 수원YJC의 존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1972년에는 39명이었던 수원YJC는 1984년에는 104명으로 증가하였다.<sup>18</sup>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만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1950~1960년대만 해도 대학에 가는 청년들의 수가 적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가업을 돕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20대의 청년들이 있었다. 수원72연합동우회를 조직한 삼일상업고등학교 출신의 김태형(1953년생)은 대학을 다니면서 집안의 사업인 금성TV 수원판매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그의 형 김태성(1952년생)은 1983년 수원JC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로 가면서 대학교육 4년에다 군복무 3년을 포함하여 7년이라는 기간을 면학과 군대생활로 보내게 되면서, 20대 청년들이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다. 1997년 IMF 이후로는 만 40세 이전에 상당 규모의 개인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즉 학업기간의 장기화, 군대 복무 그리고 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만 40세 이전에 수원JC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재홍 사장이 2002년에 회장이 되었을 때 이미 수원JC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김 사장은 수원JC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단행하였다.

김재홍 : 일단은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제가 많이 깬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70년대 선배님들이 할 때, 수원JC 회장이 서열 4위였습니다. [면담자 : 지역엘리트 중에? 네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의 주관 모임에서 서열 4위였거든요. 그럼, 서장 옆에 섰습니다. 서장 옆에. (중략) 그러니까 사회단체 중에 JC가 일을 가장 많이 했고, 시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저기고, 또 가장 많이 도와주고. [면담자 : 진짜 대단했네요.] 네네. 지금도 사실은 뭐 저기 하면, 뭐 졸업식 같은데 오라고 그러면 단상에 앉아서, JC 회장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네 직함은 그렇게 가진 가는데, 근데 뭐 누가 알아줍니까? JC 회장이 뭐라고. [면담자 : 회장님일 때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요. 지금은 워낙 단체가 100개씩 있으니까, 유관단체가 시장님의, 그중에 서열 따지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중략) 지금은 수원시 시무식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오시고, 유관단체장님 오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원JC의 밤] 1월 30일날 하며는 그게 경기도 시무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 우리 행사에 우리 생일날이라고 초대를 하면 그분들이 다 오시니까, 그죠. 공식적으로 시무식이라고 모였던 자리가 없고. 근데 그때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또 각 시에 우리 JC 친구들도 오고, 규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저희가 창립행사를 JC의 밤이라고 해서 창립행사하고 연회를 하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시장님 오시고, 도지사님 오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그 자리가 그냥 시무식 자리가 돼서 이제 일년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시무식이 아니잖아요. [면담자 : 그렇죠.] 근데 1월 날이 춥기만 하고, 별 의미도 없는 거를 1월에 회원들만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4월로 바꿨어요. 총회를. [면담자 : 아 JC의 밤을.] 네 4월 20일로. 그럼 여기<sup>19</sup> 보면 공식적으로 수원JC의 밤으로 시작한 것이 1964년도 4월 20일이더라고요. 명칭을 바꾸어서. (2012년 8월 21일, 동수원 삼부자갈비 사무실)

선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JC의 밤' 일정을 바꾼 것 외에도 김재홍 사장은 민간외교의 하나인 해외결연JC와의 행사 규모도 줄였다. 수원JC의 회원수가 줄면서 행사 동원 능력이 적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재홍 사장은 수원 지역사회



에서 실추된 JC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JC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원들 간에 우정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원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김재홍 사장은 광역시, 특별시, 각 도청 소재지 로컬JC들은 서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어 매우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16개 로컬JC 회장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전국에 JC 결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김재홍 사장은 수원JC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또한 수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JC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지망하는 사람에게는 JC 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수원JC 회원으로 정치인이 된 사람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은 김용서 수원시장, 남경필 국회의원, 수원시의회 홍기현 의장, 오상운 부의장, 민한기 의원, 홍승근 의원 등이 있다.

#### 4. 수원청년회의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1953년 수원JC가 창립될 때 주축을 이루었던 회원들은 서울농대 교수와 수원 토박이 청년들이었다. 당시 수원시의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2012년 현재 수원시 인구는 110만 명이다. 지난 60년 동안 이주민이 수원시의 대다수 주민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원JC도 이러한 인구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62년에 수원JC 회원이 되었던 김성근 회장은 수원JC와 토박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면담자 : 그러면 이 제이씨(JC)에도 수원 토박이들이 많은가요?

김성근 : 수원 토박이가 처음에 다 토박이죠. 뭐 수원 토박이. 왜냐면 수원서 사는 [말을 바꾸며] 농대 교수라고 해서 수원서 낳겠어요. 아니지만 외부에서 왔지만 농대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거기서 몇 년, 몇십 년 복무하다 보니까, 십 년이면 이 고장 사람 아닙니까. 토박이 꼭 찾을 수 있으면 수원 사람이 꼭 농대교수 되라는 거는 확률로 봐 가지고 그



창립 초기의 수원JC 회원(수원C 소장)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이성환 초대 회장이다.

렇게 높지 않아요. 외부에서.

면담자 : 아니 회장님처럼 선대서부터 그렇게.

김성근 : 그렇게 된 사람들만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골르고고르고 골라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주로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면담자 : 제이씨(JC)가?

김성근 : 네. 제이씨(JC)가. 그래서 그 토박이들 이렇게 해서[뽑아서] 이렇게 해 왔는데(운영 해 왔는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수원은 수원서 조금 돈 벌은 사람은 수원은 안 살아요. 다 딴 데로 이사 가죠. [하하하] 그래서 거기 수원, 수원에 부자들은 다 서울로 가고 다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 이렇게 나같이 밀창에[밀쪽에] 있는 애들이나 이거 지키고 있는 거지 수원은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이씨(JC)라는 것을 이 사이드(side,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우수한 엘리트(elite) 집단들이에요. 딱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에서. 그레 상당히 근접하기도 어렵고 선망의 대상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크하기까지 내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선배가 끌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지도)을 많이 받았어요. 신입생, 신입 회원으로서.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끌려가서 그 행사를 하는 데도가 보고 뭐 한 삼 년 끌려 다니다가 “아, 됐어. 이제 년



입회해.” 해서 입회를 한 게 6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62년도 말에 입회를 해 가지고.

면담자 : 그러니까 고 당시 6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토박이 위주의 지역.

김성근 : 아, 그럼요. 그 뒤에도, 그 뒤에도 토박이였어요. 거진거의. 인제 이 지금, 지금 와 가지고 최근에 와 가지고 인구가 인제 30만이 넘는다, 40만이 넘는다. 50만, 60만 넘는다.

면담자 : [동시에 말하며] 지금은 100만이 넘는데요.

김성근 : 지금 110만이니까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벌써 30만, 20만만 넘었을 때도 우리 토박이가 비율이 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중략)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원 사무실>

1973년에 수원시 인구는 19만 명이었고, 1980년에 31만 명이 되었다.<sup>20</sup> 1972년 김성근 회장이 수원JC 회장이 되었을 때에는 회원들이 주로 토박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서 수원 인구의 급증과 함께 수원JC 내에서도 토박이들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원JC 내에서 토박이들은 어떤 토박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김성근 회장은 토박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면담자 : 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인제 수원 사람 아까 인제 말 씀하셨지만, 뭐 “10년만 살아도 수원 사람이다.” 하셨지만, 인제 “수원 토박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수원 토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김성근 : 네, 뭐 이제 지금은 저 고향 개념이 없고 토박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10년만 지나면 다 그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수원에서 30년 이상은 살아야 이제 앞으로 토박이 소리 듣지 않겠느냐, 뭐 저는 미안스럽게 저희가 100년 이상 살았으니까 미안스러운 애긴데 그 하여튼 제가 살은 것만도 이제, 75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면은 “30년은 살아 줘야 그래도 토박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에, 제이씨(JC) 지금 현역 멤버(member)들은 한 20~30년은 다 살은 멤버들 같어요. 지금 보면은.

면담자 : 아, 현역 멤버들요. 그만큼 많이

김성근 : [동시에 말하며] 아니, 지금 특우회 멤버들. 네. 현역 멤버들은 조금 인재(人才) 아직 더 젊어지고 그랬으니까 인제 뭐 거기는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그럴는진 몰라



수원JC가 세운 수원 환영 입간판



수원JC배 수원시 국민학교 축구대회

도 인제 이 제이씨(JC)를 거쳐 가지고 특우회에 넘어왔다 하면은 거기서 적어도 현역에서 10년 했지 않습니까? 대개 10년을 해서 사십(40)이 넘어서 넘어와서 여기 와서 오십(50), 육십(60) 됐으면 한 사, 벌써 30년은 살은 거 아니에요? [면담자 :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40년은 저, 특우회원이라하면은 다 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30년은 그만한 캐리어(커리어)를 가져야 토박이 소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더 나가서 더 오래 살아주면 좋죠. 그러나 지금은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집니다만은 학교도 인제 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학연, 지연을 따지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나 그래도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이거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재론합니다만 30년만 살았다면 토박이 소리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2년 5월 3일, 영통구 영통동 삼광종합기술원 사무실)

김성근 회장의 의견대로 수원에서 약 30년 정도 산 사람을 토박이라고 본다면 수원JC 회원들은 만 20세에서 만 40세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수원에서 출생하지 않았어도 1980년 전후로 부모가 수원에 이주하여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토박이로 본다는 것이다.

반면 김재홍 사장은 수원 토박이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 즉 부모가 수원에서 태어났거나 수원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잡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홍 사장의 부친인 김수경은 1948년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현재 수원JC 회원 평균 나이를 35세(1977년경 출생) 정도로 본다면 이들의 부모가 수원에서 살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한 세대 앞인 1947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해방 전후로 부모가 수원에서 태어나거나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면담자 : 우리가 보통 수원 토박이라고 하는 것과 수원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원 사람이 수원 토박이였지만, 지금은 수원이 너무나 큰 도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토박이라고 선대서부터 살아오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주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수원 토박이로서, 수원 토박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중략)

김재홍 :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 느끼거든요.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생활권이 수원이면 지금은 다 수원이 많아요. [면담자 : 그

령쥌 지금 수지에 살아도 수원에 학교를 보내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제 애가 소화 다  
 닐다고 했지만, 수지나 그쪽에서도 소화를 보내요. 네, 소화가 천주교 학교다 보니까 신  
 앙심 때문에 많이 보내요. 그러면 그 학부모는 수원에 와서 학부모들을 만나고, 수원 사  
 람이예요. 활동영역이 수원에서 다 하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왔던 지금 수  
 원에서 자리를 잡고 수원 거주를 가지고 있으면 다 수원 사람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원 토백이다 그러면 벌써 아직까지는 저희 아들은 느끼지 안 느끼지 모르겠습니  
 다. 커 보면 알겠죠. 커 보며는 알겠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꼬리표를 갖고 다니는 “누  
 구누구 아들”,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은 있어요.  
 수원에서 행동도 조심하고, 김성근 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김성근 회장님 딸이 저하고  
 동창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근 회장님을 몰랐다가 JC를 들어와서 선배님을 알고 역  
 대 회장님이라고 모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구 아버님, 이런 거란 말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 또래만 하더라도 제 위에 선배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제 또래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원에 인문계가 3개고, 실업계가 3개 있었거든요. 남학교가  
 요. 여학교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물론 제 또래들은 저하고 학교를 한 번도 같이 안 나  
 온 친구들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일단은 하나, 두 개만 건너면, 서로가 다 압니다. 그간,  
 나이가 같아요. 그런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인제 모르는 사람이예요. 처음 소개받았어  
 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럼, 나이하고 같네. “학  
 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유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는 뭐 “삼일 나왔습  
 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러며 혹시 누구 알아요?” 그러면 “누구는 잘 모르겠는데  
 요.” 그러면 “그럼, 누군 알아요?” “아, 예.” 그럼, “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도 친구  
 거죠. 그죠. [면담자 : 령쥌 친구의 친구가 되니까. 그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친구가 가서 “야 너 재홍이란 친구 알아요?” “재홍이나 잘 모르는  
 데, 왜 그러는데?”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어떤  
 친구지 알고 싶어서, 수원 사람이라는데 나이가 너랑 같대.” 만약에 그런단 말예요. “어  
 느 학교 나왔대?” “어떤 학교 나왔대.” “알았어 기다려 봐.” 한두 군데 전화해 보면 “아 그  
 래 알았어.” “야 개가 너하고는 만나지 말란다.” [면담자 : 하하하] 그간 그 정도의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토박이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다는 그 누구 아들이라는 꼬  
 리표도 물론 있는 거지만, 그건 인제 어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거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하고 저희 아버님이 동창이세요. 고등학교. 친하지는 않으셨지만. 또 인제 처음에는 인사  
 를 드리러 가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굉장히 깐깐  
 하세요. 우리 큰동서 같은 경우에는 A4지를 주고 자기소개서를, 인사하러 온 날. [면담자 :



하하, 선생님입니다.]네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왔는데, 그런 것도 안 받고 통과가 됐어요. 그니까 우리 큰 처형이 물어봤을 거 아녜요. “아빠 왜 근주 신랑은, 왜 우리 신랑은 이것도 쓰게 하고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더니” “어 다 알아. 다 들었어.” 누구누구 집 아들 하면서. 그까 이게 얼마나 내가 평소에 잘했어야 되는 건데, 하하하하, 그게 토박이라고 느꼈던 것과 저한테는 제가 제 또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평판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따른 친구와 만났을 때도 내가 인제 했을 때 무슨 일을 할라고 사업적으로 누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65년생 수원에 사는 누구” 그러면 몇 다리만 거치면 그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수원 토박이가 아닌 분들은 그런 거는 없죠. 그죠. (2012년 8월 21일, 동수원 삼부자갈비 사무실)

이 두 수원JC 전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성근 회장은 현재 수원시 인구 구성에 따라서 수원JC 회원들이 선대로부터 수원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구성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박이 자격 중 수원 거주기간을 줄여서 토박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원JC 회원에서 토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재홍 사장은 실제적으로 수원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이 ‘김수경의 아들’로서 인식되고 인정되는 것이 수원 토박이들의 토박이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은 김성근 회장의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재홍 사장은 20대에 남문에 가서 술을 먹더라도 길거리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고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이미 부친의 귀에 “누구네 아들이 담배 피우고 다니더라.”라는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누구네 집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모와 지식의 동일시가 수원 토박이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수원 지역 광고동 여주 이씨 종친회 회장이었던 이기형 전 이사장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회장이었던 조용호 회장은 선대에 걸쳐서 살아온 ‘뿌리’와 ‘선비정신’을 강조한다. 비록 조용호 회장은 토박이와 외지인의 구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 회장이 주장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선비정신’은 정자동 평양 조씨 동족마을이 숭상해 온 정신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수원JC의 토박이들은 수원서 대대로 살아온 동족마을 출신들이 아니다. 이들은 일제시기 혹은 해방 이후에

수원에서 자리를 잡은 지역 유지들의 자손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집안, 즉 두 세대에 걸친 수원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토박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기형 전 이사장과 조용호 회장과 마찬가지로 김성근 회장과 김재홍 사장도 자녀들이 모두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김성근 회장의 장남은 삼광공업사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손자들도 모두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재홍 사장은 자신이 나온 소화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들은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김성근 회장과 김재홍 사장은 두 세대에 걸친 수원JC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김성근 회장은 수원JC가 초창기를 지나서 도약을 하던 1970년대 JC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김재홍 사장은 수원JC가 침체된 2000년대 재도약을 위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 지역 단체들의 사회적 역할도 변하기 마련이다. 수원JC도 수원시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시대적 역할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1. 수원 지역 학교들의 지형도
2. 자연과 학연의 결합
3. 동문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윤택림 |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 04 | 수원 지역 동문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한국사회는 연줄사회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혈연을 중시했는데, 일제시기를 거쳐 해방 이후 산업화시기에도 가족주의에 기초한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혈연관계는 부계 친족집단으로 발전되었고, 조선 중기부터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동족마을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혈연과 지연이 결합하여 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인의 이름에 출신 성씨뿐만 아니라 출신지역인 본관(本官)이 따르게 된 것이 바로 혈연과 지연이 한국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혈연과 지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줄망은 바로 학연이다. 조선시대에도 특정한 유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학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일제시기에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이 생기면서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동문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치열한 입시경쟁 덕분에 명문학교들이 생기면서 이들 명문학교 동문들은 한국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집단으로 등장하였다. 학력은 신분이 사라지고 지주가 사라진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교육열을 가져왔고, 그것은 곧 특정 학교 출신 집단, 즉 학연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해 왔다. 수원 지역도 일제시기부터 이러한 학연의 고리들이 만들어져 왔다. 특히 수원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수원의 동문회의 결합은 독특한 동문회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면 수원 지역 동문회의 바탕이 되는 학교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 1. 수원 지역 학교들의 지형도

수원 토박이 이기형 전 수원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이 기억하는 일제시기 수원을 소개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이기형 : (중략) 옛날에는요, 수원에 학교가 중학교라는 게 저 뭐야. 수원농업학교 하나밖에 없어. 응? 인문계 중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다가 이제 소학교가 [화제를 전환하며] 응. 소학교부터 얘기하면은 소학교가 그때는 우리 어려서. 지금의 신평국민학교, 신평초등학교가 그때 수원보통학교. 그게 하나 있고, 삼일학교가 있고, 여기 교동에 지금 매산국민학교지? 그것이 미야마치고구민학교(宮町國民學校)라고, 궁정국민학교라고 일본 사람 다니던 학교요 그거는. 그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 세류학교도 그 뒤에 생긴 거고. 그래 고그리고 인제 중학교라는 게 지금 그 농업학교가 있었고, 삼일학교에 고등과가 있었고, 여학교는 매향여학교 하나가 있었다. 그러곤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왜정 말엽에 지금 매산국민학교 이렇게 질문 들어가자면 우측, 좌측으로 뭐 교사 하나가 있죠. 그게 옛날 건물 이 이제 개조한 건데 거기에 수원가정여학교(수원공립가정여학교, 水原公立家政女學校)라는 게 있었어. 해방되기 전에. 2년제. 가정여학교. 그 가정여학교가 지금 수원여고(수원여자고등학교, 水原女子高等學校)의 전신이야. [면담자 : 아-! 그래요.] 응. 수원가정여학교가 지금 수원여고의 전신이고, 어, 지금 수원중고등학교? 여기 저 기념 타올(타월)도 있다 먼서도있지만서도, 금년이 103주년인가 그래. 그 학교 설립. 103주년 됐는데 100년 넘은 거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소학교 땡길다닐 때는 소학교도 아니요 거기는. 화성학원(華城學院). 응? 그 지금 학교법인 화성학원, 수원중고등학교거든. 그 법인 명칭이 화성학원이야. 근데 그때는 그냥 학교 이름이 화성학원이야. 응?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6년제 국민학교가 아니고 4년제 간이학교였었다고. 화성학원이. 그리고 거기는 나이가 많아서 소학교 못 간 애들. 애 아버지도 있었으니까. 소학교에. 그것이 저 남수동(南水洞)에 가면은 전에 남향동(南香洞)사무소 있던 자리가 그게 그 화성학원 자리여. 그 화성학원이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의 전신이에요. 그러고 인제 우리 학교 생긴 게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나서서 그 뒤에 중학교가 생기는데 수원중학교. 화성학원이 수원중학교가 되고, 삼일 고등과가 삼일중학교가 되고, 농업학교가 이제 이게 둘로 갈려서 [수원북중학교를 만들고 그 농업학교는 [수원농림고등학교로 승격을 해서 고등학교를, 학교의 영역도 그래요. (중략)] (2012년 4월 2일, 오산시 자택)

일제시기 수원읍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신평초등학교이다. 신평초등학교는 1896년 수원군공립소학교로 개교하였고, 1941년 수원신평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팔달구 신평동에 소재해 있다.<sup>1</sup> 수원 토박이들의 구술 증언에 따르면 일제시기 화성 읍성 안에 살았던 조선 아이들은 신평국민학교에 진학했고, 성 밖에 살던 조선 아이들은 세류국민학교에 진학하였다. 세류국민학교는 1937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권선구 세류1동에 소재해 있다.<sup>2</sup> 당시 일본 아이들은 매산국민학교에 진학하였다. 매산국민학교는 1906년 수원거류민소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41년 수원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해방이 되자 수원 매산국민학교로 바뀌어 현재까지 팔달구 매산로3가에 위치해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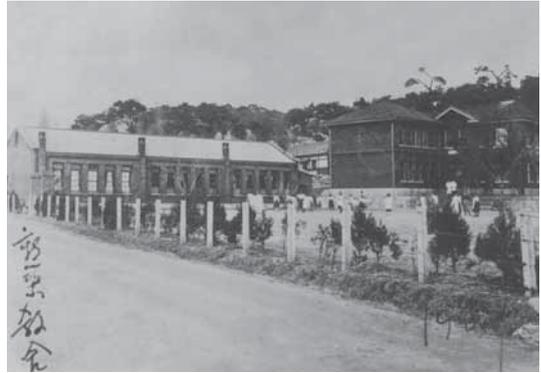
이 외에 사립 교육기관으로는 삼일학당이 1903년 보시동 북감리교에서 개교<sup>4</sup>하여 어렵게 살던 조선 아이들이 수학하였다. 1906년 삼일학당은 고등과로 진학하는 심상과를 개설하면서 수학연한을 4년으로 하였고, 보시동에서 종로교회로 교사를 옮겼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재정난 등으로 고등과를 폐지하고 심상과를 보통과로 변경하여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개정한 후 1915년 일본정부에게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sup>5</sup> 1923년에는 현재의 교사가 있는 매향동에 근대식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1925년에는 6년제 사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sup>6</sup> 또한 북감리교 여선교회는 1902년 삼일여학교를 개교하였고, 1941년 수원여자매향학교로 인가를 받았다.<sup>7</sup>

1909년 수원상업회의소의 부속으로 현 수원고등학교의 전신인 수원상업강습소가 남수동에 설립되었다. 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수원상업강습소는 1915년 일제 식민정부가 「조선상업회의소령」을 공포하여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체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다 강습소의 명칭을 화성학원으로 개칭하고 학령과만자의 입학 준비나 고등보통학교 정도의 학식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었다.<sup>8</sup> 1941년에 화성학원은 수원상업전수학교(현 수원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1942년 매교동 신교사로 이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해방 전 수원읍의 공립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36년에 개교한 수원공립농업학교



수원군공립소학교



삼일여학교

〈표 1〉 일제시기 수원읍 내 학교

설립 당시 학교명	설립연도	공립	소재지	현재 명칭
수원군공립소학교	1896	공립	신평동	신평초등학교
삼일여학당	1902	사립	매향동	매향여자중학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삼일학당	1903	사립	보시동-매향동	삼일중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수원거류민소학교	1906	공립	매산동	매산초등학교
수원상업강습소	1909	사립	남수동-매교동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수원공립농업학교	1936	공립	영화동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공립가정여학교	1936	공립	고등동	수원제일중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세류공립국민학교	1937	공립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수원공립가정여학교(현 수원여자중고등학교)가 있었다. 수원공립농업학교는 당시 농과 1학급의 5년제로 인가받아 신평국민학교 교실을 대여하여 사용하다가 수원읍 영화정(현재 영화동)에 교사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1936년 3년제 1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수원



삼일학교



수원거류민소학교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



수원공립농업학교



수원공립가정여학교



세류공립국민학교

공립심상소학교(현 대산초등학교) 별관에서 개교하였다가 1941년 팔달구 고등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4년제 학교가 되었다.<sup>9</sup>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34년에는 2년제 고등과로 인가를 받은 삼일학교 부설의 2년제 고등과가 있었다.<sup>10</sup> 따라서 사실상 수원 내에서 고등교육기관은 농업학교와 가정여학교였기 때문에, 인문계 진학이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경성에 있는 중학교와 전문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기를 통하여 수원의 학교들에도 변화가 왔다. 일부 학교들은 중학교로 승격하였고, 1951년 한국전쟁 중에 학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6년제였던 중학교 과정이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뀌었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새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삼일학교는 1946년 미군정 문교부로부터 수원 삼일중학교로 승격을 인가받게 되었다. 삼일중학교는 1962년 수원상업고등학교로 개칭을 하였다가 1968년 삼일실업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 1988년에 삼일상업고등학교와 삼일공업고등학교로 분리하여 개교하였다.<sup>11</sup>

수원여자매향학교는 1946년 수원여자초급중학교로 승격을 인가받았고, 1951년에 3년제 매향여자중학교와 매향여자상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수원공립농업학교는 해방되던 해 수원공립농림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51년 3년제 수원농림고등학교와 3년제 수원북중학교로 분리되었다.<sup>12</sup> 수원공립가정여학교는 1951년 3년제 수원여자중학교와 3년제 수원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sup>13</sup>

수원상업전수학교는 1946년까지 이어지다가 1946년 6년제 수원중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고, 1951년에 학제 개편에 따라 3년제 수원중학교와 3년제 수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sup>14</sup> 1954년에 수성고등학교와 수성중학교가 조원동에 설립되었다.<sup>15</sup> 1956년에 영신중학교와 영신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1969년에는 영복여자중학교와 영복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같은 해에 유신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1970년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까지 수원 소재 남자중학교는 5곳, 여자중학교는 3곳, 남자고등학교는 6곳, 여자고등학교는 4곳이다.

〈표 2〉 1945~1970년 수원시 중·고등학교

구분	학교 명칭	설립연도	공사립	비고
중학교	삼일중학교	1946	사립	1903년 삼일남학교
	수원중학교	1946	사립	1909년 수원상업강습소
	수원북중학교	1951	공립	1936년 수원공립농업학교
	수성중학교	1954	공립	
	영신중학교	1956	사립	
	수원여자중학교	1951	공립	1936년 수원공립가정여학교
	매향여자중학교	1946	사립	1902년 삼일여학교
	영복여자중학교	1969	사립	
고등학교	삼일실업고등학교	1968	사립	1903년 삼일남학교 1988년 삼일상업고등학교와 삼일실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1946	사립	1909년 수원상업강습소
	수원농림고등학교	1951	공립	1936년 수원공립농업학교 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1954	공립	
	유신고등학교	1969	사립	
	수원공업고등학교	1970	사립	
	수원여자고등학교	1951	공립	1936년 수원공립가정여학교
	매향여자상업학교	1951	사립	1902년 삼일여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1956	사립	
영복여자고등학교	1969	사립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원에는 지속적으로 학교들이 증가하여 2011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초등학교 88곳, 중학교 52곳, 고등학교 39곳이 되었다.<sup>16</sup> 1970년 당시에 수원시 인구는 17만 명이었고,<sup>17</sup> 중학교는 8곳, 고등학교는 10곳이었는데, 수원의 인구가 110만으로 되면서 학교의 수도 늘어난 것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획기적으로 학교가 증가하였다.

수원 인구의 증가와 학교의 증가 과정에서 종래의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990년대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많은 수원 주민들이 신주거지로 옮겨 갔다. 그리고 1997년 화성행궁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신풍초등학교 100회 졸업 축하 현수막

이 되면서 화성행궁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화성행궁은 팔달구의 행궁동에 속하게 하였고,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자 행궁 주변, 즉 일제시기 수원읍의 중심지가 낙후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의 확장과 도시화로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과 문

화재 보호는 수원시 구도심지에 소재한 오래된 학교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풍초등학교다. 현재 신풍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인 차희상 전 도의원은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 신풍초등학교의 역사와 당면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면담자 : 그러면은 신풍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시기 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제 그 좁은 요기[여기] 북수원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풍초등학교까지 그 당시에 인제 수원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제 전쟁 직후니까 굉장히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차희상 : 네]네. 전쟁의 영향 같은 게 수원에서, 그 시내에 많이 있었나요?

차희상 :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인제 수원이 인제 정조대왕이 수원을 도읍지로 정할라고정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수원이 분지(盆地)입니다. 분지. [면담자 : 네, 네.] 응? 수원은 유명한 산이 광교산(光教山)이 있고, 팔달산(八達山), 여기는 팔달산이 있고, 이쪽 서쪽에는 칠보산(七寶山)이 있고 저쪽 동쪽에는 영통구 쪽에 청명산(淸明山)이라고 있어요. [면담자 : 어, 그래요?] 4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안 받아. 비바람이 불어도 여기는 까딱없어. 그래서 수원이 이 '물 수(水) 자 아님니까. 분지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대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물, 물 많고 정말 이런 그 수해(水害)라든지 풍수해(風水害)에 견디고, 이제 병충처럼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정조 임금님이 "여기가, 여기야말로 응? 정말 내가 여기서 우리 아버님" [말을 바꾸며] 그 사도세자, 응? 정조대왕님이 사도세자를 이리[여기]로 모시고 온 거 아님니까. 화산

(華山) 너머로. 그래서 모시고 나서 여기 수원에 초입에 '지지대고개' 라고 의왕(義王) 지나자마자 거기서 올라가서 내려 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사도 세자를 능(陵)으로 옮기면서 그게 용건릉<sup>18</sup> 아니에요. 그러면서 화산화성, 성(城)을 쌓기 시작을 하고 당시에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 또 행차할 때 머물 수 있는 곳, 그게 화성 행궁(華城行宮)이에요. 거기다가 199칸에 그집을 지어서 그 수행자들, 군사들을 다 거기서 재운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인제 말해서 도읍을 만들라고 제2행궁, 궁궐을 짓지 않은 거지. 궁궐을. 네. 그래서 인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인제 우리 신평초등학교가 들어간 건데, 왜정시대 때 이놈들이 민족정기(民族精氣) 말살을 할라고 행궁을 때려 부수고 응? 거기다가 '자혜병원' 이라고 병원을 지었어요. 지금 그게 인제 도립병원인데 [면담자 : 네] 그리고 옛날, 지금, 옛날로 얘기하면은 그 자위대(自衛隊) 같은 경찰서를 갖다가 또 짓고, 그리고 우리 신평초등학교를 거기다가 한 거야 세운 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인제 우리가 복원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면담자 : 근데 한국전쟁 때 이 행궁이나 뭐 신평초등학교 이런 데는 별 피해는 없었어요?

차희상 : 많이 피해 났죠. 그래 가지고 일제 때 인제 일부가 많이 저 행궁이 소실이 됐잖아요? 행궁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인제 복원을 좀 하고 그랬어. 중간에, 근데 6·25 때 인제 신평초등학교 본관(本館)이 불타서 없어지고 [면담자 : 아, 본관이?] 본관이. 응? 신평초등학교가 두 번의 큰 화재가 있었는데 6·25 때 한 번 불타서 없어져서 다시 졌어요. 그런 다음에 1986년도일 거예요. 1986년도에 불이 나 가지고 또 전소(全燒)가 됐어.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우리 동문들이, 전소가 됐는데 그 동창회 뭐 졸업생 기록이 다 불타서 하나도 없는 거야. 손을, 없어. 자료가 하나도 없어. [면담자 : 오, 그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 동문회가 그때 뭉쳐 가지고 동문들이 갖고 있는 사료(史料). "졸업장이라든지 기념이 될 만한 사진 다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동문들이 똥똥 뭉쳐 가지고 사료관을 만들었어. 사료관을 만들어서 지금 그게 다 그러니까 졸업장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앨범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가지고 그게 지금 역사박물관에 인제 비치가 되어 있는데.

면담자 : 어, 수원역사박물관이에요?

차희상 : 굉장한 자료지 그게.

면담자 : 음, 그러네요.

차희상 : 네. 그래 가지고 신평이 역사가 다시 재건이 된 거예요. 그게. [면담자 : 음 그러셨구나.] 그래서 인제 어제도 이제 그 신평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우리가 했는데.

면담자 : 왜요? 무슨 공청회?



차희상 : 이전을 하잖아.

면담자 : 아, 행궁 때문에.

차희상 : 행궁 복원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죠. 뒤 국책사업이고 이 행궁이라는 거는 정조 임금의 그 모든 그 행궁 복원하기 위해서는 응? 정말 옛 도로라든지,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그 정조 임금이 머물면서 군사들이 거기서 자고 그런 자리가, 그걸 객사(客舍)<sup>19</sup>라 그러는데, 그게 신평초등학교 자리였어요.

면담자 : 아, 객사가.

차희상 : 객사가. 응? 그래서 그거를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 안 하고서는 그 옆에 인제 화령전(華寧殿)이라고 있는데, 화령전. 거기에 정조 임금 초상화가 안치되어 있는 사당으로 매년 제를 지내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아주 그 화성행궁이라는 거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세계문화유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저는 어제 공청회할 때 동문회장 자격으로 가서 이거는 비록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지만 응? 우리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고 신평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역사를 보존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다시 신평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교육환경이 좋은 광고신도시. 광고신도시로 가게 돼 있거든요? [면담자 : 아, 그래요? 광고신도시 거기 교육 특구(特區)가 있어. 에듀타운(edutown)이라고. 그리 인제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학부모들은 당장 떠나는 걸 싫어하잖아. 내, 내 자식 응? 졸업하는 걸 원하지. 그래서 어제 내가 그거를 찬성발언을 내가 했습니다. 과감하게. 부모들한테 나, 부모들은 나를 욕하겠지. 그러나 신평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이쪽이, 신평학교 근처가 화성행궁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이 수용당해 가지고 다 떠났어. 사람이 없어.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이번 금년도에도 입학생이 스물네 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이고 얼마 가다 보면 폐교 위기까지 오겠다. 그래서 있는 학생들은 옆에 있는 남창(南昌)학교로 이전을 시켜 주고 신평학교는 그- [말을 바꾸며 신평의 이름이라는 거는, 임금이 새로운 나라를 짓기, 이런 훌륭한 명칭을 없애면, 없애면 안 된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인제 교육청이나 수원 시에서 광고신도시로 가는 걸로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반발이 심하지. 학교에서는. 근데 인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 신평의 명성을 찾고 또 이게 좋은 환경에 가서 해다 보면은[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더 훌륭한 이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 봐라.” 옛날에 서울도 강남이 생겼을 때 경기고등학교, [면담자 : 맞아요] 서울, 서울고등학교는 거기 경희궁 때문에 복원, 복원, 경희궁 복원 때문에 서울고등학교 강남으로 간 거고, [면담자 : 그렇죠] 경기, 숙명여고, [면담자 : 휘문] 휘문, 다 갔어요. 배재, 보성, 다 갔어. 그런 얘기

어제 다 했지. 그래 가지고 “이거는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거니까 반대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신평초등학교는 영원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쓴다고 그러면 좋은 데로 이전해 주는 게 맞다.

면담자 : 네, 이따가.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복수원에 어렸을 때 살면서 신평초등학교 다녔을 때 신평초등학교 그 규모나 거기 다녔던 애들하고 지금은 뭐 규모도 상당히 적고 애들이 그리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다 조금 다르겠죠?

차희상 : 다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80명이었어요. 한 반에 80명씩 6학년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한 학년에 뭐 한 500명 이상, 그러면 6학년이면 한 3,000명이 다녔단 말이야. [면담자 : 정말 크네요(웃음)] 아, 그리고 지금도 신평학교 가 보면은 운동장이 전국서 제일 커요. [면담자 : 아, 그래요?] 완전히 이긴 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신평학교를 떠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전망이 너무 좋다. 신평학교 앞에 보면 팔달산이 딱 가로, 딱 옆에 있고 딱 시야가 트여 있고 화성행궁이 있고 앞에 임금님이 사셨던 행궁이 있잖아요. [면담자 : 아, 주위 환경이 좋군요.] 환경이 좋지. 운동장은 이걸 뭐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떠나, 우리는 안 떠나고 싶다.” 그런데 사실 학교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좋, 아주 애들 뛰어놀고 좋다. 흙, 흙도 흙이고. 흙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주위 환경은 너무나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수원이 경제가 망가진 게 인제 이 수원 남문 북문 거리가 인제 인구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면담자 : 그렇죠] 응? 어떤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시(市)에서. 그러니까 또 이번엔 수용당해서 다 떠났지. 밤만 되면 껌껌한 거여. 귀신 나오는 동네가 된 거여. 그러니까 생기는 게 뭐가 생기겠어. 무당집만 생기는 거야. 점(占)집만. 신평초등학교 근처 가 보면요, 아마 가 보시라고. 한 치 건너 점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학교 근처에 학원이라든지, 문방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 책방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점집이 그냥 수두룩해 점집. 그러니까 우리 수원 시도 큰 문제지. 내가 어제 그 애길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부모가 일어나더니 “요즘에 누가 학원 걸어 다니는 사람 있느냐. 학원에서 다 차가 온다.” 이거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잘못 키우는 거지. 그거는 유치원 때 애들 길 잘 몰르고 그럴 때나 차 태워서 보내는 거지. 애들이 [말을 바꾸며] 나는 학교 다닐 때요, 물론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가까우니까 걸어 다녔지만, 중학교 다닐 때 철길 건너서 한, 한 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2012년 4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정회 사무실)



## 2. 지연과 학연의 결합 \_ 수원72동우연합회

한국사회에서 동문회는 학연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작동하는 동문회는 주로 남자고등학교 동문회와 대학교 동문회다. 수원에는 일제시기부터 경기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남자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고등학교 동문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수원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물들이 50세 전후라고 한다면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에서 1963년생)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조금 더 확장하면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부터 박정희 군사정부 초기인 1965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47세부터 60세까지 수원 소재 남자고등학교 동문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 초까지 수원에서 남자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이 당시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부추긴 입시는 중학교부터 시작되었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입시를 위해 다 성장하지도 않은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1968년도에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었다. 그 후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증가 문제로 서울에서 고등학교 입시도 1974년에 폐지되었다. 수원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수도권 5개 도시에 고교 평준화가 확대 실시되어 고교입시가 없어졌다.<sup>20</sup> 하지만 수원 지역 학생들도 1970년대까지는 입시를 피할 수 없었다. 차희상(1954년생) 전 도의원은 1960년에 신흥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수원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차 전 의원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당시에는 입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민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상당하였다고 한다.

1948년부터 1964년까지 신흥국민학교 교사였던 이영재(1928년생)는 1960년대 신흥국민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5대 공립(경기, 경북, 서울, 용산, 경동)과 5대 사립(중앙, 휘문, 배재, 양정, 보성)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15~20%(60명 정원에 10명) 정도였다고 한다.<sup>21</sup> 또한 남창국민학교<sup>22</sup>를 나온 이용창(1954년생)은 1966년에 수성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당시 남창국민학교 시절 수원 시내에 있었던 매산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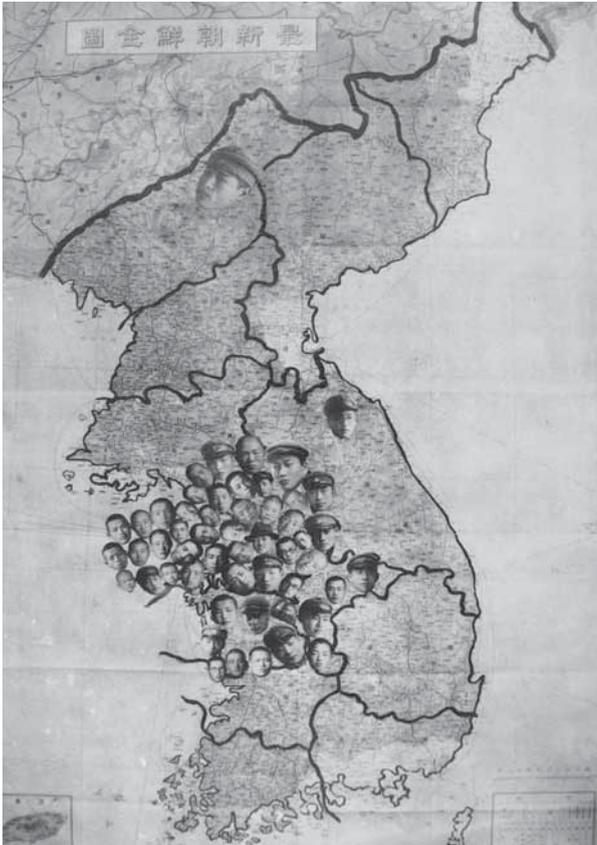


1940년대 수원기초통학생축구선수단 우승 기념사진(이영자 제공) 1970년대까지 수원에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많았다.

학교, 신흥국민학교, 세류국민학교, 지동국민학교<sup>23</sup> 친구들과 함께 과외공부를 했는데, 남창국민학교<sup>24</sup>에서 반 정도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다고 한다. 매산국민학교를 나온 김태형(1953년생)도 남녀 각각 3만씩 있었는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2~3명씩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태형은 수원중학교에 들어가고 집안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969년 실업계 고등학교인 삼일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당시에 수도원중학교 졸업생 중 20~30%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 수원에 설립된 국민학교와 중학교 졸업생들이 서울로 유출된 것만은 아니었다. 수원은 1967년 경기도청이 이전하기 전부터 북쪽으로는 의왕·안양·여주, 서쪽으로는 인천, 남쪽으로는 용인·화성·오산으로부터 수원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수여선<sup>25</sup>과 수인선<sup>26</sup>철도가 있어서 여주나 인천으로부터의 통학이 용이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로 통학





수원농고 1회 졸업생 출신지도(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소장)

이 가능하였다. 김태형이 삼일  
실업고등학교 재학하고 있을 당  
시 재학생의 10~20%는 여주, 야  
목, 일리, 송탄, 오산, 의왕, 고천  
등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었  
다고 한다.

수원은 서울에서 가까웠기 때  
문에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도 통학이 가능한 지  
역이어서 수원의 인재 유출도  
많았다. 하지만 수원이 경기도  
의 수부(首府)도시이고 경기도  
청 이전 및 수원 지역의 확대 등  
으로 발전을 해 가면서 인근의  
인재들 또한 수원 소재 중고등  
학교에 진학하였던 것이다. 영  
통구 이의동 토박이인 심언목  
(1937~2002년)은 이의동이 1983  
년 수원시에 편입될 때까지 용  
인군 수지면이었기 때문에 수지

국민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중학교는 수원시의 삼일중학교를 졸업하고 1954년에 수  
원농림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sup>27</sup> 오이환은 영통의 해주 오씨 26세손으로 1947년 화  
성군 태장면 영통리(현 영통구 영통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장국민학교를 졸업하  
고는 수원시의 수원북중학교를 나와서 서울의 경동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sup>28</sup>  
1940~1970년대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제일가는 부자이며 영신여자고등학교 재단  
인 화산학원을 설립한 집안의 박지원은 1934년 화성군 안릉면 고색리(현 권선구 고  
색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1년 수원시의 세류국민학교에 진학하였고, 수원중학

교를 졸업하고는 서울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sup>29</sup> 위의 세 사람들은 국민학교 진학 시에는 용인군과 화성군에서 살고 있었지만 모두 수원시의 중학교에 진학하였고, 후에 이들의 고향은 모두 수원시로 편입되어 수원 토박이가 되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학교 동문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원 토박이<sup>30</sup>인데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둘째는 수원 토박이로서 수원 소재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셋째는 수원 인근 지역 출신으로 수원 소재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수원 동문회들은 수원 소재 학교 출신 졸업생들의 조직이지만, 출신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원 토박이들과 인근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 동문회들은 수원과 인근 지역 사람들과 출신학교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원 소재 학교들이라고 해서 지연이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수원농림고등학교의 경우 일제시기부터 전국에 몇 개 없는 농업학교였기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진학해 왔다. 따라서 다른 수원 소재 고등학교들도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생활권 내에 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근 지역 출신 학생들은 수원 토박이가 아니더라도 안양-의왕-수원-화성-용인-오산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 수원에 대한 친근감과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도 학교의 소재가 수원이기 때문에 동문회의 활동은 수원이 중심이 되고, 따라서 수원 지역사회와 연관이 깊다. 전 경기도의회 의원인 차희상은 1969년 수원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차 전 의원이 나온 수원고등학교 제21회 동기회 명부<sup>31</sup>를 보면 총 213명 중 타지에 사는 동기들은 90명(서울 28명, 경기 타지역 54명, 기타 8명), 주소불명 16명, 수원시 거주자가 107명이다. 동기들 중 50% 정도는 수원에 살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타지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지역은 모두 경기 남부에 있는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화성시, 용인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21회 졸업생 중에서 거의 모두가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문회의 행사는 모두 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물론 재경수원중고등학교 동문회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수원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은 수원에 있다.



수원 지역에서 동문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수원 소재 대표적인 남자고등학교는 수원고등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 삼일실업고등학교 그리고 수성고등학교였다. 수원고등학교의 경우 1970년에 수원중고등학교 동문회가 결성되었지만, 수원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독립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1981년이였다.<sup>32</sup> 2005년에는 재경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발족되었다.<sup>33</sup>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전에 동문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초대 동문회장이 남북되는 사건으로 해서 1954년도에야 2대 동문회장이 선출되었고, 1960년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림고등학교가 재결합하여 동문회를 운영하였다. 1970년대 다시 수원북중학교와 분리하여 본격적으로 수원농림고등학교 동문회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수성고등학교는 1970년에 수성중고등학교 동문회를 발족하였고, 1974년에 수성중학교에서 분리하여 수성고등학교만의 총동문회가 설립되었다. 2000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열었으며, 2004년에는 장안구 송죽동에 총동문회관을 마련하였다.<sup>35</sup> 따



2003년도 수원중고 총동문 신년인사회



재단법인 대유평장학회 이사장 이·취임식  
 대유평장학회는 수성고등학교 동문회가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6년 12월에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2011년 수원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라서 수원 지역의 역사 깊은 남자고등학교들은 1970년경 중학교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총동문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문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 소재 유서 깊은 남자고등학교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된 것은 1980년 이후인데, 그 동력은 수원72동우연합회의 성립 때문이었다. 수원72동우연합회는 삼일실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1972년도 졸업생들의 연합동우회이다. 이 동우연합회의 발기인인 김태형은 삼일상업고등학교 제15회 졸업생인데, 대학 졸업 후 집안에서 운영하는 금성TV코너 수원판매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회사는 영동시장에 있었는데, 그는 수원 및 인근 지역에 금성TV를 판매하였고, TV를 배달해 주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동우연합회를 결성하게 되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면담자 : 그럼 언제부터 삼일학교 동창회 일도 하시고.

김태형 : 그게 언제 그렇게 된냐며는 제가 수원중(학교)을 나와서 삼일(상업고등학교)을 갔잖아요. 그때는 어려운 때잖아요. 다 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 남문 하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학교별로 친구들이 다 있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항상 사 주고, 수원중학교, 삼일은 다 알잖아요. 북중학교, 수성도 알잖아요. 왜냐면 인사하고 너는 농고냐 하면서 남문 와서 술 먹다 보면 다 알잖아요. [면담자 : 술집에서, 하하] 그렇죠. 제가 돈이 있으니까 맨날 술 사 주고. 한 200~300명을 남문에서 왕래가 있었지. 변화가니까 매일 보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수원이 뭔가 애향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애기가 있었어요. 그런 애기가. 뭔가 친구들, 나만 알게 아니라, 저는 다 알지만, 타 학교애들은 다 모르죠. 야, 그거 서로 모여서 함께한다며는 서로가 뭔가 수원 발전이나 개인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체육대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 수원고등학교 회장이 정낙철(사업)이에요. 정낙철. [면담자 : 그럼 그분이 72] 그렇죠. 삼일고등학교가, 둘 다 초대 회장일 거예요. 아마. 초대회장. 삼일고등학교가 박성래(전 건설공제조합 부장)가 초대 회장,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정낙철하고 제가 친하니까, 먼저 얘길했죠. “야, 낙철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같이 해서 서로 알고 지내고 뭔가 뜻 깊은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제의를 해 가지고, 삼일학교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서로 좋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정낙철이하고 저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 답에 조직을 만든 게 박성래 회장하고 정낙철하고 그 외 준비위원들 몇 명에서 용현식(현 약초신문회장)이, 이

렇게 해서 처음 받기를 했죠. (중략)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삼일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수삼전(수원고등학교 대 삼일상업고등학교전), 원래 삼수전이 되어야 하는데 수삼전이 됐지. 수삼전 1회가 80년도 4월 중순에 한 거예요. [면담자 : 아 80년, 네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삼일학교 운동장에서 했죠. 그래 가지고 150명쯤 나왔지, 1회에 [면담자 : 양쪽 다 합해서?] 네네. 두 개 학교 [면담자 : 두 개 학교 72] 그렇죠. 그래 가지고 2회를 수고에서 했죠. 똑같이. 그때도 한 200명 나왔어요. 200명, 그래 가지고 그때 그다음에 1년을 치른 다음 해 제가 회장을 맡았죠. 인제 동창회장을. [면담자 : 1981년도에]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동창회장을 2년인가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수고 동창회장이 권오창(현 경기신문 감사)이예요. 그래서 그 권오창이하고 친하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다 참여시키자.” 그래서 수성고등학교 회장 김영철(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그때 동창회장, 농고에 이현재(전 한일합섬 이사) 동창회장, 그렇게 해서 4개 학교를 했고, 또 수원서 [서울로 유학 간 애들, 72서울동우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최중구(사업)가 회장을 맡았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4년째에는 5개 학교가 다 하게 된 거죠. (2012년 9월 11일, 수원박물관)

현재 수성고등학교 제15회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용창도 김태형의 말처럼 처음에는 삼일상업고등학교와 수원고등학교가 함께 체육대회를 시작했다가 후에 수성고등학교와 수원농림고등학교가 같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학교는 수원에서 나왔으나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함께하고 싶어 하니까 그 친구들을 서울동우회로 조직하여 5개의 동우회가 72동우연합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72동우연합회는 1972년도에 졸업한 수원농업고등학교 제32회 동창, 삼일상업고등학교 제15회 동창, 수원고등학교 제21회 동창, 수성고등학교 제15회 동창, 72서울동우회로 구성되어 있다. 72동우연합회는 매년 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5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약 300~400명이 모여서 주로 축구경기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로원 돕기, 장학금 수여 등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봉사를 해 왔다.

이용창 수성고등학교 제15회 동문회 총무에 따르면, 각 동우회 멤버들이 학교별로 특성이 있다고 한다.<sup>36</sup> 서울동우회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수원에 와서 가업을 잇는다는가, 의사와 같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한다. 삼일상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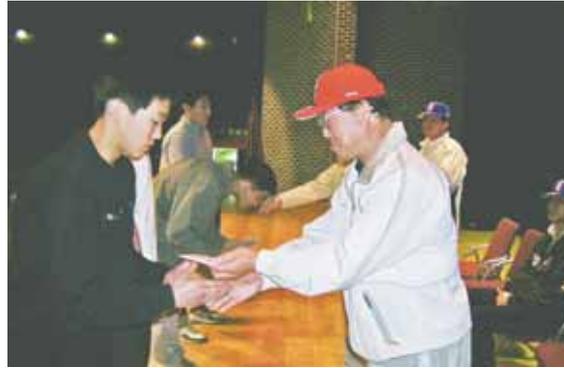


제31회 수원72동우연합회 가족체육대회



수원72동우연합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한 회원들 수원농고 32회, 수원고 21회, 수성고 15회, 삼일상고 15회의 팻말이 보인다.

교 동문들은 주류 업계와 같은 직종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수성고등학교 동문들은 각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수원고등학교 동문들은 수원 토박이들이 많아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 중 영동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2004년 72체육대회 후 장학금 전달

72동우연합회는 1,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나 최근에는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이용창에 따르면 회원들의 나이가 들어가면서(현재 72동우회 회원들은 대략 1952~1954년생)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1980년대 초창기에는 30대 나이의 젊은 혈기로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주로 했으나 이제는 다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경기 종목이 족구나 발야구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실외 운동장에서 하다가 이제는 실내에서 강연회나 장기자랑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매년 5월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5월에는 각 학교마다 총동문회 행사가 있어서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10월에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동창들의 인생 경로가 달라지고 경제력도 달라지면서, 소그룹 형태로 모이는 것이 편해져서 72동우연합회가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창립멤버였던 김태형은 초기 창립멤버들의 생각과 달리, 동창회장이 계속 바뀌면서 친목단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더 발전된 협의체나 법인으로 가지 못한 것도 72동우연합회가 쇠퇴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용창은 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협의체나 법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2동우연합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된 동우연합회라는 독보적인 단체이다. 1980년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한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동문회가 모여서 하나의 동우회를 결성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동우연합





72동우연합회와 시장의 좌담회(1999년)

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태형은 72동우연합회가 수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면담자 : 이런 모임을 통해서 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지역사회를 보며는 당시에 선생님께서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수원에서 4학교밖에 없었으니까 사실 거의 다 알잖아요.

김태형 : 그렇죠. 이걸 통해서 더 알게 되었죠. 이제는 다 알게 됐지. 전에는 서로 몰랐죠.

면담자 : 그럼, 그런 것이 어떤 지역사회나 수원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김태형 : 기여는 학교별로 장학금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조금 많이 활용을 했죠. 정치인들이 그때 제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엮고 간 사람들이 ○○○ 국회의원, 수원고등학교 출신이고, ○○○ 수원시장, 그분들이 초창기 때부터 우리 같이 활동을 했어요. 매년 행사 때마다 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면담자 : ○○○ 시장은 어느 학교 출신 농고요. 그 두 분이 초창기 때부터 와서 협찬도 해 주고, 인사말 해 주고, 간부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결국은 그분들이 수원서 정치를 다 했잖아요. 정치를. 그분들이 많이 우리한테, 허허, 기뻐요. (중략) 그래서 결국은 이 취지가 어떤 발전적인 것은 결국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가 생겼다는 것이고 수원 자체에서도 이런 모임이 생겨서 학교 발전도 됐겠고 그 수원 발전에도 기여를 했겠지만, 각자 서로 사업 영역이 넓어졌죠. [면담자 :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내가 뭐 천 명이면 직업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72회원이 아쉬울 때 명단 보면 이 사람 어디구나 부탁도 하고 서로 엄청나게 개인 발전에 중요했죠.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면담자 :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렇죠. 자기발전이죠. 그 대회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사회적인 리더십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 간부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자꾸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고력이, [면담자 : 리더십] 대회장 하면 마이크 잡고 앞에서 다 해야 하니까. 리더십이 생기지. 그래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요. [면담자 : 오, 그래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성장을 빨리 하게 된 거지. [면담자 : 사회적으로 크고 성장하는 데.] 그렇죠. 결국 이 모임 때문에 동문회도 활성화에 기여했고, 수원 지역에 모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기여했다고 보는 거죠. (2012년 9월 11일, 수원박물관)

〈표 3〉 수원72동우연합회의 현 거주지 분류<sup>38</sup>

거주지	수원고등학교(21회)	수원농업고등학교(32회)	삼일상업고등학교(15회)	수성고등학교(15회)
서울	28(14%)	12(5%)	16(12%)	11(15%)
수원	107(54%)	113(46%)	68(50%)	35(49%)
경기 타 지역	54(27%)	114(46%)	44(33%)	24(34%)
기타	8	9	7	1

72동우연합회의 영향으로 나타난 동우연합회 중 하나가 82연합회이다. 82연합회는 2009년에 결성되었고, 198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원 지역 7곳의 고등학교(수원정성고등학교 7회, 수원공업고등학교 9회, 수원농업고등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42회, 삼일고등학교 25회, 수성고등학교 25회, 수원고등학교 31회, 유신고등학교 7회 졸업생) 3,000여 명 동기생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72동우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수원시의 발전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37</sup>

수원72동우연합회는 수원 인구 중에서 한 사례일 뿐이지만 4개 학교 출신들의 현 거주지를 보면 대체로 수원 지역 고등학교 동문들의 네트워크의 지역 분포도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학교들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진학한 학생이 20~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원 사람들이 이주한 지역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수원농업고등학교의 경우는 경기 남부에서 인재들이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경기도 타 지역 거주자가 수원 거주자보다 많다. 삼일상업고등학교와 수성고등학교도 수원고등학교에 비하여 현재 타 지역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것은 수성고등학교 제15회 동문회 총무인 이용창이 말한 대로 수원고등학교에는 수원 토박이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른 1969년 당시에 진학하기 가장 어려운 학교는 수원고, 수원농고, 수성고, 삼일상고 순이었다. 따라서 서울에 진출한 비율도 수원고가 높은 편이다. 각 학교 동문들의 거주지 비율을 보면 모두가 수원에서 50% 정도 살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타 지역에 사는 동문 비율은 수원고 27%, 삼일상고 33%, 수성고 34%인 데 비해 수원농고는 46%로 가장 높다. 타지 이주 중 서울 이주



수원82연합 한마음 체육대회 수원72동우연합회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수원 82연합회는 경성고등학교 7회, 수원공업고등학교 9회, 수원농업고등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42회, 삼일고등학교 25회, 수성고등학교 25회, 수원고등학교 31회, 유신고등학교 7회 등 수원 지역 7개 교교의 1982년도 졸업생 연합이다.

의 비율도 수원고는 14% 수원농고는 5%, 삼일상고는 12%, 수성고는 15%로 수원농고의 비율이 가장 낮다. 이것은 수원농고 출신들은 각 지역의 관리가 많다고 한 이용창의 구술과 일치한다. 이들 졸업생이 경기도 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 사는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경기도 타 지역도 대부분이 화성시와 용인시이고, 삼일상업고등학교 동문들은 성남시, 군포시, 안양시, 오산시 등 더 다양하다.

즉 4개 학교 동문들의 90% 이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원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은 동문들은 동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거리적으로도 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수원을 떠나는 사람들의 반 정도는 서울로 갔고 나머지는 경기 남부의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등에서 살고 있어서, 옛 수원군 시절의 수원의 공간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 3. 동문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수원 소재 학교, 특히 일제시기 및 해방 전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들은 수원 학생들만이 아닌 인근 경기 남부 지역 학생들도 수원 소재 중고등학교의 졸업생이 되었다. 그리고 타 지역 출신 동

창들도 수원의 대표적인 학교들의 동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태형에 의하면 72동우연합회에 참여하는 삼일상업고등학교 동창 중에 20~30%는 서울이나 타지에서 살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문들은 수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수원의 명문고 동문회 회원들이 생각하는 ‘수원 사람’ 과 ‘수원 토박이’ 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원농업고등학교 출신인 최향호(1943년생)는 서둔동 토박이로 서둔동에 있었던 수원농고에 자연스럽게 진학하였다. 그는 매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에 수원공립농업학교(21회)에 진학하였다. 당시에 수원농고는 전국에서 수재들이 들어왔고, 특히 축산과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최향호는 수원농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통학하였다.

면담자 : 72동우연합회, 선생님보다 10년 어린 후배들의 경우에는 수원에서 학교를 나오면 영동시장에서 모두 만나면 친구라고 그러던데요. 선생님은 농고 나온 후에 서울로 대학을 가셨지만.

최향호 : 우리 케이스는 땡기기 바뻐서. 왜냐하면 교통도 아침 5시, 6시에 통학 열차가 있고 저녁 5시, 6시, 고 차를 꼭 타야 돼요. 통학 열차라고 있었어. 그거 안 타면 일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 여섯 시에 수원역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천안서부터 올라와. (중략) 모임은 정식으로 한 게, 졸업하고 10여 년 지나서 만났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군인들 갔다 오고, 직장들 자리 잡고 그러니까 모이지. 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모여. 그래 가지고, 너 뭐 하나, 너 뭐 하나, 그러무는 나이가 40대는 안 됐어도 30대 후반 아냐. 그럼 직장에서 자리 잡을 때니까, 그러무는 인제 농고 출신들이니까, 선생 많고, 저기도 많았어. 농촌지도소, 그리고 구청 같은 데 그리 가면 토목과, 농협, 농협도 많았고. (중략)(2012년 11월 29일, 수원 서둔동 자택)

최향호는 수원 토박이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향호 : 쉽게 말하면 수원에서 학교 다녔으면 다 알아. 왜냐, 초등학교 때 걸리지 않으면 중학교 때 걸리고,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걸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학교에서 걸리든지, 또 중학교에서 걸리든지, 고등학교에서 걸려. 그러니까 동창 아닌 놈이 없어. 선



후배 관계가. 아 그러니까 썩봐서 “너 어디 살어?” 하면 어디 산다 하면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맞아, “너 친구 누구지?” 맞아. “너 신평(국민학교) 나왔으니까 북중(수원북중학교) 다녔지?” 하면 맞아.

면담자 :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본인이 수원 토박이다라고 느끼는 때가 어떤 때인가요?

최향호 :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웬 도시 가운데에 성곽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주 온전하게. 그 역사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농대, 진흥청을 자랑을 많이 해요. 특히 진흥청을. 진흥청은 우리가 농업 혁명의 주소지다 이거지. 뭐든 우리가 자급자족.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자급자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로서는 그런 자부심이 있지.

면담자 :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향호 : 그렇죠. 교육도시고. 왜냐하면 외지에서 수원으로 공부하러 오니까. (중략) 토박이 소리 들을 수 있으려면 그제 여기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땀겨다 하면 토박이라고 봐야지. 철들자부터, 예를 들어서 성인이 돼서 온 거는 그거는 토박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여기서 공부하고.

면담자 : 태어나지는 않았더라도.

최향호 : 그렇죠. 여기서 공부했다라는 얘기는 동창생들이 다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말이 통한다는 얘기지. 어디 가면. (중략) (2012년 11월 29일, 수원 서둔동 자택)

전 경기도의회 의원인 차희상은 1954년 북수동에서 출생하여 신평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를 나왔다. 차 전 의원의 집안은 정조 대 장인으로 화성 읍성에 이주하였다. 선친이 일제시기부터 선화직물을 경영하였고, 대학 진학도 수원 소재 대학을 다녀서 한 번도 수원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수원 토박이다. 차희상 전도 의원은 수원고 제21회 동창으로 72동우연합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차 전 의원은 권선구 도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권선구와 수원 토박이의 지역 내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면담자 : 그러면요, 좀 정리를 하면서요. 그동안 인제 그 수원이, 수원에서 태어나시고 계속 50년 이상 사셨는데, 거의 어떻게 좀 발전해 왔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는 수원이 뭐 초기에는 그냥 농촌이었다가 [차희상 : 그렇죠 도시화되면서 이제 또 많은 대기업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변천 과정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곳

이 발전해 왔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차희상 : 예, 인제 저는 이제 내가 의정생활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수원 토박이다.” 나는 수원 토박이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수원 토박이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선거캠프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면담자 : 왜요? 외지 사람이 더 많다 이거지. 수원이 지금 115만이에요. 120만이 다 돼 가. 근데 수원 토박이가 많아야 20프로(%)가 안 돼. 그죠? 아까 최고 맥시멈이 이십(20)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십만 중에서 서울로 다니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실제 수원에 사는 사람은 십만 명 내외? 그러니깐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면 이십프로 정도가 수원 토박이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은 십 프로밖에 안 되는 거 같아. [면담자 :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다보니깐 나는 정말 수원에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나는 수원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근데 지금 와서는 안 그래. 사람들이. 조금 바꿨어. 왜냐면 우리 권선구 같은 예를 들어서 응? 낙하산 공천을 한 번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낙하산 공천이야. 수원에 연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내려와. 내려와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도 아휴, 사람들이 그냥 이게 우리가 늘 보면은 이 서울하고 경기도는 항상 보면 이 수도권이라는 이러한 바운더리(boundary) 때문에 크게 욕심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말어. 예를 들어서 경상도 뭐 영남향우회, 전라도 호남향우회는 있어도 우리 경기향우회는 없어요. [면담자 : 그렇죠. 하하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이제 “아유, 그냥 뭐, 에이, 다 먹고살 만하면 고만두지.” 그러니깐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지 사람들은 우리 수원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빨개 벗고 70리 뛰다고 그러잖아요, 80리 뛰다고 그러잖아요.

면담자 : 수원 각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차희상 : 그게 인제 옛날에 나온, 이제 나온 애한테 수원 사람은 빨개 벗고 80리를 뛰고 개성 사람은 빨개 벗고 뭐 200리를 뛰대나 어쩐대나 그러고. 그러니까 [하하하] 하도 인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성도시, 위성도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양에 과거를 보러 선비들이 올라가다 보면 꼭 거치는 데가 수원이라는 거야. 여기서 하루 안 묵고 가면 안 돼. 여기서 묵고 서울 가서 과거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기치고 도망간대. 그러니깐 이제 거기 이제 주막에서 밥해 주던 주모가 보는 거야. “저 선비가 내일 새벽에 도망갈 텐데.” 옛날에 과거시험 보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대는 거라. 아니나 달라 도망간다. 그냥 뛰대는 거야. 고무신도 안 신고, 그래서 빨개 벗고 80리를 뛰고 뭐 이런 소문이 나고 그런 건데, 원인은 인제 거쳐 가는 도시다 보니까 응? 서울 같으면은 그래도 잘살게 될 수밖에 없죠. 거쳐 가는 게 여기도



가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수원이라는 데는 늘 그렇게, 그렇게 해 왔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저 외세라는 거보다도 저, 외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준 만큼 보답을 못 받다 보니까, 각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수원 각쟁이란 소문이 그런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원 각쟁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는 거지. 난 그렇게 봐요. 각쟁이라는 소리 뭐 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이제 수도권, 수도권에서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치고 사기치고 맨날 당하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각쟁이 짓을 해 왔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찐물, 찐물 해도 인천처럼 찐 데가 어딴어. 수원에, 수원이 뭐 바닷가도 뭐 아니고. (2012년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정우회 사무실)

차 전 의원은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수원 사람’이지만, 그중 수원 토박이는 아버지 때부터 수원에서 살아야 토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수원 토박이들이 수원 전체 인구의 20% 정도여서 지방자치시대에 토박이로서의 이점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즉 여러 대에 걸쳐서 수원에서 살아온 토박이의 특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72동우연합회의 발기인인 김태형은 한국전쟁 후에 부친이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영동시장에서 과자공장을 하면서 과자도매상을 하였다. 김태형은 1953년 수원에서 태어났고, 매산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몇 년 전 회사가 정리될 때까지 집안의 사업인 금성 TV 수원판매주식회사의 일을 하면서 수원에서 계속 살아왔다. 김태형은 비록 대대로 수원에서 살아온 집안 출신이 아니지만, 자신이 수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원 토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면담자 :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 수원 토박이로서 수원에서 계속 살아온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에 비해서 수원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김태형 : 특징 같은 게 결국 자존심, 결국은 타인하고 쉽게 마음을 못 줘요. 타인에게 지방 사람들은 뭐 조금만 만나서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금방 친해지고 간도 빼 주는데, 수원 사람들은 쉽게 간, 쉽게 남을 사귀지 못해요. 처음부터 뭐, 지방 사람들은 몇 번 만나고,

어울리면 뭐 간도 빼 줄 것처럼 친해지는데, 수원 사람들은 일정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가 어느 정도 서로의 진정성을 느꼈을 적에 그때 마음을 열고 하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면담자 : 그러니까 커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수원 친구들은 다 인제 뭐 어차피 오픈돼 있으니까 일상적인 만남은 이루어지고, 또 객지 분들에게 그렇다는 얘기지.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저 학교 누구는 어떤 놈이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인제 친구도 또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건은 잘 돼 있지. 그런데 객지 사람들하고는 그렇잖아요. <2012년 9월 11일, 수원박물관>

위의 세 수원 토박이들은 집안이 수원에서 살아온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수원에서 서울로 통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학연이 더욱더 토박이 의식을 강화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62년부터 1972년에 이르러 수원은 인구 17만 명에 남자고등학교는 4개 학교뿐이었다. 4개의 학교를 졸업한 1,000명 정도의 동창들이 수원의 중심가인 남문에서 만나서 학연을 통해 친구를 만들었다. 1972년에 졸업한 남자고등학교의 수가 적었고, 이들이 서로를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도심의 공간이 수원에서 남문이었다는 것이 72동우연합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즉 1967년에 경기도청이 이전했지만 본격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4개의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은 학교를 가로질러 서로의 연대를 만들어 가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이들은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애교심뿐만이 아니라 수원이라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이 수원 지역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동우연합회를 만들게 되어, 출신고를 막론하고 연대감을 형성해 가고 학연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수원시의 39개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동우연합회의 결성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72동우연합회는 인구 20만 이하의 수원시 소재 4개 남자고등학교 동창들이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수원의 독특한 동문회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제1부 '수원 인물', '수원 토박이' 그리고 '수원 사람'

### 03 | 수원의 지역성과 '수원 사람' 의 정체성

#### 주

- 1) 수원문화원 편,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화』, 2008, 337쪽; 수원박물관 편,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342~343쪽에는 “수원 사람 발가벗고 30리 뛰다.”에 대한 비슷한 판본과 해석이 있다.
- 2) 수원박물관 편,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342쪽.
- 3) 성격이 낙관적이고 느긋함 또는 무사태평하다는 의미이다.
- 4)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125쪽.
- 5) 수원박물관에서 2010년에 출판하였다.
- 6)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84~395쪽 참조.
- 8)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94쪽.
- 7)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93쪽.
- 9)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81쪽.
- 10)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82쪽.
- 11)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63쪽.
- 12) 수원박물관, 『수원시 세류동지』, 2010, 364쪽.
- 13)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53쪽.
- 14)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57쪽.

## 제3부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 02 | 수원 지역 종친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 주

- 1) 이 글에 인용된 구술 인용문들은 모두 집필자가 면담한 자료들로서 구술자의 검독을 거쳐서 수정 편집된 것임을 밝힌다.
- 2) 수원시 편, 『수원의 동족마을』, 2006, 27쪽.
- 3) 조선총독부, 『朝鮮の聚落』 하권, 1935, 513쪽(수원시 편,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1쪽 재인용).
- 4) 한동민, 「동족마을 조사 경위와 개관」,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0쪽.

- 5) 한동민, 「동족마을 조사 경위와 개관」,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1쪽.
- 6) 한동민, 「동족마을 조사 경위와 개관」,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3쪽 (표 3)과 (표 4) 참조.
- 7) 한동민, 「동족마을 조사 경위와 개관」,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2쪽.
- 8) 박병련, 「경기지역의 성씨와 씨족」,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37쪽 재인용.
- 9) 한동민, 「동족마을 조사 경위와 개관」,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2쪽.
- 10)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3쪽.
- 11) 수원박물관 편, 「200년전 신도시로 이주한 화성사람들」,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287쪽.
- 12)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5쪽.
- 13)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17쪽.
- 14)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8쪽.
- 15)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18쪽.
- 16)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19쪽.
- 17) 수원박물관 편, 「성안마을의 연혁과 동족마을의 해체」,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8~9쪽.
- 18) 수원시 편, 「광교동 여주 이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68쪽.
- 19) 수원시 편, 「광교동 여주 이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69쪽.
- 20) 수원시 편, 「광교동 여주 이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70쪽.
- 21) 수원시 편, 「정자동 평양 조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174~177쪽.
- 22) 수원시 편, 「송죽동 흥천 용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222~223쪽.
- 23) 수원시 편, 「영통동 신나무실 탐진 최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18쪽.
- 24) 수원시 편, 「영통동 신나무실 탐진 최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19쪽.
- 25) 수원시 편, 「영통동 신나무실 탐진 최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22쪽.
- 26) 수원시 편, 「곡반정동 반남 박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50~353쪽.
- 27) 수원시 편, 「정자동 평양 조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221쪽.
- 28) 이광규, 『가족과 친족』, 일조각, 1992, 83~85쪽 재인용.
- 29) 수원시 편, 「영통동 신나무실 탐진 최씨」,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19~321쪽.
- 30) 이기형 전 이사장은 2012년 4월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산시 자택에서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하였고, 조용호 회장은 2012년 4월 16일 정자동 평양 조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31) 수원박물관 편,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V, 2010, 11쪽.
- 32) 수원박물관 편,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V, 2010, 11쪽.
- 3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사 95년사』, 2008 참조.

### 03 | 수원 지역 청년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 주

- 1) 한국청년회의소 홈페이지(www.jcikorea.org) 참조.
- 2) 한국청년회의소 홈페이지, 한국JC 연혁 참조.



- 3)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53쪽.
- 4) JC 신조(JC Creed) :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초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
- 5)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54쪽.
- 6) 이 표의 내용은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 7)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63쪽.
- 8) LOM은 local organization member로 지방회의소를 말한다.
- 9)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84쪽.
- 10)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125쪽.
- 11)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128~129쪽.
- 12) 수원JC 편, 「2012년 수원청년회의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12, 22~25쪽.
- 13) 수원청년회의소 편, 「수원청년회의소 정관」 제3장 12조,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 14)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223~224쪽.
- 15)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217~221쪽.
- 16) 수원JC 편, 「2012년 수원청년회의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12, 28~31쪽.
- 17)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를 말한다.
- 18) 수원청년회의소 편,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 삼영문화인쇄, 1985, 129쪽.
- 19) 『효원 : 수원청년회의소 33년사』를 말한다.
- 20)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 연도.

#### 04 수원 지역 동문회 회원들의 토박이 의식

##### 주

- 1) 수원시 신흥초등학교 홈페이지(www.shinpoong.es.kr), 연혁 참조.
- 2) 수원시 세류초등학교 홈페이지(www.seryu.es.kr), 연혁 참조.
- 3) 수원시 매산초등학교 홈페이지(www.maesan.es.kr), 연혁 참조.
- 4) 삼일학원, 『삼일학원 팔십년사』, 1983, 56쪽.
- 5) 삼일학원, 『삼일학원 팔십년사』, 1983, 123쪽.
- 6) 삼일학원, 『삼일학원 팔십년사』, 1983, 130쪽.
- 7) 수원시 매항여자중학교 홈페이지(www.maehang.ms.kr), 연혁 참조.
- 8) 수원고등학교, 『수원고 95년사』, 2004, 9쪽.
- 9) 수원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 『수농 50년사』, 1986, 38쪽.
- 10) 수원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 『수농 50년사』, 1986, 146쪽.
- 11)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www.samil-th.or.kr), 연혁 참조.

- 12) 수원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www.sunong.hs.kr), 연혁 참조.
- 13) 수원시 수원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www.suwon-g.hs.kr), 연혁 참조.
- 14) 수원고등학교, 『수원고 95년사』, 2004, 45쪽.
- 15) 수원시 수성고등학교 홈페이지(www.susong.hs.kr), 연혁 참조.
- 16)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 17)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조사자료 참조.
- 18) 정조의 능(건릉)과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응릉)이다.
- 19) 고려·조선 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館舍)이다.
- 20) 시사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21)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292쪽.
- 22) 남창초등학교는 1954년에 남창동에 개교하였다.
- 23) 지동초등학교는 1954년에 지동에서 개교하였다.
- 24) 당시 신흥국민학교 교사였던 이영재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남창국민학교가 가장 치맛바람이 센 학교였다고 한다.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297쪽.
- 25) 수여선은 1930년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여주, 이천 지역의 쌀을 수원을 거쳐 인천항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해방 후 수원-여주 간 철도 수요가 급감하고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1972년에 폐쇄되었다.
- 26) 수인선은 1937년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경기만의 소래, 남동, 군자 연선의 소금을 수송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미국 수송을 위한 수여선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수원-인천 간 도로 교통의 발달로 산업철도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여 1973년 남인천역이 폐쇄되었고, 1977년에는 화물 수송이 정지되었으며, 1995년에는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화를 위하여 철로가 철거되었다. 2012년 6월에 수인선이 전철로 다시 개통되었다.
- 27) 수원시 편, 『수원시 이의동지』, 2003, 315~318쪽.
- 28)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4~5쪽.
- 29) 수원박물관 편,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V, 2010, 75~76쪽.
- 30) 이때 수원 토박이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제1부 2장 '수원 토박이가 말하는 수원 사람의 경계'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 장에서는 부모가 수원에서 출생했거나 부모 대에 이미 수원에서 살아와서 자신이 수원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 31) 김태형이 제공한 『72동우회주소록』(2011년)을 참조하였다.
- 32) 수원고등학교 동문회 홈페이지(www.suwonmh.com), 연혁 참조.
- 33) 재경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www.suwonseoul.org), 연혁 참조.
- 34)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www.sunong.org), 연혁 참조.
- 35)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www.susunggo.co.kr), 연혁 참조.
- 36) 2012년 8월 23일 수원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 37) 『경기신문』, 2012년 12월 1일.
- 38) 72연합동우회 창립발기인인 김태형에게서 받은 주소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소 미상인 졸업자들은 제외한 것이다.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김현미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안승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수원시사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http://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com](http://www.hongee.com)

---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1-0  
ISBN 978-89-87738-60-4(세트)

